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소 강 춘 지음

한 신 문 화 사

한 영 균 선생님 혜존

소 강 춘

머 리 말

이 책은 전북방언의 각 하위 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론적 현상들에 대한 논의를 선행시키고, 그 각각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현상들의 차이에 의하여 각 지역어들의 화자들이 자신의 지역어를 타 지역어와 구분하고 있는 '식별력'의 근거를 제공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자는 방언학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밥마니 무건능 개비그만', '날씨가 추아 죽건네' 등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고향이 남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방언학에 뜻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자기의 고향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몇몇의 어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억양, 강세, 음장, 음운, 문법, 어휘 등과 같은 언어현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의 관심은 이러한 '식별력'의 근간을 이루는 각 지역어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쏠리게 되었고, 그 조그만 성과를 여기에 펼쳐 낸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언어현상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음운론적인 현상에만 국한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제시된 각 지역어들의 차이가 화자들의 '식별력'에 얼마나 근접한 것인지는 의문시 된다. 다만 이 책에서 시도된 노력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과 방법론의 수정을 통하여 화자들의 '식별력'에 근접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려 한다. 여러 선생님들의 엄정한 평가와 질정을 바란다.

이 책은 1988년 12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전북방언의 공시적 언어분화에 관한 연구'의 제목을 바꾸고 찾아보기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학위논문과의 내용상 차이는 없으며 다만 일부 어색한 문장이나 잘못된 용어를 고친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이 작은 책이 나오게 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학부, 석사, 박사과정동안 많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최승범, 최삼룡 선생님, 이 논문의 계획과 구성, 자료의 조사와 정리, 문장의 표현등에 세심한 지도를 해주신 석사, 박사과정의 지도교수이신 최전승 선생님, 국어학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신 최창렬, 전광현, 최태영, 김흥수 선생님, 학부에서부터 공부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홍윤표, 이광호 선생님, 방언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신 이승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고통을 나누어 가진 김중진, 유종국, 이태영 선생님과 컴퓨터를 소개하고 이 논문이 작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김병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병고 속에서도 자식의 성장만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과 회갑을 맞이하신 어머님, 필자의 작업을 위해 외손자를 보아주신 장인, 장모님, 자신의 작업을 뒤로하고 유진, 유석이와 함께 숨을 죽이며 살아야했던 고미혜, 그리고 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촉박한 시간에도 출판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박태근 사장님과 이성종 부장님께 감사드린다.

1989년 5월 일

소 강 춘 씀

차 례

머리말

1. 서 론 ……………………………………………………………………1

1.1. 연구목적 ……………………………………………………………1
1.2. 연구사 ………………………………………………………………4
1.3. 연구방법 ……………………………………………………………7
1.4. 자료의 성격과 조사지점 …………………………………………8
1.5. 논의전개 ……………………………………………………………10

2. 기저음운목록 ……………………………………………………………15
2.1. 음소목록 ……………………………………………………………15
2.1.1. 모음목록 …………………………………………………………15
2.1.2. 자음목록 …………………………………………………………19
2.1.3. 활음목록 …………………………………………………………23
2.1.4. 변별적 자질 ………………………………………………………24
2.2. 운소목록 ……………………………………………………………27
2.2.1. 음장 ………………………………………………………………28
2.2.2. 경계 ………………………………………………………………28

3. 모음조화 …………………………………………………………………31

3.1. 범위와 일반론 ………………………………………………………31
3.2.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33

3.2.1. 어간말 모음이 양성모음인 경우 ……………………………33
3.2.2. 어간말 모음이 음성모음인 경우 ……………………………36
3.2.3. 어간말 모음이 중성모음인 경우 ……………………………44
3.3. 이 방언에서의 중성모음 ……………………………46
3.4. 모음조화 규칙과 조화 기능에 의한 지리적 분포 ……………………………52

4.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 ………55

4.1. 범위와 일반론……………………………55
4.2. 형태소 내부에서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 ……………………………56
4.2.1. y-계 이중모음 ……………………………56
4.2.2. w-계 이중모음……………………………64
4.3. 활음 형성 및 탈락……………………………72
4.3.1. y-형성 ……………………………72
4.3.2. y-탈락 ……………………………82
4.3.3. w-형성 ……………………………90
4.3.4. w-탈락 ……………………………101
4.4. 변별적 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109

5. 모음탈락……………………………115

5.1. 대상과 일반론 ……………………………115
5.2. i-탈락……………………………116
5.3. ə-탈락……………………………137
5.4. ɨ-탈락 ……………………………143
5.5. u-탈락……………………………146
5.6. 변별적 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147

6. 움라우트 ……………………………153

6.1. 대상과 일반론 ……………………………153
6.2.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155

6.2.1. 체언의 경우 …… 155
6.2.2. 용언의 경우 …… 163
6.3.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 169
6.3.1. 체언에 연결된 주격과 계사의 '-이' …… 169
6.3.2. 용언에 연결된 접사 '-이, -히, -리, -기' …… 176
6.3.2.1. 사동·피동 접사 …… 176
6.3.2.2. 명사파생 접사 …… 180
6.3.2.3. 부사파생 접사 …… 183
6.4. 복합어의 경우 …… 186
6.5. 동화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 187

7. 원순모음화 …… 191

7.1. 범위와 일반론 …… 191
7.2.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 …… 193
7.3.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 206
7.4. 동화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 218

8. 구개모음화 …… 221

8.1. 대상과 일반론 …… 221
8.2.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 …… 223
8.3.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 226
8.4. 동화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 227

9. 결 론 …… 229

참고문헌 …… 235
Abstract …… 246
찾아보기 …… 249

1. 서　론

1.1. 연구목적

이 연구는 공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전북방언의 지역적 분화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언어의 공시적인 공간적 분화상은 해당 언어가 수행하여 온 언어 변화의 통시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방언의 지역적 분화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이기문(1972a)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대국어 단계에서 보이던 국어의 지역적 차이가 중세국어 단계뿐만 아니라 근대국어나 현대국어 단계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각각의 하위 지역어들이 독자적인 언어 변화 과정을 수행하여 특정 선행 시기에 보여주고 있던 언어의 지역적 차이가 후행 시기에는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자료를 방언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의 자료가 해당 방언의 선행 시기 언어를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고, 문헌 자료와 구어 자료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없이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를 각 방언의 선행 시기 자료로 사용한다면 중세국어에 선행한 어느 시기에서는 고대국어에서부터 유지되고 있었던 지역적 차이가 없어졌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언어 변화의 지역성과 시간성을 무시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공시적인 방언 자료에서 고형의 어사를 찾아내 국어사의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려는 경우에도 정밀한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방언 연구에서는 각 방언들이 독자적인 발달 과정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인정

해야만 상술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방언 연구에서 각 방언들의 독자성이 인정된다면,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형태소들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데에서 추상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각 지역어 별로 서로 다른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들에 의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Hausmann 1975:ch. 2.2).

이 연구에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통시적으로 실현되었던 음운현상들이 공시적으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도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필자는 가능하면 추상성을 배제하는 입장에서 기저형을 설정하려 하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음운현상들은 공시적으로 생산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여 형태소 구조제약을 설정한다.

형태소 구조제약은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일반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음운규칙들은 그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정 환경의 특정 어사들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해당 환경의 모든 어사들에 적용이 완료되면 자연적으로 해당 환경에서의 생산성이 상실된다. 이와 같이 음운 규칙들은 규칙의 일반화 과정을 통하여 생산성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칙의 적용 영역을 확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약은 주로 전자와 같이 해당 환경의 모든 어사들에 적용되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설정되고, 음운규칙은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환경이 형태소 연결 위치로 확대되어서 공시적으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설정된다.[1] 따라서 제약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어의 형태소 내

1) 형태소 구조제약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 형태소 구조규칙(morpheme structure rules)에서 형태소 구조제약(morpheme structure constraints)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형태소 구조제약은 분절음 구조제약과 분절음 연결제약으로 구분되고(R. Stanley 1967), 형태소 내부에서만 적용된다는 조건에 의하여 형태소 내부에서의 규칙성은 형태소 구조제약으로 처리하고,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의 규칙성은 음운규칙에 의하여 표시되었다(P. Kiparsky 1968). 그러나 형태소 내부에서의 규칙성과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의 규칙성이 동일한 경우(터어키어의 모음조화 현상)가 있어 Shibatani(1973)에서는 형태소 구조제약이 단어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는 표면음성제약과 일치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부에서 설정되고, 예외가 허용되는 지역에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설정된 제약과 관련하여 예외의 실현 양상에 따라 제약의 환경을 정밀화하거나, 그 빈도에 의하여 지역적 차이를 설명한다.

이와는 달리 음운규칙들은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는 음운현상에 한하여 설정된다. 이들은 생성음운론에서 음운과정(phonological process)으로 인식되던 것으로, 동화현상과 모음의 탈락이나 비음절화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동화현상에서는 동화를 일차적으로 지배하는 자질(primary feature)에 의하여 변별적 자질들의 상대적인 위계 관계를 예견할 수 있고, 모음 탈락과 비음절화 과정에서는 동화주(determinant)와 피동화음(focus)을 이루는 모음들의 상대적인 음운론적 강도(phonological strength)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규칙의 적용 양상에서는 동일한 기저형이 설정된 경우에는 규칙의 적용 순서에 따라 하위 지역어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기저형이 서로 달리 설정될 경우에는 규칙의 적용 순서는 시사하는 바가 없다. 또한 생성음운론에서 분류된 규칙의 필수적 적용과 수의적 적용 중 후자의 수의적인 규칙은 발화 유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처리된다.[2)]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필자가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바는 1) 기저

M/SPC를 설정하여 전자는 기저음소가 결합하여 기저형을 설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올바른 표면음성형을 설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Shibatani(1973)은 표면음성제약과 음운규칙이 동일할 경우에는 A/SPC로, 형태소 구조제약과, 표면음성제약, 그리고 음운규칙이 동일할 경우에는 A/M/SPC로 표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된 제약은 주로 형태소 구조제약과 표면음성제약이다. 필자는 가능하면 추상성을 배제한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표면음성형에서 얻어지는 일차적인 정보에 의하여 표면음성제약을 설정하고, 이중모음의 연결제약의 경우는 형태소 구조제약과 표면음성제약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제약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규칙성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Shibatani(1973)의 표면음성제약과 유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2) 생성음운론에서 지적된 수의적인 규칙은 Labov(1972)에서는 구성성분의 유형과 발화 유형의 차이에 따라 이를 정밀화할 수 있는 변인규칙(variable rule)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규칙은 주로 도시방언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필자가 이러한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후일을 기약한다.

형의 차이에 의한 방언차의 기술 방법과 생성방언학자들이 주장하는 동일한 기저형의 설정 및 규칙 순서의 조작에 의한 방언차의 기술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 2) 공시적으로 형태소 구조제약을 기술함에 있어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적용 결과가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음운규칙에서는 (i) 구조기술(SD)에서 동화주의 차이와 (ii) 동화주(determinant)와 피동화음(focus)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동기화의 차이, (iii)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결과를 방영하고 있는 제약의 동기화와 공시적인 음운규칙의 동기화에서 볼 수 있는 상호 관련성의 차이, (iv) 변별적 자질들의 상대적인 위계의 차이, (v)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 등에 의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은 어떠한 분포상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려 한다.

1.2. 연구사

방언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각의 하위 지역어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연구를 기초로 언어의 제 층위에 대한 광역의 언어지도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의 방언학은 일반언어학 이론의 발달과 평행하게 역사주의적인 방법, 생성방언학적인 방법, 그리고 사회언어학적인 방법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어느 한 이론에 대한 국어의 전반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했고, 서구 이론의 도입에 따라 일부 지역어나 일부 방언에 치우친 연구만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전체에 대한 방언 연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최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적인 방언조사를 실시했고, 비록 일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987년에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방언자료집이 출판되어 방언학 연구의 장을 넓히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에서의 방언 연구는 서구 언어학 이론의 발달 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196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방언지리학에서는 원자론적으로 각각의 어사들이 보이고 있는 지역적 분화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해당 어사들

의 방언형을 진열지도(display maps)로 표시했고, 이러한 진열지도에 의하여 설정된 각 어사들의 등어선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경우(등어선 속)에는 하나의 하위 방언구획을 설정하고 있다.[3] 이러한 방법은 각 어휘들의 분화상을 표시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각각의 어휘들에 반영된 체계적인 차이를 표시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Weinreich(1954)에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각 방언의 체계적인 대응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복수체계(diasystem)를 제시하고 있다[4](최명옥 1982). 복수체계에 의한 방언의 비교 방법은, 비교되는 모음체계의 대응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일한 모음이 비교되는 다른 방언에서 서로 다른 어휘적 대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Moulton(1960)에서는 이러한 어휘적 대응을 표시하기 위한 복수체계의 표시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전혀 다른 언어에 속한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음운체계의 유사성과 동일 언어의 하위 방언들에서 나타나는 음운체계의 상이성을 구별할 장치가 없어 문제가 된다.

이와는 달리 1970년대에서부터 국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형태음소론적인 음운현상에 대한 생성음운론적 방언 연구는 각 지역어들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통합적인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5]

3) 국어에서 이러한 연구는 해방 전 일본인 학자 오꾸라(小倉進平)가 수행한 역사주의적인 방법과 원자론적인 방법에서 출발했고, (小倉進平 1924, 1929, 1944) 보다 자세한 조사가 최학근(1962, 1978), 현평효(1962, 1978), 김형규(1974), 이돈주(1978) 등에서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론적인 방언 조사와 연구 방법은 기능적인 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 고노(河野六郎 1945)에서 이미 비판되기 시작하여, 1950~60년대 들어서는 개별 방언의 음소체계를 기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이돈주 1969, 이병근 1969 등).

4) diasystem의 번역은 이상규 외(1986)에서 'dia'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중체계로 번역하고 있으나, 2개의 체계 이상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복수'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이다.

5) 이러한 연구 태도는 이익섭(1972), 이병근(1973), 최명옥(1976), 이승재(1980), 최태영(1981), 소강춘(198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 지역어들의 독자적인 체계 정립과 생성음운론에 의한 규칙의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이기문(1977), 최명옥(1982), 박창원(1983), 이승재(1983) 등에서는 각 지역어들의 내적 재구를 통하여 선행 시기의 음운현상을 재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생성방언학은 생성음운론의 기본 부문에 대한 연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성음운론의 기본 부문인 변별적 자질들에 의하여 표시된 기저 어휘 단위들의 집합과 구조주의의 음소배합론(phonotatics)과 유사한 형태소 구조조건들의 집합, 기저형에서 표면음성형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적용되는 음운규칙들의 집합, 그리고 실제 발화에서 어감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음성규칙들의 집합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만 각 지역어들의 분화상을 공시·통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지역어들의 기저형들이 다양한 언어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고, 각각의 음운규칙들은 규칙의 경제성과 해당 지역어들의 음운론 기술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도출과정에서는 규칙 적용의 순서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규칙 순서는 통시적인 음운 변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각 규칙들은 규칙의 예외 허용 여부에 따라 필수적인 규칙과 수의적인 규칙으로 구분된다 (Francis 1983 : 181~2). 이처럼 생성방언학은 다양한 음운론적 측면이 고려되기 때문에 기왕의 연구 방법보다는 진 일보한 이론이다. 그런데 생성방언학적 연구는 일차적으로 동일한 기저형과 음운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동일성의 가설(identity hypothesis)이 전제되어야 한다(W. O'Neil 1968, Bailey 1972). 그러나 이 가설은 비교되는 방언들에서 동일한 기저형을 설정하기 위해 많은 추상성이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것이 되고 (Hausmann 1975 : ch. 2.2), 서로 다른 방언들에 항상 동일한 음운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너무나 강력한 주장이 된다. 이처럼 기저형과 음운 규칙의 동일성에 대한 가설이 무너진다면 생성방언학에 의한 하위 지역어의 구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기왕의 방언론에 의한 하위 지역어들의 비교·구분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국어에서는 그 연구 업적면에서도 미흡함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전북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수행된 방언의 비교에 관한 업적을 보면, 강윤호(1961)의 공시적인 음운현상에 의한 지리적 분포와 이병근(1973)의 이중모음화에 의한 동해안방언의 분화,

최명옥(1980)에서 시도된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의한 방언의 분화, 이익섭(1981), 이기갑(1986) 등의 어휘에 중심을 둔 방언의 분화 등과 곽충구(1983)의 '왕겨'에 의한 지리적 분포, 이승재(1983)의 방언의 내적 재구형에 의한 방언의 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층위에 국한된 것이거나 아니면 좁은 지역에서의 방언 분화(이익섭(1981), 이기갑(1986) 등은 제외)상을 보이고 있어 광역의 체계적인 방언의 비교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이 방언권에서의 방언 연구는 각 지역어들에 대한 음운체계의 정립이나, 음운규칙의 기술에 치우쳐(전광현 1977b, 1981, 최태영 1981, 소강춘 1983, 권병로 1987, 김규남 1987 등) 방언의 비교는 전광현(1983)에서 시도된 접촉지역어에서의 음운체계의 비교와 이승재(1987)에서 시도된 대강의 방언구획 설정만이 있을 뿐이고, 음운현상에 의한 방언의 분화상에 관한 연구는 졸고(1988a, 1988b)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1.3. 연구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국어 방언학에서의 방언 비교는 어휘에 의한 광역의 하위 지역의 구분이나 음운체계의 대응 관계에 의한 좁은 지역에서의 방언구획 설정 등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음운현상 전체를 통한 광역의 방언 구획은 설정되지 못한 실정이고, 이러한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생성방언학적인 방언 비교에서도 동일성의 가설이 폐기된다면 각 지역어들에 대한 생성음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는 방언의 비교·연구가 어렵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1) 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었던 음운규칙들이 해당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사들에 모두 적용되었든지 아니든지에 무관하게,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형태소들의 표면음성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구체적(concreteness)인 입장에 서서 생성방언학의 동일성

의 가설을 부정하고, 기저형의 차이에 의하여 하위 지역어들의 분화상을 논의한다. 2) 통시적인 규칙에 투명(transparent)한 어사들만이 실현되는 지역어에서는 공시적인 표면음성형과 관련하여 low level의 제약(이 경우는 표면음성제약이 된다)을 설정하고, 규칙에 불투명(opaque)한 어사들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어에서는 불투명 어사들의 환경을 정밀화하여 그 조건에 의한 하위 지역어들의 분화상을 논의한다. 3) 공시적으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음운규칙들에 의한 하위 지역어들의 분화상은 (i) 동화주와 피동화음의 차이에 의하여 음운규칙의 환경을 지역어 별로 정밀화하고, (ii) 동화현상의 경우에서는 일차적으로 동화를 지배하는 자질들에 의하여 변별적 자질들의 상대적인 위계를 정립하고, (iii) 모음의 탈락이나 활음 형성 및 탈락 규칙에서는 이 규칙의 구조변화(SC)를 이루는 각 음운들을 통하여 음운론적 강도(phonological strength)의 위계를 설정하고, (iv) 이 강도가 울림도나 모음의 높이(vowel height)에 의한 다른 측면의 음운론적 강도와 비교하여 각 규칙들의 동기화에 타당성을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 등을 통하여 논의된다. 또한 4) 이러한 방법이 기왕의 역사적인 방언 비교와 구조방언학적 방언 비교 그리고 생성방언학적 방언 비교 방법보다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1.4. 자료의 성격과 조사지점

이 연구는 공시적으로 전북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현상을 통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을 구분하려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분포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언어의 분화가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은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다. 즉 언어 변화의 요인을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연령, 성별, 사회계층, 종족집단 등이 독립 변인(independant variable)으로 기능하여 한 사회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언어 변화가 확산되기도 하고, 어

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어휘들에서 다른 어휘들로 어휘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어휘확산(lexical diffusion)에 따른 빈도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언어적 환경에서 실현되던 언어 변화가 다른 언어적 환경으로 그 변화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Chambers and Trudgill 1980). 이처럼 언어 변화의 확산 과정은 지역적인 면 이외에 사회적인 면, 어휘적인 면, 언어적인 면 등이 시간적인 면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지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적 요인들 중에서 언어 변화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언권의 화자들 중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그들의 고향에서 정착하고 있는 노년층(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6] 이는 이 연구의 논의가 보다 보수적인 계층의 언어를 통하여 하위 지역어를 구분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일 뿐, 이들의 언어가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에서 실현되고 있는 언어를 대표하기 때문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대표성에 관련하여 이 방언의 자료를 선정한다면, 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있는 도시 지역의 중년이나 청년층의 언어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보자의 선정은 Labov에 의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언어학 중 도시방언학의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의 논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필자가 현지 조사한 전라북도 각 군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전라북도 방언 자료집과 국어문학(22~4)의 자료가 보조 자료로 사용되었다.

---

6) 일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방언을 구사하고 있는 제보자들을 Chambers and Trudgill(1980)에서는 Nonmobile, Older, Rural, Male의 두음을 따서 NORMs로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NOR의 경우는 이와 동일하지만 M의 경우는 Female의 경우도 제보자로 선정했다. 물론 사회언어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독립된 변인으로 존재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동일 지역어에서 남녀 모두를 선택하여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과정에서 여자의 경우가 남자의 경우보다 더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조사기간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지 점	조사일시	제보자	비 고
부안군 산내면	81. 10. 19-21	김 순 태(72)	필자의 현지조사
고창군 해리면	82. 11. 9-11	서 경 원(79)	
옥구군 개정면	84. 3. 7-10	이 우 로(81)	
옥구군 서수면	86. 10. 8-11	이 덕 례(64)	
김제군 청하면	84. 8. 5-11	최 병 식(66)	
익산군 낭산면	86. 12. 21-25	김 정 진(67)	
완주군 구이면	86. 12. 10-14	이 필 재(69)	
무주군 무풍면	86. 8. 1-15	곽 윤 섭(70)	
순창군 구림면	87. 2. 3- 7	최 정 현(71)	
임실군 운암면	87. 2. 10-13	박 경 수(66)	
남원군 운봉면	83. 9. 15-17	신 호 철(66)	
남원군 보절면	87. 12. 15-25	소 종 호(65)	
남원군 송동면	85. 9. 3-15	김 세 균(67)	
장수군 계남면	85. 8. 4- 9	임 계 원(72)	
진안군 부귀면	85. 8. 21-23	박소아지(72)	전북대 국문과
정읍군 태인면	84. 9. 27-29	시 순 동(65)	조사 테이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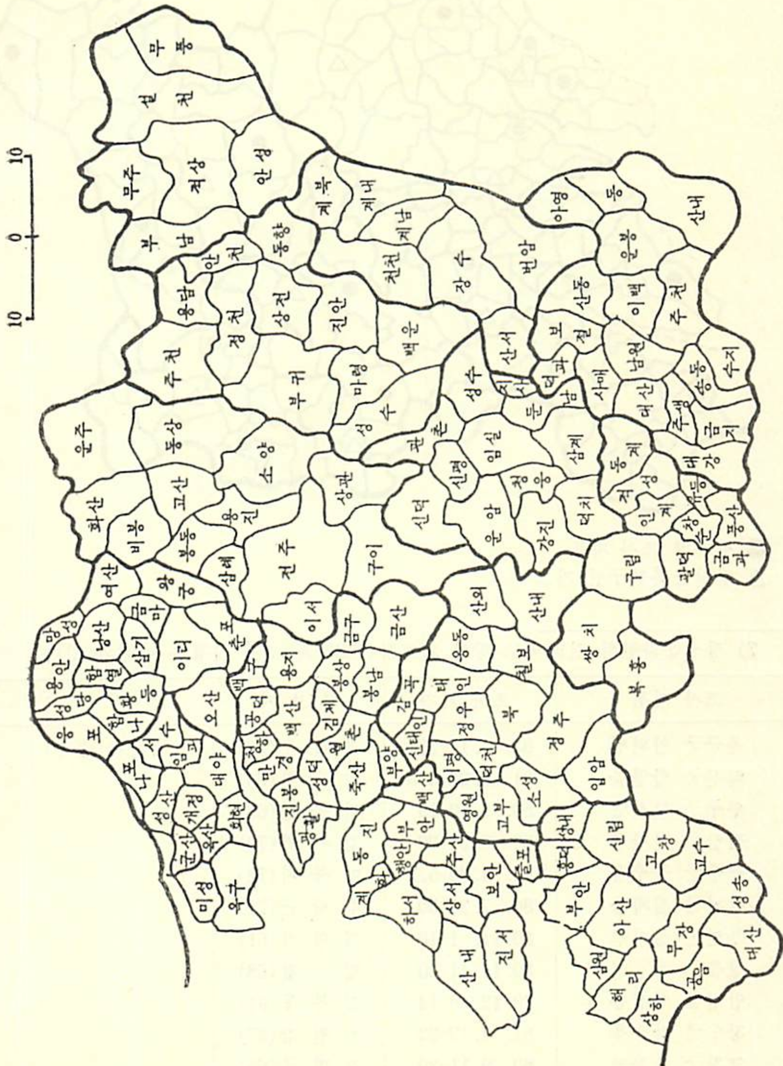
1.5. 논의 전개

제 2 장에서는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년층 화자들의 언어 자료에서 의미변별을 야기시키는 최소대립어를 통하여 이 방언의 음운론 기술에 필요한 기저 음소목록과 운소목록을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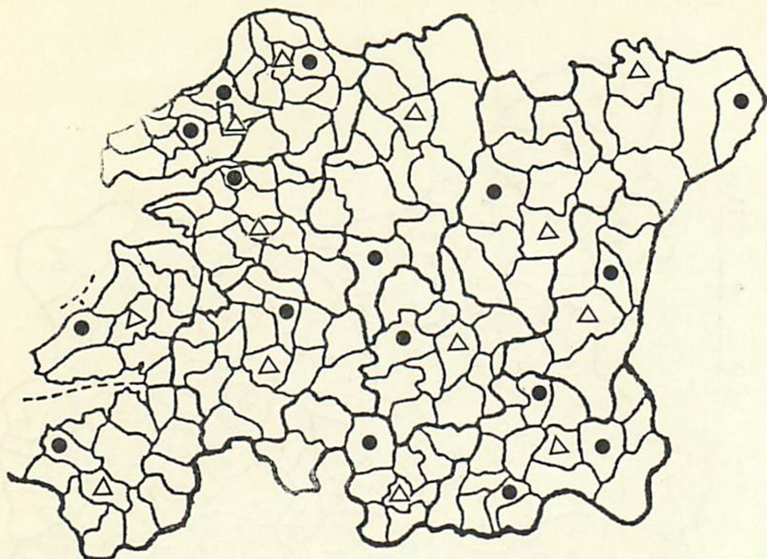
생성음운론에서의 각 음운들은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이고, 각 음운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질명세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변별적 자질의 설정은 음운규칙을 기술하는 데 간결성과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정된 변별적 자질들은 음운체계와 관련하여 상호 예언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분절음 구조제약을 설정할 수 있고 그들의 상대적인 위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 3 장에서는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부동사형 어미(-아/어)에서 실현되

지도 1) 전라북도의 행정구역



지도 2) 조사 지점 및 사용 자료[7]



● 필자의 조사 자료
△ 정신문화연구원 자료

7) 정신문화원의 전라북도 방언 자료집(1987)의 조사 지점은 아래와 같다.

조사 지점	조사 기간	제 보 자	비 고
옥구군 임피면	83. 1.11-20	유 길 수(66)	조사자(이승재)
익산군 함열읍	81. 2.25-3.6	양 수 철(60)	
완주군 고산면	80. 8.10-19	이 동 환(68)	
진안군 진안읍	80. 8.20-29	김 변 귀(70)	
무주군 무주읍	81. 4.23-5.2	이 동 지(72)	
김제군 김제읍	80. 7.21-30	김 락 근(71)	
부안군 상서면	80.11. 1-10	김 형 석(61)	
정읍군 북 면	80.11.11-20	김 철(68)	
임실군 임실읍	80.12. 5-14	김 복 동(61)	
장수군 장수읍	81. 4.13-22	이 원 갑(67)	
고창군 무장면	80. 9.11-20	김 병 국(65)	
순창군 순창읍	80. 9. 1-10	제 재 남(72)	
남원군 이백면	80.12.15-24	성 규 남(73)	

고 있는 모음조화 현상을 통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의 지역적 분포를 제시하려 한다. 이는 각 음운들이 모음체계 내에서 어떠한 조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각 지역어에 따라 모음조화 규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통하여 검증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grave] 자질과 [labial] 자질의 위계 관계가 검증된다.

제 4 장에서는 이중모음을 활음과 단모음의 연속체로 파악하고, 이들이 결합되어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에는 음성학적으로 예언이 가능한 체계적인 빈칸(systematic gap)과 음성학적으로 예언이 불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우연한 빈칸(accidental gap)이 지역어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중모음의 공시적인 분포제약이 기술된다. 이러한 분포제약은 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의 형태소 내부에서 기능하게 되어 공시적으로 각 지역어들에서 실현되는 이중모음들의 차이를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여 형태소 구조제약을 설정한다. 이와는 달리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는 모음이 충돌(hiatus)될 경우에 이러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활음 형성 및 탈락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바, 이를 정밀화하여 활음 형성 및 탈락 규칙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이중모음의 분포제약과 형태소 구조제약, 그리고 활음 형성 및 탈락 규칙들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들 모두를 지배하는 동기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특히 활음 형성 및 탈락 규칙에서는 규칙의 구조변화(SC)를 이루는 모음들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각 모음들의 상대적인 음운론적 강도의 위계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제약과 규칙의 지역적 차이 뿐만 아니라 음운체계와 관련하여 각 모음들이 유지하고 있는 상대적 음운론적 강도의 차이가 활음 형성 및 탈락 규칙을 설정하는 데에 얼마나 타당한 동기화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도 더불어 논의 된다.

제 5 장에서는 공시적으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능하고 있는 /i, ə, ɨ, u/의 탈락 현상이 논의되는데, 이들이 어떠한 모음들과의 결합에서 주로 탈락하고 있는가 하는 양상에 따라 그들 상호간

의 음운론적인 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탈락 현상들을 지배하는 자질들의 상대적인 위계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위계 관계가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증 된다.

제 6 장에서는 형태소 내부에 반영된 움라우트의 통시적인 적용 양상을 통하여 형태소 구조제약을 설정하고,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는 공시적으로 활발히 실현되고 있는 움라우트 현상에 의하여 음운 규칙을 설정한다. 전자의 형태소 구조제약은 통시적으로 활발히 실현되었던 움라우트 규칙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각 어사들의 공시적인 표면음성형에 의하여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확산과정을 파악할 수 있음에 비하여, 후자의 음운규칙은 공시적인 움라우트의 실현 양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움라우트 규칙의 공시적 분포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면 이 방언의 분화상을 보다 정확히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grave]에 의한 모음체계의 대립 관계도 언급되어 진다.

제 7 장에서는 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진행된 원순모음화 현상을 'i>u', 'ʌ>o', 'ə>u'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공시적으로는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i→u'의 원순모음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labial] 자질의 설정 당위성이 검증될 것이다.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었던 원순모음화 현상의 적용 양상을 통하여 이 방언의 선행 시기의 모음체계가 중앙어의 모음체계와는 달리 기술되어야 함도 지적될 것이다.

제 8 장에서는 통시적으로 치찰음화라 칭해지던 현상을 통하여 공시적으로 이들이 치찰음화로 칭해질 수 없음과 이 현상을 지배하는 [palatal] 자질이 [high]와 [grave] 자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이 현상의 지배 자질(primary feature)로 기능하고 있는 [grave] 자질의 설정 당위성이 논의될 것이다.

제 9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삼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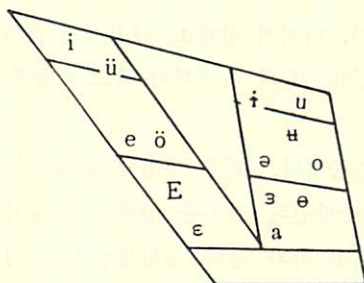
2. 기저음운목록[8)]

2.1. 음소목록

2.1.1. 모음목록

이 방언권의 하위지역어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표면음성형들은 아래와 같다.

(2)



[ɪ]는 [i]와 [e]의 중간음이고, [ɨ]는 [i]와 [ə]의 중간음이다. 전자는 [cɪ:bi] '제비', [mɪgida] '먹이다' 등과 같이 /e/ 모음이 /i/로 상승되어 실현

8) 이 연구는 생성음운론적인 방법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논의하는 음소 대립에 의한 기저음운의 설정은 합당한 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장에서 설정한 기저음운들은 후술할 음운규칙들이 적용되는 기저형의 설정을 통하여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들의 양상을 먼저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이 장을 기술한다.

되는 경우에 주로 발음되고, 후자는 [ɪ:pt'a] '없다', [nɪ:l] '널(板)', [sɪ:mal] '서말' 등과 같이 /ə/가 /ɨ/로 상승되어 실현되는 경우에 주로 발음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모음 상승 이전의 /e/와 /ə/의 변이음(allophone)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모음 상승 이후의 /i/와 /ɨ/의 변이음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면 최전승(1986 : 84~7)에 설정된 체계적인 모음 상승 규칙의 출력부가 어휘화되어 공시적으로는 /i/와 /ɨ/의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ɪ]와 [ɪ]를 이들의 변이음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와는 달리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면 최태영(1981 : 123~7)과 같이 /e/와 /ə/의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공시적인 모음 상승 규칙의 출력부를 이루는 /i/와 /ɨ/의 변이음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이 문제는 통시적인 측면과 공시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교체를 보이지 않고 실현되는 표면음성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concreteness)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통시적인 모음 상승 규칙의 적용을 받아서 실현되는 어사들은 그 표면음성형이 기저형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형태소 내부에서 [ɪ]와 [ɪ]로 실현되는 어사들은 그 기저형이 /i/와 /ɨ/의 유지형이 되고 이들은 /i/와 /ɨ/의 변이음으로 처리된다.[9]

[E]는 [e]와 [ɛ]의 중간음이다. [E]는 방언에 따라 기저음운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동남방언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남방언에 대한 김영송(1963)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남방언권의 대부분의 지역(비록 이 방언권의 서부에서는 구분의 정도가 강하기는 하지만)에서는 이들의 구분이 곤란하여 /E/를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명옥(1982)에서도 /e/와 /ɛ/가 중화되어 /E/만이 독립된 음운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서남방언에서는 하위지역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이승

9)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은 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었던 음운규칙이 공시적으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려 하기 때문에, 최태영(1981)에서 설정된 형태소 내부에서의 모음 상승 규칙은 형태소 구조제약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의 논의에서는 배제된다.

재(1980)에서는 전남방언권의 북동부에 위치한 구례지역어에서 /e/와 /ɛ/를 독립된 음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돈주(1969, 1978)에서는 전남방언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E/만을 독립된 음운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세관(1983)에서도 전남의 서북부 방언에서 /E/만의 설정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는 전북방언에까지 연결되어 전북방언권의 남서 지역에 위치한 고창지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E/가 설정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e/와 /ɛ/가 독립된 음운으로 설정된다(전광현 1977b, 최태영 1981, 소강춘 1983, 이기동 1983). 따라서 /E/의 기저음운 설정에 따른 모음체계의 차이에 의하여 전남방언(전북방언권의 서남 지역에 해당하는 고창의 남부 지역인 무장, 공음, 대산, 고수면 등 포함)과 전북방언(전남방언권의 북동 지역 포함)이 구분될 수 있다.

[ɜ]는 [p'ɜ:lgətʰa] '빨갛다', [k'ɜ:mətʰa] '꺼멓다' 등처럼 /a/ 유지형을 강조하는 경우에 가끔 들을 수 있는 음으로 /ə/의 변이음이다.

[ʉ], [ɵ]는 [u]와 [o]가 원순성이 약화되고 조음 위치가 약간 낮은 위치에서 실현되는 음이다. 따라서 이들은 /u/와 /o/의 변이음으로 처리된다.

[ü]와 [ö]는 근대국어까지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던 것으로, /e, ɛ/의 단모음화 이후에 단모음화가 실현되어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설정될 수 있는 모음들이다. 그러나 서울말의 어두에서 실현될 때는 [wi]와 [we]로 실현되고 치음이나 구개음 아래에서는 [ü]나 [ö]로 실현되고 있다(이기문 1972a : 228). 따라서 이들을 기저의 단모음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전국적인 언급은 Ogura(1940)에서 시도되었다. Ogura 교수는 국어의 대부분의 하위방언에서 [ö]의 실현 예들을 채록하고 있지만, 남부방언에 속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설정(demarcation)을 위한 조사에서는 경상도권의 남해, 하동, 함양, 거창에서 [we~e~ɛ]를 채록하고, 전라도권의 여수, 순천, 구례, 남원, 운봉, 장수, 무주 등에서 [ö]를 채록하고 있다. 이는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설정을 위하여 조사한 영주, 예천, 문경, 상주, 단양, 청주, 영동 등의 지역에서 [i~wi~e~ɛ~wɛ] 등의 교체형이 실현

됨과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설정을 위하여 조사한 무주, 금산, 전주, 영동, 공주, 강경, 서천 등의 지역에서 [ö]형이 실현됨과 관련하여 서남방언에서는 /ö/를 기저의 단모음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곽충구(1987)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방언 자료에서도 /ö/가 단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기저의 단모음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도수희(1977)에서도 충남방언의 단모음으로 /ö/를 설정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 중심의 중부방언에서는 /ö/가 [we]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최태영 1981 : 17), 충청·전라방언에서는 단모음 [ö]로의 실현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10)]

Ogura(1940)의 연구에서 'ㅟ'는 단모음 [ü] 대신에 [wi~i]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이는 이기문(1972 : 22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치음과 구개음 아래의 환경에서도 [wi~i]의 교체형들만이 실현되고 있어 /ö/보다 단모음화의 시기가 후대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곽충구(1987)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시적인 충북방언에서도 단모음 /ü/의 실현이 단모음 /ö/의 실현보다 약함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단모음 /ü/의 실현 지역이 단모음 /ö/의 실현 지역과 일치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방언권에서의 단모음 /ü/의 실현은 5장에서 지적되겠지만 이 방언권의 북서 지역을 제외하고는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이상의 음성형들이 이 방언권에서 의미의 분화를 야기시키는 최소대짝(minimal pairs)을 이루는 예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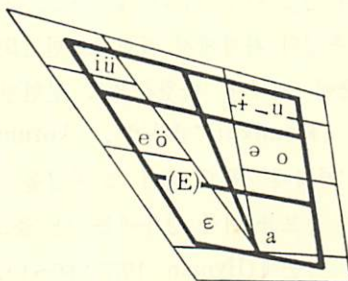
i : e—[t^{h}i] '티' : [t^{h}e] '테',	[piňik'E] '空' : [peňik'E] '斬'
e : ɛ—[t'e] '群' : [t'ɛ] '時',	[pet'a] '斬' : [pɛt'a] '殆'
ɛ : a—[cɛ] '嶺' : [ca] '尺',	[k'ɛt'a] '깼다' : [k'at'a] '깠다'
ü : ö—[tü] '後' : [tö] '升',	[tügo] '장기두고' : [tögo] '되고'
i : ü—[ki] '旗' : [kü] '耳'	
ɨ : ə—[t^{h}ɨl] '틀' : [t^{h}əl] '毛',	[t^{h}ɨlda] '틀다' : [t^{h}əlda] '털다'
ɨ : u—[k'ɨl] '연장' : [k'ul] '蜜',	[s'ɨnda] '書' : [s'unda] '죽을 쑨다'

10) 전광현(1977b, 1981), 이승재(1980), 최태영(1981), 소강춘(1983) 등등의 전라방언에 대한 일련의 연구에서 이들은 단모음으로 처리되고 있다.

u : o—[pul]'火' : [pol]'볼', [kupt'a]'曲' : [kopt'a]'麗'
e : ö—[ce]'겨' : [cö]'罪'
i : ɨ—[irim]'名' : [ɨrim]'으름'
ə : a—[tʰəl]'毛' : [tʰal]'假面', [kəŋgᴇ]'懸' : [kaŋgᴇ]'耕'
ö : o—[sö]'鐵' : [so]'牛', [könda]'괸다' : [konda]'곤다'
ö : ɛ—[tö]'升' : [tɛ]'竹', [pöda]'滿' : [pɛda]'濕'
ɨ : ü—[kɨ]'그' : [kü]'耳', [sida]'立' : [süda]'休'
ö : ə—[cö]'罪' : [cə]'저' [söňi]'鐵' : [səňi]'셋이'
ə : e—[cə]'저' : [ce]'제', [səsə]'立' : [sesə]'數'
o : a—[sol]'松' : [sal]'肉', [kolda]'코를 골다' : [kalda]'耕'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이 방언권에서는/i, e, ɛ, ü, ö, ɨ, ə, a, u, o/ 등과 같이 10개의 단모음이 설정된다. 그러나 고창의 일부 지역에서는 'e : ɛ'의 대립이 중화되어 /i, ᴇ, ü, ö, ɨ, ə, a, u, o/의 9개가 단모음으로 설정된다. 이를 모음사각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4)[11]



2.1.2. 자음목록

이 방언권에서 사용되는 자음들의 표면음성형은 아래와 같다.

(5)	pʰ	tʰ			cʰ	kʰ
	p'	t'	s'	š'	c'	k'

11) (E)의 괄호는 고창의 남부 지역에서 /e/와 /ɛ/가 합류되어 실현되는 기저의 단모음 /E/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p	t	s	š	c	k
p̚	t̚				k̚
b	d			ǰ	g
ß					ɣ
m	n		ň		ŋ
	n				ŋ
	r				
	l		ʎ		

양순음(bilabial) 중에서 [b]는 유성음 사이에서만 실현되고 있어 어두나 무성음 사이에서 실현되는 [p]와 상보적 분포(complimentary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으며, [ß]는 [b]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현되지만 [kwa:ßu] '과부', [na:ßu] '나비', [t'ußu] '두부' 등과 같이 주로 /u/를 후행시키면서 입술의 완전한 폐쇄가 일어나지 않는 양순 마찰음으로 실현된다(Saussure 1916, 1959)[12]

치조음의 [d], 치찰음의 [ǰ], 연구개음의 [g] 등도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된다. 연구개음의 [ɣ]도 유성의 환경에서 실현되지만 [ß]와 같이 완전한 폐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 마찰음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ɣ]는 [k'amaɣuyə] '까마귀여', [k'amböɣi] '깜부기', [koɣumat'ᴇ] '고구마 대', [meɣo] '메고', [cəňəɣe] '저녁에' 등과 같이 그 환경을 예견할 수 없다.

유사한 음성들이 상보적 분포를 이룰 경우에는 한 음소의 변이음(allophone)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Hyman 1975 : 60~6), [p, b, ß]는 /p/로, [t, d]는 /t/로, [c, ǰ]는 /c/로, [k, g, ɣ]는 /k/로 대표되는 음운의 변이음으로 처리된다.

[p̚, t̚, k̚] 등은 음절말에서 중화된 내파음을 표시한 것으로, 순음계열은 [p̚]로, 치조음과 경구개음 계열은 [t̚]로, 연구개음 계열은 [k̚]로 중화된다.

[š', š, ň, ʎ] 등은 /i/나 /y/, 그리고 /u/앞에서 /s', s, n, r/등이 구개음

---

12) 여기서 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tᴇrißi] '다리미', [oraßani] '오빠' 등의 예들처럼 /u/를 후행시키지 않는 환경에서도 실현되는 몇 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화된 음이다. 따라서 이들은 /s', s, n, r/ 등의 변이음으로 처리된다.

[^{ŋ}]과 [$^{\check{n}}$]은 [ŋ]과 [ň]이 약화된 음으로, [kama$^{\check{n}}$i]'가마니', [a$^{\check{n}}$ida]'아니다', [p'ure^{ŋ}i]'뿌리', [mot^{h}ü^{ŋ}i]'모퉁이'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이들은 구강으로 약한 공기의 흐름을 허용하는 소리이다.

[r]과 [l]은 유음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취급을 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자음으로 처리되던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 자음과 함께 다룬다. [r]은 모음 사이에서 실현되는 설탄음(flap)이고, [l]은 음절말이나 자음 앞에서 실현되는 설측음(lateral)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또한 /r/이 연속될 경우에는 항상 [ll]로 실현되는데 이들은 구개음으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다(이승재 1980 : 16).

이상의 자음들이 이 방언권에서 수행하는 변별적 기능을 보기 위하여 최소대립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p^h : p'—[p^{h}ul]'草' : [p'ul]'角',	[p^{h}alda]'賣' : [p'alda]'洗'
p' : p —[p'e]'骨' : [pe]'布',	[p'urida]'散' : [purida]'부리다'
p : p^h—[pi]'雨' : [p^{h}i]'血',	[pigo]'空' : [p^{h}igo]'開花'
p : m—[pom]'春' : [mom]'身',	[purəsə]'불리어서' : [murəsə]'問'
t^h : t'—[t^{h}e]'테' : [t'e]'떼'	[t^{h}ɛuda]'焚' : [t'ɛuda]'떼우다'
t' : t —[t'ɛ]'時' : [tɛ]'竹',	[t'arida]'附' : [tarida]'異'
t : t^h—[tam]'牆' : [t^{h}am]'貪',	[təlda]'減' : [t^{h}əlda]'털다'
t : n —[tɛ]'竹' : [nɛ]'냄새',	[təlgo]'減' : [nəlgo]'널고'
t : r —[kudeŋi]'穴' : [kureŋi]'巳',	[kədə]'撤' : [kərə]'懸'
n : l —[son]'手' : [sol]'松',	[kanda]'去' : [kalda]'耕'
s' : s—[s'al]'米' : [sal]'肉',	[s'ago]'싸고' : [sago]'買'
c^h : c'—[c^{h}ok]'燭' : [c'ok]'쪽',	[c^{h}ago]'차고' : [c'ago]'織'
c' : c —[c'ok]'쪽' : [cok]'足',	[c'əlda]'織' : [cəlda]'다리 절다'
c : c^h—[caŋši]'장사' : [c^{h}aŋši]'腸',	[cuəsə]'採' : [c^{h}uəsə]'寒'
k^h : k'—[k^{h}al]'刀' : [k'al]'꼴',	[k^{h}ɛnda]'採' : [k'ɛnda]'破'
k' : k —[k'il]'연장' : [kɨl]'書',	[k'ago]'孵' : [kago]'去'
k : k^h—[ki]'旗' : [k^{h}i]'身長',	[kigo]'기다' : [k^{h}igo]'點'
k : ŋ —[cək]'煎' : [cəŋ]'연장'	

(6)의 예들은 체언과 용언으로 기술 되었는데, 이들에는 몇 가지 분포상

의 제약이 존재한다.

[r]과 [ŋ]은 어두에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중과 어말에서만 그 대립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ŋ]은 형태론적으로 용언의 어간말음으로는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용언에서 [k] : [ŋ]의 대립 예가 제시되지 않았다.

[r]과 [l]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음성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언중들이 심리적으로 동일한 음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 음운으로 처리할 수 있다(S-G. Kim 1976 : 118). 따라서 [r]과 [l] 중에서 어느 것을 기저음운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r/를 기저음운으로 설정한다.[13]

또한 /p^h, p′, p/ : /t^h, t′, t/ : /c^h, c′, c/ : /k^h, k′, k/등은 각각 무표항(unmarked correlative series)의 /p, t, c, k/등과 유기성(aspiration)에 의한 유표항(marked correlative series)인 /p^h, t^h, c^h, k^h/, 긴장성(tensity)에 의한 유표항인 /p′, t′, c′, k′/등에 의하여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s/와 /s′/는 유기성에 의한 대립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태영(198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s/의 유기음 [s^h]의 실현은 [s′]와의 변별력을 결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이 방언권의 자음목록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7)

p^h	t^h		c^h	k^h
p′	t′	s′	c′	k′
p	t	s	c	k
m	n			ŋ
		r		

13) 'ㄹ'의 기저형 설정 문제는 본고와 같이 /r/을 설정하는 경우와 /l/을 설정하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견해는 S-G. Kim(1976), 이승재(1980), 최태영(1981)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견해는 Young-Key Kim(1974), 이병건(1976)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 전자의 견해를 취함은 졸고(1983 : fn. 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G. Kim(1976)의 Y-K. Kim(1974)에 대한 비판 중 'l→r'의 자음 약화 현상보다는 'r→l'의 중화 현상에 대한 동기화가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술한 논문 참조).

2.1.3. 활음목록

활음(glides)이란 반모음(semivowels)과 후두과도음(laryngeal glides)으로 구분된다(Hyman 1975). 따라서 이 방언권에서 실현되는 활음은 아래와 같다.

(8)

자질\음운	y	w	h
grave	−	+	+
high	+	+	−

(8)에서 [y]와 [w]는 반모음으로 처리되던 것으로 각각 [i]와 [u]의 조음 위치에서 출발하여 전자는 혀가 다른 모음의 조음 위치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활음이고, 후자는 다른 모음의 조음 위치와 입술의 모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조음되는 활음이다. 이처럼 활음을 기저음운으로 설정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단모음과의 결합에 의하여 이중모음의 연결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을 기저음운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들의 연결에서 예견되는 잉여성에 의하여 형태소 구조제약도 정립할 수 있게 되며, 후술할 활음 형성 및 탈락에 의한 음운 변동의 과정을 합리적이고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저음운으로의 이중모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이 장에서 설정된 활음과 단모음의 연결에 의하여 이중모음을 유도한다(이병건 1976 : 15).[14]

이와는 달리 기왕에 자음으로 처리하던 /h/를 여기서는 활음으로 분류한다(Chomsky & Halle 1968, Schane 1973, Hyman 1975, 이승재 1980, 소강춘 1983). 이는 하향성 이중모음이 이 방언권에 존재하지 않고, [h]가 표면음성형에서 음절말음으로 실현되지도 못하며, 졸고(1983)에서 논의된 바와

14) 이들의 연결제약과 음운론적 행동에 대해서는 후술할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 참조.

같이 격음화와 h-탈락 규칙을 기술하는 데 경제적이기 때문인 바, 이 연구에서는 후술할 활음 형성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될 것이다.

/h/의 변이음으로는 [h, ɦ, Φ ç, x] 등이 실현되고 있는데 [h]는 어두에서 실현되고,[15] [ɦ]는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된다. [Φ]는 [ΦulʎuŋɦədA] '훌륭하다', [Φultʰəra] '훑어라'와 같이 /u/를 후행시키는 경우에 종종 실현되고, [ç]는 [çincʰaŋ] '흰자', [çianɦəda] '희한하다'와 같이 /i/를 후행시키는 경우에 실현된다. [x]는 [xɨk] '흙'에서처럼 유기성이 강하게 실현되는 경우에 실현되는 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h/와 음성상의 유사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경에서도 상호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h/의 변이음들로 처리된다.

2.1.4. 변별적 자질

생성음운론의 기본 부문을 형성하는 음운규칙들은 자질 변경 규칙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적용되는 기저형들의 각 분절음들도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각 분절음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자질에 의하여 대립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분절음들의 대립 관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음운규칙의 기술에 경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별적 자질들의 설정이 중요한 요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만을 다루려 하기 때문에 모음과 활음의 변별적 자질만을 주로 다룬다.

자음, 모음, 활음, 유음의 구분을 위하여 SPE에서는 [consonantal]과 [syllable]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 방언에서는 모음만이 음절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syll]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으며,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음과 활음 탈락 그리고 유음 탈락 규칙의 기술에 타당성을 부

15) 자음 앞에서도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비음에 선행할 경우에는 유성의 환경을 이루고, 기타의 경우에는 격음화에 의하여 격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실제로 [h]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어두에 한 한다.

여하기 위해서는 SPE의 [syll]를 [vocalic]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자질\구분	모 음	자 음	활 음	유 음
consonantal	−	+	−	+
vocalic	+	−	−	+

모음들 중에서는 /i/ : /ɨ/, /ü/ : /u/, /e/ : /ə/, /ö/ : /o/, /ɛ/ : /a/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SPE에서는 [back]에 의한 대립 관계로 파악했다. 그러나 Jakobson Et Al. (1952)와 Jakobson & Halle (1956)의 음향음성학적 견해에 따른다면 [grave] 자질이 모음과 자음에 모두 사용될 수 있어 이를 모음에 사용할 경우에는 [+back]이 [+grave]로 대치된다(Hyman 1975 : 45).[16]

또 /i/ : /ü/, /ɨ/ : /u/, /e/ : /ö/, /ə/ : /o/의 대립을 위해서는 SPE에서 [round]를 설정하고 있으나, 후술할 원순모음화와 /w/의 분포제약 및 탈락현상에 대한 동기화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labial]을 설정한다. 이는 Hyman (1975 : 5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round]는 모음에만 관련된 자질임에 반해 [labial]은 'cover feature'로 자음과 모음에 모두 관련된 자질이기 때문에 자질을 보다 간단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모음의 높이에 대한 자질은 2분법에 의하여 구분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Hankamer & Aissen 1974), 이 방언에서는 고설모음에 /i, ü, ɨ, u/, 중설모음에 /e, ö, ə, o/, 저설모음에 /ɛ, a/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high]와 [low]에 의한 2분법적 분류가 가능하다.

위의 도표에 표시된 자질명세에서 아래와 같은 분절음 구조제약(segmental structure constraints)을 기술할 수 있다(R. Stanley 1967 : 406).

16) 자음에 사용될 경우에는 국어에서 /c/는 [+coronal]의 위치에서 조음되지 않기 때문에 [coronal] 자질과 일치되지는 않지만, 국어에서는 움라우트 규칙의 개재자음들에 의한 자연부류의 형성에서는 [grave] 자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Kim, C-W. 1973, 이병근 1976a, 이승재 1980)

(10)

자질\목록	i	ü	e	ö	ɛ	ɨ	u	ə	o	a
grave	−	−	−	−	−	+	+	+	+	+
high	+	+	−	−	−	+	+	−	−	−
low	−	−	−	−	+	−	−	−	−	+
labial	−	+	−	+	−	−	+	−	+	−

제약 1) [+low] → [−high]

제약 2) [+low] → [−lab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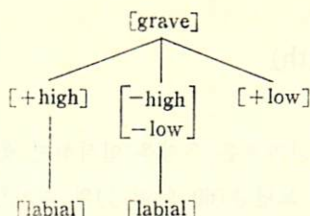
제약 1)은 역방향으로도 기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약 1)의 방향에 대한 문제가 고려될 수 있는데, 후술하겠지만 모음의 높이(vowel height)에 의한 음운론적 강도에서 저설모음이 고설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phonological strength)가 강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자질들의 상대적인 음운론적 강도에서는 [low]가 [high]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제약 1)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승재 1980 : 22). 이러한 방향 설정은 저설모음에는 원순모음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제약 2)와 함께 하나의 제약으로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제약 3) $[+\text{low}] \rightarrow \begin{bmatrix}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제약 1)과 평행하게 제약 2)를 해석한다면 모음의 높이에 관련된 자질과 [labial] 자질의 상대적인 위계에서 전자가 상위의 위치를 점유한다고 할 수 있다.

[grave]와 [labial] 자질의 상대적인 위계는 후술할 모음조화에서 정당화되는데, 국어에서는 통시적으로 [grave]에 의한 조화는 진행되었지만 [labial]에 의한 조화는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grave]가 상위의 위계를 점하게 된다(Schane 1973). 따라서 이 자질들 간의 상대적 위계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11)



2.2. 운소목록

운소(supra-segmental phoneme)는 분절음과는 별도의 층렬(tier)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분절음 연속체의 의미 차이를 야기시킨다.[17] 이는 음장(length), 성조(pitch), 강세(stress), 억양(intonation) 등으로 하위 구분된다. 그중 음장, 성조, 강세 등은 주로 어휘적 대립에 관여하고, 억양은 주로 통사적 대립에 관여한다.

이 방언권에서 성조가 기능하는 지역은 무주의 무풍지역어에 한정되고 (권병로 1987), 기타의 지역에서는 성조가 기능하지 못한다. 강세는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에 장음과 함께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변별적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음장은 분절음 연속체의 제 1 음절에서는 변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억양은 통사론적 구성에서 서법상의 차이를 구별할 때 기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방언권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론적 현상—특히 모음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는 음장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17) 운소에 대한 관심은 Goldsmith(1976) 이래 자립분절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 운율 음운론(metrical phonology) 등의 이름으로 단일 층렬(분절음의 연결체)에서 진행되던 기왕의 음운론 연구와는 달리 복수의 층렬(분절음 연결체와 자립분절 음운들의 관계)로 그 영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선음운론(nonlinear phonology)은 이 방언의 모음조화와 활음과 모음의 탈락에 따른 보상성 장모음화와 같이 일부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해당 현상을 논의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2.2.1. 음장(length)

이 방언권의 대부분의 화자들은 음장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년층(60세 이상)의 화자들은 제1음절에서 음장에 의한 최소대립짝을 가진 경우에는 변별력을 유지하고, 이러한 최소대립짝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변별력을 상실한다.

(12) a. [pəl] '罪' : [pə:l] '蜂', [pam] '夜' : [pa:m] '栗'
[nun] '眼' : [nu:n] '雪', [cul] '絃' : [cu:l] '연장'
[mal] '馬, 斗' : [ma:l] '言'
b. [c^{h}umən] '舞' : [c^{h}u:mən] '寒'
[s'amən] '包' : [s'a:mən] '積'
[cimən] '負' : [ci:mən] '作'

(13) [ma:nt^{h}a] '多', [tɨ:rəpt'a∼te:rəpt'a] '더럽다'
[i:p'uda] '麗', [p'ɜ:lgət^{h}a] '赤'
[nö:rat^{h}a] '黃'

(12)의 예들에서는 음장이 의미의 변별력을 가지지만 (13)의 예들에서는 의미의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를 위하여 [long]이라는 자질이 설정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강세와 함께 실현되는데, 강세는 항상 [+long]의 모음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중 어느 하나는 잉여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는 (12)를 위하여 설정된 음장을 취하고 강세는 변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후자의 강세는 전자와는 달리 부사나 형용사에서 실현되어 그 정도를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같이 순수한 변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는 없다.

2.2.2. 경계(boundary)

생성음운론의 주된 연구과제 중에는 통사부에서 음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서 통사부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는 경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계에 대한 논의는 Trubezkoy(1969)에 의하여 주목된 음소적 경계표시(phonematic boundary signals)와 비음소적 경계표시(nonphonematic boundary signals)가 post-Bloomfieldian들에 의하여 정립된 연접(juncture)이라는 개념으로 재 정립되어 생성음운론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각 층위(level) 간에 사용된 정보를 상호 이용한다는 생성음운론의 기본 입장에 따라 그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고,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경계 설정의 기준도 다양화 되었다.[18]

SPE에서는 ##: 완전 단어 경계(full word boundary), #: 내부 단어 경계(internal word boundary), +: 형태소 경계(mopheme boundary), ϕ: 무 경계(no boundary)와 같이 4개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국어의 경우에도 C-W. Kim(1970)에서는 SPE의 경계에 복합어 경계(++)를 추가하여 ##, #, ++, +와 같이 4개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Y-K. Kim(1974)에서는 이를 세분하여 #: 구 경계(phrase boundary), ϕ: 복합어 경계(compound boundary), &: 동사 어간 경계(verb stem boundary), ⊕: 명사 어간 경계(noun stem boundary), +: 접사 경계(affix boundary), =: 수식어 경계(modifier boundary), !: 한자어 경계(Sino-Korean boundary), -: 임의 통사 경계(any syntactic boundary) $: 음절 경계(syllable boundary) 등의 경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졸고(1984)에서 설정한 ##, #, ++, +, ϕ 경계를 사용하려 한다.

---

18) 경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R. Stanley(1973), C-M. Lee(1974), S-B. Cheun(1978), Hyman(1978), H. Sohn(1978), R. Vago(1978), 이승재(1983), 김정우(1984), 소강춘(1984) 등을 들 수 있다.

3. 모음조화

3. 1. 범위와 일반론

모음조화란 모음들이 결합할 때 특정 자질을 가진 모음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화·결합하는 조화과정(harmony process)이다. 따라서 모음조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조화과정을 지배하는 조화자질(p-segments)과, 이들이 결합하는 조화자질의 결합 단위(p-bearing units),[19] 조화자질(p-segments)의 확산을 방해하는 불투명 분절음(opague segments), 그리고 이 조화가 진행되어 가는 방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20] 이를 위해 Stanford Language Universals Project를 수행한 R. Ultan(1973)은 모음조화의 5가지 일반적 기제를 제시하고 있다.[21] 이 장에서는 이 기제에 의하여 모음조화의 실현 양상과 그들의 지역적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먼저 국어의 모음조화를 지배하는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모음조화 현상이 생성되고, 활발히 실현되었던 시기의 모음체계와 관련지어 생각되어야 함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대국어의 선행 단계인 중세국어의 모음체계와 관련지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세국어 단

19) 여기서 사용된 *p*-segments는 자립분절적인 조화자질을 의미하고, *p*-bearing units는 이러한 자립분절적인 조화자질들이 연결되는 단위를 의미한다.

20)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립분절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용어이나 생성음운론의 규칙을 기술하는 데는 그 의미가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어 그대로 사용한다.

21) i) 음성적 동기(phonetic motivatedness), ii) 어간 통제(root control), iii) 양방향성(bidirectionality), iv) 무제한성(unboundedness), v) 비수의성(nonoptionality).

계(아니 모음조화 현상의 출발 단계인 그 이전의 시기)에 실현되던 모음조화 현상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에 대한 기왕의 업적에 근거하여 현대국어(이 방언)의 모음조화 현상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만을 선별적으로 취하려 한다.[22] 그리고 국어의 조화자질(P-segment)은 이상억(1986)에 설정된 [back]과 박종희(1985)에 설정된 [ATR] 자질이 모두 모음체계와 관련하여 충분한 음성학적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도 무리는 없다.[2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국어의 모음조화 현상이 시작될 단계에는 '전 : 후'의 대립을 반영하는 체계였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이상억(1986)에서 설정된 [back]의 자질을 취하려 한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자들에 의하여 모음조화의 대립 양상이 인식된 이래로 국어의 모음조화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조화자질로 받아 들여지고 있던 '음 :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필자의 의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음'은 [−B], '양'은 [+B]으로 대치된다.[24] 그리고 이 자질이 연결되는 조화자질의 결합 단위는 모음이 되고, 그 통제 범위는 어간의 조화자질이 후행 접사의 첫 모음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25] 불투명 분절음은 일부 자음과 단일형태소 내의 모음이 된다(박종희 1985). 그리고 조화의 진행 방향은 좌에서 우로 확산되어 가는 일방향성 조화(directional harmony)이고, 규칙의 적용은 의무적이다.

이상과 같이 중세국어 단계에서 설정된 모음조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22)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 수직적 조화의 체계인가 사선적 조화의 체계인가 하는 문제는 이기문(1968, 1971, 1972b), 김완진(1978), 김진우(1978) 등에 미룬다.

23) 일반적으로 이들은 국어의 모음조화를 기술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음 : 양'의 용어를 현대 음운론의 기본 가설에 따라 현대적인 음성자질로 대치한 것이라 생각된다.

24) 이 자질이 수직적 체계의 산물임을 주지하는 바다. 그러나 중세국어의 모음체계가 수직적 체계인가 사선적 체계인가 하는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모음조화의 생성기에는 이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데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이 연구가 중세국어 모음조화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25) 이는 중세국어 단계에는 그 이하에도 미치는 경우가 있어 그 양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 '-어/아'로 시작되는 부동사형 어미들에만 남아있는 모음조화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26)]

이 장에서는 이 현상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root+suffix'와 같이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환경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음조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려 하는데, 그 논의는 이 방언의 어간말 위치에서 실현될 수 있는 10모음을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따라 양성·음성·중성모음으로 구분하고, 그들이 모음조화 현상에서 각각 어떠한 조화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방언의 하위 지역어들에서는 상호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3.2.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3.2.1. 어간말 모음이 양성모음인 경우

(14) a. [tak'əra] '닦아라' a'. [tak'ara]
[matʰəsə] '맡아서' [matʰasə]
[arəra] '알아라' [arara]
[nasəsə] '낫아서' [nasasə]
[haltʰə] '핥아' [haltʰa]
[malgə] '맑아' [malga]
[palgə] '밝아' [palga~polga]
[talmə] '닮아' [talma]
b. [mɛdarə] '매달아' b'. [mɛdara]
[ponbadəra] '본 받아라' [ponbada]
[arimdawəsə] '아름다워서' [arimdawasə]

26) 이기문(196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모음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에서 모음조화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은 형태론적 현상의 보수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5) a. [pɛtʰət'a] '뱉았다' a'. [pɛtʰat'a]
[mɛǰəra] '맺아라' [mɛǰara]
b. [s'amɛra] '싸매라' b'. [s'amɛra]

(16) a. [k'wa:sə] '꼬아서'
[kwa:t'a] '고았다'
[hwa:ra] '호아라'
[s'wa:t'a] '쏘았다'
b. [k'oǰara] '꽂아라'
[c'ocʰat'a] '쫓았다'
[kolmasə] '곪았다'
[olmat'a] '옮았다'
c. [towasə] '도와서'
[k'obara] '꼽아라'[27]

(17) a. [k'öasə] '괴아서'
[s'öat'a] '쐬았다'
[töara] '되아라'

(14, a, b)의 예들(주로 이 방언권의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A_1 지역이라 칭한다)은 모두 음성모음 /ə/를 취하고, (a', b')의 예들(주로 이 방언권의 동남부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A_2 지역이라 칭한다)은 모두 양성모음 /a/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석은 어간 모음 /a/가 A_1 지역에서는 음성모음으로, A_2 지역에서는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동일한 모음의 조화기능을 달리 설정하고, 후행하는 접사를 모음조화 규칙에 의하여 선택하게 하는 어간말 모음의 조화기능에 따른 처리 방법과 지역에 따라 접사의 기저형을 달리 설정하는 기저형의 차이에 의한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전자의 처리 방법은 모음 자체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처리 방법은 어미의 모음이 통시적으로 수행한 '-아>-어'의 변화 과정를 통하여, A_1의 지역에서는 양성모음 '-아'형이 음성모음 '-어'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기

27) 이 방언에서는 '꽂다'가 [k'oǰa-]와 [k'oba-]의 두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어간말음은 후행하는 모음에 단순히 연음되지만, 후자의 어간말음은 활음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서로 다른 기저형으로 설정하여 예시한 것이다. 물론 이들 중 후자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저형으로 '-어'가 설정되지만 A_2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통시적인 변화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28] 후자의 기저형에 의한 설명 방법을 취한다면 공시적으로 모음조화 규칙이 설정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공시적으로 이 지역어에 모음조화 규칙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되었으며 후술하겠지만 후자의 처리 방법이 이 방언의 다른 모음들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의 설명 방법을 따른다. 따라서 (a, b)의 예들이 실현되고 있는 A_1 지역에서는 어간말 모음 /a/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고, (a′, b′)의 예들이 실현되고 있는 A2 지역에서는 /a/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모음체계와 변별적 자질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모음들이 수행하는 조화기능의 차이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음운론적 현상을 보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15)의 예들도 (14)의 예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a/의 전설모음 /ɛ/도 /a/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16)과 (17)의 경우는 (14, 15)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16, 17)의 예들은 (14, 15)의 예들과는 달리 모든 지역—즉 A_1, A_2 지역 모두-에서 차이가 없이 양성모음인 '-아'형만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o, ö/는 이 방언권의 전 지역에서 양성모음으로만 기능하고 있다.[29]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이 방언권의 모음조화 규칙을 임시로 기술하면 아

28) 이근규(1986 : 189)에서는 국어의 모음조화를 원래 양성으로만 존재하던 접미사들이 어간의 음성모음에 조화되어 점차 음성모음의 접미사들로 변화되는 음성모음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이와 동궤로 처리될 수 있다.

29) 비록 이들이 모음조화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을지라도 활음화에서는 차이가 있다. (16, a)의 경우는 어간말 모음이 /o/인 예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활음화를 겪는다. 그러나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hoat′a] '호았다', [poat′a] '보았다', [s′oat′a] '쏘았다' 등의 예들이 실현되고 있으며, [koara~kowara] '고아라'와 같은 예들도 실현되고 있어, 활음 형성 규칙의 지역적 분포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17)의 경우는 (16, a)와 같이 어간말음이 원순모음으로 끝나는 개음절의 경우이지만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활음 형성에서는 /o/와 /ö/가 달리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 c)의 예들은 ㅂ-불규칙에 의하여 활음 [w]가 유도된 경우이기 때문에 ㅂ-불규칙에 의한 활음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례 규칙 1)과 2)와 같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는 지도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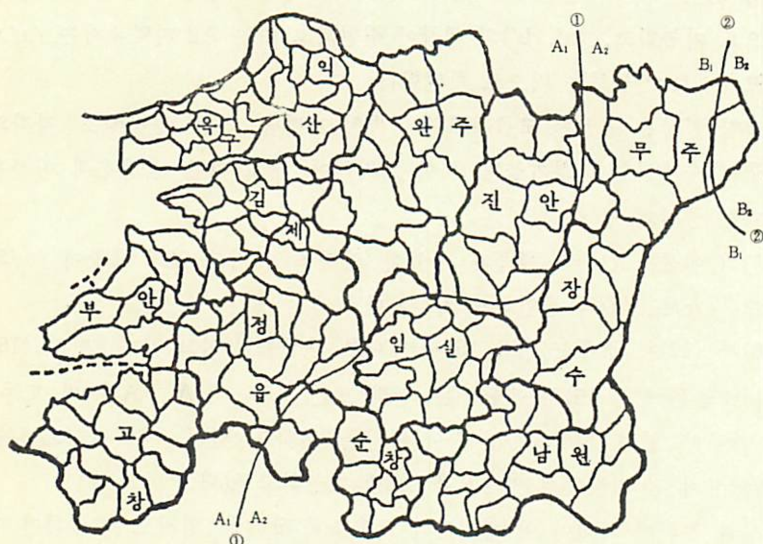
규칙 1) 모음조화(1′−A_1)

$$ə \rightarrow a \ / \ \{o, ö\} + —$$

규칙 2) 모음조화(1′−A_2)

$$ə \rightarrow a \ / \ \{a, ɛ, o, ö\} + —$$

지도 3) 규칙 1′)의 지역적 분포



① /a, ɛ/의 조화기능
A_1=/a, ɛ/가 음성모음으로 기능 규칙 6)이 설정
A_2=/a, ɛ/가 양성모음으로 기능 규칙 7)이 설정

② 이 방언의 중성모음
B_1=/i, u, i/가 제 2 음절 이하에서 중성모음으로 기능
B_2=/u/가 제 2 음절 이하에서 양성모음으로 기능

3.2.2. 어간말 모음이 음성모음인 경우

(18) a. [cəsəra] '젓어라'
[pəsəsə] '벗어라'
[ərət'a] '열었다'

[cəlməsə] '젊어서'

b. [musəsə~musəwəsə] '무서워서'

[puk'irəsə~puk'irəwəsə] '부끄러워서'

(19) a. [t'iət'a] '떼었다' a'. [t'e:sə]

[miəra] '메어라(負)' [me:ra]

[miət'a~miit'a] '메었다(塞)' [meet'ira~me:t'ira]

(20) a. [kuə~k'uə~kwə~k'wə] '구어'

[nuə~nwə] '누어'

[cʰwə(:)sə] '추어'

b. [murə] '물어'

[pusə] '붓어'

[muk'əra] '묶어라'

[kulgəsə] '굵어서'

c. [p'usəsə~p'usə] '부수어서'

d. [cɛwəra] '재우어라' d'. [cɛwara]

[kadwət'a] '가두었다' [kadwat'a]

[pak'wə] '바꾸어' [pak'wa]

[nanwə] '나누어' [nanwa]

[pɛwəsə] '배우어서' [pɛwasə]

(21) a. [süə] '쉬어'

[t'üə~t'we] '뛰어'

[k'üə~k'weə~k'we] '뀌어'

(22) a. [tirəra] '들어라'

[kilgəra] '긁어라'

[nilgəsə] '늙어서'

[ilpʰəra] '읊어라'

[k'inəsə] '끊어서'

b. [həntʰirə] '흩틀어'

[kə(:)dirə] '거들어'

c. [callə~c'allə] '자르어' c'. [calla~c'alla]

[t'arəra] '따르어라' [t'arara]

[mallət'a] '마르었다' [mallat'a]

[mandirəra~mɛndirəra] '만들어라' [mɛŋgirara]

[caŋgwara] '잠그어라'

(18, a)의 예들은 어간말음이 /a/인 1음절 어간이고 (b)는 2음절 이상의 어간들이다. 이들은 모두 후행 접사 '-어'를 취하고 있어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고 있다.[30]

(19)의 예들은 어간말음이 /e/인 경우인데, (a)에서는 모두 [i]로 실현되고 있으며[31] (a')에서는 [e:]로 실현되고 있다. 이들을 모음조화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a)의 경우는 [i]가 음성모음 '-어'를 취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32] (a')의 경우에는 모음조화 규칙의 적용 양상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 [mek^{h}et'a]의 예를 통해서 그 도출과정의 일면을 살펴 보아야 한다. [mek^{h}et'a]의 경우에서 그 기저형을 중앙어처럼 '막히었다' (/makhiəs'ta/)로 설정한다면[33] 아래와 같은 도출과정이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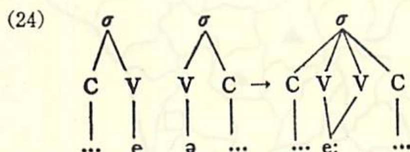
(23) /mak+hi+a/əs'+ta/[34]

mɛk hi a/əs' ta……움라우트
mek hi a/əs' ta…… ɛ ⟶ e
mek hi əs' ta ……모음조화
mek hyəs' ta ……y-형성
mek hes' ta ……축약
[mek^{h}et'a] ……기타규칙

(23)의 도출과정에서 모음조화 규칙이 움라우트 규칙에 선행한다면 제 2 음절의 중성모음 /i/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거나, 제 2 음절의 모음 /i/가 중성모음이기 때문에 제 1 음절의 모음이 음성모음이어야만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표면음성형 [mek^{h}et'a]가 출현하는 지역은 장수, 순

30) (b)에서 활음 [w]가 실현되는 것은 어간 말음이 /p/로 끝난 예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w]의 형성은 ㅂ-불규칙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다.
31) 이 예들은 (19, a')의 예들이 모음 상승 규칙의 적용을 받아 실현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32) 후술할 중성모음 참조.
33) [makt'a], [magara] 등등의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저형은 /mak-/이 되어야 한다.
34) 도출과정에 '-a/ə'를 제시한 것은 모음조화 규칙의 적용 양상을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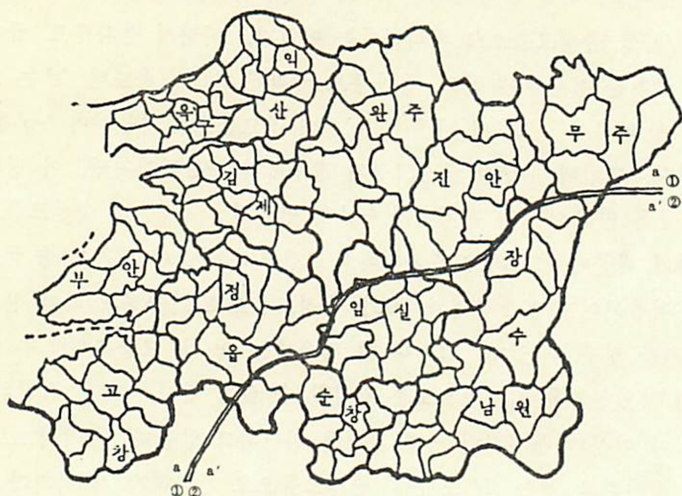
창, 남원 등이고, 이들 지역에서는 /a/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제 1음절의 /a/를 음성모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움라우트 규칙이 모음조화 규칙을 선행해야 하고, 움라우트 규칙에 의하여 유도된 'ɛ'는 모음 상승 규칙에 의하여 'e'가 된 다음에 'e'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여 '-ə'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후술할 중성모음의 경우에서 상론되겠지만, 이 방언에서 /i/ 모음은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ə'와 연결될 때는 항상 음성모음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23)의 도출과정에서 모음조화 규칙이 모음 상승 규칙에 선행하여 적용되어도 제 2음절의 /i/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게 되어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e/가 모음조화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23)의 도출과정은 이 어사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i/ 모음이 중성모음으로 기능하게 된 시기가 'ə+i>e'로의 축약 보다 후대였음을 고려한다면, /e/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한다고 처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19, a')의 /e/는 /ə/와 동궤로 처리되어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실현되는 장모음은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e+ə...'의 연결체에서 /ə/의 탈락에 따라 보상성 장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이병근 1978).

(24)


(19, a, a')에서 /i/형의 유지 지역과 /e/형의 유지 지역은 지도 3)의 A_1과 A_2 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A_2의 지역보다 훨씬 축소되어 임실, 순창, 장수, 남원 등의 지역에서만 실현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i/ 유지형이 실현되고 있다.[35]

35) 따라서 'e>i'와 같은 통시적인 모음 상승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서도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들은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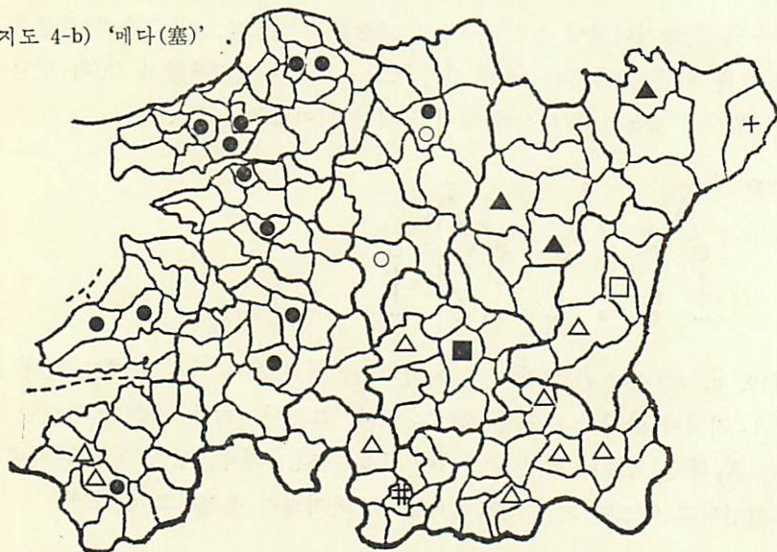
지도 4-a) '떼었다, 메었다(負)'



a a'
① [t'iət'a] [t'e(:)t'a]

a a'
② [miət'a] [me(:)t'a]

지도 4-b) '메다(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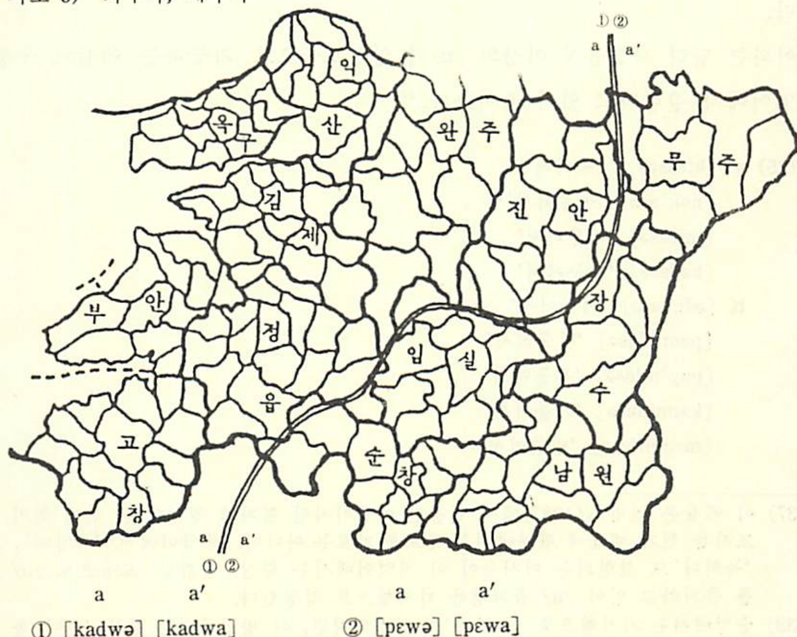
● [miət'a] ○ [mɛk^{h}yəta] ▲ [mewəǰət'a] △ [mek^{h}et'a]
■ [mek^{h}it'a] □ [mek^{h}wəǰət'a] + [mewaǰət'a] ♯ [miit'a]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이 방언권의 임실, 순창, 장수, 남원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공시적으로 용언의 어간말 모음으로 실현되는 /e/가 없기 때문에 /e/는 그의 후설모음인 /ə/에 준한다는 점만을 지적하려 한다.

(20)의 예들은 어간말음이 /u/인 경우이다. (a~c)의 예들은 활음 형성에서는 지역적 차이를 보이지만 모음조화에서는 모두 음성의 '-어'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36] 그러나 (d, d')의 예들은 아래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모음조화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제2음절에 /u/가 오는 경우인데, (d, d')는 제1음절 모음이 기왕에 양성모음이라 칭해지던 모음이고, (c)는 음성모음이라 칭해지던 모음들이다.

지도 5)에서와 같이 이들의 실현 분포는 지도 3)의 A_1, A_2 지역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d)의 경우에는 그 실현 지역이 지도 3)의 A_1 지역과 유사하다. 따라서 제1음절의 모음들을 음성모음으로 처리하고, 제2음절

지도 5) '가두어, 배우어'



a a' a a'
① [kadwə] [kadwa] ② [pɛwə] [pɛwa]

36) 이 문제는 활음 형성 및 탈락에서 상론하겠다.

의 모음 /u/도 음성모음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d')의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만약 (d)의 /u/에 대한 설명과 같이 제1음절의 모음들을 양성모음으로 처리하고 제2음절의 /u/를 음성모음으로 처리한다면, 제2음절의 음성모음이 모음조화의 동화주가 되지 못하고 제1음절의 양성모음이 모음조화의 동화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와 피동화음의 관계는 국어의 일반적인 모음조화 현상의 확산 방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설명이 가해져야 한다. 즉 (d')의 예들은 제1음절 모음의 성에 따라 후행하는 어미의 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제2음절의 /u/를 조화과정과는 무관한 모음으로 처리하고, 제1음절의 성이 후행하는 어미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해석은 3.2.1에서 설정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기준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모음조화 현상의 지역적 분포에 대한 일관성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u/는 음절수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 모음으로 처리된다.

이와는 달리 제2음절 이상의 /u/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예들이 무풍지역어에서 실현되고 있어 흥미롭다.[37]

(25) a. [k'ɛasə] '깨우어서'
[nokʰasə] '녹후어서'[38]
[mirasə] '미루어서'
[kədasə] '거두어서'
b. [ədubasə] '어둡어서'
[pəmullasə] '버물러서'
[pupʰullasə] '부풀어서'
[kamullasə] '가물어서'
[mɛŋgillasə] '만들어서'

37) 이 예들은 권병로(1987)에서 인용한 예들이지만 필자가 권교수와 함께 현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새로운 자료는 아니다. 중앙어에서 '가깝다', '녹히다'로 실현되는 어사들이 이 지역어에서는 항상 어간말 모음으로 /u/를 유지하고 있어 /u/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

38) 중앙에서는 기저형으로 '녹히다'가 설정되지만, 이 방언에서는 항상 '-후' 유지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녹후다'를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25)의 예들은 모두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으로 /u/를 유지하고 있는 예들이다. 모음조화 현상에서 이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모두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 /u/는 이 지역어에서 양성모음으로만 기능한다. 이러한 현상은 권병로(198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지역어가 동남방언에 근거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모음체계만을 생각한다면 이 두 방언에는 차이가 없다(적어도 무풍지역어와 인접한 동남방언의 하위 지역어와의 관계에서 생각할 때). 따라서 동일한 음운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각각의 음운들이 음운현상에서 동일하게 기능하리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21)의 경우는 모두 음성모음의 '-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언에서 /u, ü/를 음성모음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39]

(22)에서 /i/는 단음절 어간말 모음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모두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음으로 실현될 경우에는 양상을 달리한다. 즉 (22, b)와 (22, c, c')의 예들을 자세히 검토하면 상술한 /u/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22, b)의 경우는 음성모음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22, c, c')의 경우에는 아래의 지도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 2 음절 이하에서는 /i/도 모음조화에 무관한 모음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현 양상은 지도 3)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A_1, A_2의 두 지역으로 구분·설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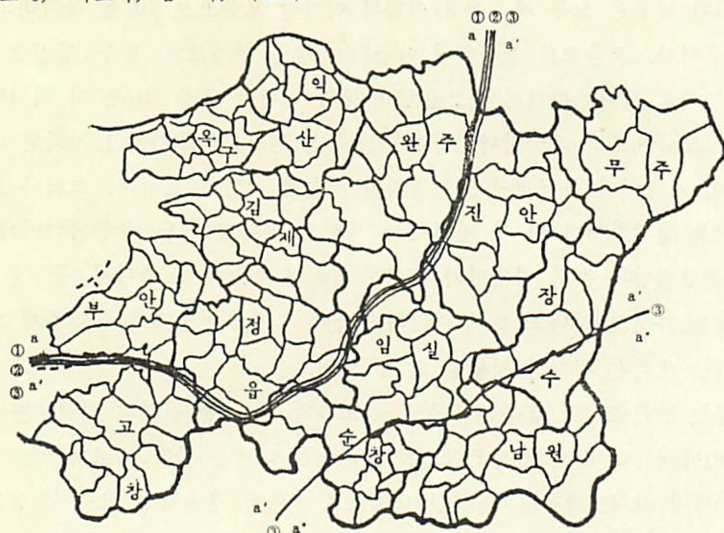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모음조화 규칙을 임시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

39) 물론 제 2 음절 이하의 /u/는 상술한 바와 같이 다르게 처리 되지만, 단음절의 경우에는 음성모음으로 가능하고 있어 /u/는 본질적으로 음성모음인 듯하다. 그러나 남원, 장수, 순창 등지에서는 상태동사의 경우 [c^hua] '추어', [mugəwa] '무거워', [təwa] '더워' 등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상태동사의 모음조화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0) 이 규칙의 구조변화가 'ə→ə'와 같이 기술되어 규칙으로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상술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규칙을 설정한 것이다.

지도 6) '따르어, 담그어, 마르어'



a a' a a' a a' a''
① [t'arə] [t'ara] ② [taŋgwə] [taŋgwa] ③ [malʎə] [malʎa] [molʎa]

규칙 3) 모음조화(2'−A_1)[40]

ə → ə / {ə, e, u, ü, i} + —

규칙 4) 모음조화(2'−A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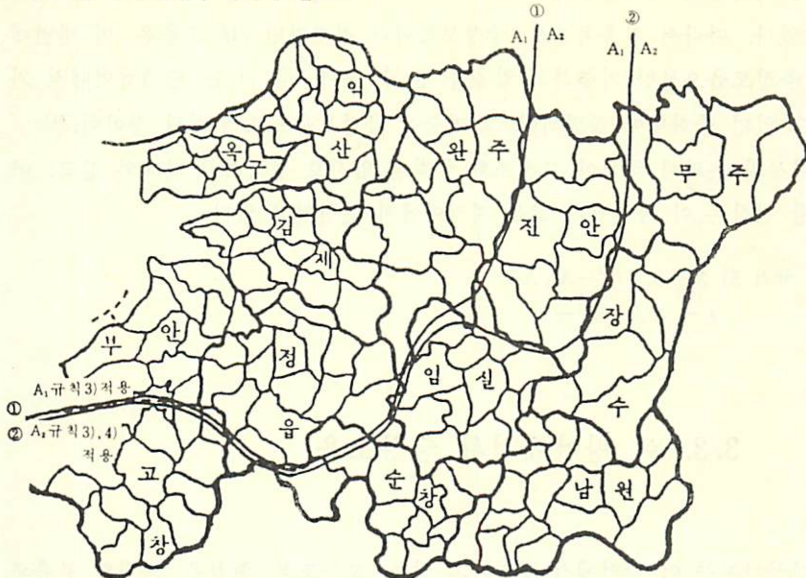
ə → a / {a, ɛ, o, ö }+{u, i} + —

규칙 3)은 A_1, A_2의 모든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인 반면에 규칙 4)는 A_1의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A_2 지역에서 /i, u/는 제 1음절에서만 음성모음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3.2.3. 어간말 모음이 중성모음인 경우

(26) a. [pʰiət'a] '피었다'
[c'əra~c'iəra] '(반지를) 끼었다'
[c'əsə] '(진딧물이) 끼어서'
[isəsə] '잇어서'
[šichəra] '씻어라'

지도 7) 규칙 2')의 지역적 분포



①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이 /ɨ/인 경우
②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A_1=/ə, e, u, ü, ɨ/ 모두가 음성모음으로 기능
A_2=ⓐ 단음절 어간말 위치에서
/ə, e, u, ü, ɨ/ 모두가 음성모음으로 기능
ⓑ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위치에서
/ə, e, ü/는 음성모음으로 기능
/ɨ, u/는 중성모음으로 기능

b. [pulʎə~pulgwə] '불리어'
[süŋge~süŋgi~süŋgyə~süŋkʰe~süŋkʰyə~süŋk'i~suŋkʰe~suŋge]
'숨기어'
[tüjibə] '뒤집어'
[kɨlkʰisə~kɨlkʰesə] '긁히어서'

c. [malʎəra~malgyə~malge] '말리어라'
[cɛyət'a~cɛet'a] '재우었다'
[kacʰət'a~kacʰet'a] '갇히었다'

(26)은 이 방언에서 /i/가 '-어/아'와 결합된 예들이다. (a)의 경우는 단음절 어사들로 음성모음 '-어'를 취하고 있으며, (b, c)의 경우는 2음절 이

상의 어사들로 제1음절의 모음과는 무관하게 항상 음성모음 '-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중성모음이라 칭해지던 /i/ 모음은 이 방언에서 음성모음으로만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i/는 중세국어에서 가지고 있던 중화력이 상실되어 그 기능이 음성모음으로 변화된 것이다.[41]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모음조화 규칙을 임시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고, 이러한 현상은 이 방언권의 모든 지역어에서 실현되고 있다.

규칙 5) 모음조화(3′−A_1, A_2)

ə → ə / i + —

3.3. 이 방언에서의 중성모음

지금까지는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음조화 현상을 기왕의 분류에 따라 양성·음성·중성모음으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그런데 /i, ɨ, u/의 세 모음은 음·양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실현되는 경우가 있어, 기왕의 중성모음에 대한 견해는 재 검토되어야 하리라는 생각에서 이 장을 별도로 할애한다.

이 장에서는 일반언어학에서 제시하는 중성모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중성모음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떠한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수행해 왔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중성모음은 일반적으로 조화과정에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모음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들이 개재되는 어휘들의 연결체에서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성모음의 본질적인 속성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

41) 국어의 /i/는 원래 후설의 */ï/와 전설의 */i/가 합류되었기 때문에 후행하는 모음이 전설계의 모음이든지 후설계의 모음이든지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성모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현대 이 방언의 경우에는 음성모음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먼저 최근의 대표적인 몇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Clements(1977, 1980, 1981)의 견해로 중성모음은 조화되는 자질에 대한 조화자질의 결합 단위들(P-bearing units)의 집합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성모음은 조화자질에 투명한 분절음(transparant segment)들이고, 이들을 불투명 분절음(opague segment)들과 비교해 보면 불투명 분절음들은 조화의 비수행자(nonundergoers), 방해자(blockers), 확산자(spreaders)로 기능한다. 그러나 투명 분절음들은 비수행자로서는 기능하지만 방해자나 확산자로서는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Kiparsky(1981, 1983)의 견해로 중성모음들은 유도과정상의 어휘 부문에서 조화자질과 자립분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로부터 제외된 원분절음(archisegment)들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고, 이들은 후행어휘 삭제 규칙(postlexical default rule)에 의해 조화되는 자질의 가치로 판독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J. McCarthy(1984)의 견해로 이들은 조화자질의 결합 단위들(P-bearing units)이고 조화과정을 수행하지만, 후속되는 규칙에 의하여 중성모음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이 삭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견해 중에서 후자의 두 견해는 조화자질의 확산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전자의 견해는 중성모음의 본질적인 속성을 구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Clements(1977, 1980, 1981)의 견해에 따라 이 방언에서의 중성모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왕에 중성모음이라 칭해지던 /i/ 모음의 발달 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방한(1964)에서는 Altai 공통조어의 모음체계와 원시 터어키, 몽고, 퉁구스 제어의 연구를 통하여 전설의 */i/와 후설의 */ï/를 재구하고 있으며, 국어의 경우에도 선행시기에는 이와 유사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즉 이 전·후부의 모음들이 이른 시기의 어느 단계에서 하나로 합류되어 15세기와 같은 중성모음을 구현시키고 있다는 견해이다.[42]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중성모음은 처음에는 양 계열의 모음들과 결합하지

42) 이러한 견해는 이기문(1971)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만 나중에는 어느 한 계열의 모음들과만 결합되어, 중성모음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조화자질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43]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27)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i+전설모음 i+후설모음	i+전설모음과 후설모음	i+전설모음 또는 후설모음

(27)의 단계에서 제 2 단계만이 중성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5세기 국어에서 /i/는 어느 단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이 방언에서는 어느 단계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먼저 15세기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용비어천가의 몇 예만을 제시한다.

(28) a. 기·픈(二. 1b)
　　:내·히 이·러(二. 1b)
　　疑心·ᄒᆞᆫ 실·씨(十三. 1a)
　　지·ᄇᆞ·로(十八. 1a)
b. ·서리·예·가·샤(四. 6b)
　　ᄃᆞ리·예(八十七. 39a)

(28, a)에서 /i/는 전설성에 있어서 양 계열 모두에 연결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b)의 경우를 보면 /i/가 중화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 /i/는 비수행자(nonundergoer)이고 확산자(spreader)나 방해자(blocker)는 아니기 때문에, 중성모음의 일반적인 특징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27)의 제 2 단계에 속한다.

그러면 /ɨ/와 /u/는 어떠한 변화 과정을 통하여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중성모음의 자격을 획득한 것인가? 먼저 /ɨ/의 경우는 통시적으로 'ʌ>ɨ'의 비음운화 과정을 겪었으며, /u/의 경우는 비어두음절에서 'o>u'의 변화

43) 몽고어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고(이기문 1971), 졸고(1983 : 31)에서 남원 지역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통시적인 음운의 변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유지되던 양성모음조화(최명옥 1982 : 40) 현상을 파괴시켰고, 이 과정에서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중성모음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성모음은 조화에 참여하던 모음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조화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중성모음의 일반적 특징인 비수행자(nonundergoer), 비확산자(nonspreader), 비방해자(nonblocker)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방언의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는 전통적으로 완전한 중성모음이라 칭해지던 모음이었다. 그러나 (26)의 예들을 검토해 보면 조화자질의 확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
(29) a. [N]                    [N]  [-B]
         |              ==>     |     |
        p^hi + əs' + ta        p^hi  ət'ə

     b. [-B] [N [N]     [-B]
         |       |   ==>  | \
        pur +  ri + ə-   pul  ʎə-

     c. [+B] [N][N]     [+B] [-B]
         :       |   ==>  |    |
        kat +  hi + ə-    ka  c^hyə-
```

(29)에서 (a)는 단음절, (b, c)는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i/의 예들을 도식하고 있다. 이들은 기왕에 중성모음이라 칭해졌고, 현대국어에서도 중성모음이라 칭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단순히 중성모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성모음이 되려면 조화과정상에서 비수행자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만 방해자와 확산자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의 /i/는 과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9, a)의 경우에서 /i/는 오직 음성으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29, b)의 경우에는 /i/가 선행 모음의 조화자질인 [-B]에 의한 조화에 불응하기 때문에 비수행자로서의 기능은 수행한다. 그러나 [-B] 자질의 확산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방해자로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질을 확산시키지 않기 때문에 확산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9, b)의 경우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중성모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와는 달리 (29, c)의 경우는 선행 모음의 양성 자질이 후행 어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i/가 방해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중성모음의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는 3.2.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a, ε/의 조화기능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 1음절의 /a, ε/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는 A_1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a, ε/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A_2 지역과 A_1, A_2의 모든 지역에서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o, ö/가 제 1음절에 올 경우에도 (30)에서처럼 모두 음성모음을 취하기 때문에 /i/는 중성모음의 일반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30) [+B] [N] ⟹ [+B] [−B]

k'o + i+ə ⟹ k'o yə

그러면 이 방언의 /i/ 모음은 어떤 모음인가? (29, a)의 경우에서 /i/ 모음이 음성모음으로만 기능함을 보았다. 이처럼 /i/의 음성모음으로의 기능이 현재 이 방언에서 /i/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면, (29, b, c)의 경우에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29, b, c)에서 /i/ 모음은 항상 선행 모음의 조화자질이 확산되는 것과는 무관한 모음으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중성모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30)의 경우에는 선행 모음의 [+B] 자질과는 다른 [−B]의 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29, a)와 동일하게 음성모음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방언에서의 /i/ 모음은 기왕의 논의와는 달리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실현되는 모음조화 현상에서 음성모음으로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44]

---

44) 이근규(198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어의 모음조화가 접미사의 음성모음화 과정으로 처리되어 음성모음 어간에서 접미사의 음성모음화 완료는 모음조화의 형성을, 중성모음 어간에서 접미사의 음성모음화는 모음조화의 확산을, 양성모음 어간에서 접미사의 음성모음화는 모음조화의 붕괴를 의미한다면, 이 경우는 중세국어의 어느 단계에서 '-아>-어'의 음성모음화(원래 접미사는

이와는 달리 기왕에 음성모음으로 처리되던 /u/와 /ɨ/의 경우는 상당히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과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음성모음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들이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으로 실현될 때에는 선행 음절 모음의 성에 따라 양상을 달리한다. 먼저 이들은 선행 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이면 음성모음의 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행 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일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20, d)와 (22, c)는 선행 음절의 모음과 무관하게 그 본연의 성인 음성모음으로 기능하여 후행 모음의 성을 음성으로 취하지만, (20, d′)와 (22, c′)의 경우에는 후행 어미의 모음을 양성으로 취하여 자신의 성을 양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행 모음의 성인 양성이 자신을 건너 후행 어미에 미쳤다고 해야 한다. 만약 전자의 방법을 따른다면 동일한 모음이 동일한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으로 실현되면서 어떤 때는 음성모음으로, 어떤 때는 양성모음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제 2 음절 이하의 경우에는 조화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중성모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비수행자로는 기능하지만 방해자와 확산자로서는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성모음으로 분류되어진다. 따라서 이 방언에서 /ɨ/와 /u/는 음절수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부분 중성모음으로 분류되고, 특히 /u/의 경우는 (25)의 예들이 실현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음·양·중성의 세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중성모음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분포는 (20)과 (22)의 (c, d)와 (c′, d′)의 지역이 각각 3.2.1 에서 제시된 A_1, A_2에 일치되기 때문에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모음조화 현

양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겪어, 현대 이 방언에서의 부동사형 어미는 오직 음성의 '-어'만이 존재한다고 처리하여 모음조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아'의 기저형 설정 문제를 논하면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방언의 A_2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방언권의 전 지역에서 모음조화 현상의 부재는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다만 '-어>-아'의 음성모음화 과정의 방향이 이 방언의 경우를 본다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아직은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닌 듯하다.

상의 분포 양상과도 일치된다.

3. 4. 모음조화 규칙과 조화기능에 의한 지리적 분포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이 방언의 모음조화 규칙을 정립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6) A_1의 모음조화 규칙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low}] /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text{Co}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begin{array}{l} \text{Co}] + — \\ \text{V.A.st.} \end{array}$$

규칙 7) A_2의 모음조화 규칙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rightarrow [+\text{low}] /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alpha\text{low} \\ \alpha\text{labial} \end{bmatrix} \text{Co}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ow} \end{bmatrix} \begin{array}{l} \text{Co}] + — \\ \text{V.A.st.} \end{array}$$

조건 : 무풍지역어의 경우 [+voc, +grave, +high, −low] 중 /u/는 양성으로 기능한다.

규칙 6)과 규칙 7)에서 피동화음의 기저형을 A_1 지역에서는 /ə/로 설정하고 A_2지역에서는 /a/로 설정하여, 어미의 차이에 따라 이 두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앞에서 예견했다. 그러나 A_1의 지역에서도 /o, ö/는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정당화될 수 없고, /ə/나 /a/ 중의 어느 하나가 기저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는 졸고(1983 : 3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자질의 수나 자연부류의 형성 측면에서 /ə/를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규칙 6)과 규칙 7)의 근본적인 차이는 /a/와 /ɛ/가 A_1의 지역에서는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고, A_2의 지역에서는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수의 모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기원의 음운현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방언의 특징을 가진다는 생각은 온당

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음운체계에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31) A_1의 경우

```
 i  |  ü  | *ɨ  | *u  |
 e  |  ö  |  ə  |  o  |
 ɛ  |     |  a  |     | [−B]
----------------------------
                        [+B]
```

(32) A_2의 경우

```
 i  |  ü  | *ɨ  | *u  |
 e  |  ö  |  ə  |  o  | [−B]
----------------------------
 ɛ        |  a        | [+B]
```

(31)과 (32)에서 *표는 /ɨ/와 /u/가 제 2음절 이하에서 중성모음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남방언의 색채가 강한 무풍지역어의 경우는 제 2음절 이하의 어간말 모음으로 실현되는 /u/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하여 A_1, A_2와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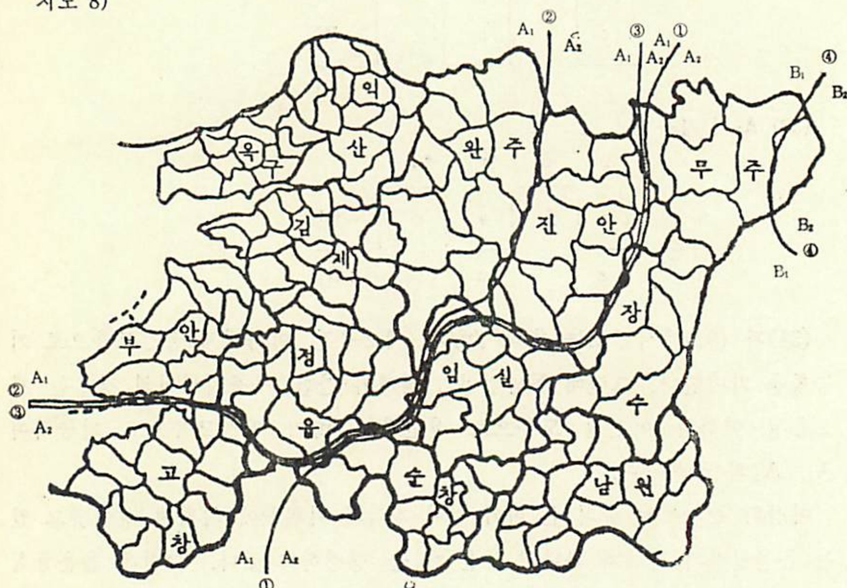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각의 어휘들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는 음운현상의 총체가 하나의 음운규칙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음운규칙에 투명한 어사들만이 해당 지역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투명한 예외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규칙에 의한 방언차와 어휘에 의한 방언차의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해당 어휘의 선택이 음운규칙에 투명한 어사들만 선택되었다면 규칙과 어휘에 의한 방언차가 동일하겠지만, 불투명한 어사들이 선택되었다면 규칙에 의한 일반성을 포착할 수는 없게 된다. 이는 언중들이 각각의 어사들을 배우기 보다는 규칙의 일반성에 의하여 언어를 습득하고 있으며, 타 방언과의 차이를 인식할 때에도 이러한 일반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음운규칙에 의한 등어선의 설정이 단순한 어휘에 의한 등어선의 설정보다 언중들의 언어 의식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운의 대응에 의한 복수체계(diasystem)의 설정에 의해서는 각각의

음운들이 체계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음에 비해, 이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에 따른다면, 각 음운들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지도 8)



① 양성모음

A_1=/o, ö/만이 양성모음

A_2=/a, ε, o, ö/ 모두가 양성모음

②③ 음성모음

A_1=/ə, e, u, ü, i/가 음성모음

A_2=ⓐ 단음절 어간말 위치에서

/ə, e, u, ü, i/가 음성모음

ⓑ 제 2 음절 이하의 어간말 위치에서

/ə, e, ü/는 음성모음

/ɨ, u/는 중성모음

④ 중성모음(제 2 음절 이하의 /ɨ, u, i/)

B_1=/ɨ, u, i/ 모두가 중성모음

B_2=/u/는 양성모음

4.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

4.1. 범위와 일반론

모음을 발음하면서 처음과 끝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동일할 경우에는 실제로 그 모음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모음이 되고, 처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변화되면서 조음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모음의 질적인 변화를 입게 되어 이중모음이 된다. 따라서 이중모음은 모음의 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비성절적 활음(glide)과 성절적 핵모음이 결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의 단위 음소인가 아니면 음소의 연결체인가? 만약 이들을 음절핵(syllable nucleus)의 형성 여부에 따라 하나의 단위 음소로 가정한다면(Moulton 1968), 활음 /y/와 /w/의 설정은 불가능하게 되고, 각각의 이중모음들은 기저음운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활음 형성이라 칭해지는 현상도 이중모음화라 칭해져야 한다. 반면에 이들이 음성학적으로 보이고 있는 계기적 실현에 근거하여 이중모음을 활음과 단모음의 연결체로 파악한다면, 두 계기적 요소의 연결 양상에 따라 이중모음은 비성절적 활음이 성절적 단모음에 선행하는 상승적 이중모음(on-gliding dipthong)과 활음이 단모음에 후행하는 하강적 이중모음(off-gliding dipthong)의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Liles 1975).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중모음을 단모음과 활음의 연결체로 파악하여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중모음의 분포제약과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면서 실현되고 있는 활음 형성 및 탈락 현상을 함께 처리한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분포상의 제약과 활음 형성 및 탈락 현상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의 논의와는 달리 통시적인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활음과 핵모음의 결합상은 형태소 연결제약에 의하여 기술하고,[45]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실현되고 있는 활음 형성 및 탈락에 대해서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을 설정한다. 그리고 전자의 제약과 후자의 음운규칙을 지배하는 동기화의 관련성과 이들이 보이고 있는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도 상론하려 한다.

4.2. 형태소 내부에서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

4.2.1. y-계 이중모음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현상은 통시적인 음운현상의 공시적인 반영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부분은 공시적으로 활발한 생산성을 갖기 보다는 형태소의 구성에 관여하는 형태소 구조제약으로 기능한다.

(33) [yaŋňim] '양념'
[koyak~köyak] '고약'
[yəmul] '여물'
[yə:nc^{h}i~yɨ:nc^{h}i~yɨ:lc^{h}i] '여치'
[yə:ŋgam~yɨ:ŋgam] '영감'
[yədin~yadɨn] '여든'
[yəǰa] '여자'
[yo] '담요'
[yoŋ] '용'
[yunnori] '윷놀이'

45) 이 경우는 기저 층위에 관련된 것으로 Stanley(1967)의 형태소 구조제약 중 형태소 연결제약이 기능하고 있다.

[yuri] '유리'
[yE] '네!'
[iyEgi~yEgi~iyagi] '이야기'
[yesun~esun] '예순'
[yei] '예의'

(33)은 이 방언에서 자음을 선행시키 않고 실현되는 y-계 상향 이중모음의 예들이다. 이들의 결합상은 아래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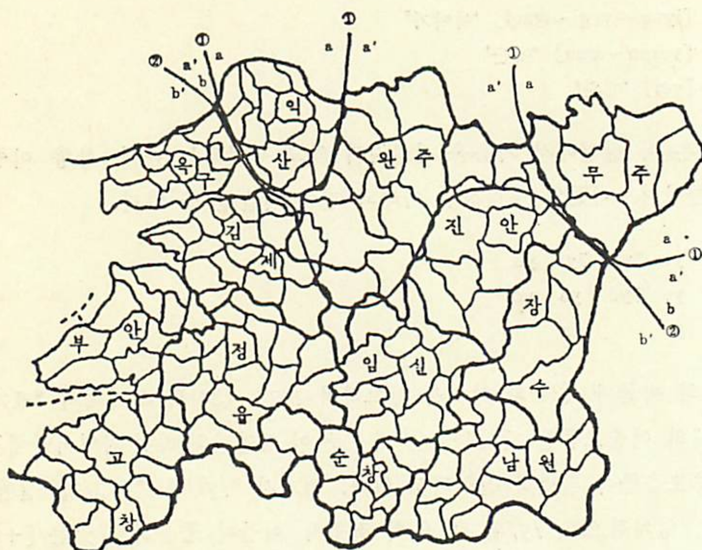
(34) *yi *yü ?yɨ yu
ye ?yö yə yo
yɛ ya

(33)의 예들과 (34)의 체계를 비교하여 보면, (34)의 체계에서 *표가 있는 2개의 이중모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y-계 이중모음들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여기서 */yi/와 */yü/가 실현되지 못함은, 일차적으로 /y/와 /i, ü/의 결합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high, −low, −grave]의 3자질들 중 [−grave]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은 기저 층위에서 결합될 수 없는 것으로 형태소 구조제약에 의하여 처리되고, 체계적인 빈칸(systematic gab)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yɨ/와 ?/yö/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yɨ/의 경우는 비록 일부 지역에서 수의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음성 실현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도 9-a)에서와 같이 [yɨ:ŋgam]의 경우는 익산과 무주에서 실현되고, [yɨ:lcʰi]의 경우는 익산, 완주, 무주 등에서 실현되고, [yɨ:ncʰi]의 경우는 김제에서만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yɨ]의 실현 지역이 일부 지역에만 치우쳐 있더라도 [yɨ]가 실현됨은 이 방언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yɨ/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체계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46] 따

46) 이는 도수희(1977 : 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충남방언에서는 활발히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언권의 북쪽의 일부 지역에서 이들의 편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은 충남방언의 특징과 무관하지 않고, 이를 통해 양 방언권 사이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9-a) '영감, 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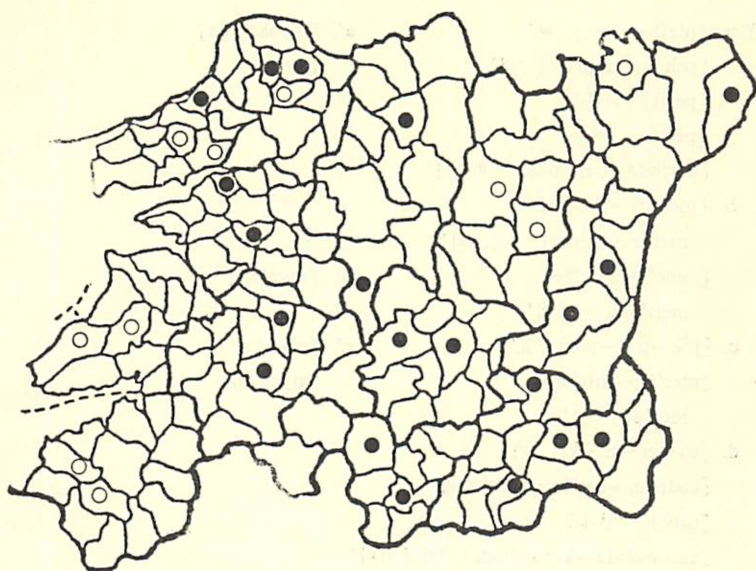
① [yi:ŋgam]^{a} [yə:ŋgam]$^{a'}$　　② [yi:lcʰi~yi:ncʰi]^{b} [yə:ncʰi]$^{b'}$

라서 이들은 체계상의 우연한 빈칸(accidental gap)으로 남게되고, 이들이 실현되지 못함은 표면음성제약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이승재 1980, 소강춘 1983).

/yö/의 경우는 단일형태소 내부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yö]와 같이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 결과에 의해서만 표면음성형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yi, yü, yi/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중모음들은 자음이 선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언권의 대부분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활발히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선행 시기의 이 방언에 적용되었던 통시적인 구개음화 규칙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 통시적으로 실현되었던 구개음화 현상은 선행하는 치음이 후행하는 /i, y/의 영향에 의하여 경구개음([palatal])이 되는 현상이고, 여기에 관여하는 모음의 자질은 /i, y/가 공유하고 있는 [+high, −grave]이다. 그런데 상술한 이중모음의 체계에서와 같이 음

지도 9-b) '용이'



● [yöŋi] ○ [yoŋi]

운들이 연결될 때는 동일한 [+high, −grave] 자질의 연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y-계 이중모음의 공시적인 분포는 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었던 k-계, t-계, s-계, n-계, l-계 구개음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즉 통시적인 구개음화 규칙의 출력부는 공시적으로 y-계 상향 이중모음의 실현에 대한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통시적으로 치음에 적용되었던 구개음화 규칙에 의하여 공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이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

제약 4) : 형태소 내부에서 치찰음 /s, s′, c, c′, cʰ/ 아래에 y-계 상향 이중모음은 연결되지 못한다

는 제약이 설정된다. 이 제약을 보다 정밀화하기 위하여 자음을 선행시키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y-계 이중모음의 예들을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35) a. [p′eǰi~p′iga] ‘뼈’	a′. [p′yəkt′agu]
[pek~peraŋp′ak] ‘벽’	[pyək]
[pešil] ‘벼슬’	
[peruk] ‘벼룩’	
[perinda~pelʎinda] ‘벼린다’	
b. [menuri~menʉri~ meniri~minəri] ‘며느리’	
[melc^{h}i~milc^{h}i~ melt′agu] ‘멸치’	b′. [myəlc^{h}i]
c. [p^{h}e~p^{h}ö~p^{h}o] ‘표’	c′. [p^{h}yo]
[met′oŋ~mit′oŋ~ möt′oŋ] ‘묘’	[myot′oŋ]
d. [cə~ci~ce~ki] ‘겨’	
[cədiraŋ~cət^{h}iraŋ] ‘겨드랑’	
[cəbot] ‘겹옷’	
[caromɦəda~kɛromɦəda] ‘갸롬하다’	
e. [sə~s′e] ‘혀’	
[səŋ~səŋňim~heŋňim] ‘형’	e′. [hyəŋňim]
[soǰa~höǰa] ‘효자’	[hyoǰa]
[suŋ] ‘흉’	
f. [camňən] ‘잡년’	
[kuňək~kumək] ‘구멍’	
g. [kolʎən~kwəlʎən] ‘권련’	
[hulʎuŋɦəda] ‘훌륭하다’	
h. [torenňim~terinňim] ‘도련님’	h′. [teryənňim]
[kɛrapt′a~kɛrəp-] ‘가렵다’	[kᴇryəp-]

(35)는 자음을 선행시키면서 실현되고 있는 y-계 상향 이중모음들의 예들이다. (a~c)는 순음이 선행하는 예들인데 /p/가 선행하는 (a)의 경우는 주로 [e]로, /m/이 선행하는 (b)의 경우는 주로 [e~i]로, /p^h/가 선행하는 (c)의 경우는 [i~e] 및 [i~e~ö~o]로 각각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순음이 선행하는 경우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드물고 단모음으로의 실현

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d, e)의 예들은 각각 /k/와 /h/가 /y/ 앞에서 구개음화되어 제약 4)와 동일한 환경을 이룬 뒤에 /y/가 탈락된 예들이다. 그런데 순음이 선행하는 전자의 경우와 이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그 탈락 양상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음이 선행하는 경우는 잠정적으로 'yə>e'와 같은 변화상을 가정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yV>V'와 같이 활음 /y/가 단순히 탈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는 단순한 y-탈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활음 /y/가 핵모음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탈락되기 때문에 전자와는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47]

먼저 전자의 도출과정은 'kyə→cyə→cə'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이 도출과정의 첫 단계는 후행하는 활음 /y/의 [+high, −grave]의 자질에 선행하는 자음이 역행동화되어 구개음으로 실현됨을 반영한 것이고, 다음 단계로의 변화는 선행하는 구개자음과 후행하는 활음이 가지고 있는 [palatal]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자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음상 어느 하나가 잉여적인 것(여기서는 /y/)이 되기 때문에 잉여적인 것은 탈락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순음 아래에서의 변화는 'p'yə→p'e'의 양상을 보여 활음 /y/는 선행 자음을 구개음으로 실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y/는 조음상 비잉여적인 것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palatal] 자질을 후행하는 모음에 전이시키는 'yə→e'로의 축약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f)의 예들을 통해서도 재 확인할 수 있다. 먼저 (f)의 예들을 (d, e)의 예들과 동궤로 처리하여 첫 단계로 /n/의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다음 단계로 잉여적인 활음 /y/가 탈락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k-나 h-구개음화와는 달리 변이음에 관한 규칙이기 때문에, [nyə-]와 같이 자음과 활음이 계기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와 [ňə-]와 같이 동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의 음성학적인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이들에 음성학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ňə-]는 /n/과 /y/가 축약되어

47) 이병근(1973 : 180)에서는 전자를 단모음화, 후자를 모음 탈락으로 처리하고 있다.

실현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들에 음성학적인 차이가 없다면 구개음 아래에서 [palatal]의 동일 자질을 회피하기 위하여 /y/가 탈락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처럼 구개음화 이후의 활음 /y/의 탈락은 단순한 조음상의 잉여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구개자음과 활음 /y/의 계기적인 조음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필수적인 현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는 l-계 구개음화의 경우에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즉 (g)의 경우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h)의 경우는 순음이 선행한 경우(a~c)와 유사한 변화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제약 4)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제약 5) 이 방언권에서 자음을 선행시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y-계 이중모음은 실현되지 못한다.

(a) 치찰음 /s, s′, c, c′, c^h/와 구개음 [ň, ʎ] 아래에서는 y-계 상향 이중모음이 실현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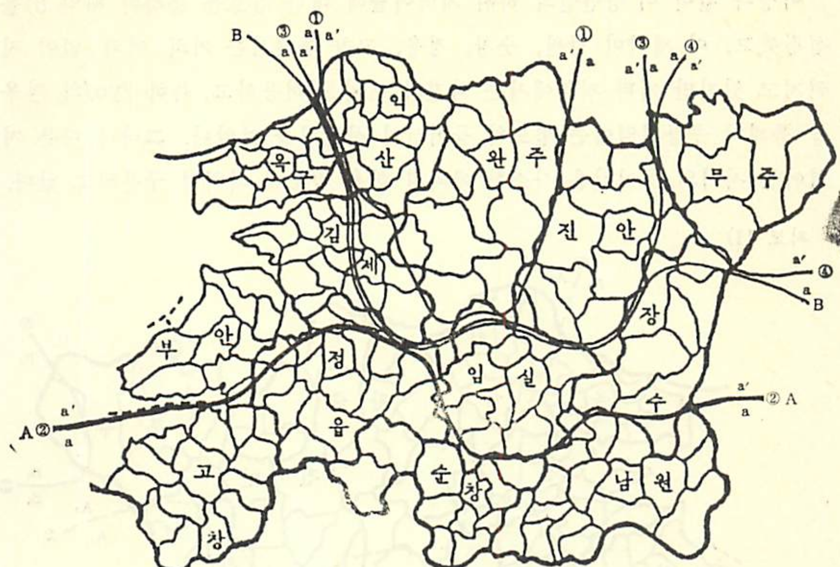
(b) 기타의 자음 뒤에서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한다.

제약 (5-a)의 예외는 이 방언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5-b)의 예외는 [p′yəkt′agu], [myəlc^{h}i], [toryənňim], [kɛryəpt′a], [p^{h}yo], [myot′oŋ], [hyəŋňim], [hyoǰa] 등의 예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실현 지역은 아래 지도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myəlc^{h}i]는 익산, 완주, 진안 등과 김제, 부안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pyəl]은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부안, 임실, 장수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p′yəm]은 남원과 고창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지도 10)에서 A의 선에 의하여 구분된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B의 선에 의하여 구분된 북부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미약하다. 이러한 분포 상황은 한자어인 [peŋ~pyəŋ]의 경우도 유사하다.

[p^{h}o]는 무주의 무풍지역어에서 /y/가 탈락되고 있어([p^{h}ogo] '표고버섯' [p^{h}oǰunə] '표준어' 등등) 흥미로운데, 이는 이 지역어가 원래 이 방언권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 10) '벽, 벼슬, 별, 멸치, 도련님, 가렵다'



a	a′
① [pek, pešil]	[pyək, pyəsil]
② [pel, pil, piəl]	[pyəl]
③ [melcʰi, melt'agu, milcʰi, milt'agu]	[myəlcʰi]
④ [tᴇrenňim, terinňim, törinňim]	[toryənňim~teryənňim]
[kᴇrapt'a, kᴇrəp-]	[karyə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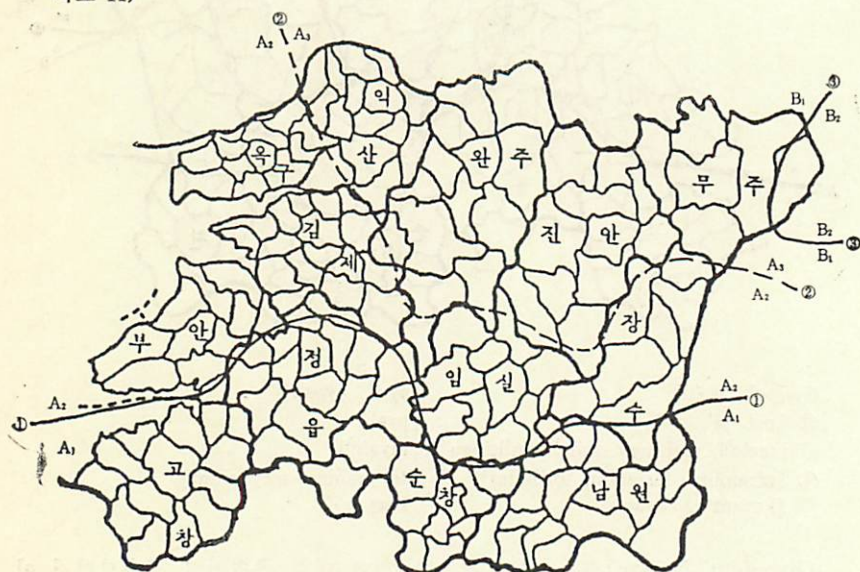
[hyəŋňim]은 [səŋ]과는 달리 결혼한 형에 대한 존칭어로 사용되면서 이 방언권의 남원, 고창, 순창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hyoǰa]도 h-구개음화를 실현시키는 진안, 무주, 김제, 남원, 순창 등의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어 제약 5-a)의 타당성을 뒷바침하고 있다.

[toryənňim]과 [karyəpt'a]의 경우는 /l/ 뒤에서 /y/가 실현되는 예들인데 [-lʎ-]와 같이 구개음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단순히 /y/가 탈락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무주에서와 기타 지역에서 아주 수의성을 보이고 실현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kᴇrapt'a~kᴇrəp-]과 같은 교체를 보이

고 있어 지역어 별로 달리 어휘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약 5)을 설정했고, 이 제약이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고, 특히 /yo/의 경우를 통해서 무풍지역어는 별도의 등어선이 설정됨을 보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어들 사이의 등어선은 사소한 예외의 허용 정도에 의하여 구분되고 있다.

지도 11)



①, ② 제약 5)의 분포
A_1=제약 5)의 존재
A_2=제약 5)의 부재(약간의 예외)
A_3=제약 5)의 부재(상당한 예외)

③ /yo/에 의한 분포
B_1=[o]
B_2=[yo]

4.2.2. w-계 이중모음

w-계 상향 이중모음의 실현 양상을 보기 위하여 모음으로 시작되는 예들

을 제시한다.

(36) [wenňil~enňil] '웬일'
[wənmaŋ~ənmaŋ] '원망'
[wəryoil~wəroil] '월요일'
[wɛgirəŋga] '왜그런가'
[wɛganǰaŋ~ɛganǰaŋ] '왜간장'
[waŋ] '왕'

(36)은 이 방언권에서 실현되고 있는 w-계 상향이중모음의 예들이다. 이들의 결합상은 아래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37) ?wi *wü ?wɨ *wu
we *wö wə *wo
wɛ 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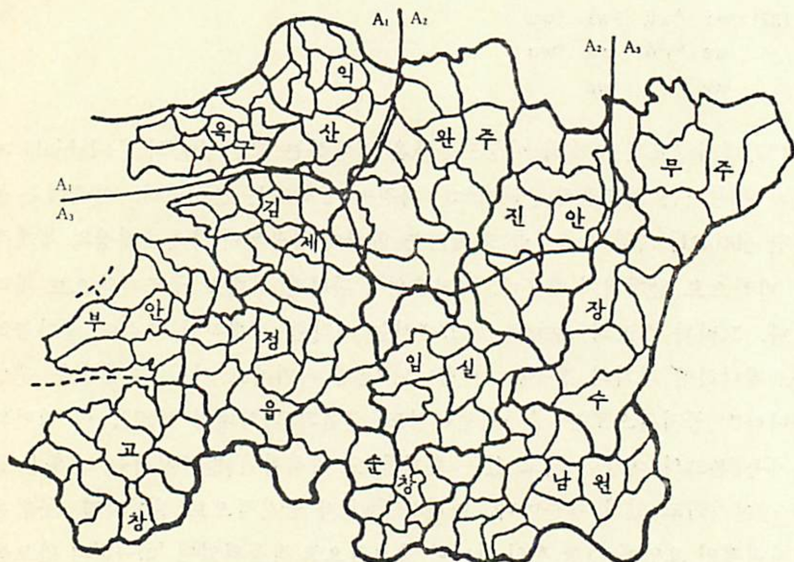
(37)에서 *표된 4개의 이중모음들은 선행하는 활음 /w/의 [+labial] 자질과 후행하는 핵모음의 [+labial] 자질이 중복되는 경우이다. 이들에는 동일한 [labial] 자질의 중복을 회피려는 현상이 적용되어 음운체계상의 체계적인 빈칸으로 남게되기 때문에, 기저층위에 관련된 형태소 구조제약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표의 /wi/와 /wɨ/에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이 방언의 선행 시기에도 이미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48] 공시적으로는 중부방언에서도 실현되고(최태영 1981), 이 방언의 화자들(본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화자들)도 의식적인 발화에서는 간혹 [wi]를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i]가 공시적으로 실현되지 못함은 체계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시적으로 적용되었던 'ui→ü'의 단모음화 규칙에 기인한 것이다. 'ui→ü'의 단모음화 규칙은 이 방언의 선행 시기에 도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ui/에 적용되어 /ui/를 [ü]로 단모음화시켰거나, 아니면 'ui→ü' 규칙 대신에 /ui/의 /i/를 탈락

48) 최전승(1986 : 75~84)에서는 '웨'의 변이형으로 나타나는 '위'의 음가가 [wi]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i-umlaut에 의하여 유도된 중간 형태의 표기인 '구경〉귀경'의 경우는 그 음가가 [uy]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켜 단모음 [u]로 변화시켰다.[49]

따라서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는 [ugeda~ugida/u~uy~ü]와 같은 교체 양상를 보이고 있다. 이들에서 다른 음성형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uy]는 설명을 요한다. 앞에서는 이 방언에 y-계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uy]가 실현되고 있어 앞의 견해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설명을 부가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들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uy]는 옥구, 익산의 북부에서 실현되고, [ü]는 완주, 진안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u] 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지도 12) '위'



A_1=[uy] A_2=[ü] A_3=[u]

그러나 '위로, 윗마을, 위에' 등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항상 예외 없이

49) 전자의 단모음화는 중부방언의 경우(이병근 1970b : 379)와는 달리 이 방언에서는 보다 이른 시기에 실현된 것으로 생각되고(최태영 1981 : 93), 후자의 경우는 전광현(197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말에서 /u/를 유지하는 이사들로 실현되고 있다.

[u~ü] 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위' 단독형의 경우에서만 옥구와 익산에서 [uy] 형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옥구와 익산에서 오직 '위' 단독형 하나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하향 이중모음 [uy]를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일반화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ui>uy>ü/u'와 같은 변화 과정의 중간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여 다른 지역과 구분한다.

여기서 보이는 [u~uy~ü]의 교체형들의 분포는 재미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ui→uy→ü'의 변화와 'ui→uy→u'의 변화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축약의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탈락의 경우인데, 도수희(1977 : 37)에 제시된 'ü←uy→uϕ→u→i'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지도 12)의 A_2지역과 같이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 사이에 약한 등어선을 그릴 수 있게 한다.

또한 /wi/의 경우는 후행하는 /i/가 선행하는 /w/의 [+labial]에 동화되어 'wi→wu'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wi/는 원순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는 원순음 아래에서 /i/의 원순모음화와 동궤로 처리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이승재 1980 : 80, 최태영 1981 : 93~4).

이상과 같이 w-계 상향 이중모음의 활음 /w/는 [+labial] 자질을 가지고 후행하는 핵모음과는 결합하지 못한다.[50] 이러한 현상은 선행하는 [+labial]의 자음과 결합할 때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예 : [mənňilʎə] '무슨 일이여', [namən] '남원', [šibən] '십원' 등) 아래와 같은 제약이 설정된다.

제약 6) 순음 아래에서 w-계 상향 이중모음은 실현되지 못한다.[51]

제약 6)에서 배제된 기타 자음들과의 결합 양상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아래에 예들을 제시한다.

---

50) 물론 /wi/, /wi/의 경우는 표면음성 층위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것으로 /wü, wu, wö, wo/가 실현되지 못함과는 차이가 있다.

51) 이 경우는 표면음성제약과 형태소 구조제약이 동시에 관여하는 것으로 Shibatani(1973)의 M/SPC에 해당될 수 있다.

(38) a. [k'oŋ] '꿩' a'. [k'wəŋ]

[kəntʰu~kontʰu~kontʰo] '권투' [kwəntʰu~kwəntʰo]

[küc'ak~köc'ak] '궤' [kwec'ak]

[kabu] '과부' [kwabu~kwasu]

[k'aŋari] '광주리' [k'waŋari~k'waŋǰuri]

[k'Eŋi] '괭이' [k'wEŋi]

[k'ɛ] '깨' [k'wE]

b. [söak~šüak] '쇄기' b'. [s'wEgi]

[tüaǰi~tüEǰi~töaǰi] '돼지' [twEǰi]

c. [hakt'ok] '확' c'. [hwakt'ok]

[hari] '화로' [hwari]

[hE] '횃대' [hw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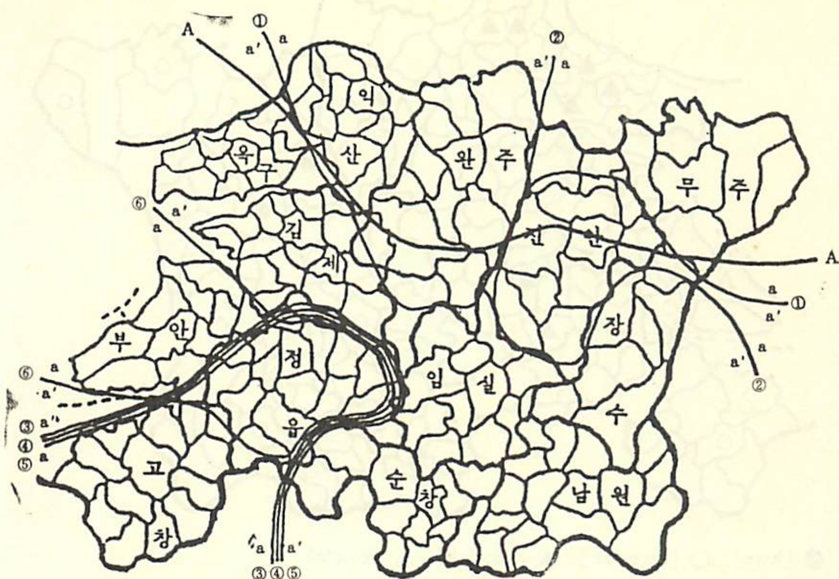
(38)은 순음 이외의 자음이 선행할 경우에 실현되는 w-계 상향 이중모음의 예들이다. 이들은 아래 지도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y-계 이중모음의 경우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a')의 예들을 보면 이 방언의 연구개음 아래에서는 w-계 이중모음이 활발히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의 예들이 존재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

/wə/는 [o]와 [ə]의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그 지역적 분포를 보면 [k'oŋ]은 무주의 무풍을 중심으로한 일부 지역에서만 실현되고, [kontʰu~kontʰo]는 익산, 완주, 무주와 진안의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kəntʰu]는 부안, 정읍, 고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o]의 실현형들은 주로 이 방언의 북동 지역에 위치하고, [ə]의 실현형들은 주로 남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we/는 [ö]와 [ü]의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ö] 유지형은 부안에서만 실현되고, [ü] 유지형은 옥구, 익산과 김제, 부안, 정읍, 순창 등에서 [we] 유지형과 교체를 보이며 실현되고 있으며, [we] 유지형은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장수, 고창, 남원 등과 김제, 부안, 정읍, 순창 등지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ö] 유지형은 문제되지 않고, [ü] 유지형은 이 방언권의 서북 지역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다.

/wa/와 /wɛ/는 이중모음으로의 실현이 일반적인데, 단모음으로 실현될

지도 13) '권투, 꿩, 과부, 꽝주리, 깨, 꽹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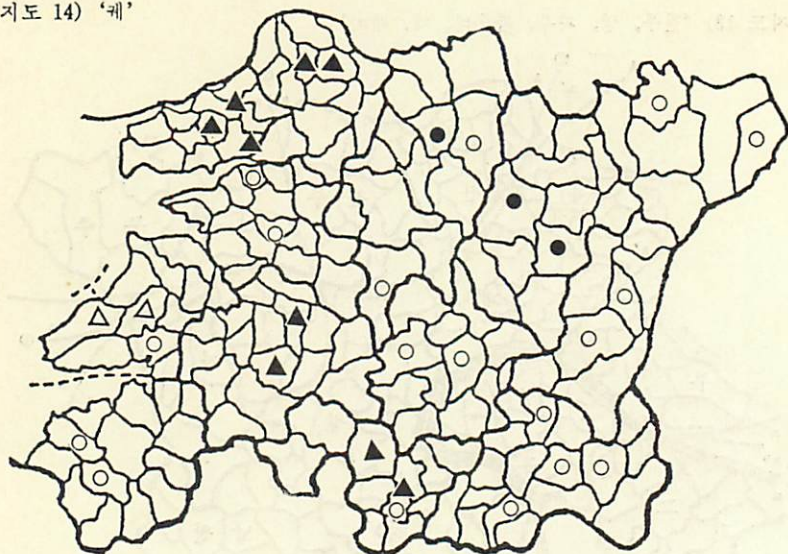
	a	a′		a	a′
①	[kont^{h}u∼-t^{h}o]	[kwənt^{h}u]	②	[k′oŋ]	[k′wəŋ]
③	[kabu]	[kwabu, kwasu]	④	[k′aŋari, k′aŋǰiri]	[kwaŋari, k′waŋari]
⑤	[k′ɛ]	[k′wɛ]	⑥	[k′ᴇŋi]	[kwᴇŋi; k′wᴇŋi]

경우에는 활음 /w/가 핵모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탈락된다. 전자의 [a] 유지형은 정읍, 고창의 일부 지역에서만 실현되고, 후자의 [ɛ] 유지형은 정읍과 수의적으로 부안, 고창, 순창, 남원 등지에서 실현되고 있다.

치음 계열의 자음을 선행시키고 실현되는 (b)와 (b′)의 경우는 주로 [ü], [ö]를 유지하고 실현되고 있어 연구개음이 선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모음의 유지형으로 재어휘화(relexicalisation)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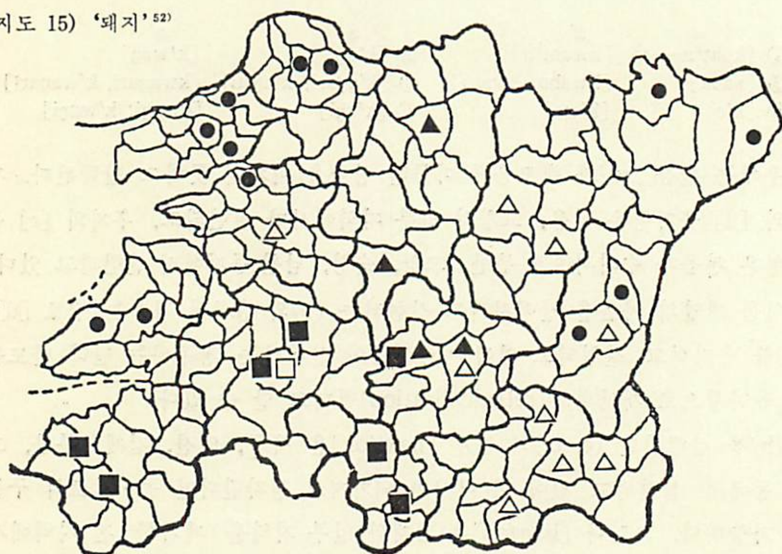
/h/를 선행시킨 (c, c′)의 경우 [hakt′ok]은 옥구, 익산, 김제, 부안, 고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어 이 어사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동·서로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haŋgap]은 김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역으로 [hari]는 정읍, 고창에서만, [hᴇ]는 옥구, 김제, 임실에서만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한 등어선의

지도 14) '게'



● [kwe] ○ [kwec'ak] ▲ [kü:c'ak] △ [kö:c'ak]

지도 15) '돼지'[52]



● [twᴇ:ǰi] ▲ [tüᴇǰi] △ [tüaǰi] ■ [töaǰi] □ [toyaǰi]

설정은 곤란하다.

이상과 같이 w-계 이중모음의 경우는 y-계 이중모음의 경우와는 달리 체계적인 해석이 곤란하다. 그러나 /wə, we/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 활음 /w/를 탈락시키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되고 있는 /wə/를 생각하면 'wə→o'의 변화와 'wə→ə'의 변화상을 가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최명옥(1982 : 84, 113~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남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w/의 [+labial] 자질이 /ə/에 전이되어 [labial]의 대립짝인 [o]로 축약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w/가 단순히 탈락된 것이다.[53] 그런데 전자의 실현 지역은 이 방언권의 동북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동남방언과의 관계를 예견케 하고, 후자의 실현 지역은 주로 이 방언권의 남서부 지역에 치우쳐 있어 이 방언권의 내재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여 약하기는 하지만 지도 13)의 A와 같은 하나의 등어선을 설정할 수 있다.

/wə/의 경우와 같이 생각한다면 /we/도 축약에 의한 [ö]와 활음 탈락에 의한 *[e]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대하는 [e] 대신 [ü] 유지형이 실현되고 있으며, 그 실현형들이 [ö] 유지형의 실현보다 우세하다. 이는 /wə/에서 취한 축약이 이 경우의 일반적인 제약이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w-계 이중모음의 분포제약은 y-계 이중모음의 분포제약과는 달리 순음을 제외한 기타 자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의 실현이 일반적이지만, 단모음으로 실현될 때는 단순하게 활음 /w/가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54]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y-계 이중모음의 분포에 깊이 관여했던 [palatal], 즉 [grave]의 자질과 w-계 이중모음의 분포에 깊이 관여했던 [labial] 자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는 활음 /y/의 구개적 자질이 자음을

52) '쇄기'의 경우는 무주에서만 [sɛ:k]으로 실현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활음 유지형이 실현되지 않는다.

53) 이처럼 /w/의 탈락은 전술한 /y/의 분포제약에 비해 타당한 음성학적 요인이 없다. 따라서 /y/의 경우와 같이 명료한 제약이 기술되지 못한다.

54) 이들의 분포 상황은 지도 13~15) 참조.

구개음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탈락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핵모음과 축약되는데 반해, 후자는 선행 자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탈락도 핵모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후자가 전자보다 수동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전자의 [grave] 자질이 후자의 [labial] 자질보다는 그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grave] 자질이 [labial] 자질보다 상위의 위계를 점유한다는 설명을 뒷받침한다.

4.3. 활음 형성 및 탈락

이 장에서는 3.2에서 논의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과는 달리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실현되는 활음 형성과 활음 탈락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4.3.1. y-형성

(39) a. [cəsə] '(집을) 지어서'
[c'ət'a] '찌었다(肥)'
[cʰət'a] '(공을) 찼다'
[səsə] '시어서'
b. [c'əra~c'i:t'a] '(반지를) 끼어라/끼었다' b'. [k'iət'a~c'iət'a]
[c'iet'a~c'i:t'a] '(진딧물이) 끼었다' [c'iət'a]
[c'ət'a~c'iet'a] '(안개가) 끼었다' [k'iət'a~c'iət'a]
c. [kie~ke:~ki:] '기어' c'. [kiə]
d. [pʰyəsə~pʰiesə~pʰe:sə] '피어서' d'. [pʰiəsə]
[pʰyəra~pʰe:ra] '펴라' [pʰiəra]
[p'iesə~p'i:t'a~p'e:sə] '삐어서' [p'iəsə]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고 활음 /y/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은 선행 어간

의 말음이 /i/이고 후행 어미의 두음이 '-ə/a'인 경우이다. (39)는 단음절 어간의 예들인데, (a)는 기저에서부터 어두에 치찰음이 선행한 예들이다. 이들은 항상 활음 /y/가 실현되지 못하고 [ə] 유지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치찰음을 선행시킨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선행 어간말음 /i/가 탈락하는 것으로 처리된다.[55] 물론 이들의 탈락 과정을 통시적으로 생각한다면 일차적으로 'ci+ə→cyə'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나고, 18세기에 치찰음 아래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ə]와 [yə]의 중화 현상에 의하여 [cə]로 실현된 것이다(이기문 1972b : 67).[56] 그러나 공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표면 음성형에서 결코 실현되지 않는 [yə]를 가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추상성을 허용하게 되고, (b~d)의 예들에서도 지적되겠지만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단음절 어간에서는 활음화 현상이 생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i-탈락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y-형성 규칙을 설정하는 것보다 타당하다. 이는 후술할 활음 형성 및 탈락에서 보상성 장모음화와 관련한 자연성을 확보하는 데에서도 정당화 된다. (후술할 i-탈락 참조)

규칙 8) i-탈락(임시)

$$i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text{cons} \\ +\text{str} \end{bmatrix} -]_{\text{V.A.st.}}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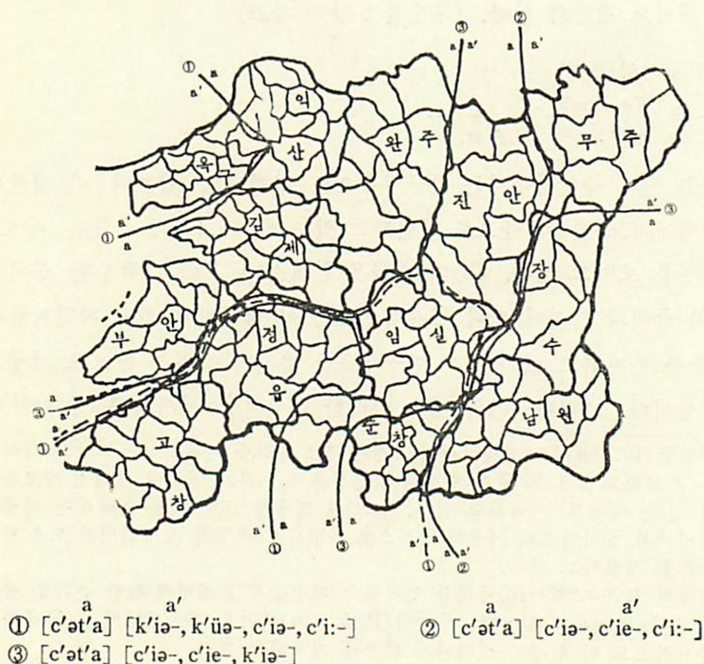
(a)와는 달리 중앙어에서는 연구개음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 방언권의 일부 지역에서도 연구개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b)와 (c)의 예들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b)의 예들은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된 통시적인 구개음화 규칙의 결과에 따라 공시적으로는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경구개음을 유지하고 있는 형과 연구개음을 유지하고 있는 형으로 재구조화 된 어사들이다. 그런데 (c)의 예는 이러한 통시적인 구개음화 규칙에 대한

55) 이병근(1978)에서도 현대국어의 보상성 장모음화를 논의하면서 이들의 특이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활음 형성의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성 장모음화에 대한 예외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승철(1988 : 38~9)에서는 제주도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이들이 활음으로 실현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모음 탈락 규칙을 정립하고 있다.

56) 김영기(1975 : 207~10)에서는 언어습득 과정상의 교체형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주상대(1985 : 164)에서는 경북방언의 예를 통하여 공시적으로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외이다. 따라서 (b)와 (c)의 예들을 (a)의 예들과 비교하여 본다면 i-탈락과 활음 형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a)의 경우는 이 방언에서 결코 i-탈락의 예외형이 실현되지 않지만, (b)의 경우는 상당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공시적으로 동일한 경구개음으로 실현될지라도 통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저의 경구개음 아래에서 i-탈락이 진행되어 가는 도중에 연구개음의 경구개음화 규칙이 삽입되어 i-탈락 규칙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사들을 형성했고, 이 경구개음화 규칙이 완료되기 이전에 i-탈락 규칙의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는 (b')와 같은 예외들이 허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i-탈락 규칙의 예외를 허용하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보다 구개음화 규칙이 후대에 발달되었음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인 면만을 고려한다

지도 16) '(반지를) 끼었다, (진딧물이) 끼었다, (안개가) 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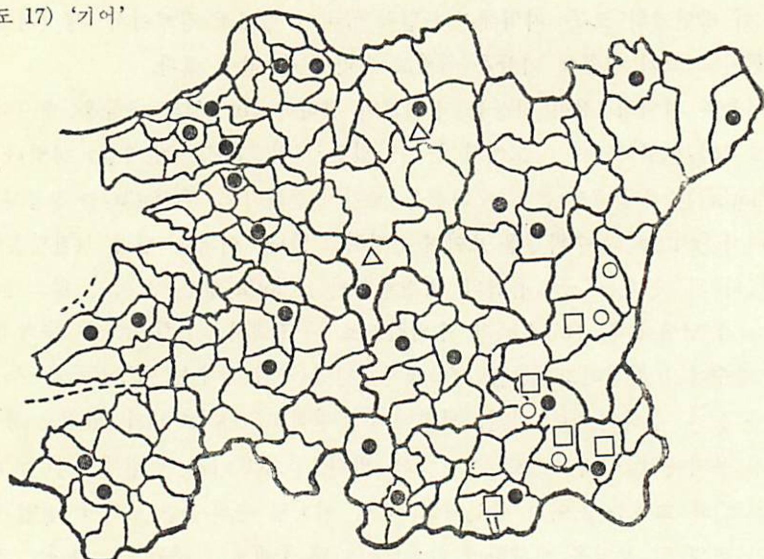
① [c'ət'a] (a) [k'iə-, k'üə-, c'iə-, c'i:-] (a') ② [c'ət'a] (a) [c'iə-, c'ie-, c'i:-] (a')
③ [c'ət'a] [c'iə-, c'ie-, k'iə-]

면 이 방언권의 모든 지역에서 i-탈락 규칙이 형태소 경계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예외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지역적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b, b')의 예들을 제시하면 지도 16)과 같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지를) 끼었다'의 [k'iət'a]는 옥구에서 많은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c'iət'a]는 정읍과 임실에서 [c'i:t'a]와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진딧물이) 끼었다'의 경우는 구개음화의 비실현형인 [k'iət'a]형은 보이지 않고 [c'iet'a]가 남원에서, [c'iət'a]가 수의적으로 무주에서, [c'i:t'a]가 수의적으로 장수에서 실현되고 있다. '(안개가) 끼었다'의 경우는 [c'iət'a]가 무주, 진안 등과 수의적으로 임실, 남원에서 실현되고, [k'iət'a]가 임실, 정읍, 고창 등지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c'iet'a]는 남원에서 [c'ət'a~c'iət'a]와 교체를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이처럼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는 위의 몇 지역을 제외하면 이들도 (a)와 동궤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일부 지역에서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는 (b)의 예들일지라도 이들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통시적인 구개음화 규칙과 활음 형성 규칙, 그리고 i-탈락 규칙들의 적용 순서에 관한 문제이고, 다음은 [iə~i:] 교체형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에서 활음 형성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면 'k'i+ə→k'yə→k'e'와 같은 도출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c'ə-] 유지형들은 얻을 수가 없다. 따라서 구개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i-탈락 규칙이 나중에 적용 되어야 (b)와 같은 표면음성형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c)의 경우는 구개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ci-/'(짐을) 지다'와 의미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에 예외로 남게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개음화를 수행한 (b)의 경우는 (a)와 동일하게 'k'i+ə-→c'i+ə-→c'ə-'와 같은 도출과정을 겪은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b, b')에서 실현되고 있는 [i:~iə]의 교체형들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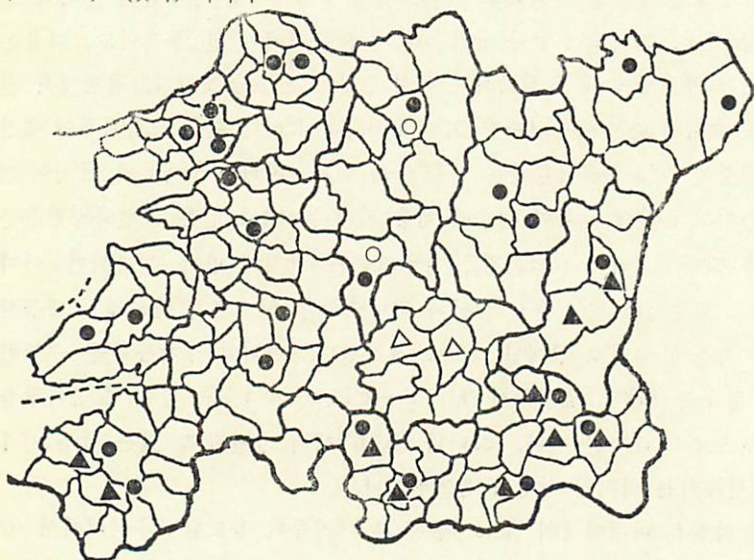
먼저 치찰음 아래에서의 [c'iə-]형은 /k/에서부터 유도된 [c] 아래에서 /i/가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i-탈락 규칙의 예외이다. 그러나 [i:-] 유지형들은

지도 17) '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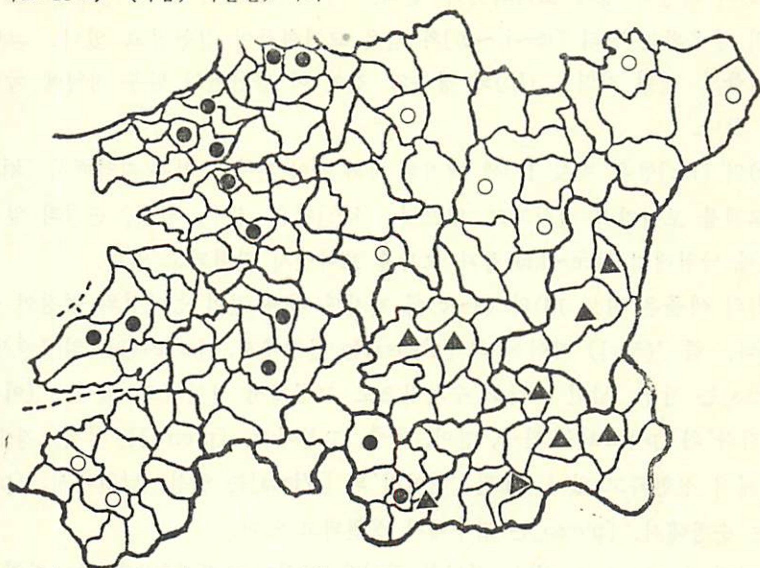
● [kiə] △ [ki:] ○ [ke:] □ [kie]

지도 18-a) '(꽃이) 피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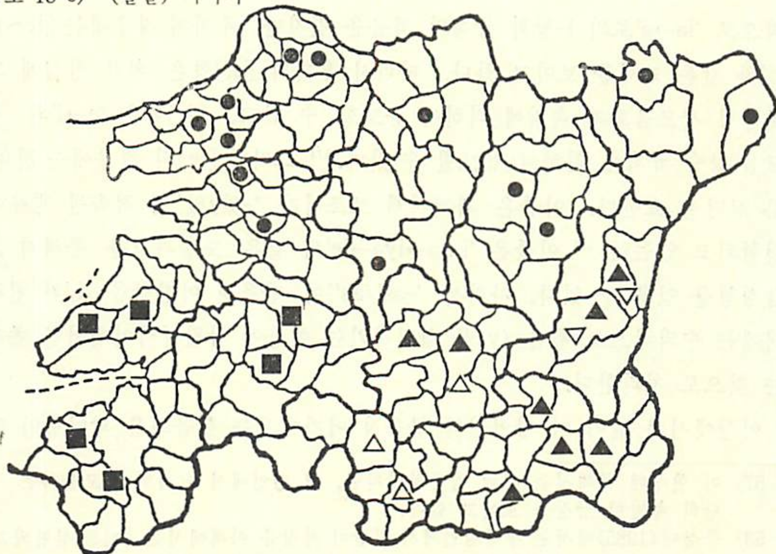
● [pʰiəsə] ○ [pʰyəsə] ▲ [pʰesə] △ [pʰiesə]

지도 18-b) '(가슴, 이불을) 펴라'



● [pʰiəra] ○ [pʰyəra] ▲ [pʰera]

지도 18-c) '(팔을) 빼어서'



● [p'iəsə] ■ [k'üəsə] ▲ [p'ɪesə] △ [p'i:sə] ▽ [p'e:sə]

(c, d)의 예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c, d)의 실현 양상을 보면 (b)의 경우와는 달리 [ie~i:~e:]와 같은 교체형들이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현 지역도 (b')의 경우와 같이 이 방언권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c)의 [ki:]형은 지도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주의 일부 지역에서 [kiə]와 교체를 보이면서 실현되고 있으며, [ke:]형은 장수, 임실, 순창의 일부 지역과 남원에서 [kie~kiə]형과 교체를 보이면서 실현되고 있다.

(d)의 예들은 지도 18)의 (a~c)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등어선의 설정이 곤란하다. 즉 '(꽃이) 피어서'의 [pʰyəsə]는 완주에서, [pʰiesə]는 임실에서, [pʰe:sə]는 장수, 남원 그리고 수의적으로 고창에서 실현되고 있다. '(이불을) 펴라'의 [pʰyəra]는 완주, 진안, 무주, 고창에서, [pʰe:ra]는 임실, 장수, 남원에서 실현되고 있다. 또한 '삐어서'의 [p'iesə]는 임실, 남원에서, [p'i:sə]는 순창에서, [p'e:sə]는 장수에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a, b)와 (c, d)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는 단일형태소 내의 구개음 아래에서는 활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제약에 의하여 공시적으로 'iə→ə'로의 i-탈락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ie~e:~i:]와 같은 교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e:]형은 활음 형성에 의한 보상성 장모음화와 축약에 의하여 유도할 수 있고, [i:]형은 'e→i'와 같은 모음 상승 규칙에 의하여 유도할 수 있다.[57] 그러나 [ie]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설명을 요한다. 이들은 과거시제 보조어간 '-았/었'이 접속될 경우에만 실현되고 있는데,[58] 이들은 'i+ə→iyə→ie'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서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əs'/as''이 단음절 어간말음 /i/와 연결될 때에는 수의적으로 활음 /y/를 삽입시키는 현상이 남원지역어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방언권의 단음절 어간에서는 활음화를 외면함이 일반

57) 이 현상에 대해서는 뒤에 상론하겠지만, 이 방언에서 이러한 고모음화는 상당히 활발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58) 주상대(1985)에서는 경북방언에서 이들이 치찰음 아래에서는 [ə]로 실현되고, 기타 자음 아래에서는 [e]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적이기 때문에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활음 형성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도 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록 수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남원, 임실, 장수, 순창, 고창, 완주, 진안, 무주 등의 지역에서 활음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남원, 임실, 장수 등지에서는 그 빈도가 다른 지역의 경우보다 높다. 따라서 이들의 실현 양상에 의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을 구분하고, 또 활음 형성의 양상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의적이고 minor rule인 단음절 어간의 y-형성 규칙을 설정한다.

규칙 9) y-형성(수의적)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voc}]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str} \end{bmatrix} -]_{\text{V.A.st.}} \overset{+}{}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ow} \\ -\text{labial} \end{bmatrix}$$

지역적 분포 조건 : 이 규칙은 수의적으로 남원, 임실, 장수, 순창, 고창, 완주, 진안, 무주 등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남원, 임실, 장수 등에서는 그 적용 빈도가 높다.

규칙 9)의 구조기술에서 [−str]는 i-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cons]로만 기술해도 된다. 이러한 규칙 순서의 유지는 규칙 9)의 구조기술을 간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후술할 w-형성에서 u-탈락 규칙과 w-형성 규칙과의 적용 순서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i-탈락 규칙은 활음 형성 규칙에 선행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40) a. [tüǰəsə~tüǰigak'o] '뒤지어서'
[tac^{h}ət'a~tac^{h}e-~tac^{h}i-] '다치었다'
[mašəra~masera~mašira] '마시어라'
b. [kac^{h}ə~kac^{h}e~kac^{h}it'a] b'. [kac^{h}iə]
'갇히어'
[anc^{h}ə~anc^{h}era] '앉히어라'
[kalc^{h}ə~kalc^{h}e~kalc^{h}i~karic^{h}ə~karic^{h}e] '가르키어'

c. [nöp^{h}yə~nöp^{h}e~nöp^{h}ira] '높히어라'
[cɛp^{h}yə~cɛp^{h}e~cɛp^{h}it'a] '잡히었다'

d. [megyə~mege~megira] '먹이어라'
[muk'yə~muk'e~muk'ǐjət'a] '묶이었다'
[šik'yə~šik'e~šik'i] '씻기어'
[pek'yə~pek'e~pek'ira] '벗기어라'
[šiŋk'yə~šiŋk'e~šiŋk'i] '신기어'
[tɛŋgyə~tɛŋge~tɛŋgira] '당기라'
[öŋgyə~öŋge~öŋgira] '옮기어라'
[kɨlk^{h}yə~kɨlk^{h}e~kɨlk^{h}isə] '긁히어서'

e. [neryə~nere~neri~nerara] '네리어라'
[peryə~pere~perit'a] '버렸다'

f. [p^{h}ulʎə~p^{h}ulle~p^{h}ulʎit'a] '풀리었다'
[šilʎə~šille~šilʎit'a] '실리었다'
[alʎə~alle~alʎit'a] '알리었다'

(40)은 어간 말음이 /i/인 2음절 이상의 어간에 '-ə/a'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된 예들이다. 이들은 단음절 어간의 경우와는 달리 활음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규칙 10) y-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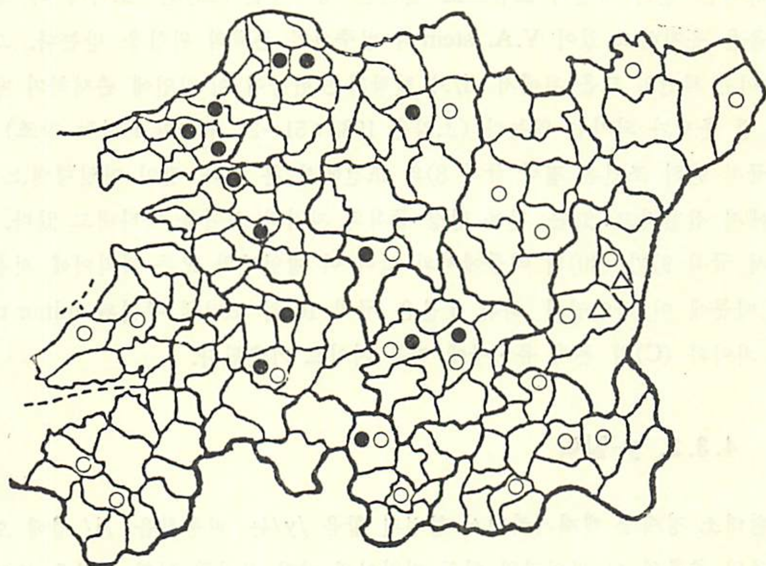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voc}] / (\text{CoVCo})\text{o}(\text{C}) -] \underset{\text{V.A.st.}}{+}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ow}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지역적 분포 조건 : (CoVCo)o에서 o이 선택되면 단음절의 경우가 되어 규칙 9)의 조건에 제시된 지역에서만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규칙 10)에서 (CoVCo)와 (C)가 모두 선택되지 않을 경우는 /i+əra/ '이어라'의 한 예만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실현되는 표면음성형 [iəra~yəra~e:ra] 등은 규칙 10)이 적용되는 경우([yə]와 [e:]로 실현되는 예)와 공전되는 경우([iə]로 실현되는 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어, 규칙 10)의 적용

이 수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 지도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활음을 형성하는 지역은 진안, 무주, 장수, 남원, 부안, 고창 등과 수의적으로 완주, 순창 등이고, 기타 지역에서는 활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순창과 완주의 일부 지역에서 보이고 있는 수의성을 배제한다면 중서부에서는 괄호의 유·무에 상관없이 활음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남동부에서는 C가 선택되지 않으면 의무적인 규칙이 되기 때문에 규칙 9)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지도 19) '이어라'



● [iəra] ○ [yə(:)ra] △ [e:ra]

또한 V.A. stem의 범주화는 [k'umiənniŋga~k'ümiənnin-] '꿈이었는가'의 예에서처럼 체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활음화를 외면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k'umyənniŋga~k'umiennin-]과 같은 형들이 실현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k'umyənniŋga]의 경우는 극히 수의성을 보이며 진안, 무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실현되고 있어 본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59] 그러나 [k'umienniŋga]의 경우는 임실, 장수 등과 남원의 일부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역어에 존재하고 있는 음운규칙과의 관계에 의하여 활음화와 무관한 것으로 처리된다.

(41) /k'um+i+as'-/[60)]
k'umiyəs'- ……y-삽입
k'umies'- ……축 약
[k'umies'-] ……표면형

이와는 달리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soyə] '소이어'와 같이 활음을 유지하고 있어 V.A. stem의 범주화가 존재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체언의 모음 뒤에서 /i/가 탈락되는 현상이 이 방언에 존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소강춘 1983 : 51~2, 후술할 i-탈락 참조)

규칙 9)의 조건은 결국 규칙 8)의 조건에서 본 바와 같이 단일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활음 형성 규칙의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규칙 9)가 (40)의 예들에서와 같이 이 방언권의 모든 지역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방언권의 하위 구분은 규칙 10)의 조건에 부여된 minor rule의 차이와 (C)의 존재 유·무에 따른 차이로 기술된다.

4.3.2. y-탈락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면서 형성된 활음 /y/는 피동화음 /i/ 앞에 오는 자음의 종류와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에 따라 상이한 탈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61] 그런데 활음 탈락 현상은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위치에서 실현되고

59)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승재(1987 : 258)의 자료집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실현은 거의 듣기가 어려운 경우이다.
60) y-삽입과 축약은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생산성을 가진 규칙임이 후술되어진다.
61) 앞의 활음 형성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활음의 탈락에 의해 지역적인 차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있는 활음 형성 규칙에 의하여 급여(feeding) 받고 있기 때문에 규칙 8~10)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단음절 어간에서의 활음 탈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예 (39)와 함께 규칙 8~10)을 재고하기로 한다.

규칙 8)과 9)를 정립하면서 (39)의 (a)와 (b)의 경우에는 [ə] 유지형이 일반적이고, (c)와 (d)의 경우에는 활음화를 겪지 않은 [iə] 유지형이 일반적임을 지적했다. 치찰음 아래에서의 y-계 이중모음의 실현에 대한 제약은 통시적인 구개음화 규칙에 의하여 실현된 선행 자음의 [palatal] 자질과 후행하는 /y/의 [palatal] 자질이 중복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 구개자음의 조음에 잉여적인 활음 /y/ 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제약 5). 따라서 형태소 내부의 치찰음 아래에서 /y/가 실현되지 못함은 통시적인 음운변화의 공시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은 단일 어간의 두음으로 치찰음이 실현될 때에도 적용되어 어간말음 /i/를 탈락시키고 있다. 만약 /i/가 활음화된다고 한다면 활음화에 따른 보상성 장모음화가 일어나 표면음성형에 장음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단음절 어간의 치찰음 아래에서는 장모음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i/가 활음화되지 않았다는 우리 견해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39, a)의 예들은 이 장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39, b)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지만 [i:], [ie] 형들이 실현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을 요한다.

[i:]의 경우는 단순히 후행 접사의 두음인 [ə]가 탈락된 것으로 간단히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방언권의 화자들은 제 1 음절에서는 음장에 대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전술한 바와 같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여기서 실현되고 있는 장모음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이 /ə/가 탈락했다고 하는 설명은 [i:]가 항상 장모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활음 형성에 따른 비음절화(dissyllabification)가 일어날 경우에는 보상성 장모음화가 일어난다(김완진 1972, 이병근 1978, 주상대 1985). 따라서 이 경우에 실현되고 있는 장모음도 이와 동궤로 처리되어 아래의 도출과정 (a)를 예상할 수 있다.

(42) a. /k′i+əs′-/ b. /k′i+əs′-/

c′i əs′-	c′i əs′-	……구개음화
c′yə:s′-	c′yə:s′-	……장모음화
c′e:s′-	…………	……축　약
…………	c′ə:s′	……활음탈락
(c′i:s′-	…………	……모음상승)
[c′i:s′-]	*[c′ə:s′-]	

위의 도출과정 (b)에서와 같이 치찰음 아래에서 활음화와 보상성 장모음화가 실현된다면, (39, a)의 모든 예들과 (39, b)의 대부분의 예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단모음의 [ə] 유지형들을 위해서는 도출과정의 어느 단계에 단모음화 규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모음화 규칙의 동기가 이 방언에서 일반화 되지 못하고, 동일한 도출과정에서 장모음화된 예들이 다시 단모음화된다는 것은 어색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치찰음 아래에서의 i-탈락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설명력을 부여한다. 이와는 달리 [ie]의 경우는 상술한 어떤 설명으로도 해결이 곤란하지만 항상 과거시제 보조어간 '-았/었'이 후접하기 때문에 '/-i+əs′-/→ -iyəs′- →[-ies′-]'과 같이 y-삽입 과정이 추가된 도출과정이 설정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62]

(39, c)의 경우는 구개음화에 대한 예외인데 활음 형성과 탈락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39, b)의 예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경우의 도출과정과 (39, c)의 경우는 의미있는 차이를 시사한다.

(43) a. /k′i+ə-/ b. /ki+ə-/

c′iə-	?	……구개음화
c′ə	…………	……i-탈락
…………	kyə:	……y-형성
…………	ke:	……축　약
…………	(ki:	……모음상승)
[c′ə]	[ke:~ki:]	

(43)의 도출과정에서 (b)의 ?표는 구개음화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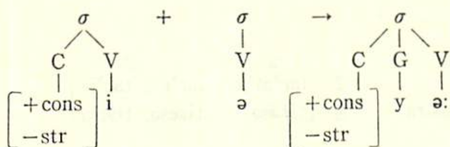
62) 주상대(1865 : 161~2)에서는 이들이 항상 [e]로 실현됨을 보이면서 과거시제 보조어간의 앞에 breath group을 가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도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를 표시한 것이다. y-형성과 i-탈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행 자음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기술(SD)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개음 아래에서의 i-탈락 규칙과 구개음 아래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활음 형성 규칙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개음 아래에서의 i-탈락 규칙을 정립하고, y-형성 규칙은 선행 자음과는 무관한 규칙으로 처리하여 y-형성 규칙에 대하여 출혈(bleeding) 관계에 있는 i-탈락 규칙이 선행해야 한다는 외재적인 규칙 순서의 유지가 중요한 관건이다.[63] 그런데 [kie]형의 실현은 [c'ie-]형의 경우와 비교해서 흥미 있는 예다. 후자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후자가 실현되고 있는 남원과 장수의 일부에서만 실현되고 있어, 이 지역어에서 [ie] 유지형이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는 이렇다할 설명의 기제를 찾을 수 없다.

(39, d)의 경우는 (39, c)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단음절 어간의 활음 탈락 양상은 선행 자음이 치찰음인가 아닌가에 따라 (a, b)와 (c, d)로 양분되고, 그 지역적 분포는 활음 형성 규칙을 논하면서 기술된 것과 동일한다. (규칙 9)의 조건 참조)

규칙 11) 활음 형성과 보상성 장모음화(수의적)



활음 형성에서 단음절 어간과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그 탈락 양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하여 (40)의 예들을 재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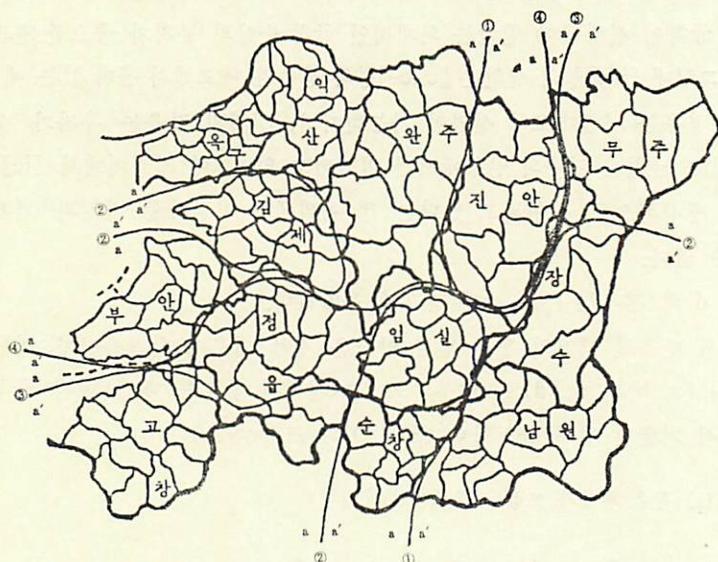
(40)의 예들에서 우리는 선행 자음의 종류와 무관하게 활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모든 예들이 이 장에서 논의될 활음 탈락

63)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은 y-형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킨다.

(40, a)의 예들은 (39, a)와는 달리 [ə~e~i]의 교체를 보이고 있으며, [e~i]형들의 실현 지역도 지도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지도 20) '뒤지어서, 다치었다, 마시어라, 드시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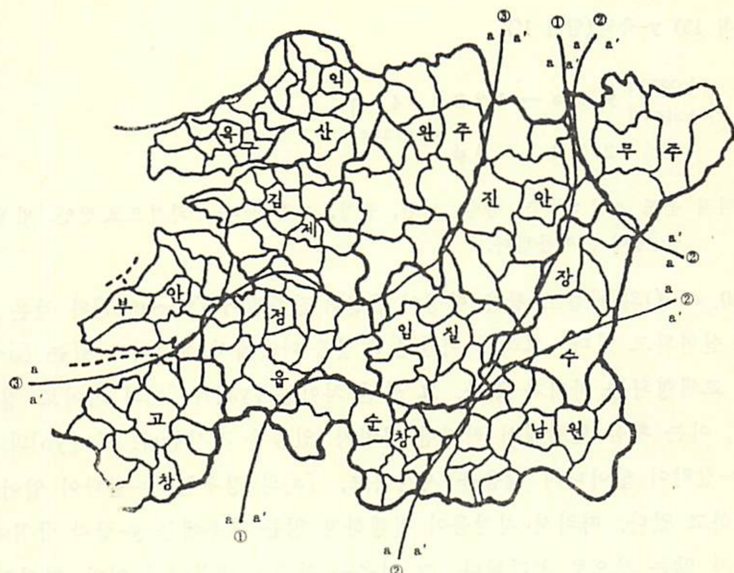


	a	a′		a	a′
①	[tüǰəsə]	[tüǰigak'o]	②	[tac^{h}ət'a]	[tac^{h}e-, tac^{h}i-]
③	[mašəra]	[masera, mašira]	④	[tišəsə]	[tisesə, tišira]

따라서 단음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치찰음 아래에서의 i-탈락 규칙을 설정할 수는 없다.[64] 이러한 양상은 지도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0, b)의 경

64) 단음절의 경우에서 [ə] 유지형에는 단모음이 실현되고, [e:], [i:]의 경우에는 항상 장모음이 실현되고 있어, 활음 형성과 보상성 장모음화에 의하여 i-탈락 규칙과 활음 형성과 보상성 장모음화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방언권의 화자들이 2음절 이상에서는 음장에 대한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음장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없고, 실제로 [e], [i]의 경우에도 단모음으로만 실현되고 있다.

지도 21) '갇히었다, 앉히어라, 가르치어라'



① [kacʰət'a] (a) [kacʰe-, kacʰi-] (a') ② [ancʰə] (a) [ancʰera] (a')
③ [kalcʰəra~karicʰə] (a) [kalcʰe-, kalcʰi-, karicʰe-] (a')

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치찰음 아래에서도 활음 형성에 따른 활음 탈락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먼저 이들을 활음 탈락 양상에 따라 구분하면 [ə] 유지형과 [e~i] 유지형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된 제약 5)와 동궤로 처리되어 별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yə→e→i'와 같은 도출과정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이 방언권의 제 2 음절 이하의 치찰음 아래에서는 y-탈락과 축약의 두 규칙이 공존하고 있다.

규칙 12) y-탈락

$$y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text{cons} \\ +\text{str} \end{bmatrix} -]_{\text{V.A.st.}} + ə$$

지역적 분포 조건 : 옥구, 익산, 완주, 김제, 부안 등과 수의적으로 진안, 임실, 정

읍 등에서 적용된다.

규칙 13) y-축약(임시 1′)

$$\begin{bmatrix}+\text{cons}\\+\text{str}\end{bmatrix} \underset{2}{y} + \underset{3}{ə} \to 1\ \underset{\phi}{2}\ \underset{\phi}{3} \begin{bmatrix}4\\-\text{grave}\end{bmatrix}$$
$$\underset{1}{}\qquad\qquad 4$$

지역적 분포 조건 : 무주, 장수, 남원, 순창, 고창 등과 수의적으로 진안, 임실, 정읍 등에서 적용된다.

(40, c∼f)의 예들도 활음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yə∼e∼i]와 같은 교체형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치찰음 아래에서 실현되고 있는 [ə∼e∼i]의 교체형과는 차이가 있다. 그 주된 차이는 [yə]와 [ə]의 차이로 집약되는데, 이는 활음 탈락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yə]의 경우는 y-탈락이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ə]의 경우는 y-탈락이 일어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치찰음이 선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y-탈락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그 이유는 형태소 내부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치찰음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 자음과 후행 /y/가 동일한 [palatal] 자질의 연속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0, c∼f)의 예들을 위해서는 축약 규칙만을 설정하면 된다.

규칙 14) y-축약(임시 1″)

$$\begin{bmatrix}+\text{cons}\\-\text{str}\end{bmatrix} \underset{2}{y} + \underset{3}{ə} \to 1\ \underset{\phi}{2}\ \underset{\phi}{3} \begin{bmatrix}4\\-\text{grave}\end{bmatrix}$$
$$\underset{1}{}\qquad\qquad 4$$

지역적 분포 조건 : 1. 순음이 선행할 경우는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등과 김제, 완주의 일부에서 적용된다.

2. [r]이 선행할 경우는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등에서 적용된다.

3. [ll]이 선행할 경우는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등에서 적용된다.

규칙 13)과 14)는 선행 자음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축약 현상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두 규칙의 선행 자음을 합하면 선행 자음의 종류와는 무

관하게 축약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 그 실현 지역도 유사하여 보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합병(collapse) 될 수 있다.

규칙 15) y-축약(1)

$$\underset{1}{[+\text{cons}]}\ \underset{2}{y}\ \underset{3}{+}\ \underset{4}{\text{ə}} \rightarrow 1\ 2\ \underset{\phi}{3}\ \underset{\phi}{\begin{bmatrix} 4 \\ -\text{grave}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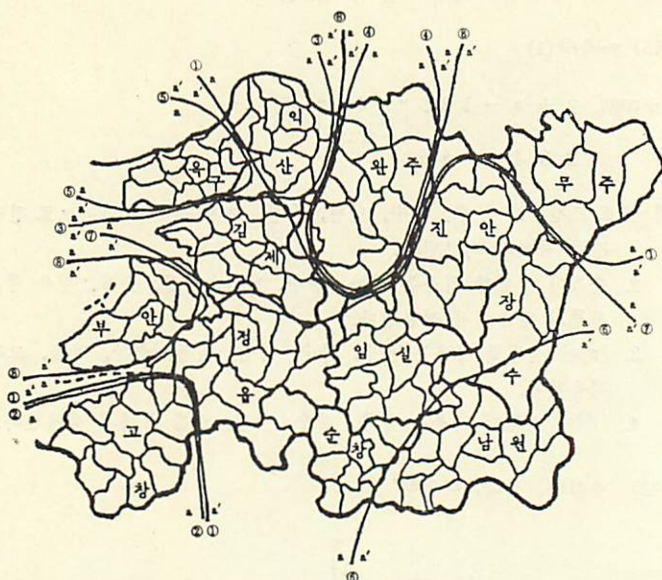
지역적 분포 조건 : 1. 무주, 장수, 남원, 순창, 고창 등과 수의적으로 진안, 임실, 정읍 등에서 적용된다.

2. 순음이 선행할 경우는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등과 김제, 완주의 일부에서 적용된다.
3. [r]이 선행할 경우는 무주, 장수,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등에서 적용된다.
4. [ll]이 선행할 경우는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등에서 적용된다.

지도 22) '높혀라, 잡혀, 더럽혀'

	a	a′
①	[nöpʰyə]	[nöpʰe, nöpʰira]
②	[cɛpʰyə]	[cɛpʰe, cɛpʰit′a]
③	[tərəpʰyə, tirəpʰyə]	[tərəpʰe, tərəpʰi, tirəpʰe, tirəpʰit′a]

지도 23) '먹이어, 묶이어, 씻기어, 벗기어, 신기어, 당기어, 옮기어, 긁히어'



	a	a′		a	a′
①	[megyə]	[mege, megira]	②	[muk′yə]	[muk′e, muk′ijət′a]
③	[šik′yə]	[šik′e, šik′i]	④	[pek′yə]	[pek′e, pek′ira]
⑤	[šiŋk′yə]	[šiŋk′e, šiŋk′ira]	⑥	[tɛŋgyə]	[tɛŋge, tɛŋgira]
⑦	[öŋgyə]	[öŋge, öŋgira]	⑧	[kɨlk^{h}yə]	[kɨlk^{h}e, kɨlk^{h}isə]

4.3.3. w-형성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위치에서 활음 /w/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은 선행 어간 말음이 /o, u, ö, ü/이고, '-ə/a'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이다.

(44) a. [pwa:ra~pa:ra] '보아라'
[p^{h}əra] '푸어라'

b. [s′wə:] '쑤어' b′. [s′uə]
[cwə:] '주어' [cuə]
[c^{h}wə:] '추어' [c^{h}uə]

지도 24) '버렸다, 네리어라'

① a [peryət'a] a′ [pere-, peri-]　② a [neryəra] a′ [nere-, neri-, nera-]

지도 25) '풀리었다, 실리었다, 알리었다'

① a [p^hulʎə] a′ [p^hulle, p^hulʎit'a] ② a [šilʎə] a′ [šille, šilʎit'a] ③ a [alʎə] a′ [alle, alʎit'a]

[s'wa:] '쏘아'	[s'oa]
c. [kwa:~kowa] '(엿을) 고아'	c'. [koa]
[k'wa:] '꼬아'	*[k'oa]
d. [nwə:] '누어'	d'. [nuə]
e. [hwa:] '호아'	e'. [hoa]
f. [twE:sə] '(말을) 되아서'	f'. [töasə]
[swE:sə] '(나물이) 쇠아서'	[söasə]
*[kwE:sə] '괴아서'	[köasə]
g. [twə:~twe:] '두어'	g'. [tüə]
[k'wə:~k'we:] '꾸어'	[k'uə~k'üə]
h. [wa] '오아'	*[oa]

(44)는 단음절 어간의 예들이다. (a)는 순음이 선행하는 경우로 /o/와 /u/가 서로 달리 기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형태소 경계에서 고모음 /u/는 '-ə' 앞에서 탈락되지만 중모음 /o/는 활음 [w]로 변화되어 모음의 높이(vowel height)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65]

따라서 이 두 모음은 '-ə'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탈락됨에 비해 /o/는 활음 /w/를 실현시키고 있어, 후자가 전자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66]

---

65) 전술한 바와 같이 y-형성에서 치찰음에 후행하여 실현되는 고모음 /i/도 활음을 형성하지 못하고 '-a' 앞에서 탈락함을 지적했고, 이중모음의 분포제약을 논의하면서 [+labial]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러한 동일 자질의 회피 현상이 활음 형성에서는 일반적인 요인으로 등장하지만 일반언어학적인 특징인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국어의 원순모음화 경우에는 상호 이질적인 자질의 결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질적인 [labial]의 연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이화작용이고, 후자의 경우는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화에서 음성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언급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66) 일반적으로 전술한 i-탈락과 이 장에서 논의된 u-탈락은 'i+ə→yə→ə', 'u+ə→wə→ə'와 같이 활음 형성과 탈락 규칙에 의하여 처리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 연구의 주된 논점 중의 하나인 음운론적 강도에서 /o/와 /u/의 강도를 파악할 수 없다.

u-탈락 규칙은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인 전주지역어를 논의한 최태영(1981 : 101)에서 설정된 바 있지만 음운론적 강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규칙 16) u-탈락(임시)

$$u \rightarrow \phi \ /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end{bmatrix} + \ —$$

규칙 16)은 i-탈락 규칙과 같이 활음 형성 규칙에 선행되어야 한다. (44, f)의 경우는 /o, u/와 [grave] 자질에서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ö, ü/의 예들이다. 이 방언권에서는 이들도 활음 형성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o, u/가 활음화할 경우에는 후행하는 핵음절 모음(-ə/a)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ö, ü/가 활음화할 경우에는 후행하는 핵음절 모음을 전설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각각이 후행 접사와 결합하여 활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이유의 일단를 찾을 수 있다. 어간말의 원순모음이 단순히 활음 [w]로만 실현된다고 한다면 'uə→wə, oa→wa, üə→wə, öa→wa'와 같은 도출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u+ə'와 'ü+ə', 'o+ə'와 'ö+ə'가 하나로 통합되어 각각 [wə]와 [wa]로만 실현되어 이들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중의 어느 하나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u, o/와 /ü, ö/의 공통 자질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voc, +grave, +labial]의 자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voc, −grave, +labial]의 자질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활음 형성에 관계되는 자질은 [voc]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는 [−voc, +grave, +labial]로 변화되어 [w]가 형성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voc, −grave, +labial]로 변화되어 /h/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grave]의 자질도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ö/와 /ü/는 [−voc, +grave, +labial]의 [w]로 변화되고, 이들의 [−grave] 자질을 후행하는 핵음절에 전이시켜 [wə, wa]와 [grave]에 의해 대립을 보이고 있는 [we, wɛ]의 표면음형성을 실현시키게 된 것이다.

(44, b~e)의 경우는 활음 형성만이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이 이 방언권 전체에서의 w-형성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적 분포상을 보이기 위하여 각 예들의 지역적 실현 양상을 제시한다. 먼저 (44, a)에서는 'o+a→wa→a'를 예상할 수 있어 활음화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옥구, 익산, 완주 등에서 '보아도'에 대하여 [puado~pwado]와 같은 교체형들이 실현되고 있어 흥미롭다. 만약 이 어사의 어간이 그 표면음성형에 근거하여 /pu-/로 재조정된 것이라면 '/pʰu+ə/→[pʰə]'와 같이 /u/가 직접 탈락되어야 한다. 그런데 *[pə]형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불가능하고, [puado]형의 발화가 [pwado]형의 발화보다 느린 발화(slow speech)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중모음 /wa/를 두개의 단모음으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다른 예들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명확한 동기를 찾을 수가 없어 여기서는 그 가능성만 제시한다.

순음을 제외한 기타 자음들이 선행하고 있는 (44, b~e)의 예들은 (44, 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치찰음이 선행한 (b)의 예들에서 활음화가 일어난 지역은 옥구, 익산, 무주, 장수, 남원, 순창과 완주, 진안 등의 일부 지역이고, 김제, 부안, 고창, 정읍, 임실과 완주, 진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음화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활음화를 외면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부안, 정읍, 고창 등의 지역을 제외한 김제, 임실, 완주, 진안 등의 지역에서는 수의적으로 활음의 실현형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 방언권의 대부분의 지역(부안, 고창, 정읍 등을 제외한)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지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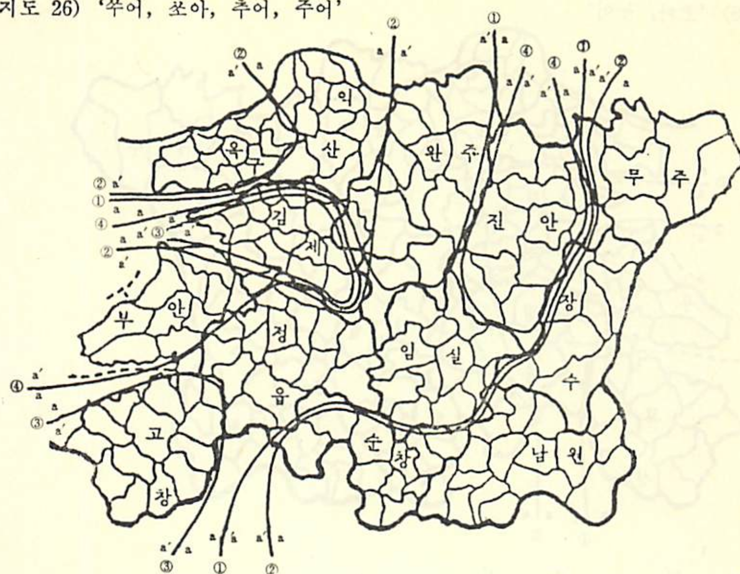
연구개음이 선행한 (c)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도 27)

/n/과 후음이 선행한 (d)와 (e)의 경우는 (b)와 (c)의 경우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활음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도 28)

따라서 (b~e)의 활음 형성에 따른 지역적 분포는 활음이 실현되고 있는 옥구, 익산, 무주, 장수, 남원, 순창과 완주, 진안의 일부 지역(A_1)과 나머지 비실현 지역(A_2)으로 구분된다. (지도 29)

선행 어간말음이 /ü, ö/인 (f)의 경우에 활음이 실현되는 지역은 무주와 장수, 그리고 남원의 일부 지역에 한 한다. 그런데 (b~e)에서의 실현 양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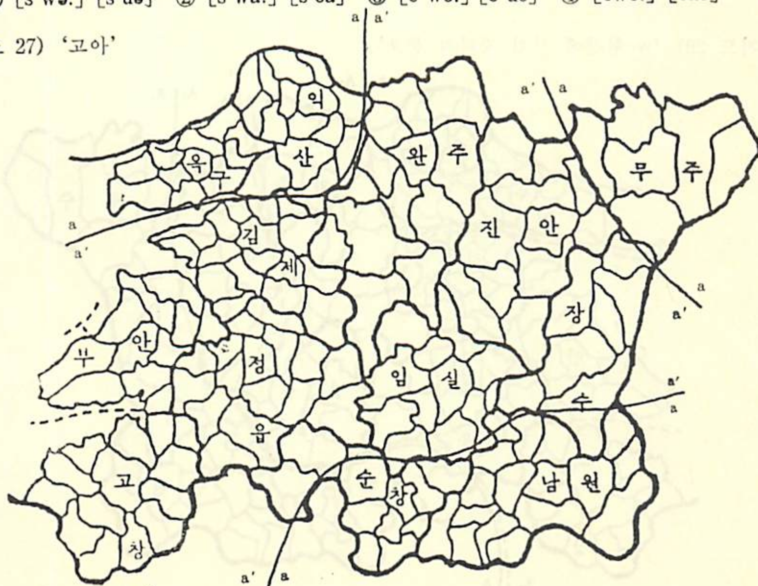
지도 26) '쑤어, 쏘아, 추어, 주어'



① [s'wə:] [s'uə] ② [s'wa:] [s'oa] ③ [cʰwə:] [cʰuə] ④ [cwə:] [cu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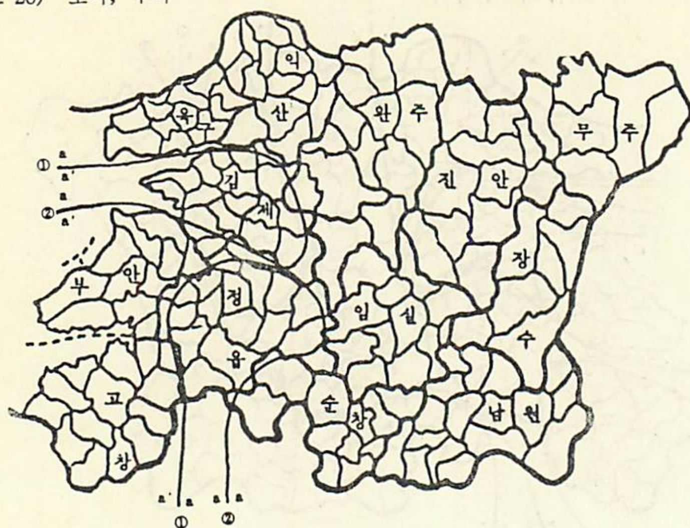
(a a′ a a′ a a′ a a′)

지도 27) '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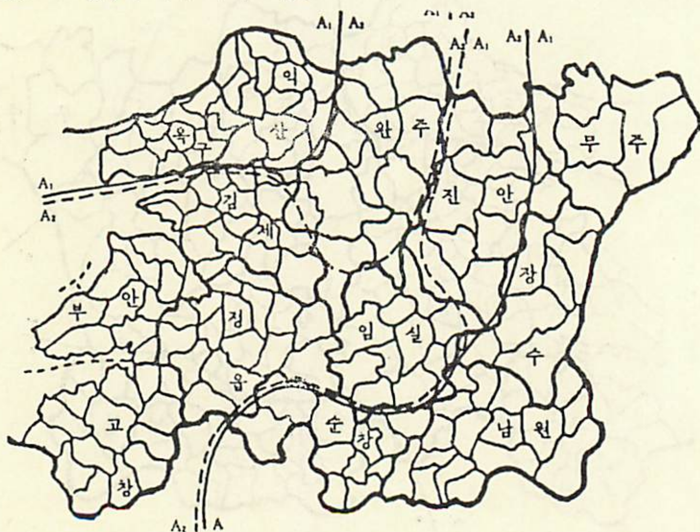
a a′
[kwa:, kowa] [koa]

지도 28) '호아, 누어'



a a' a a'
①[hwa:] [hoa] ② [nwə:] [nu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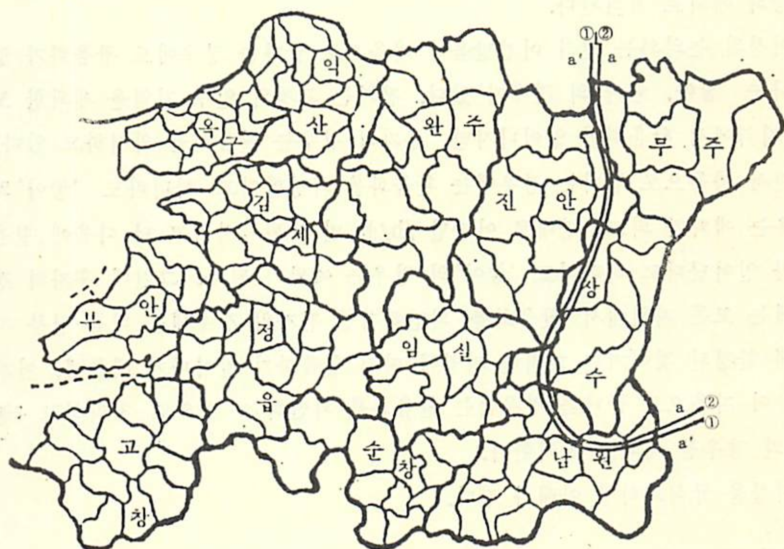
지도 29) 'w-형성에 의한 지리적 분포'



A_1: w-형성 A_2: 비형성

비록 활음의 비실현 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수의성을 보이는데 비하여 /ü, ö/의 경우는 이러한 수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ü, ö/의 경우는 활음화를 외면함이 일반적인 듯하다. 이는 [k'öa]형의 경우에 결코 활음 형성의 흔적을 볼 수 없음에서도 이들이 일반적으로 활음화를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30) '되어, 쐬어'



① [twᴇ:sə] [töasə] ② [s'wᴇ:sə] [s'öasə]
(a) (a') (a) (a')

(g)의 예들은 중앙어에서 /u, o/를 어간말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의 활음 형성은 (b~e)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를 기대할 수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흥미로운 실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들의 단독형의 어간말음이 [u, o]로 실현될 경우에는 [twə:]형이 옥구, 익산, 무주 등에서 실현되고, [k'wə:]형이 옥구, 익산, 무주와 수의적으로 임실, 부안, 고창 등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단독형의 어간말음이 [ü, ö]로 실현될 경우에는 [twe:]형이 장수에서 주로 실현되고, 고창의 일부에서 [tüə~twe:]와 같

은 교체형이 실현되고, [k'we:]형이 장수와 남원, 그리고 수의적으로 무주에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단독형의 실현 양상에 따라 (c~e)와 (f)의 특징을 모두 유지하고 있어 활음 형성에서 /u, o/와 /ü, ö/의 사이의 괴리를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h)의 경우는 자음을 선행시키지 않은 예로, 모든 지역에서 활음화가 일어나지만 항상 단모음으로 실현되고 있어 활음 형성에 따른 보상성 장모음화 현상의 예외로 처리된다.

이상의 논의와는 달리 어간말음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활음화가 일어나는 '놓아, 좋아'의 경우가 있다. 전자는 고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활음화가 일어나지만, 후자의 경우는 활음화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활음화를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놓아'의 경우는 예외가 되고, 반대로 어간말 /h/를 먼저 탈락시키고 난 다음에 활음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좋아'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활음화를 외면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비록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간말음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활음화를 외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놓아'의 경우를 예외로 처리한다.

이상을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17) w-형성

$$\begin{bmatrix} +\text{voc} \\ +\text{labial} \\ \alpha\ \text{grav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end{bmatrix} \ / \ \#\ (\text{C}) \text{—}]_{\text{V.A.st.}} +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지역적 분포 조건 : 1) α가 '+'이고 C가 [+cons, −labial]이면 A_2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

2) α가 '—'이면 무주, 장수, 남원에서만 적용되고 구조기술의 [+grave]는 [−grave]가 된다.

3) C가 [+cons, +labial]이고 α가 '+'이면 [−high, −low]에서만 적용된다.

규칙 17)의 구조변화에서 [+high]를 삭제하면 /o, ö/는 [−hig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voc, −high]의 /h/가 된다. 따라서 [+high]는 생략될 수 없다.

규칙 17)의 조건 1)과 2)는 지역에 따른 규칙의 존재 여부를 시사하고 있다. 조건 3)은 u-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u-탈락 규칙이 활음 형성 규칙에 선행해야 한다는 규칙 순서를 유지하고 조건 3)을 삭제한다.

(45) a. [$ap^hasə \sim ap^həsə$] '아프어서'
[$silp^həsə$] '슬프어서'
[$kop^hasə$] '고프어서'
[$talba \sim t^hilbə$] '다르어'[67]
b. [$c^hidabara \sim c^hidabwara$] '쳐다보아라'
c. [kadwə~kadwa~kada] '가두어'
d. [p'use~p'usə~p'uswə~p'uswa] '부수어'[68]
[$mac^hwə \sim mac^hwa \sim mac^ha$] '맞추어'
e. [pak'wə~pak'wa~pak'a] '바꾸어'
f. [nanwə~nanwa~nana] '나누어'

(45)의 예들은 어간말음이 /u, o/인 2음절 이상의 예들이다. (a)의 예들은 어간말 모음 /u/ 앞에 순자음이 선행하는 경우로 단음절의 /p^hu-/와 같이 '-ə' 앞에서 /u/를 탈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규칙 16)의 구조기술에서 # 는 삭제되어야 한다. (b)는 '보-'가 제 2 음절 이하에서 실현된 예이다. 이 경우는 단음절의 어사들과는 달리 활음 /w/의 형성이 격식적(formal)인 발화에서만 실현된다. 그러나 나머지 (c~f)의 예들은 단음절의 경우와는 달리 활음 형성에서의 지역적 차이도 없고,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없다.

67) 이 어사는 옥구, 익산, 완주, 김제, 정읍, 고창의 지역에서는 [talbuda]형으로 어휘화되어 있고, 부안의 경우에는 [t^hilbuda]형으로 어휘화되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만 실현되는 활음화 현상이다.
68) 남원의 경우에 [p'usuga]와 같은 형이 실현되고 있어 활음화에 예외처럼 보이나, 이 경우는 어간말음 /k/를 가진 어사로 어휘화된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자음을 선행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복잡한 교체 양상을 보인다.

(46) a. [c^{h}iwə~c^{h}iə~c^{h}ə] '치우어'
[c'iə~c'ə] '끼우어'
[š'iwə~š'iə~š'ie~s'ewa] '씌우어'
b. [s'awə~s'awa] '싸우어'
[cɛwə~cɛwa~cɛi~cɛ:] '재우어'
c. [miwə~mewə~miə~mi:] '메우어'
[t'iwə~t'iə~t'i:] '띄우어'
d. [pɛwə~pɛwa~pɛ:] '배우어'

(46)의 예들에서 '끼우어'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어사들의 교체형에서 활음 /w/의 유지형들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끼우어'의 경우도 활음화를 겪는 것으로 처리한다.

선행 어간말음이 /ü, ö/인 경우도 이와 동궤로 처리된다.

(47) [halk^{h}we~kalk^{h}e~halk^{h}i~halk^{h}yə] '할퀴어'
[pak'we~pak'e~pak'i~pɛk'e~pɛk'i] '바뀌어'

이상에서와 같이 /u/가 순음에 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u, o, ü, ö/ 모두는 지역과 선행 자음에 무관하게 활음화가 일어난다.[69]

규칙 18) w-형성

$$\begin{bmatrix}+\text{voc}\\+\text{labial}\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text{voc}\\+\text{high}\end{bmatrix} \;/\; (\text{CoVCo})_1(\text{C}) \;\text{—}]_{\text{V.A.st.}} \;+\; \begin{bmatrix}+\text{voc}\\+\text{grave}\\-\text{high}\\-\text{labial}\end{bmatrix}$$

규칙 18)도 u-탈락 규칙에 후행하지 않으면 규칙 17)의 조건 3)이 추가되어야 한다.

규칙 17)과 18)은 w-형성에 공모하고 있어 하나의 규칙으로 합병(collapse)될 수 있다.

---

69) 여기서 보이는 교체형들은 활음 탈락의 양상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규칙 19) w-형성

$$\begin{bmatrix} +\text{voc} \\ +\text{labial} \\ \langle \alpha\text{grave} \rangle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end{bmatrix} \;/\; (\text{CoVCo})_{<o>}(\text{C}) \;\text{—}] \;+\; \underset{\text{V.A.st.}}{}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지역적 분포 조건 : 〈 〉가 채택될 때는 단음절의 경우가 되어 α가 '+'이고 C가 [+cons, −labial]이면 A_2 지역에서는 적용 되지 못하고, α가 '−'이면 무주, 장수, 남원에서만 적용되고 구조기술의 [+grave]는 [−grave]가 된다.

4. 3. 4. w-탈락

형태소 연결 위치—형태소 경계가 개재된—에서 형성된 활음 /w/도 형태

지도 31) '보아라'

a a′
① [pwara] [para]

소 내부에서 논의된 활음의 분포제약과 활음 형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탈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44, a)는 순음이 선행한 경우로 제약 6)이 기능하여 동일한 [+labial] 자질의 중복을 회피한다. 이 경우 순음에 후행한 /u/는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o/는 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pwara]형이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부안 등에서 활발히 실현되기 때문에 활음 탈락 현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는 달리 순음을 제외한 자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44, b~h)에서와 같이 활음이 탈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음절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수의적인 minor rule을 기술할 수 있다.

규칙 20) w-탈락

$$w \rightarrow \phi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end{bmatrix} - \;]_{\text{V.A.st.}} + ə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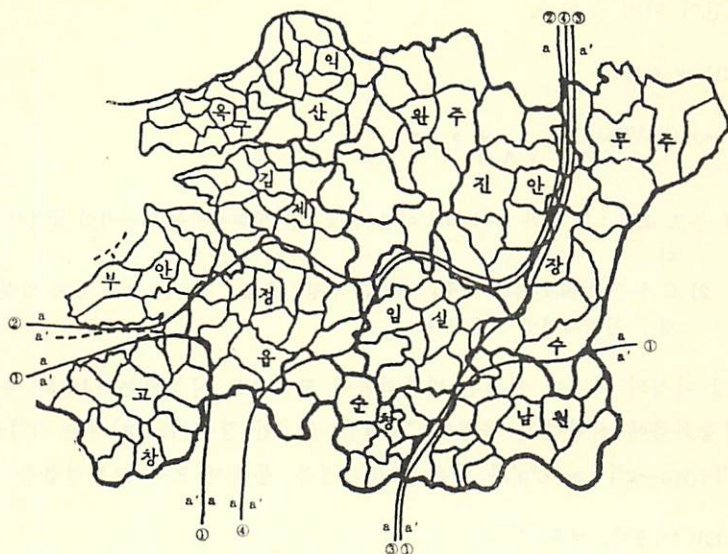
지역적 분포 조건 :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부안 등에서는 수의성을 보인다.

2음절 이상의 경우에는 단음절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음이 선행한 (45, a)의 예들은 규칙 16)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활음 탈락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45, b)의 [c^hidabara~c^hidabwara]형 중 [c^hi-dabwara]형은 (45, a)의 [pwara]형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의 격식적인 발화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에 활음 탈락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순음을 제외한 기타 자음들이 선행할 경우(45, c~f)에는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과 임실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활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있다.[70]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활음의 탈락형이 모두 [a]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70) 동일한 환경에 있는 '가꾸어'의 경우는 활음을 탈락시키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외로 처리한다.

지도 32) '가두어, 맞추어, 바꾸어, 나누어'



	a	a′		a	a′
①	[kadwə, kadwa]	[kada]	②	[mac^{h}wə, mac^{h}wa]	[mac^{h}a]
③	[pak′wə, pak′wa]	[pak′a]	④	[nanwə, nanwa]	[nana]

는 것이다. 이들의 도출과정을 생각한다면 'katu+ə→kadwə→kadə'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 [kada]형의 출현을 위해서는 'wə→a'와 같이 국어에서 일반화되지 못한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언의 모음조화 양상을 고려한다면 활음 w-탈락의 일반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a]형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의 /u/를 제 2 음절 이하에서는 모음조화와 무관한 모음으로 처리하여(전술한 모음조화 참조) 제 1 음절 모음과 후행하는 접사의 두음을 조화시키면, 이들은 'kadu+ə→kadu+a→kadwa→kada'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하여 유도 된다. 그런데 선행 음절이 음성모음인 경우에는 이와 다른 과정을 보인다. '부수어'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ə] 유지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pusu+ə→puswə→pusə'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하여 유도된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는 활음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모음조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 활음 탈락 규칙을 정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규칙 21) w-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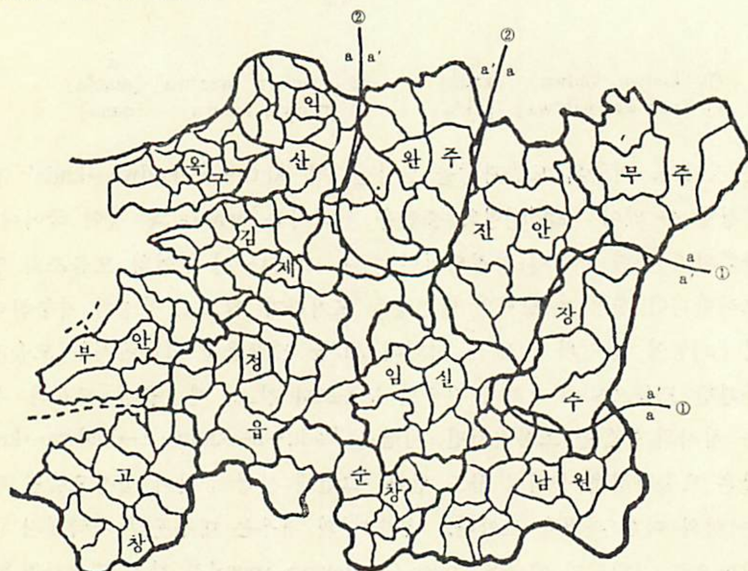
$$w \rightarrow \phi / (CoVCo)_1 C -]_{V.A.st.} + ə / a$$

지역적 분포 조건 : 1) C가 [+labial]이면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의무적인 규칙이 된다.

2) C가 [−labial]이면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과 임실의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2음절 이상의 어간에 연결된 피동화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46)의 예들에서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음절이 '치찰음 + i'인 경우(46, a)에는 'c^hi+u+ə→c^hi+wə→c^hi+ə→c^hə'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서 모든 교체형들을 유

지도 33) '치우어, 씌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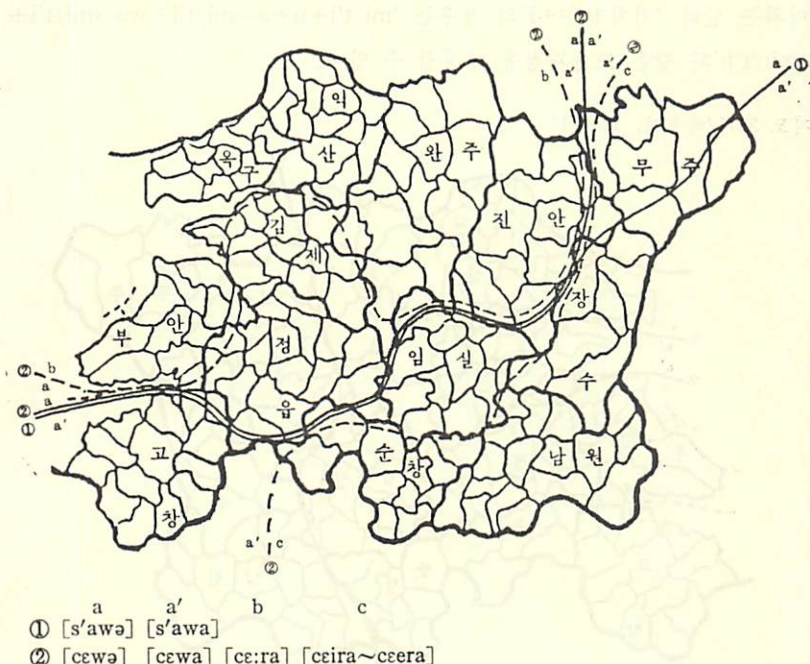


① [c^hiwə] [c^hiə, c^hə] (a, a′)　　② [š′iwə] [š′iə, š′ie] (a, a′)

도할 수 있다.

'치찰음+i 이외의 모음'인 경우(46, b)에는 'cɛ/s'a+u+ə/a→cɛ/s'a+wə/a'와 같은 도출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71]

지도 34) '싸워라, 재워라'



	a	a′	b	c
①	[s'awə]	[s'awa]		
②	[cɛwə]	[cɛwa]	[cɛ:ra]	[cɛira~cɛera]

그런데 동일한 '치찰음+i'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씌우어'의 경우는 's'i+u+ə→s'i+wə→s'i+ə→*s'ə:'와 같은 도출과정이 예상되지만,[72] *[s'ə:]형이 실현되지 않고 [š'ie~š'i:]형들이 실현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물론 '-i+əs'-'의 경우는 y-탈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실, 장수, 남원의 일부 지역에서 '-i+es'-'으로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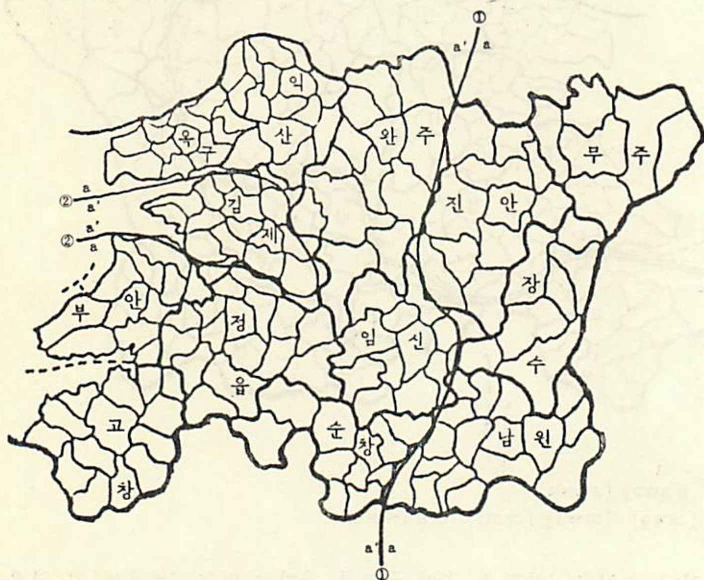
71) 이 경우에 나타난 [cɛi~cɛ:]의 경우는 /cɛ+u-/의 구조가 아니라 /cɛ+i-/의 구조이다.

72) '씌-'형이 이 방언에서는 [š'i-]형으로만 실현되고 있어 /i/ 유지형으로 분류했다.

음 상승까지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는 [š'iera]의 경우는 전술한 [k'ie]의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설명이 곤란한 예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ie] 유지형이 생산적으로 실현된다는 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와는 달리 '비치찰음+i'의 경우는 'mi/t'i+u+ə→mi/t'i+wə→mi/t'i+ə→mi:/t'i:'와 같은 도출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지도 35) '메우어, 띄우어'



① [miwə, mewə] (a) [miə, mi:] (a')　　② [t'ɨwə] (a) [t'iə, t'i:]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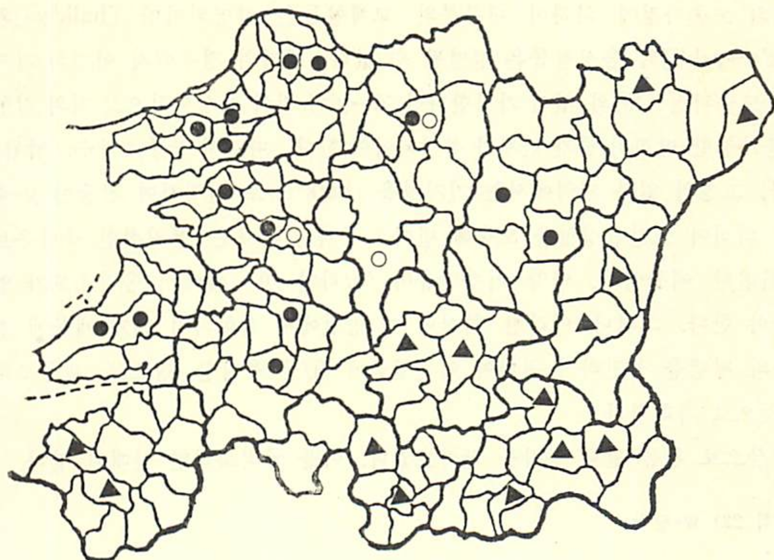
'비치찰음+i 이외의 모음'의 경우는 'pɛ+u+ə/a→pɛ+wə/a→pɛ:'와 같은 도출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pɛ:]형이 완주, 김제의 일부 지역에서 보다 일상적(casual)인 발화에서 실현되고 있음이 특이하다.[73]

이상의 도출과정에서 제시한 바를 피동화음 앞 음절의 자·모 연결과 활음

---

73) 이 경우는 이렇다 할 설명의 방법을 현재의 필자로는 찾을 수 없어 후일을 기약한다.

지도 36) '배우어'



●[pɛwəra] ○[pɛːra] △[pɛwara]

탈락 양상으로 구분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48)

선행음절의 자음	선행음절의 모음	탈 락 양 상
치 찰 음	i	탈 락
치 찰 음	비 i	유 지
비 치 찰 음	i	탈 락 · 유 지
비 치 찰 음	비 i	유 지

(47)의 교체형에서 활음 탈락은 아래와 같은 도출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49) a. /$halk^hü+ə$/ b. /pak'ü+ə/

$halk^hwe$	pak'we	……활음형성
$halk^he$	pak'e	……활음탈락
$helk^hi$	pak'i	……모음상승

[halk^{h}i]　　　[pak'i]

위의 도출과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교체형들은 설명되지만 [halk^{h}yə]와 [pɛk'e~pɛk'i]의 음성형들은 설명될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서 어간의 기저형을 도출과정 (49)와 같이 가정한다면 'ü→y'와 같이 음성학적으로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변화의 중간 단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주, 장수, 남원, 순창, 고창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저형을 /halk^{h}i-/로 설정하여 전술한 y-축약에 의하여 표면음성형을 도출해 낸다. 후자의 경우는 통시적인 움라우트에 관련된 예들이다. 만약 어간말음이 /ü/라면 /ü/ 앞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이 방언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와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간말음에 /i/를 유지한 형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상으로 활음 탈락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22) w-탈락

$$w \rightarrow \phi \ / \ (Co \begin{bmatrix} V \\ +\text{high} \\ -\text{low}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Co)_1 \ - \ ]_{\text{V.A.st.}} \ + \ \text{ə/a}$$

지역적 분포 조건 : /i/에 선행하는 자음이 비치찰음일 경우에는 지도 20)에서와 같이 이 규칙의 적용 지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상에서 설정된 w-탈락 규칙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합병하면 아래와 같이 기술된다.

규칙 23) w-탈락

$$w \rightarrow \phi \ / \ (CoVCo)_0 \ (C) \ - \ ]_{\text{V.A.st.}} \ + \ \text{ə/a}$$

지역적 분포 조건 : 1) (CoVCo)가 0이면 C는 [+labial]이어야 하고, 옥구, 익산,

완주, 무주, 김제, 부안 등에서 수의성을 보인다.

2) (CoVCo)가 1이상이고 (C)에서 C가 선택되어 [+labial]이면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의무적인 규칙이고, [−labial]이면 무주, 장수,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등과 임실의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3) (CoVCo)가 1이상이고 (C)에서 ( )가 채택되면 V는 /i/여야 하고, /i/에 선행하는 자음이 비치찰음일 경우에는 지도 16)과 같은 지역적 분포를 보인다.

4) (CoVCo)가 0이고 (C)에서 ( )가 채택되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못한다.

4.4. 변별적 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상술한 바와 같이 음운규칙에 대한 표기규약 'X→Y/Z—'에서 각 음운들과 변별적 자질들의 음운론적 강도에 대한 위계는 구조기술의 Z에 의한 동화나 이화현상을 통해서 Z와 X의 음운론적 강도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구조변화에서 X와 Y의 음운론적 강도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은 이러한 X, Y, Z의 상호 관계를 4.2와 4.3에서 논의한 이중모음의 분포제약과 활음 형성 및 탈락 현상에 의하여 살펴보려 한다.

전술한 음운체계 (34), (37)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방언의 음운체계에서 y-계 이중모음 /yi, yü/와 w-계 이중모음 /wu, wo, wü, wö/가 실현되지 못함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전자의 경우가 [−grave] 자질의 중복만을 회피하기 위한 현상이라면 이 방언의 음운체계에서 [−grave] 모음인 /e, ɛ, ö/의 경우에도 y-계 이중모음은 실현되지 않아야 하고, [+high] 자질의 중복만을 회피하기 위한 현상이라면 /i, u/의 경우에도 y-계 이중모음은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이중모음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grave]와 더불어 [+high]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야한다.[74]

74) 전통적으로 사용된 [palatal]이라는 자질은 여기서 y-계 이중모음의 실현에

반면에 w-계 이중모음의 경우는 단순히 [+labial]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자질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이화작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Z의 위치에서 자음을 선행시킬 때는 이처럼 간단히 처리되지 못한다. 먼저 y-계 이중모음의 경우는 선행 자음이 치찰음일 경우에는 단순히 /y/가 탈락되지만, 기타 자음일 경우에는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후행하는 모음에 /y/의 [-grave] 자질을 전이시킨다. (4.2 참조) 따라서 우리는 이 두 현상의 차이에 의하여 동일 자질의 탈락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필자는 y-계 이중모음의 실현 제약에 [-grave, +high]의 두 자질이 관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y/에 자음이 선행하는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선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서 후행하는 /y/와 어떠한 자질이 공유되는가 하는 양상을 정밀화시킬 필요가 생긴다. 먼저 치찰음과 /y/의 공통 자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치찰음의 마찰음 /s, s'/는 [-grave, -high]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파찰음 /c, c', c^h/는 [-grave, +high]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파찰음의 경우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중모음의 실현 제약과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마찰음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grave] 자질만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음을 선행시키는 경우에는 [-grave]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현상으로 처리해야 된다. 또한 같은 치음 계열의 /n, r/이 구개음 [ň, ʎ]로 실현되는 경우에도 치찰음과 동일한 탈락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grave, -high]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마찰음과 동궤로 처리된다. 그러나 비치찰음으로 [+grave, +high]를 가지고 있는 연구개음 /k, k', k^h/ 등이 선행할 경우에는 4.3.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치찰음이 선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y-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음을 선행시키고 y-계 이중모음이 실현될 경우에 보이는 y-탈락 현상은 [-grave]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려는 경향만 보이기 때문에 [grave] 자질이 이 현상의 지배 자질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고, [grave] 자

제약으로 기능하는 [-grave]와 [+high]의 자질을 함께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질이 [high] 자질보다 상위의 자질이 된다.

이상의 논의처럼 y-탈락 현상은 선행 자음과 후행하는 활음 /y/가 가지고 있는 [−grave] 자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후행하는 울림도 8°인 활음의 실현을 방해하는 현상이고,[75] y-축약 현상은 동일 자질의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y/의 [−grave] 자질이 후행하는 음절의 핵모음에 전이되는 현상이다. 만약 여기서 [grave]의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 SPE에서와 같이 [back] 자질을 사용한다면 [−back]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순음 /p, p', p^h/의 경우를 설명할 길이 없게 된다.

자음을 선행시키고 실현되는 w-계 이중모음의 경우는 y-계 이중모음의 경우와는 달리 순음이 선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w/가 유지됨이 일반적이다. (4.2 참조) 이러한 현상은 [labial] 자질들이 기능하는 경우는 다른 자질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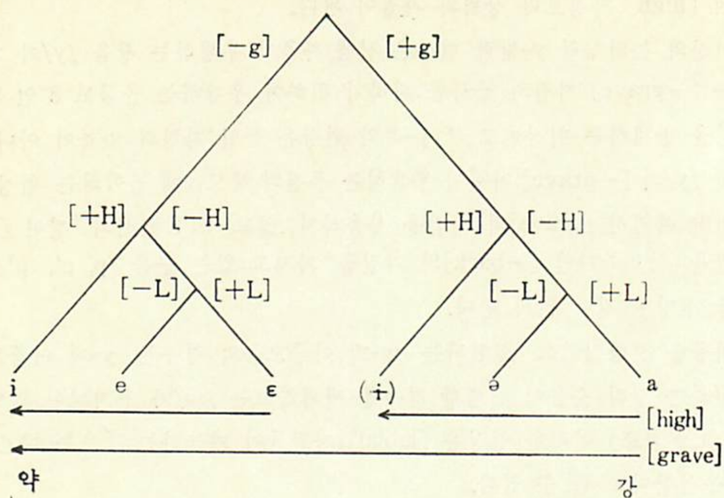
지금까지 논의한 현상을 자질 중복 회피 현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음 아래에서 y-계 이중모음이 실현되지 못함을 단순히 울림도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울림도 1°의 [+obst] 아래에서 울림도 8°의 활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방법은 i-탈락과 y-축약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와 같이 동일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는 현상에서 울림도가 큰 활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설명은 정당성을 얻게 된다.

그런데 모음충돌 회피에 공모하는 활음 형성 및 탈락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질의 이화현상이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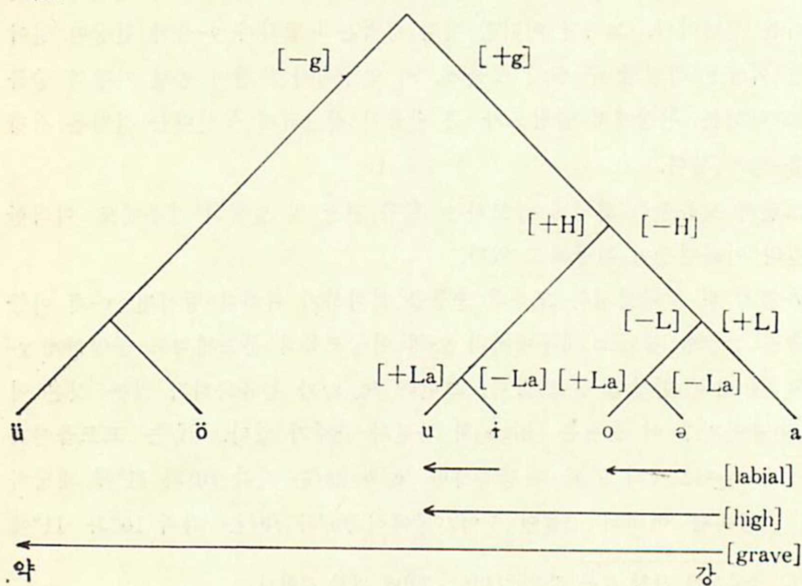
y-형성 및 탈락에서는 모음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성된 y-계 이중모음이 상술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y-계 이중모음의 분포제약과 동일하게 y-탈락 및 축약 현상을 겪고 있다. 그런데 /e, ɛ/가 활음화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이 문제는 [high]의 자질과 관계가 있다. /i/는 고모음이기 때문에 울림도에서 9°에 해당하지만 /e/와 /ɛ/는 각각 10°와 11°에 해당하고,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인 '-어/아'에서 /ə/와 /a/는 각각 10°와 11°에

75) 울림도에 관한 것은 김차균(1983 : 29)에 의한 것이다.

(50)


[−g]
[+g]
[+H]
[−H]
[−L]
[+L]
[+H]
[−H]
[−L]
[+L]
i
e
ɛ
(ɨ)
ə
a
[high]
[grave]
약
강

(51)


[−g]
[+g]
[+H]
[−H]
[−L]
[+L]
[+La]
[−La]
[+La]
[−La]
ü
ö
u
ɨ
o
ə
a
[labial]
[high]
[grave]
약
강

해당한다. 따라서 /a, ɛ/가 양성모음으로 기능하는 지역에서는 '-a+a-', '-ɛ+a-'의 연결체를 이루기 때문에 어간 말음과 어미의 두음이 동일한 울림도를 유지하지만, /i/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어간의 /i/보다 후행하는 어미의 울림도가 크게 되어 활음과 모음에서 울림도가 크면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김차균(1983 : 29)의 견해에 따라 약모음인 /i/는 활음화되고,[76] /e, ɛ/는 활음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a, ɛ/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는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a, ɛ/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는 지역에서는 '-a+ə-', '-ɛ+ə-'의 연결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선행하는 /a, ɛ/가 음운론적으로 강한 모음으로 기능하게 되어 [pɛsə] '배어서'와 같이 /ə/가 탈락된다.[77]

활음 w-형성에서의 울림도에 의한 설명도 '-{o, ö}+a-', '-{u, ü}+ə-'의 연결체만을 보이기 때문에 y-형성에서와 동일하게 정당화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i/는 고모음이고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high]와 [grave] 자질과 관련하여 약모음으로 처리되고, /o, u, ö, ü]의 모음들은 [labial], [high], [grave]와 관련하여 약모음으로 처리된다.

76) 이승재(1980)에서는 vowel height의 높이와 음운론적 강도는 역방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77)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장의 대상이 아니라 ə-탈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후술할 ə-탈락에서 상론하겠다.

5. 모 음 탈 락

5.1. 대상과 일반론

일반언어의 음절구조상 두개의 성절모음이 연결(hiatus)될 경우에는 선행하는 성절음의 개방성과 후행하는 성절음의 개방성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조음상의 부자연스러움은 물론 청각상의 부자연스러움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조음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후두긴장의 골짜기를 만들어 음절을 구분하게 된다(허웅 1973 : 210). 그리고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일반언어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78]

국어에서도 이러한 모음충돌 현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일련의 음운현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i) 자음이나 반모음의 삽입 현상, (ii) 활음 형성에 의한 비음절화(dissyllabification), 그리고 (iii) 모음 탈락 현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모음체계와 관련된 현상만을 다루기 때문에 (i)의 현상에 대해서는 논급하지 않고, (ii)의 현상은 4장의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이중모음의 공시적 연결제약을 통하여 논의했다. 따라서 이 장의 대상은 (iii)의 현상에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모음의 탈락이나 약화(활음 형성등) 과정은 인접한 모음들 중에

78) 유재원(1985 : 4. fn. 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이현상에 대한 최초의 인식이 Alexandria의 문법학자들에 의하여 주목된 이래 많은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이 현상이 언급되었다.

서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한 모음들이 수행한다(김차균 1983 : 60~92). 따라서 이 장에서 논의되는 /i/, /ə/, /ɨ/, /u/ 등의 탈락 현상을 통하여 이들이 인접한 다른 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모음들임을 보이고, 그들 사이의 음운론적 강도에 대한 위계를 설정하려 한다.

5. 2. ɨ-탈락

ɨ-탈락 현상은 국어의 음운현상을 기술하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주목되어 왔다(이병건 1976 : 19~21, 이병근 1979 : 36~9, 최태영 1981 : 106~8, Kim-Renaud 1982 : 473~88, 소강춘 1983 : 34~40, 유재원 1985 : 14~6 등등).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ɨ-탈락 현상을 /ɨ/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들이 선행하는 어기(base)와 연결될 때 /ɨ/를 탈락시키는 ɨ-두음 탈락(trancation) 현상과 어기말 /ɨ/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조사와 연결될 때 탈락하는 ɨ-탈락 현상,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ɨ-탈락 현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려 한다.[79]

먼저 ɨ-두음 탈락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ɨ/로 시작되는 어미를 제시하면 [−ɨňi], [−ɨmən], [−ɨŋgɛ],[80] [−ɨňa], [−ɨmňida] 등등을 들 수 있다. 이 어미들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연결될 때는 /ɨ/ 유지형으로 실현되지만,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연결될 때는 항상 /ɨ/가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연결될 때는 매개모음 /ɨ/가 삽입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어미들에 각각 2개의 기저형을 설정하여 선행 어기의 말음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각각의 어미들을 선택케하는 선택 규칙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ɨ-삽입 현상은 이병건(1976 : 136~4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환경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는 이 변

79) 어간, 어근, 어기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익섭(1975)의 견해에 따르고 있다.
80) 중앙어에서 '-으면', '-으니까'로 실현되는 어미들은 이 방언에서는 항상 [−ɨmən], [−ɨŋgɛ]로 실현되고 있어 이들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

이형태들이 음운론적으로 조건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규칙 자체의 설정은 수긍할 수 있지만,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기원에서 유래된 형태소의 기저형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여 사전을 복잡하게 하기 보다는 이들을 하나의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음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i/ 유지형들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형태소 결합상에서 선행하는 어기의 말모음과 후행하는 어미나 조사의 두모음이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음운론적으로 약모음인 /i/가 탈락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음성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울 뿐만아니라 사전을 간단하게 하고 음운론적으로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52) [kimən] '기으면'
[caŋgE] '자으니까'
[cʰuňa] '(춤을) 추으냐'
[k'üňik'E] '(꿈을) 꾸으니까'

(52)의 예들과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i/일 경우에는 이 방언권의 모든 하위 지역어에서 /i/가 탈락되고 있다.

그런데 체언에 후행하는 조사의 두음이 / /일 경우에는 양상을 달리한다. 국어에서 /i/로 시작되는 조사는 주제격 '-은/는', 목적격 '-을/를', 도구격 '-으로/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도구격의 '-으로/로'의 경우는 이 방언에서 용언의 어간에 연결된 어미와 동일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제격과 목적격의 경우에는 체언 말음이 모음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주제격과 목적격의 기저형을 /-in/, /-ir/로 설정하고, /i/를 모음 뒤에서 탈락(trancate)시키면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김완진(1973 : 63~5)에서 논의된 중가(reduplica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i-두음 탈락 규칙에 선행하여 중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81]

---

81) 김완진(1973 : 63~5)에서 중세국어의 성조론적 사실에 의하여 '-를'이 '-을'의 중가형 '-을을'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완진(1975b)에서는 현대국어의 현재형어미 '-ㄴ'과 '-는'의 교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느'의 중가형을 설정

(53) a. [tönin~tönən] '되(升)는'
[töril~törəl] '되를'
[töro] '되로'
b. [cʰɛgin~cʰɛgən] '책(冊)은'
[cʰɛgil~cʰɛgəl] '책을'
[cʰɛgiro] '책으로'

(53, a)의 예들 중 [i]를 유지하고 실현되는 예들은 아래의 도출 과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가 규칙을 i-두음 탈락 규칙에 선행시켜 적용함으로써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54) /tö+in/ /tö+iro/
töinin ············ ······중가규칙
tönin töro ······i-두음탈락
[tönin] [töro]

그런데 이 방언권의 대부분의 지역어에서 주제격과 목적격 조사들은 [-in, -il] 대신에 [-ən, -əl]형들로 실현되기 때문에,[82] 이들을 위해서는 공시적으로 이 방언의 주제격과 목적격 조사의 기저형을 /ə/ 유지형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모음 하강 규칙 'i>ə'에 의하여 [ə] 유지형들을 유도해야 한다. 만약 후자의 견해를 따른다면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노년층 화자들에게서 실현되지 않는 /i/를 기저형으로 설정해야만 하고, 형태소 경계에서의 저모음화 규칙 'i>ə'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기저형을 /i/로 설정케 하는 젊은층의 화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저모음화 현상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 경계에서 공시적으로 실현되는 저모음화 규칙을 설정할 수는 없다.

또한 최전승(198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선행 시기의 이 방언에서 [ə]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주도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시, -싓'의 형에서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82) 최전승(1986 : 40~2)에서 이 방언의 바로 선행 시기인 19세기 후기 자료에서 이러한 현상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얼/럴', '-언/넌'의 표기가 당시의 실제 발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시적으로 이 방언의 노년층의 화자를 제외한 중년층 이하의 발음에서는 '-을/를', '-은/는'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현상이다.

유지형들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었음을 보아서도 노년층의 화자들을 위해서는 /ə/ 유지형이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모음에 후행하는 /ə/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권병로(1987 : 86~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남방언의 색채가 강하기는 하지만 무풍지역어에서는 공시적으로 ə-탈락 규칙이 설정되고 있어, 그 당위성의 일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83] 따라서 주제격과 목적격의 '-은/는', '-을/를'의 경우는 이 방언의 i-탈락 규칙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도구격 '-으로'의 경우에는 (54, b)와 [pʰoširo] '팥으로', [soširo] '솥으로' 등에서와 같이 항상 [i] 유지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다.[84]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 방언의 i-두음 탈락 규칙을 정립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24) i-두음 탈락 규칙(l')

$$i \rightarrow \phi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end{bmatrix} \ + \ —$$

다음에는 선행 어기가 유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55) a. [marən] '말(馬)은'
[marəl] '말을'
[mallo] '말으로'
b. [tɨlmən] '들(擧)으면'
[salmən] '살(生)으면'
[kəlmən] '걸(懸)으면'
[p'almən] '빨(洗)으면'
[almən] '알(知)으면'
c. [tiňa] '들으냐'
[saňa] '살으냐'
[kəňa] '걸으냐'
[p'aňa] '빨으냐'

83) 후술할 ə-탈락 참조.
84) [pʰoširo], [soširo] 등의 예들에서 치찰음 아래에 [i]가 실현되고 있음은 '-으로'의 기저형이 /-iro/임을 시사한다. (후술할 구개모음화 참조)

[aňa] '알으냐'

d. [tinamana] '들으나마나'
[sanamana] '살으나마나'
[kənamana] '걸으나마나'
[p'anamana] '빨으나마나' d'. [p'arinamana]
[anamana] '알으나마나'

e. [tiŋgE~tiňik'E] '들으니까' e'. [tiriŋgE]
[saŋgE~saňik'E] '살으니까' [sariŋgE]
[kəŋgE~kəňik'E] '걸으니까' [kəriŋgE]
[p'aŋgE~p'aňik'E] '빨으니까' [p'ariŋgE]
[aŋgE~aňik'E] '알으니까' [ariŋgE]

(55, a)는 체언 말음으로 /r/이 오는 경우이다. '-은, -을'의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되고, '-으로'의 경우는 유음 뒤에서 항상 /i/가 탈락되고 있다.

(b~e)의 경우는 어간 말음이 /r/인 용언의 예들이다. (b)의 경우는 체언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음 아래에서 /i/가 탈락되고 있다. 그러나 (c~e)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유음 /r/과 후행하는 /i/가 모두 탈락되고 있다. 따라서 (c~e)의 예들을 통해서 유음 탈락 규칙과 i-탈락 규칙의 적용순서를 정할 수 있다.

먼저 유음 탈락 규칙이 i-탈락 규칙에 선행하면 아래와 같은 도출과정이 예상된다.

(56) a. /mar+iro/ b. /tir+imən/
ma iro ti imən ……유음 탈락
ma ro ti mən ……i-두음 탈락
*[maro] *[timən] ……기타 규칙

c. /tir+iŋgɛ/ d. /tir+inya/
ti iŋgɛ ti inya ……유음 탈락
ti ŋgɛ ti nya ……i-두음 탈락
[tiŋgE] [tiňa] ……기타 규칙

도출과정 (56)에서 유음 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a, b)의 경우는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없고, (c, d)의 경우는 아래 (57)의 예들과 함

께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57) a. [tipš'ida] '들읍시다'　　a'. [tiripš'ida]
　　[sapš'ida] '살읍시다'　　[saripš'ida]
　　[kəpš'ida] '걸읍시다'　　[kəripš'ida]
　　[p'apš'ida] '빨읍시다'　　[p'aripš'ida]
　b. [tišio] '들으시오'
　　[sašio] '살으시오'
　　[kəšio] '걸으시오'
　　[p'ašio] '빨으시오'

따라서 이러한 규칙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출과정 (56, a, b)의 경우에 유음 탈락 규칙이 공전되도록 해야한다.

먼저 (56, a)는 V.A.stem 이라는 범주화를 통하여 이 규칙을 공전시킬 수 있지만 (56, b)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반대로 i-두음 탈락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은 도출과정이 예상된다.

(58) /mar+iro//tir+imən//tir+iŋgε//tir+inya/

mar ro	tir mən	tir ŋgε	tir nya	……i-두음 탈락
…………	…………	ti ŋgε	ti nya	……유음 탈락
[mallo]	[tilmən]	[tiŋgE]	[tina]	……기타 규칙

도출과정 (58)에서 i-두음 탈락 규칙은 체언이나 용언에 관계없이 유음 아래에서 적용되고, 유음 탈락 규칙은 비음 앞에서 적용되고 있다.[85] 따라서 도출과정 (56, a)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두음 탈락 규칙에 V.A. stem 이라는 범주화도 불필요하고, (56, b)에서와 같은 예외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출과정 (58)을 채택한다.

그러면 이 두 규칙의 순서에 의하여 설정된 각각의 규칙들은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85) [salse] '살으세', [salgo] '살고' 등과 같이 비음을 제외한 자음에 선행할 경우에는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도출과정 (56)에서 설정된 유음 탈락 규칙은 울림도 7°인 /r/과 울림도 9°인 /i/의 연결체에서 7°인 유음이 탈락되는 현상이다. /r/과 /i/는 김차균(1983 : 29)의 표에 의하면 활음을 중심으로 자음과 모음에서 조음적인 강도가 가장 약한 음운들이다.[86] 따라서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음운들 중 자음이 탈락된다고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출과정 (58)에서 설정된 유음 탈락 규칙은 자음 사이의 조음적인 강도에 의하여 7°의 유음이 5°의 비음보다 음운론적으로 약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도출과정 (56)에 의하여 설정된 유음 탈락 규칙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도출과정 (56)에서 설정된 i-두음 탈락 규칙은 모음 아래에서 적용됨에 비해 도출과정 (58)에서 설정된 i-두음 탈락 규칙은 유음 아래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출과정 (56)에서 설정된 i-두음 탈락 규칙보다는 도출과정 (58)에서 설정된 i-두음 탈락 규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규칙 24)는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규칙 25) i-두음 탈락 규칙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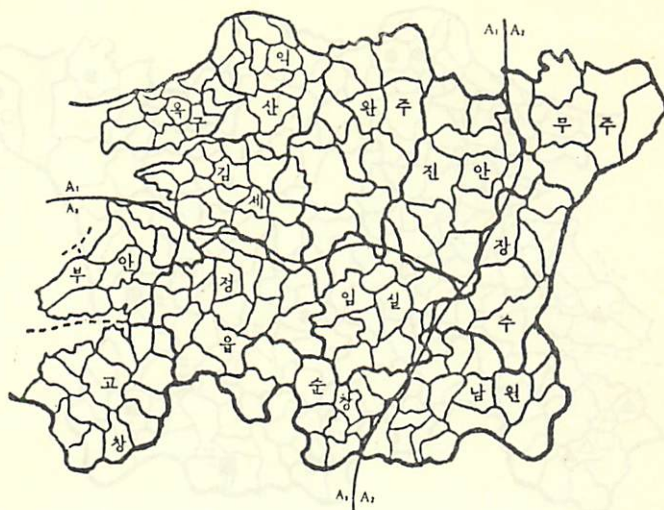
$$i \rightarrow \phi \; / \; [+\mathrm{voc}] + \text{—}$$

규칙 25)의 구조기술에서 [vocalic]의 자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환경은 [+son, −nasal]로 복잡화되어야 하고, '[−cons, +voc] [−cons, +voc]'

86) 김차균(1983 : 29)의 국어 음성도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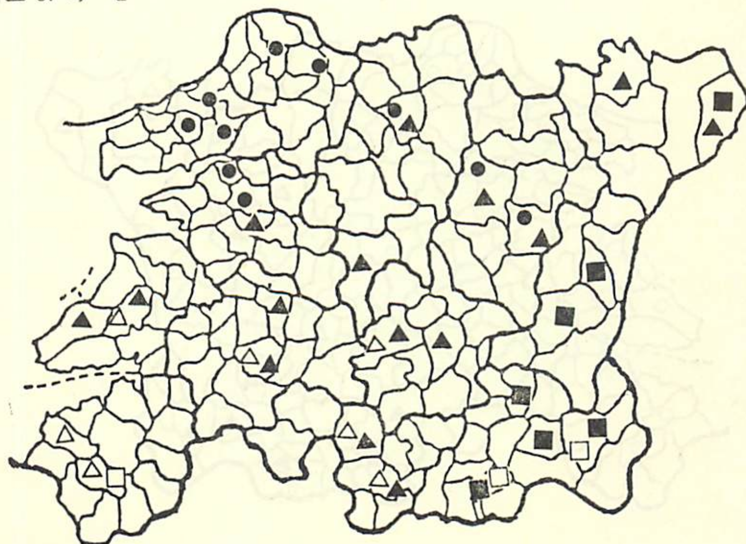
울림도 ＼ 강 도			I°	II°	III°	IV°	V°
조음적인 강도	강 ↑	1°	(ʔ)	t t^h t′	c c^h c′	p p^h p′	k k^h k′
		2°	h	s s′			
		3°		(d)	(ǰ)	(b)	(g)
		4°	(ɦ)	(z)	(ʒ)	(β)	(γ)
		5°		n	(ň)	m	ŋ
		6°		(l)	(ʎ)		
		7°		r			
	↓ 약	8°			y(ɥ)	(w)	w
	↕	9°			i ü		i u
	강	10°			e ö		ə o
		11°			ɛ		a

지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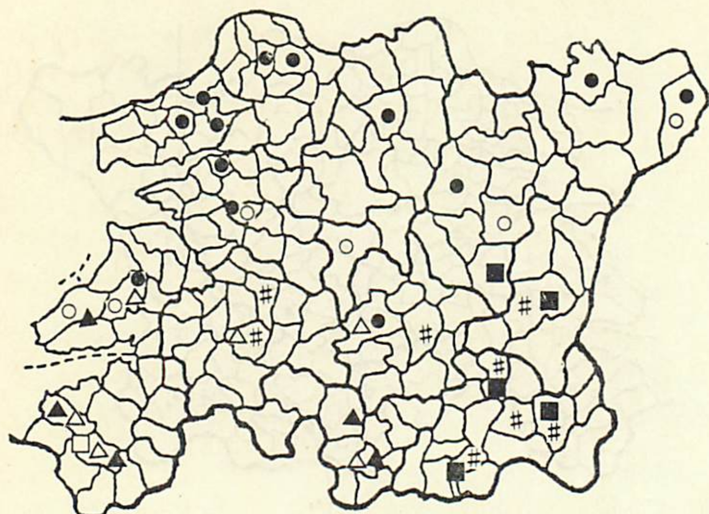
A_1: [-riŋɢ] A_2: [-ňik'ɛ] A_3: [-ŋɢ]

지도 37-a)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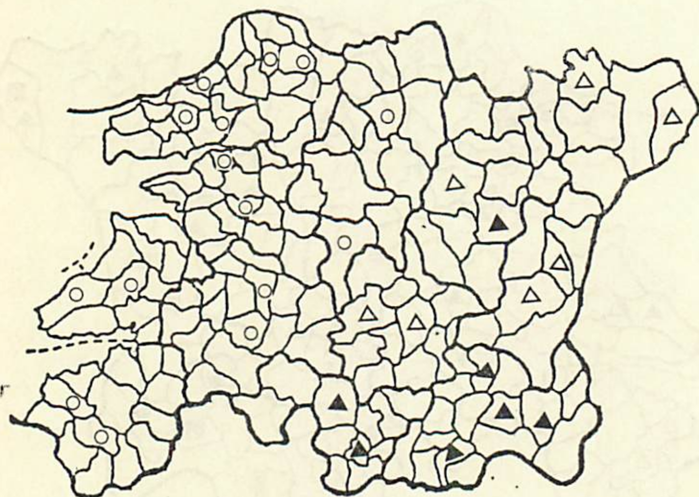
● [tiriŋɢ] ▲ [tilso] △ [tiŋɢ] ■ [tiňik'ɛ] □ [tiso]

지도 37-b) '살-'



● [sarɨŋgᴇ] ○ [sarɨšio] ▲ [salso] △ [saŋgᴇ] ■ [sañik'ᴇ] □ [sašiyo] # [sayo]

지도 37-c) '빨-'



● [p'arinamana] △ [p'anamana]

의 연속인 모음충돌(hiatus)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능하는 i-두음 탈락 규칙이 왜 /r/([+cons, +voc]) 뒤에서도 적용되는가 하는 일반성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지도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 e)의 예들은 옥구, 익산, 완주, 진안, 김제 등의 지역(A_1의 지역)에서 규칙 25)와 유음 탈락 규칙의 적용을 외면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이 두 규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무주, 장수, 남원 등의 지역(A_2의 지역)에서는 [-iňik'E]형이 실현되고, 기타 A_3의 지역에서는 [-iŋgE]형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규칙 25)는 A_1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설정되고, A_1의 지역에서는 규칙 24)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들 지역에서 [vocalic] 자질의 음운론적 기능이 서로 다름을 시사한다. 즉 규칙 25)가 적용되는 지역(A_2, A_3)에서는 유음의 [+cons, +voc]의 자질 중 [+voc]의 자질이 보다 강한 음운론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만, 규칙 24)만이 적용되는 지역(A_1)에서는 [+cons]의 자질이 보다 강한 음운론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동일한 음운체계와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두 방언의 음운론적인 현상이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표면음성형에서 어간말음으로 유음을 유지하는 예들이 존재하여 규칙 25)를 불투명하게 한다.

(59) [kərina] '걸(步)으나'
[tirina] '들(聽)으나'

(59)의 예들은 소위 ㄷ-불규칙이라 칭해지는 어사들이다. 이들은 비록 표면음성형에서는 규칙 25)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킬지라도 어간말음 /t/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t→r'의 규칙에 의하여 표면음성형에 '유음+i'의 구성을 이루기 때문에, i-두음 탈락 규칙을 't→r' 규칙에 선행시키면 규칙 25)의 예외로 처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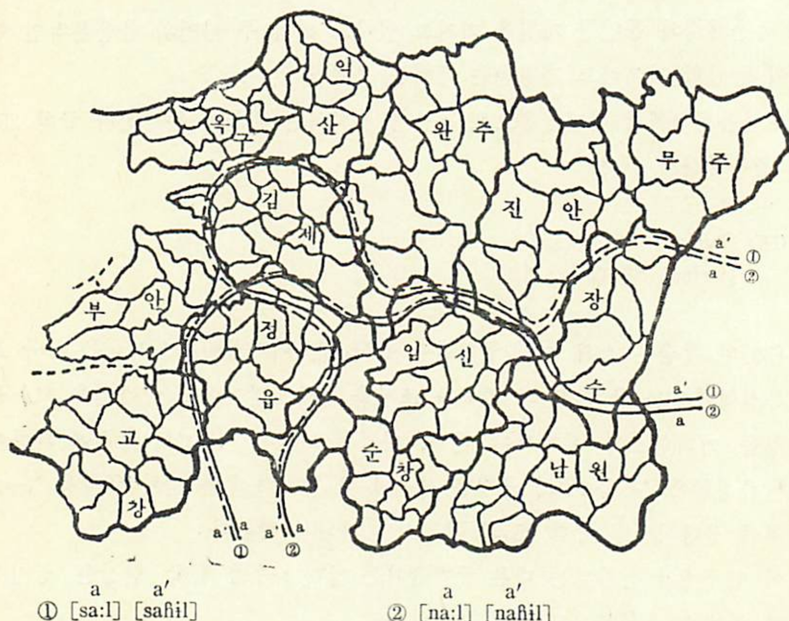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다른 규칙들과는 달리 i-두음 탈락 현상은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60) a. [taɨm] '다음'　　　a'. [ta:m]
[maɨm] '마음'　　　[ma:m]
b. [sahɨl~saɦɨl] '사흘'　　　b'. [sa:l]
[nahɨl~naɦɨl] '나흘'　　　[na:l]
c. [saɦɨlnal] '사흗날'　　　c'. [sa:nnal]
[naɦɨlnal] '나흗날'　　　[na:n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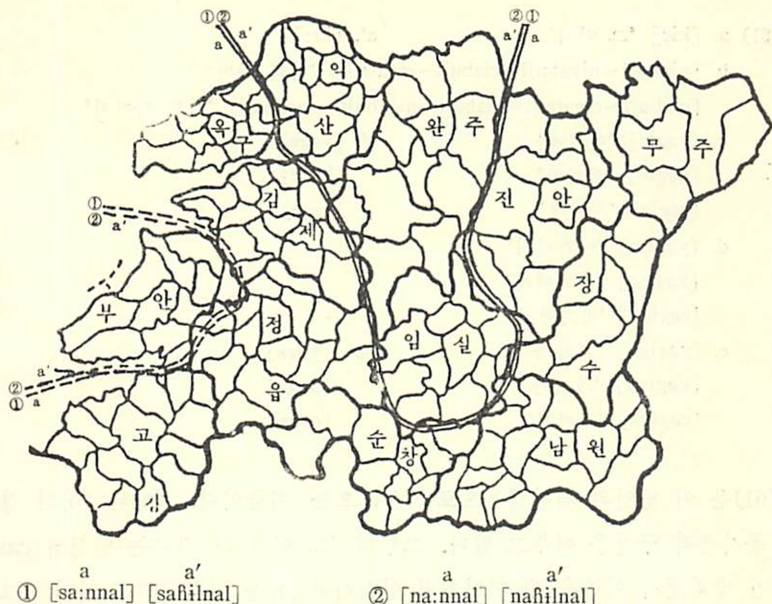
(60)의 예들은 주로 발화의 유형(style)에 의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처리 되었다. 그러나 이 방언권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 아래 지도 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많은 지역에서 항상 /ɨ/가 탈락됨을 볼 수 있다.

(60, a)의 '다음, 마음'의 경우는 옥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a')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다.(후술할 움라우트의 지도 56-b) 참조) 그런데 /h/가 개재된 지도 38-a)의 경우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등과 수의적으로 김제, 정읍 등에서 /ɨ/가 탈락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지도 38-b)의 '사흗날'은

지도 38-a) '사흘, 나흘'



지도 38-b) '사흔날, 나흔날'



① [sa:nnal] (a) [saɦɨlnal] (a′)　② [na:nnal] (a) [naɦɨlnal] (a′)

익산과 완주에서는 이 현상을 외면하고 임실에서는 수의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수, 남원, 임실, 순창 등의 지역에서는

제약 7) 형태소 내부에서 [+voc]에 후행하여 /ɨ/는 실현되지 못한다

는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87] 그리고 정읍과 김제에서는 수의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약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옥구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h/가 개재된 (60, b, c)의 예들에서는 발화 유형에 따라 빠른(speed) 발화에서만 실현되는 현상으로 처리된다.[88]

체언말음이나 용언의 어간말음이 /i/이고 후행하는 조사나 어미의 두음이

87) 이승재(1980)의 구례지역어에서도 이러한 제약이 설정된 바 있다. 이는 이 방언권의 동남지역에서 이러한 제약이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전남과 이 방언권의 동남지역에서 이러한 제약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88) 이 현상에 대한 규칙은 Kim-Renaud (1982 : 476)에 상론되어 있다.

모음일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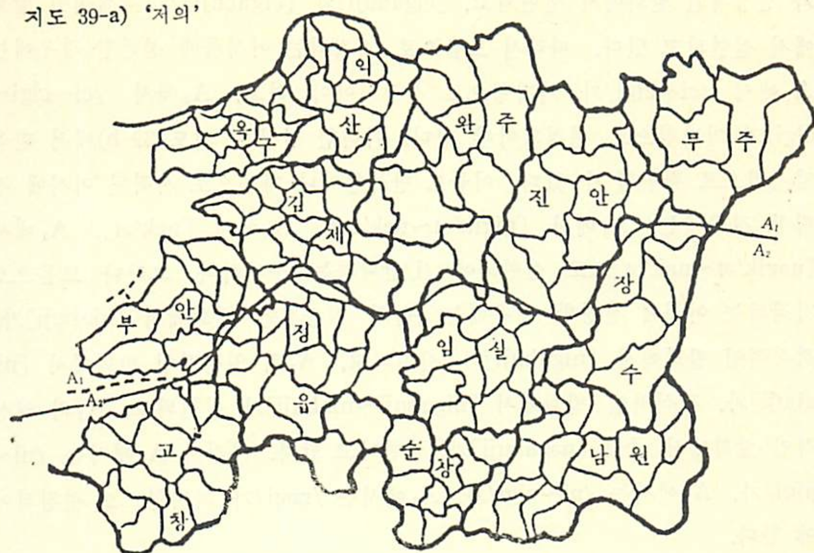
(61) a. [kɨɛ] '그 아이' a'. [kɛ:]
b. [niabuǰi~nigabuǰi~ciabuǰi~cigabuǰi] '너희 아버지'
[ciabuǰi~cigabuǰi~niabuǰi~nigabuǰi~nəgabuǰi] '저희 아버지'
c. [yəgie] '여기에' c'. [yəge]
[kəgie] '거기에' [kəge]
[cəgie] '저기에' [cəge]
d. [yəgisə] '여기에서'
[kəgisə] '거기에서'
[cəgisə] '저기에서'
e. [yəgiga] '여기가' e'. [yəga]
[kəgiga] '거기가' [kəga]
[cəgiga] '저기가' [cəga]

(61)은 이 방언의 체언말음으로 /i/가 오는 예들이다. (a)와 (b)의 경우는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경우는 일상적(casual)인 발화에서 이들을 한 단어처럼 인식하여 /i/를 탈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통사론적 구성으로 인식할 경우(formal한 발화)에는 항상 /kɨ/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언의 경우 i-탈락 규칙은 통사론적 구성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형태론적 구성으로 축약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b)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기저형이 달리 설정되어야 하는 예들이다. '저가', '너가'의 경우는 각각 [cəga~ciga], [nəga~niga]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체언말음으로 /i/를 유지하는 예들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의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나 '저의', '너의'의 예들과 '저희', '너희'의 예들은 아래 지도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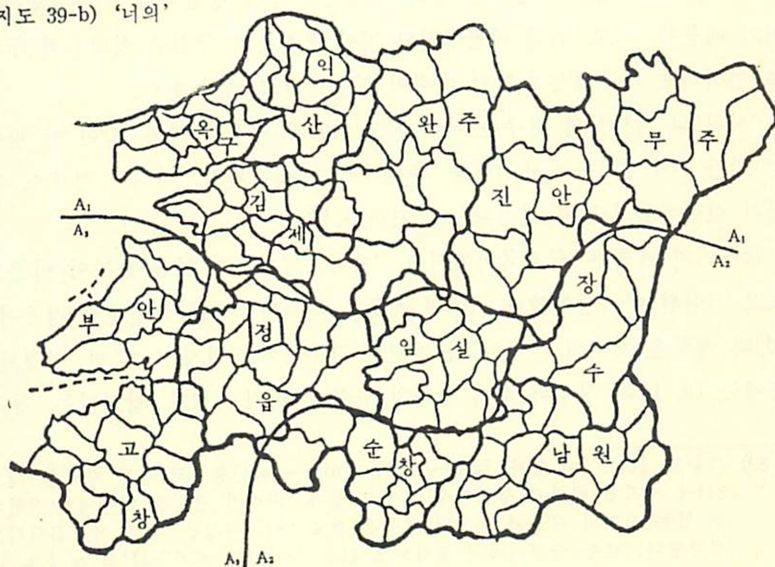
지도 39-a)에서와 같이 '저의'의 단독형과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사에 선행할 경우에는 A_1에서는 [ce~cek'ət]으로, A_2에서는 [ci~cik'ət]으로 실현되고 있어 /i/의 탈락 현상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아버지'가 연결되면 A_1의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ciabuǰi]가 실현되고, 격식적인 발화에서는 [cigabuǰi]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A_2에서는 [ciabuǰi]

지도 39-a) '저의'



A_1=[ce] A_2=[ci]

지도 39-b) '너의'



A_1=[nɨ:] A_2=[ňi~ne] A_3=[nəgi~nigi]

가 일상적인 발화에서 실현되고, [cigabuǰi]와 [cigabuǰi]가 격식적인 발화에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사들에 선행할 경우에는 A_1에서 /ci~cigi/가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A_2에서 /ci~cigi~cigi/가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도 39-b)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도 단독형이나 자음으로 시작된 어사에 선행할 경우에는 A_1에서 [nigik'ət~nek'ət], A_2에서 [nek'ət], A_3에서 [nəgik'ət~nek'ət]으로 실현되어 /i/탈락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사에 선행할 경우에는 A_1의 일상적인 발화에서 [niabuǰi]가, 격식적인 발화에서 [nigabuǰi]가 실현되고, A_2의 일상적인 발화에서 [niabuǰi]가, 격식적인 발화에서 [nigabuǰi~niabuǰi]가 실현되고, A_3의 일상적인 발화에서 주로 [nəgabuǰi]가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A_1에서는 /ni~nigi/가, A_2에서는 /ni~nigi/가, A_3에서는 /nəgi/가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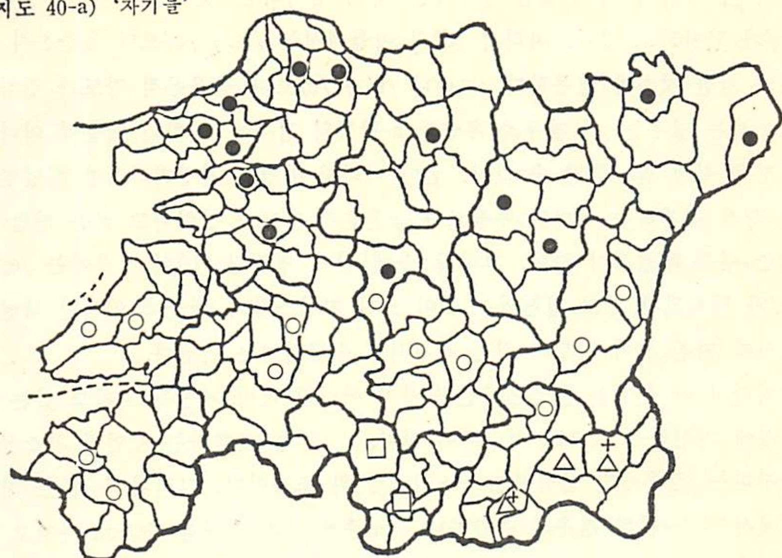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 방언권의 모든 지역에서 발화 유형에 따라 /i/가 탈락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일상적인 발화에 대한 연구가 방언학의 기본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62, a)의 예들에서와 같이 통사론적 구성을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i-탈락 규칙이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저희'와 '너희'의 경우는 아래 지도 4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방언에서 항상 복수접미사 [-dəl]형을 후행시키고 실현된다. 따라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i-탈락 현상과는 무관하다.[89]

(c~e)의 예들은 중세국어에서는 '여긔, 거긔, 뎌긔'등과 같이 이중모음으로 실현된 어사들이었다. (c)의 예들은 처격의 '-에'가 연결된 경우이고, (d)의 예들은 처격의 '-에서'가 연결된 경우이다. 먼저 '-에'만 연결된 경우에는 (a, b)의 경우와 같이 발화의 유형에 따라 /i/가 탈락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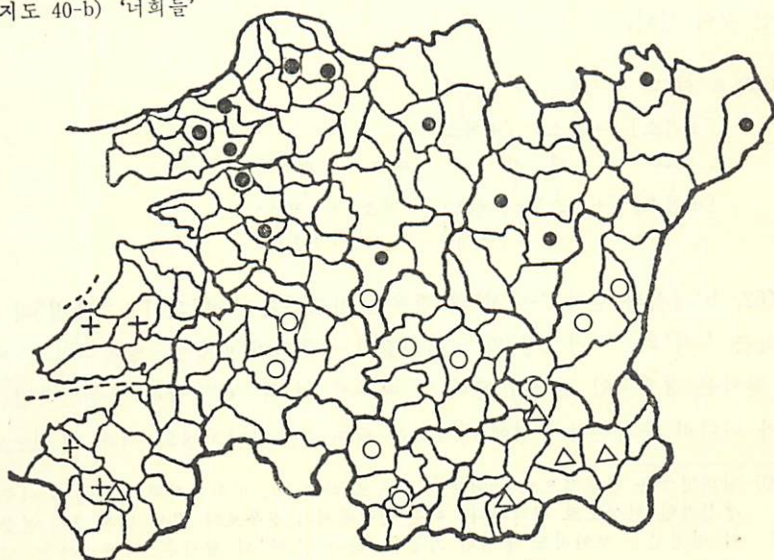
89) 이들도 [ci], [ni]형과 [cigi~cəgi], [nigi~nəgi]형들의 실현 지역은 지도 34)에 제시된 예들과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전자의 예들과 후자의 예들은 서로 다른 과정을 통해 어휘화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앙어에서 실현되고 있는 '자기의, 자기들의'의 예들은 이 방언에서 모두 '저의, 저희' 등의 예들로 실현되고 있다.

지도 40-a) '자기들'



● [ci:dəri] ○ [cəgidəri~cagi-] △ [cigidəri] □ [cigidəri] + [cigi~ci:dəri]

지도 40-b) '너희들'



● [ni:dəl] ○ [nəgidəl] △ [nigidəl] + [nəgidəl]

있지만, '-에서'가 연결된 경우에는 /i/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e/가 탈락되고 있다. 따라서 (d)의 예들에서는 /i/가 /e/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i/가 /e/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게 기능하는 경우는 이 경우와 후술할 ə-탈락의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굳이 이러한 설명이 정당화되려면 체언말음이 항상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그러나 '-에'만이 연결된 (b)의 경우에는 /e/나 /i/가 탈락되지 않고 실현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체언과 조사에 따른 위치 강도에 의한 해결책도 수긍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음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잉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에'는 선행하는 체언이 처소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연결되는 [+처소성]의 조사이다. 그러나 '-서'는 처소성에서는 '-에'의 경우와 동일하나, [+존재성]의 자질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즉 '…에 있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존재성]은 [+처소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에서'의 '-에'가 가지고 있는 [+처소성]은 잉여적인 것이 된다.

(62) a. 여그 + 에 → 여게
[+처소] [+처소] [+처소]

b. 여그 + 에 서 → 여그 서
[+처소] [+처소] [+처소, +존재] [+처소] [+처소, +존재]

(62, b)에서와 같이 '-에서'의 경우는 선행하는 '-에'의 [+처소성]과 후행하는 '-서'의 [+처소성]의 의미자질이 중복되기 때문에 잉여적인 '-에'의 탈락은 경제적인 현상이 된다.[90] 따라서 (d)의 /e/탈락은 음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통사론적 구성에 내재하는 잉여적인 의미자질의 삭제 현상으로,

90) 방언연구는 본질적으로 구어를 대상으로 하는 바, 발화에서의 경제성은 아주 생산적인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는 문어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생략 현상이 실현됨을 보아서도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에'의 탈락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통사 구성상의 경계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e′)의 예들을 통해서도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e)의 예들보다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탈락된 것은 /i/만이 아니라 /-ki/ 전체이다. 이는 '여기', '거기' '저기'에서 '여(이), 거(그), 저'만으로도 '여기, 거기, 저기'와 동일한 지시의 의미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방언의 체언말 /i/는 발화의 유형에 따라 일상적인 발화(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i-탈락이 활발하게 실현되고, 격식적인 발화(통사론적 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에서는 /i/를 유지함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병근(1971)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통사론적인 구성을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인식함에 의하여 동기화된 움라우트 현상의 확장과 평행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구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방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발화 유형에 의한 현상, 특히 일상적인 발화에서 실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규칙 26) i-탈락 규칙

$$i \rightarrow \phi \;/\; \underset{[N]}{—\,]} \;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end{bmatrix}$$

조건 :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발화에서나 빠른(fast speed) 발화(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하는 경우)에서만 적용된다.[91]

규칙 26)에서 [−cons, +voc]을 사용한 것은 [yollo] '이리로', [cəllo] '저리로' 등과 관련하여 잉여적인 [−cons]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yəgiro] '여기로', [cəgiro] '저기로'와 같은 형들이 실현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그 기저형이 /yori/, /cəri/가 되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yəgi/, /cəgi/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칙 26)의 환경을 [-voc]로 한다면 'yəgi+iro→yəgiro→*yəgro'와

91) 일반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i/ 유지형을 실현시키는 경우보다 /i/ 탈락형을 실현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 상호간에는 수의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원하지 않는 표면음성형을 얻게 된다.

(63) a. [k'ə] '끄어'[92]
[t'ə] '뜨어'
[kʰə] '크어'
[t'arə~t'ara] '따르어(遂)'[93]
b. [pap'əsə] '바쁘어서'
[kip'əsə] '기쁘어서'
[silpʰəsə] '슬프어서'
c. [mallət'a~mallat'a~mollat'a] '마르었다'
[callə~calla~c'aŋgilla] '자르어라'
[mollasə] '모르어서'
[hilləsə] '흐르어서'
[tallə~talla~talbə~talba] '다르어'

(63, a, b)의 예들은 소위 으-불규칙 용언들이다. (a)의 예들은 모두 i-탈락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과 동일하게 으-불규칙 용언으로 분류되고 있는 '따르어라(注)'는 아래 지도 4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일부 지역에서 어간말음 /u/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으-불규칙 용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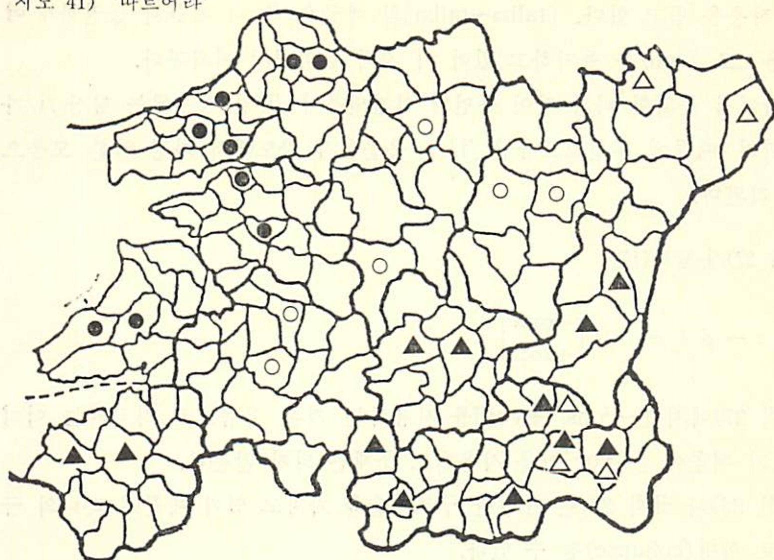
(b)의 예들도 단순히 i-탈락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연결될 때는 항상 /u/ 유지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저형은 /u/ 유지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원순모음화 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의 논의에서는 제외된다.

(c)의 예들은 르-불규칙 용언들이다. 이들도 이 방언에서는 항상 i-탈락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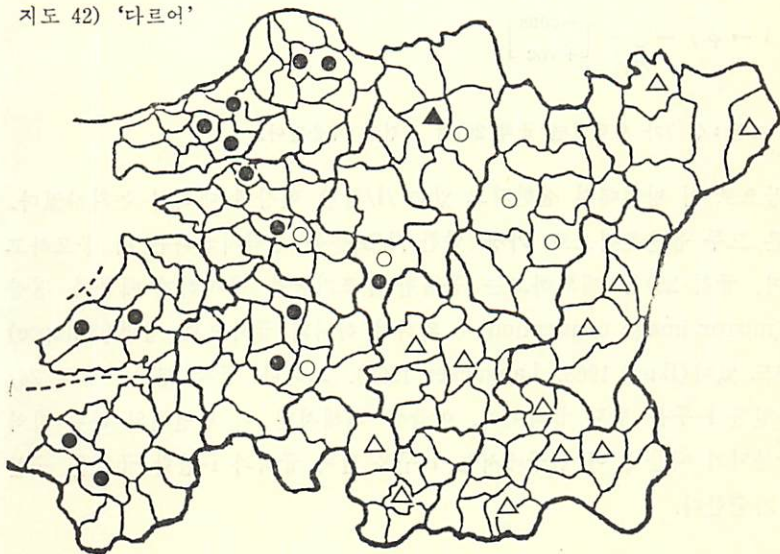
92) 최태영(1981), Kim-Renaud(1982)에서는 사동·피동 접사 '-이'가 연결될 경우에는 단음절 어간의 경우에 /i/를 유지함이 일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언권의 모든 지역에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경우에도 /i/가 탈락됨이 일반적이다.

93) 여기에 실현된 예들 중 /ə~a/의 교체형들은 모음조화의 규칙에서 논의되겠지만, 이 방언권의 북서 지역에서는 /ə/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남동 지역에서는 /a/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어 동일한 지역에서의 교체형은 아니다.

지도 41) '따르어라'



지도 42) '다르어'



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talbə~talba]의 예들은 (b)의 예들과 동일하게 어간말음으로 /-pu/를 유지하고 있어 이 장의 논의에서 제외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용언의 어간말음이 /ɨ/일 경우에는 항상 /ɨ/가 탈락되기 때문에 후설고모음인 /ɨ/가 음운론적 강도에서 가장 약한 모음으로 처리된다.

규칙 27) ɨ-탈락(1′)

$$ɨ \rightarrow \phi \;/\; __\,] +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end{bmatrix}$$

규칙 27)에서 [−cons, +voc]를 사용하는 것은 유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voc]만을 사용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규칙 26)과 규칙 27)은 동일한 구조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합병(collapse)될 수 있다.

규칙 28) ɨ-탈락

$$ɨ \rightarrow \phi \;/\; __\, \underset{\langle N \rangle}{]} +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end{bmatrix}$$

조건 : 〈 〉가 채택되면 규칙 26)의 조건이 적용된다.

이상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ɨ/탈락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들은 모두 음운론적으로 가장 약한 /ɨ/모음을 탈락시킨다는 데 공모하고 있으며, 규칙 25)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구조기술을 유지하기 때문에 경상규약(mirror image convention)에 의하여 하나의 규칙으로 합병(collapse)될 수도 있다(Back 1968, Langacker 1969). 그러나 규칙 25)는 규칙 24)와 동일한 ɨ-두음 탈락 규칙이며, 이들에 의해서만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ɨ-두음 탈락 규칙과 ɨ-탈락 규칙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5. 3. ə-탈락

모음으로 끝난 체언과 용언의 어간에 /ə/로 시작되는 조사와 어미가 연결되면 모음충돌 현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사와 어미의 두음 /ə/를 탈락시키는 현상이 존재한다.

기왕의 ə-탈락 현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용언에 후행하는 부사화 접사 '-어/아'의 탈락만이 주목되어 왔다(최태영 1981 : 109, 소강춘 1983 : 52 등). 그러나 체언에 연결된 주제격과 목적격 조사 '-언/넌', '-얼/-럴'이 이 방언에서는 활발히 실현되기 때문에 체언에 연결된 조사의 두음이 /ə/일 경우에도 이 현상이 적용된다.

(64) a. [c^hɛgən] '책(冊)은'
[c^hɛgəl] '책을'
b. [tönən] '되(升)는'
[törəl] '되를'

(64)의 예들은 체언에 주제격과 목적격 조사가 연결된 예들이다. (a)는 체언말음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이고, (b)는 모음으로 끝난 경우이다.

이들에 대한 기왕의 논의는 상술한 i-탈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저형을 /-in/, /-ir/로 설정하고, 모음 뒤에서는 중가 규칙을 적용하여 '-inin', '-irir'의 연속체를 유도한 다음 i-두음 탈락 규칙에 의하여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도출해냈다.[94] 그러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방언의 노년층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항상 [ə-] 유지형만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저형을 /i/ 유지형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저케한다.[95] 만약 이들의 기저형을

94) 중가 규칙의 설정과 도출과정은 i-탈락 규칙 참조.
95) 이러한 현상은 이 방언의 바로 선행 시기의 구어체 성격이 강한 판소리계 자료에서 활발히 실현되었음이 최전승(1986 : 40~2)에서 지적되어 있다. 또한 유구상(1970 : 146)에서는 병천지역어의 목적격에서 '(을)를>(얼)럴'의 현상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박광호(1983 : 69)에서는 서산지역어에서도 목적격에서 이러한 현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

/i/ 유지형으로 설정한다면 공시적으로 'i→ə'와 같은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언의 바로 선행 시기에 진행된 'ə 〉 i'의 모음 상승과 도수희(1977 : 18~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충남방언에서의 모음 상승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 경우만을 위하여 'i → ə'의 모음 하강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노년층의 발화에서 실현되지 않는 표면음성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는 것도 추상성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e/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i-탈락 현상을 논의하면서 정당화한 중가 규칙과 ə-탈락 규칙에 의하여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유도한다.

(65) /cʰɛk+ən/ /tö+ən/

.... tö ənən ······중가규칙

.... tö nən ······ə-탈락

[cʰɛgən] [tönən]

앞에서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모음 탈락이나 활음 형성은 연속된 두 모음 중에서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한 모음이 탈락되거나 활음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yəginən] '여기는', [cəginən] '저기는'과 같은 음성형들을 통해서 체언 말음 /i/가 어미 두음 /ə/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이 방언(국어 전체)에서 /i/가 다른 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게 기능하는 경우는 이 경우와 i-탈락에서 제시한 [yəgisə] '여기에서', [cəgisə] '저기에서'의 예들 뿐이다. 그런데 후자는 이미 처격조사 '-에서'의 내재적인 의미자질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현상임이 지적됐기 때문에 이들은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해석보다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체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어휘 형태소(lexical morpheme)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미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계합적인 현상에서도 체언 자

라서 이 방언권의 노년층 화자들이 주제격과 목적격에서 [ə] 유지형을 실현시키는 것은 이미 통시적으로 이 방언의 선행 시기부터 [ə] 유지형이 구어에서는 일반적이었고, 문어에서는 중앙어의 영향에 의하여 /i/ 유지형을 썼던 것으로 생각된다.

체의 변화를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96] 그러나 체언에 연결된 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에 문법적인 기능만을 부여하는 문법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이기 때문에 체언 자체의 결속력보다는 조사 자체의 결속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합 관계에서 약모음으로 끝나는 체언말음이 탈락되지 않고, 강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의 두음이 탈락되는 것은 두 모음의 음운론적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체언과 조사의 결속력에 따른 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66) a. [kasə] '가서'
[səsə] '서서(立, 酸)'
b. [t'esə~t'iəsə] '(혹을) 떼어서'
[kɛsə] '개서'

(66)의 예들은 /a, ə, e, ɛ/로 끝난 용언의 어간에 /ə/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된 경우인데 모두 /ə/를 탈락시키고 있다. 그런데 모음조화 규칙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단순한 ə-탈락 현상이라고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즉 (66, a)의 도출과정에서 모음조화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면, /a, ɛ/가 양성으로 기능하는 지역(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등의 A_2)에서는 선행하는 어간말음과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동일한 모음의 연속체인 '-a+a-', '-ə+ə-'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모음 중의 어느 하나를 탈락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술한 체언과 조사의 경우와 동궤로 어미의 두음이 탈락되는 것으로 처리한다.[97] (66, b)의 경우에는 /ɛ/ 뒤에서는 /a/가 탈락되고, /e/ 뒤에서는 /ə/가 탈락되고 있다. 따라서 (66, a)의 경우는 모음 사이의 음운론적인 강도의 위계보다는 어간과 어미에 따른 위치 강도에 의하여 탈락하는 모음이 결정되지만, (66, b)의 경우에는 /e, ɛ/가 /ə, a/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한

96) 이러한 현상은 활음 형성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용언의 어간은 계합적 관계를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체언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97) 이러한 현상은 이승재(1980 : 94)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이들이 일반언어학적인 보편성을 가진 현상이 아님도 토이기어를 통하여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는 국어에 존재하는 개별언어학적인 현상으로 처리된다.

모음으로 처리되어 동일한 모음의 높이(vowel height)를 가진 모음들에서는 전설모음이 후설모음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98]

규칙 29) ə/a-탈락

$$\begin{bmatrix} V_i \\ +\text{grave}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V_i \\ -\text{grave} \end{bmatrix}_{V.A.st.} + \quad -$$

조건 : i 는 동일한 모음의 높이(vowel height)를 가진 모음들을 의미한다.

규칙 30) 동일 모음 탈락

$$V_j \rightarrow \phi \,/\, V_j] \quad + \quad -$$

조건 : j 는 동일한 모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a, ɛ/가 음성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옥구, 익산, 완주, 진안,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의 A_1 지역)에서는 /a, ə, e, ɛ/의 모음들 뒤에서 /ə/가 탈락되기 때문에 /ə/는 /a, e, ɛ/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모음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는 /e/와 /ə/의 관계를 통해 전설모음이 후설모음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함을 예견할 수 있고, /a/와 /ə/의 관계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모음들 중에서는 저설모음이 고설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함을 예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ɛ/와 /a/에서 전·후설에 의한 음은론적 강도의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다.[99]

규칙 31) ə-탈락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_{V.A.st.} + \quad -$$

이와 같이 모음조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면 지역에 따라 A_1 지역에서는

98) 이러한 현상은 김차균(1983 : 29)에 설정된 위치강도에서 전설모음은 Ⅲ°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후설모음은 V°를 유지하고 있음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99) 모음조화의 지역적 차이에 대해서는 졸고(1988a : 287)과 전술한 ch. 3을 참조하고, 모음의 위계에 대해서는 J. Foley(1973), M.A. Zwick(1973), J. Hankamer and A.Aissan(1974), 이승재(1980) 참조.

ə-탈락 규칙이 설정되고, A_2 지역에서는 ə/a-탈락 규칙이 설정되어야 한다.

모음조화 규칙이 나중에 적용되면 모든 지역에서 /a, ə, e, ɛ/의 모음 아래서 /ə/가 탈락된다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규칙 31)의 ə-탈락 규칙 하나만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A_2지역에 설정된 ə/a-탈락 규칙에서와 같이 체계적인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를 예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모음이 연속될 경우에 선행 어기와 후행 어미나 조사에서 예견되는 모음들의 위치에 따른 음운론적 강도의 변화를 예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모음조화 규칙이 선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

이와는 달리 동남방언의 색체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무주의 무풍지역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실현되고 있다.

(67) a. [šisə] '시어서'
[kisə] '기어서'
[pʰisə] '피어서'
[megisə] '먹이어서'
[cikʰisə] '지키어서'
[p'urisə] '뿌리어서'
b. [s'osə] '쏘아서'
[nosə] '놓아서'
[cosə] '주어서'
[s'osə] '쑤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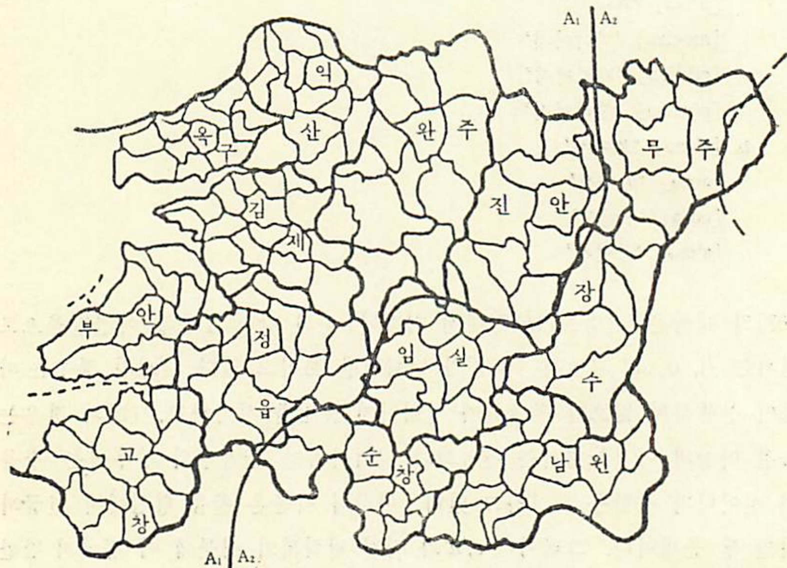
(67)의 예들은 권병로(198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1음절 어간말음으로 실현되는 /i, o, u/ 뒤에서 '-ə/a'가 탈락됨을 보이고 있다. (a)의 경우는 파찰음이 선행하지 않으면 활음화가 일어나지 못함을 시사하고, (b)의 경우는 2음절 이상의 어사들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지만 단음절의 경우에는 활음화가 일어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활음 형성에서 언급되어야만 될 문제이다. 그러나 '-ə/a'가 직접 탈락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 잠깐 언급하려 한다. (67)의 예들은 상술한 규칙 29)와 31)의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만한 설명은 곤란하다. 따라서 이들은 규칙 29)에서 동기화된 바와 같

이 어간말음이 전설모음이기 때문에 후행하는 모음과의 모음의 높이(vowel height)는 달라도 후행 모음을 탈락시킨다고 하거나, 규칙 30)에서와 같이 어간말음이 어미의 두음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다는 설명에 의하여 부족하지만 규칙에 동기화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67, b)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활음화를 수행하여 유도된 [wə]가 [o]로 실현 된다는 최명옥(1980)의 견해에 따른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이 방언권에서 활발히 실현되고 있는 '-어/아'의 탈락 현상은 모음조화 규칙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ə-탈락 규칙과 ə/a-탈락 규칙으로 구분된다.

무풍지역어는 그 근원을 동남방언에 두고 있기 때문에 ə-탈락 현상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도 43) 'ə-탈락 규칙과 ə/a-탈락 규칙'



A_1=ə-탈락
A_2=ə/a-탈락

5. 4. i-탈락

선행하는 용언의 어간말음이 /i/이고,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활음 /y/의 형성이 일반적임을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 /i/ 앞에 치찰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활음 형성을 외면하고 /i/가 탈락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y-형성에서 (39, a)의 예들을 통하여 단음절의 어간에서 치찰음을 선행시키고 실현되는 /i/모음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활음화를 외면하고 직접 탈락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39, b)의 예들을 통하여 k-계 구개음화 규칙과의 규칙 순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i-탈락 규칙 8) 참조)

그러나 활음 형성에서 임의로 설정된 규칙 8)의 조건에서 제시된 지역적 차이는 이 방언권의 남원, 임실, 장수, 순창, 고창, 완주, 진안, 무주 등의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i-탈락 규칙이 구개음화 규칙과 무관한 규칙이고, 위의 지역들에서는 규칙 순서의 방향에 따라 수의적인 i-탈락과 y-형성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 8)은 이 방언권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설정되고 규칙 순서의 차이에 의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이 구분된다.

이 규칙의 적용 양상을 보기 위하여 도출과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8) /ci+ə/	/k'i+ə/	/k'i+ə/	
………	………	………	……모음조화
………	c'i ə	?	……구개음화
c ə	c' ə	………	……i - 탈락
………	………	k'yə	……y - 형성
[cə]	[c'ə]	[k'yə~k'e]	

도출과정 (68)에서 /k'i+ə/가 구개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i-탈

락 규칙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i-탈락 규칙은 공전한다. 여기서 /i/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인가 연구개음인가에 따라 i-탈락 규칙의 적용 여부가 결정됨은 형태소 내부의 치찰음 아래에서는 y-계 상향 이모중음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분포제약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분포제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음성학적으로 동일한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려는 현상이다. 따라서 김규남(198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장 완전한 음운규칙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과 형태소 경계에서의 규칙의 동기화가 일치될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음운규칙이 음성학적으로 타당한 동기화를 갖기 위해서는 형태소 내부에서 설정된 제약을 위배해서는 않된다. 만약 도출과정 (68)에서 y-형성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면 i-탈락 규칙은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순수한 치찰음을 선행시키고 실현되는 /i/가 활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이 방언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 순서는 추상성을 허용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i-탈락 규칙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32) i-탈락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ow}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phi /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str} \end{bmatrix} \text{—} \Big] \underset{\text{V.A.st.}}{+}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ow}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지역적 분포 조건 : 옥구, 익산, 김제, 부안, 정읍 등의 지역에서는 구개음화 규칙에 후행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수의성을 보인다.

규칙 3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규칙은 선행 자음과의 동일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동화음과 구조변화를 생각한다면 전설고모음 /i/가 비전설·비고설 모음인 '-어/아'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함을 알 수 있다.

용언에서와는 달리 체언에서도 /i/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69) [somən] '소이면'
[kɛňa] '개이냐'
[coŋumən] '종이이면'
[sümən] '쉬(蠅)이면'
[kɨmən] '그이면'
[ciňa] '김치이냐'

(69)의 예들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계사 /i/가 연결된 경우이다. 이들은 선행 어간말 모음의 종류와 무관하게 항상 /i/가 탈락되고 있어 전설모음인 /i/가 모든 다른 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전설고모음인 /ü/가 선행할 경우에도 /i/가 탈락되기 때문에 [−labial]의 모음이 [+labial]의 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활음 형성 및 탈락의 (50), (5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labial]의 모음이 [+labial]의 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게 기능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체언말음이 후행하는 계사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견해를 취해야 한다.

이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33) i-탈락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ow}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phi \ /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_{N} + \ __$$

규칙 32)와 규칙 33)의 구조변화는 동일하지만 전자는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일 자질 회피 현상이고, 후자는 모음 상호간의 관계와 체언과 계사의 관계에 의한 음운론적 강도를 표시한 규칙이다. 특히 후자의 규칙은 이 방언권의 모든 하위 지역어에 적용되는 규칙임에 비해, 전자의 규칙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규칙은 하나의 규칙으로 합병(collapse)되지 못한다.

5.5. u-탈락

용언의 어간말음이 /u/로 끝나고,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u/가 활음화 됨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는 /u/가 직접 탈락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70) [pʰəra] '푸어라'
[apʰasə~apʰəsə] '아파서'[100]
[kopʰasə] '고파서'
[silpʰəsə] '슬퍼서'

(70)의 예들은 활음 형성에서 이미 언급된 것으로 /u/가 '-어/아'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순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모두 활음 /w/를 형성함과는 달리 순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u-탈락 현상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 장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w-계 상향 이중모음의 실현제약과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실현되고 있는 활음화 현상에서 동일한 [+labial]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려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이러한 회피 현상은 (70)의 예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70)의 예들은 아래와 같은 도출과정을 통해서 표면음성형을 유도할 수 있다.

(71) /pʰu+ə/	/apʰu+ə/	
………	apʰu a	…모음조화
pʰw ə	apʰw a	…활음형성
pʰ ə	apʰ a	…활음탈락
[pʰə]	[apʰa]	

그러나 (70)의 예들은 이 방언의 모든 지역어에서 활음 /w/가 실현되는

100) 여기서 보이는 교체형은 모음조화 규칙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a/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예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71)의 도출과정은 추상성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활음 형성을 외면하고 u-탈락 현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71)의 도출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음 형성 규칙의 적용은 형태소 내부의 순음 아래에서 결코 /w/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제약 6)를 위배하고 순자음 아래에서 w-계 이중모음을 실현시키고 있다. 따라서 활음 형성 규칙의 적용 여부는 제약 6)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약 6)은 [+labial] 자질의 중복체를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음성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활음 형성 규칙이 (71)의 도출과정에서와 같이 적용되는 것은 이러한 조음상의 편의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71)의 도출과정에 적용된 활음 형성 규칙은 음성학적으로 동기화되기 어려운 규칙이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출과정 (71)의 활음 형성 규칙이 적용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이 방언의 u-탈락 규칙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34) u-탈락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low}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phi \ /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end{bmatrix} \ + \ __$$

규칙 34)의 동기화는 동일 자질의 회피 현상이지만, /u/가 후행하는 /-ə/a/ 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다는 점도 이 현상의 실현에 공모하고 있다.

5.6. 변별적 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이 장에서는 상술한 /ɨ/, /ə/, /i/, /u/의 탈락 현상을 통하여 이들에 결합되는 모음들과 음운론적 강도를 파악하고, 이들이 음운체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문제와 이들 상호간의 음운론적 위계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i-탈락 현상은 /i/가 탈락되는 위치에 따라 i-두음 탈락 규칙과 i-탈락 규칙으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전자의 규칙에서 /i/는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voc]에 후행할 경우에 탈락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칙은 [+voc] 자질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현상으로 기술되고, 이 규칙의 지배자질은 [+voc]이 된다.

그런데 피동화음인 /i/와 선행하는 [+voc]의 음운들 사이의 관계를 음운론적 강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i/는 모든 모음들 뿐만 아니라 [+voc]의 자음인 유음보다도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게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음이 자음들 중에서 울림도가 가장 크고 그 조음적인 강도에서는 가장 약한 자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음 중에 가장 약한 유음보다도 모음인 /i/의 음운론적 강도가 더 약하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i-탈락 규칙의 경우에는 유음 앞에서 /i/가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i-탈락 규칙에서는 유음 보다 /i/의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규칙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경우에는 /i/가 음운론적으로 강하게 기능하고, 어느 경우에는 유음이 음운론적으로 강하게 기능하고 있어 이들의 본질적인 강약의 문제에 대하여 재 검토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먼저 i-두음 탈락 규칙의 피동화음은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으로 실현되는 /i/이다. 반면에 i-탈락 규칙의 피동화음은 선행하는 체언이나 용언의 말음으로 실현되는 /i/이다. 따라서 이 두 규칙의 피동화음들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실현 위치에 따른 강도의 차이를 예견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유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선행 어간말음으로 실현되고 있는 유음이 비록 /i/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위치가 어미의 두음보다는 강한 위치이기 때문에 어기말 유음 뒤에서 어미나 조사의 두음인 /i/가 탈락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어기말음으로 /i/가 실현되기 때문에 어미두음 /r/ 앞에서 /i/가 탈락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체언과 어간말의 강위치와 조사나 어미두의 약위치에 따라 이들의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음 탈락 규칙 자체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5.2의 도출과정 (56)에서 설정된 유음 탈락 규칙은 이러한 위치 강도와는 무

관하게 약모음이고 약위치에서 실현되는 /i/ 앞에서 탈락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도출과정 (58)에서 설정된 유음 탈락 규칙은 자음의 위치 강도에 따라 약자음인 유음이 강자음인 비음 앞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출과정 (58)과 같은 규칙 순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i/가 모음과 연결될 경우에는 /i/가 어기의 말음으로 실현되든지, 어미의 두음으로 실현되든지에 무관하게 항상 탈락되고 있어 이 방언의 음운체계상에서 음운론적으로 가장 약한 모음으로 처리 된다.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ə-탈락 현상에 의한 모음들의 상대적인 음운론적 강도의 위계를 살필 수 있는 경우는 선행하는 어간말음이 /a, ə, e, ɛ/인 경우에 한 한다. 이들은 모음조화 현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a, ɛ/의 조화기능에 따라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이들이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고 있는 A_2의 지역에서는 /a, ɛ/ 뒤에서 /a/가 탈락되고, /ə, e/ 뒤에서는 /ə/가 탈락된다. 따라서 동일한 모음이 연결될 때는 어미의 모음이 탈락되고 동일한 모음의 높이를 가진 모음들이 연결될 때는 후설모음이 탈락된다고 할 수 있어, 체언과 어간말 위치와 조사와 어미두의 위치에 따른 위치 강도를 예견할 수 있고, 동일한 모음의 높이를 가진 경우에는 음운체계상에서 [-grave]의 모음이 [+grave]의 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모음의 위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a, ɛ/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는 A_1의 지역에서는 /a, ɛ, ə, e/의 모음 뒤에서 /ə/가 탈락되고 있다. 따라서 A_1의 지역에서도 /ə, e/의 경우는 A_2의 지역과 동일하게 설명되지만 /a, ɛ/의 경우는 양상을 달리한다. 즉 /a, ɛ/는 저설모음임에 반해 /ə/는 중설모음이기 때문에 저설모음이 중설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해야 한다. 이는 A_2의 지역에서 보인 바와 같이 [grave] 자질에서 [-grave]의 모음이 음운론적으로 강한 모음이라는 설명과 동일 모음일 경우에는 어미의 모음이 탈락된다는 설명과는 달리 모음의 높이에 따른 강도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a+ə-'의 연결체에서 '-ə'가 탈락됨은 동일한 계열의 모음들에서는 모음의 높이가 낮은 모음이 음운론적으로 강한 모음임을 시사하기 때

문에, A_2의 지역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a/와 /ə/의 음운론적 강도의 위계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A_1의 지역과 A_2의 지역은 모음들의 위계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 강도를 예견케하는 자질들의 기능에서도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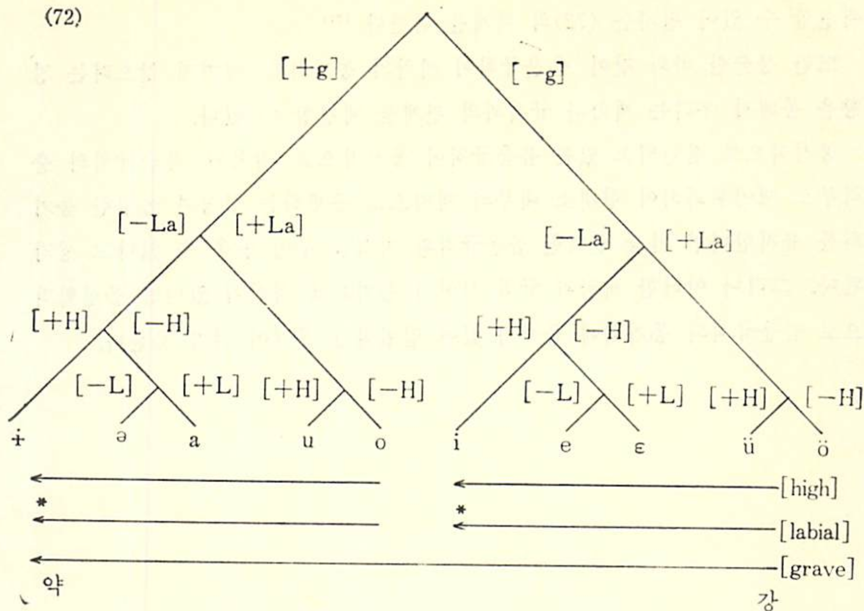
i-탈락 현상과 u-탈락 현상에서 /i/와 /u/는 모두 고모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약모음임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술한 4.3의 활음 형성 및 탈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행하는 '-ə/a'의 모음 앞에서 활음화되거나 탈락된다. 그런데 i-탈락 현상은 단음절 어간에서 선행 자음이 치찰음일 경우에만 실현되고, u-탈락 현상은 음절수에 관계 없이 순음 아래에서 항상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활음 형성과는 달리 선행 자음의 자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을 후행하는 모음과의 음운론적 강도만으로 설명한다면 활음이 형성되어도 무관하기 때문에 i-탈락이나 u-탈락 규칙을 별도로 설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선행 자음과 함께 고려한다면 이중모음의 분포제약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동일한 [palatal]이나 [labial] 자질의 연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에 의하여 치찰음이나 순자음 아래에서 /y/나 /w/를 형성하는 것이 음성학적으로 동기화된 제약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i/나 /u/가 직접 탈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u-탈락 현상은 동일한 환경에서 /o/가 탈락되지 않고 활음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o/가 /u/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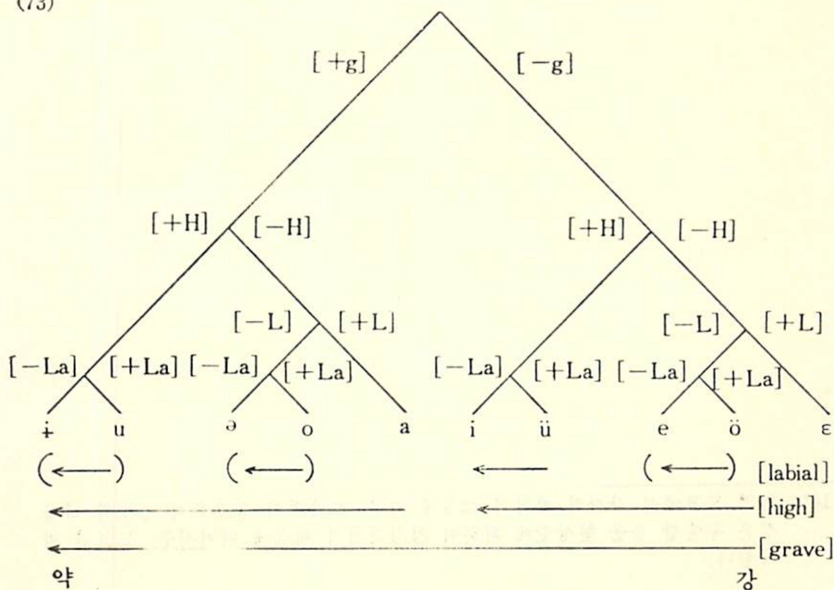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모음의 높이가 높으면 약모음이고, 동일한 모음의 높이를 유지할 경우에는 [+grave]의 모음이 약모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ɨ/, /ə/, /i/, /u/의 탈락 현상을 통하여 아래 (72), (73)과 같은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와 변별적 자질들의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72)와 (73)의 차이는 자질들의 위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72)는 [grave]→[labial]→[high, low]의 위계 관계를, (73)은 [grave]→[high, low]→[labial]의 위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labial]에 의한 음운론적 강도를 예견하지 못함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를

(72)


[+g]
[−g]
[−La]
[+La]
[−La]
[+La]
[+H]
[−H]
[+H]
[−H]
[−L]
[+L]
[+H]
[−H]
[−L]
[+L]
[+H]
[−H]
ɨ
ə
a
u
o
i
e
ɛ
ü
ö
[high]
*
*
[labial]
[grave]
약
강

(73)


[+g]
[−g]
[+H]
[−H]
[+H]
[−H]
[−L]
[+L]
[−L]
[+L]
[−La]
[+La]
[−La]
[+La]
[−La]
[+La]
[−La]
[+La]
ɨ
u
ə
o
a
i
ü
e
ö
ɛ
[labial]
[high]
[grave]
약
강

예견할 수 있어 필자는 (72)의 체계를 취한다.[101]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음운규칙이 제약의 동기화를 어기지 않으려는 경향을 통해서 우리는 제약과 규칙과의 관계를 예견할 수 있다.

공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음운규칙이 통시적으로 적용된 음운규칙의 출력부로 재어휘화되어 형태소 내부의 제약으로 존재하는 현상과 동일한 동기화를 유지한다면 가장 완벽한 음운규칙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과 규칙 사이의 동기화에 차이가 있다면 음성학적으로 음운규칙의 동기화에 문제가 있어 일반화된 규칙이 되지 못한다.

101) 위의 도표에서 각각의 자질과 그들에 의한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의 타당성은 후술할 음운 현상들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표만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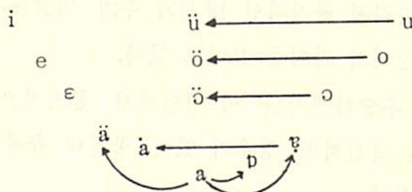
6. 움라우트

6.1. 대상과 일반론

움라우트 현상은 범어적(universal)인 것으로 그 동화의 방향에 따라 전설(fronting), 후설(backing), 고설(raising), 저설(lowering) 움라우트 등으로 구분되고, 그 실현 환경은 대개 음절말의 위치에서가 생산적임이 지적되고 있다(Hans Henrich Hock 1986 : 66~8).[102]

국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통시적으로 18세기 말경부터 실현되었는데,[103]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i'모음 역행동화(이후로 움라우트라는 용어는

102) Romio Anttila(1972 : 62~3)에서는 Rotuman어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는 raising umlaut를, ←는 fronting umlaut를 의미하며 /h. q/의 앞에서 /ä/=/a+ɛ/, /ȧ/=/a+i/, /ɒ/=/a+ɔ/의 연결체로 파악될 수 있으며, /ɐ̈/=/a+u/, /o/=/ɔ+u/, /ö/=/ɔ+i/, /ɔ̈/=/ɔ+ɛ/, /ü/=/u+i/ 등의 연결체로도 파악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103) 이 현상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실현되어 모음체계상에 전설모음이 형성된 후에 실현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와 관련지어 이 현상의 출현기를 이기문(1972a : 201~2)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완진(1971 : 17)에서는 18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완진 교수의 국어음운체계의 연구(1971)의 페이지를 따름). 그러나 최전승(1986)에서는 이 방언의 바로 선행 시기의 자료를 통해서 단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움라우트가 일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이 현상을 지칭한다)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도수희(1981 : 69~70)에서 충남방언의 자료를 통해 동화의 방향이 순행인 경우와 동화주로 '-i/y' 이외의 다른 것들이 기능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i'모음 역행동화라 칭해지고 있는 움라우트 현상만을 취급하고 도수희(1981)에서 논의된 기타의 움라우트에 대해서는 구개모음화나 기타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언급하려 한다.

이 연구는 공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움라우트의 통시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 방언의 바로 선행 시기(19세기 후기)의 자료를 통해서 움라우트의 통시적 양상을 논의한 최전승(1986)의 견해를 소개하고, 이 견해가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 한다. 먼저 최전승(1986)의 견해에 따르면 /a, ə, o/의 움라우트는 'a>*ay>ɛ'와 같은 변화 과정을 보이지 않고, 직접 'a>ɛ'와 같이 변화되고 있어 통시적인 중간 단계 생략(telescoping) 현상을 보이지만, /u, ɨ/의 움라우트는 'u>uy>ü, ɨ>ɨy>i'와 같이 이중모음으로의 움라우트 이후에 단모음화가 실현되고 있어 상호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적인 19세기 후기 자료에서 본다면 이 두 규칙들은 그 변화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후술하겠지만 이 방언에서 공시적으로 /ɨ/의 움라우트가 다른 경우보다 덜 생산적인 경우가 있어 공시태 속에서의 통시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의 논의는 형태소 내부에서 통시적으로 실현되었던 움라우트 규칙의 생산성이 소실되면서 그 출력부가 각각의 하위 지역어 별로 재어휘화(relexicalisation)된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는 형태소 구조제약을 정립하고, 형태소 경계 이상의 음운경계가 개재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는 공시적으로 움라우트 규칙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운규칙을 정립한다. 그리고 제약과 규칙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을 구분하고 그들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려 한다.

6.2.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

6.2.1. 체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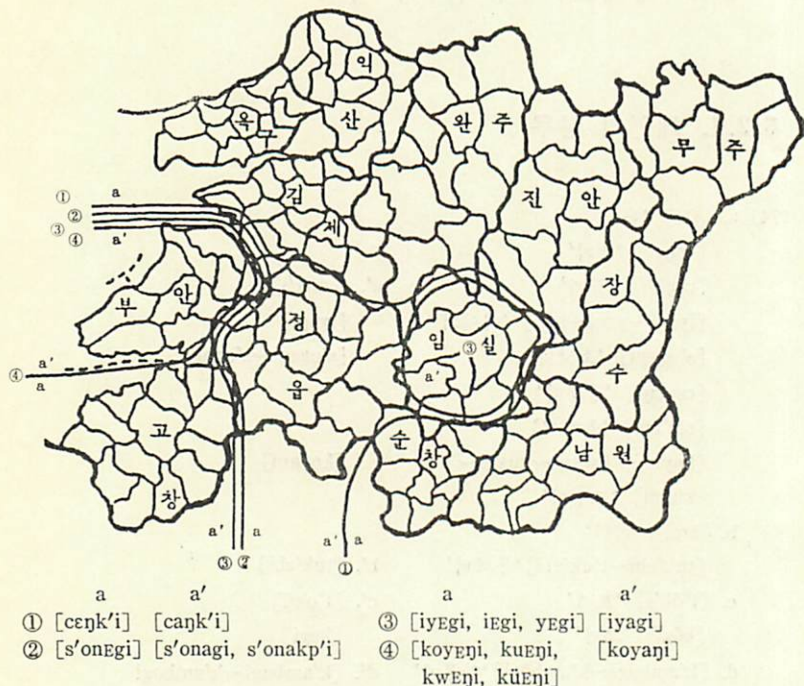
(74) a. [εbi] '아비'
[cεŋgi] '쟁기'
[cεŋk'i] '장끼' a'. [caŋk'i]
[iyEgi~yEgi~iEgi] '이야기' [iyagi]
[s'onEgi] '소낙비' [s'onagi~s'onakp'i]
[cəgεŋi] '정강이'
[olc^hεŋi] '올챙이'
[koyEŋi~kwEŋi~kuEŋi~ küEŋi] '고양이' [koyaŋi]
b. [emi] '어미'
[tuk'ebi~t'uk'ebi] '두꺼비' b'. [tuk'əbi]
c. [t^hök'i] '토끼' c'. [t^hok'i]
[kögi] '고기' [kogi]
d. [k'ambügi~k'ambögi] '깜부기' d'. [k'ambugi~k'ambogi ~k'amburEgi]

(74)의 예들은 체언 내부에서 $-V_1 \cdot V_2-$와 같이 2개의 모음이 연결되고 그 사이에 하나 이상의 자음([+grave])이 개재된 경우다.

(a, a')는 V_1이 /a/인 경우로, '장끼, 이야기, 소낙비, 고양이'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거의 예외없이 움라우트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움라우트의 비실현형들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의 분포 상황은 (a')의 예들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 (a')의 실현 지역은 지도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끼'의 경우는 부안, 정읍, 임실, 고창 등이고, '이야기, 소낙비'의 경우는 부안, 고창, 임실 등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움라우트의 실현형에 비해 생산성이 약하다. '고양이'의 경우는 부안에서만 움라우트형이 실현되고 있다.

지도 44) '장끼, 소낙비, 이야기, 고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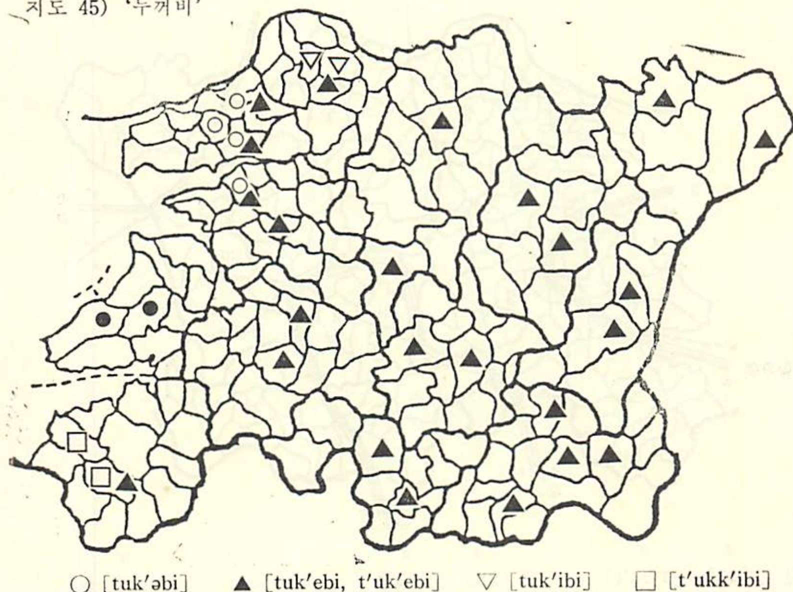
	a	a'		a	a'
①	[cɛŋk'i]	[caŋk'i]	③	[iyEgi, iEgi, yEgi]	[iyagi]
②	[s'onEgi]	[s'onagi, s'onakp'i]	④	[koyEŋi, kuEŋi, kwEŋi, küEŋi]	[koyaŋi]

그런데 이들과 동일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감기'의 경우는 [ka:ŋgi]로만 실현되고 있어 움라우트를 외면한다. 이 경우는 전 지역에서 예외없이 장음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음장이 움라우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 방언의 다른 예들에서는 음장이 움라우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타 방언에서와 같이 이 방언의 경우에도 선행 시기에는 음장이 움라우트의 제약 조건으로 기능했으리라는 점만을 지적한다. 이처럼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제약 조건에 의하여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어사들은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받은 어사들과는 달리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설정되는 제약에 대하여 예외적인 어사들로 존

재하게 된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설정되는 제약이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출력부에 따라 재어휘화된 예들에 의하여 설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설정되는 형태소 구조제약에 대한 제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ka:ŋgi]와 같이 장음으로 실현된 어사들은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을 추가하면 예외로 처리되지 않는다.[104] (b, b′)는 V_1이 /ə/인 경우로 '두꺼비'의 비움라우트형은 부안과 옥구의 경우에서 실현되고 있다.

지도 45) '두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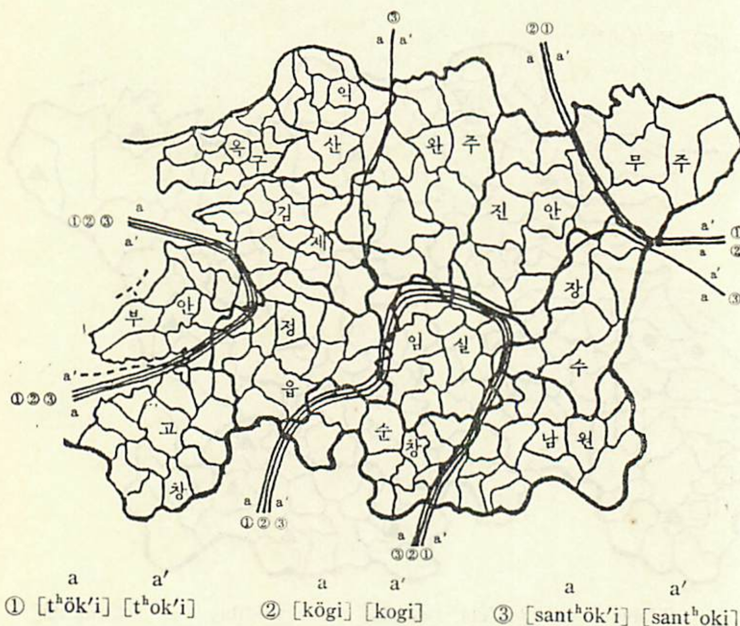


(c ,c′)는 V_1이 /o/인 경우로 '토끼'의 비움라우트형은 무주, 부안, 임

104) 서정목(1981)의 경우는 성조가 움라우트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동남방언의 하위 지역어인 진해지역어를 통하여 시사하고 있으나, 최명옥(1982 : 70∼1)에서는 동일한 동남방언의 하위 지역어인 월성지역어를 통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통시적으로 장음이 움라우트의 제약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 방언의 경우에는 성조나 음장이 움라우트의 제약으로 존재하지 못한다(졸고 1983).

실, 순창 등에서, '고기'의 비움라우트형은 무주, 부안, 임실, 순창 등과 수의적으로 익산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산토끼'의 비움라우트형은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부안, 순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어,[105] 움라우트의 비실현형들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이 (a, b)와는 달리 동북부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분포는 최명옥(1982), 최태영(1984)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부나 중부방언에서 /o, u/의 움라우트가 실현되지 못함과 유관하다고 생각한다.

지도 46) '토끼, 고기, 산토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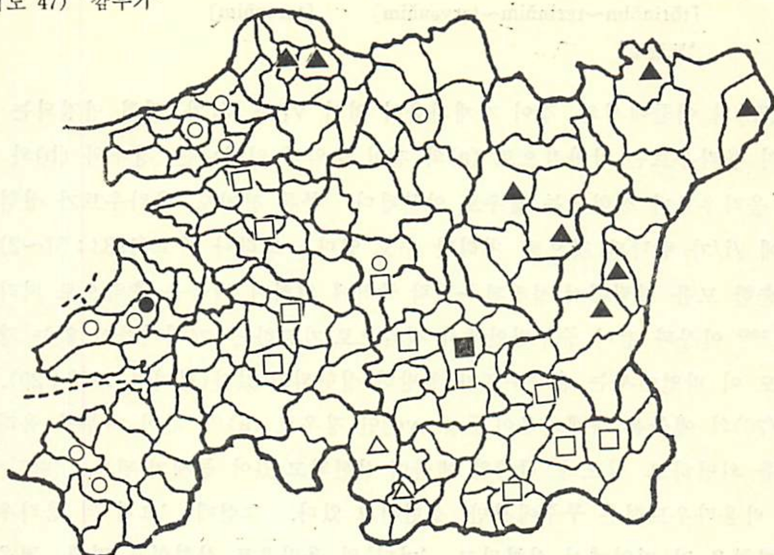


① [tʰök'i] [tʰok'i]　② [kögi] [kogi]　③ [santʰök'i] [santʰoki]

(d, d')는 V_1이 /u/인 경우로 '깜부기'의 비움라우트형은 완주, 부안, 임실, 고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완주, 고창의 경우는 [k'amburɛgi]로 실현되고 있어 /u/ 움라우트의 환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05) '도끼'의 경우는 [tocʰi]로, '종이'의 경우는 옥구, 익산, 진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oŋu]로 실현되고 있어 움라우트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도 47) '깜부기'



● [k'ambugi]　○ [k'amburɛgi]　▲ [k'ambügi]
△ [k'ambigi]　□ [k'amböɡi]　■ [k'ambogi]

이상과 같이 개재자음이 [+grave]이면 움라우트는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그러면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와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75) a. [ɛ] '아이'
[ö] '오이'
b. [köom～köyom～küəm] '고욤'
[öyaŋ] '외양간'

(76) a. [k'aši] '가시'
[k'aǰi] '가지'
[sokʰori] '바구니'
[mitʰuri～mitʰəri～mitʰori～metʰuri～metʰuri～metʰəri] '미투리'
[həri] '허리'
[ənňi] '언니'
b) [tɛrimi～tɛribi] '다리미'　b'. [taribi]
[kirim] '그림'

[mEdi~mEdu] '마디' [madi~modi]
[törinňim~tErinňim~teryənňim] [torenňim]
'도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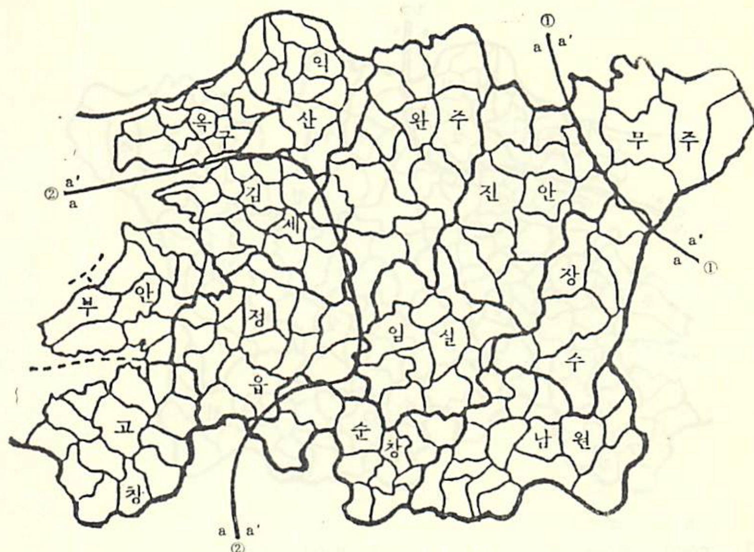
(75)의 예들에서와 같이 개재자음이 없이 V_1과 V_2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의 움라우트는 일반적으로 (a)와 같이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와 (b)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되는 경우로 양분된다. 물론 전자도 움라우트가 실현된 후에 /i/가 탈락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졸고(1983 : 51~2)와 전술한 모음 탈락에서 설정된 i-탈락 규칙에 의하여 이들을 축약으로 처리한다.[106] 이상과 같이 중부방언에서 제약으로 기능하는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에도 이 방언에서는 움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최태영 1978 : 29).

(76)의 예들은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로 (a)와 같이 대부분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으나 (b')의 예들이 실현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다리미'의 비움라우트형은 무주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그림'의 움라우트 실현형은 전 지역에서 실현되고, '마디'의 움라우트 실현형도 김제, 정읍과 수의적으로 고창에서 실현되고 있다. '도련님'의 경우는 움라우트의 실현형이 김제, 고창, 남원 등에서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이들 중 '다리미, 그림'의 경우는 용언 '다리다, 그리다'가 움라우트되어 실현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다면 용언에서의 움라우트가 완성된 뒤에 명사파생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된다(최태영 1978, 전광현 1981). 그러나 '마디'의 경우는 이 어사의 중세국어형이 '마듸'임을 고려한다면 동화주 /i/가 순정의 /i/도 아니고, 개재자음도 [-grave]여서 움라우트의 실현은 특기할 만하다. '마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을 가지고 있던 중앙어의 '모기, 거미, 나비, 호미'등은 이 방언에서 주로 [mogu, homu, nabu, kəmu]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mogi], [nabi]형이 옥구, 익산에서, [homi]와 [homɛŋi]형 중 전자는 옥구, 익산, 진안, 부안, 정읍, 장수, 남원 등에서, 후자는 익산, 완주, 진안, 김제, 부안, 정읍, 임실, 순창, 남원 등에서 실현되고, '거미'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kəmu]형이 실현되고 있다.

106) '모이'의 경우는 [moši]로 실현되고 있어 이와는 무관하다.

지도 48) '다리미, 마디'



a a′ a a′
① [tErimi, tEribi] [taribi] ② [mEdi, mEdu] [madi, mo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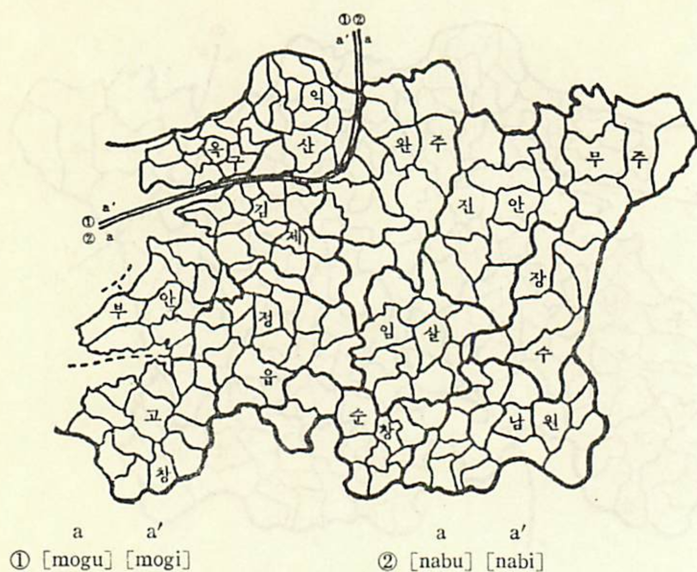
따라서 이 방언권에서는 원래 이들이 /u/를 유지하고 있어서 움라우트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어사들인데, 후대에 와서 중앙어의 영향에 의하여 점차 북서에서부터 /i/ 유지형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07]

이상과 같이 체언의 단일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grave]의 개재자음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적으로 실현되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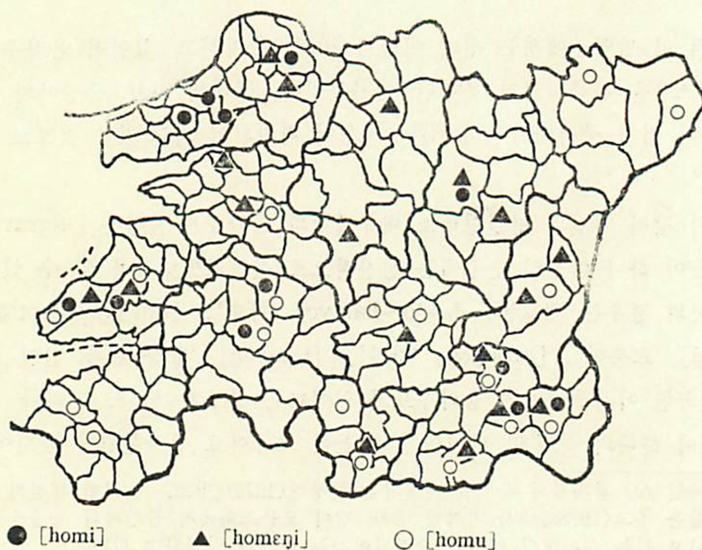
한자어의 경우는 [hɛk'yo～hɛk'o～hak'yo] '학교', [kötʰöŋi～kyotʰöŋi～kyotʰoŋi] '교통이', [kEŋgyəŋ] '강경', [tEmyəŋ] '담양' 등과 같이 언중들과 친숙한 어사들에서는 움라우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자는 각각이 하나의 독립된 단어이기 때문에 고유어로 생각한다면 복합어 경

107) 어말 /u/ 유지형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광현(1976) 참조. 이러한 개신의 방향은 졸고(1988a)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모음조화에서 중앙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ə/형의 어미가 확산되어가는 방향과 일치되고 있다.

지도 49-a) '모기, 나비'



지도 49-b) '호미'



계가 개재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다.[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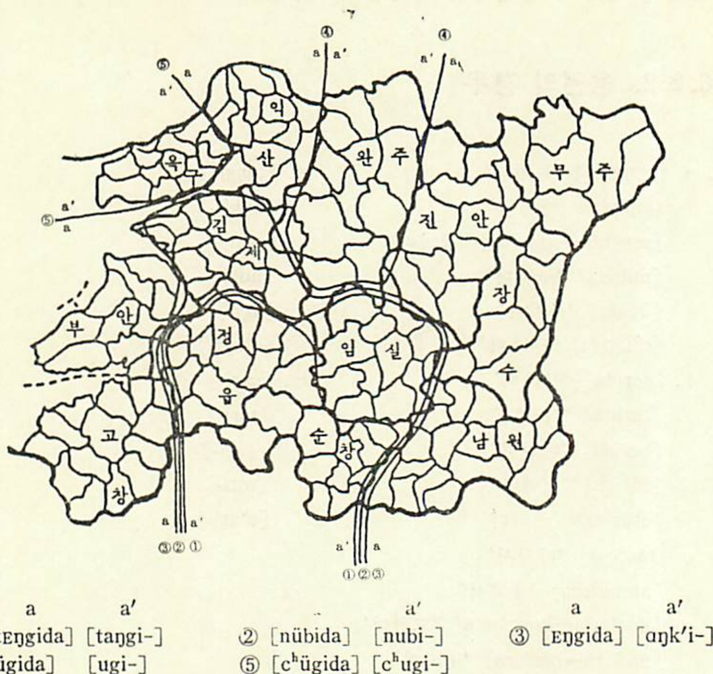
6.2.2. 용언의 경우

(77) a. [tɛŋgida] '당기다' a'. [taŋgi-]
[ɛŋgida] '안기다' [aŋk'i-]
[seŋgida~söŋgida] '섬기다' [səmgi-]
[nübida] '누비다' [nubi-]
[ügida] '우기다' [ugi-]
[c^hügida] '추기다' [c^hugi-]
b. [cerida] '저리다' b'. [cəri-]
[tɛrida] '다리다' [tari-]
[perida] '버리다' [pəri-]
[törida] '도리다' [tori-]
[c^hürida] '추리다' [c^huri-]
c. [tac^{h}esə] '다쳐서'
[humc^{h}esə] '훔쳐서'
[koc^{h}et'a~konc^{h}et'a] '고쳤다'
[mašəra~mašera] '마서라'
[mošira] '모셔라'

(77, a)는 용언의 단일형태소 내의 $-V_1 \cdot V_2-$의 연결체에 [+grave] 자음이 개재된 경우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당기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정읍, 순창 등지에서, '안기다'의 비움라우트형은 김제, 임실, 정읍, 순창 등지에서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섬기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임실에서, '누비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임실, 정읍, 순창 등에서, '우기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완주에서만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축이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에서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환경에서의 움라우트 현상은 정읍과 순창에서 수의성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어사들을 제외한다면 체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 지역에서 생산

108) 이 방언에서 복합어 경계가 개재되는 경우의 움라우트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5장 참조)

지도 50) '당기다, 누비다, 안기다, 우기다, 축이다'



	a	a'		a	a'		a	a'
①	[tɛŋgida]	[taŋgi-]	②	[nübida]	[nubi-]	③	[ɛŋgida]	[ɑŋk'i-]
④	[ügida]	[ugi-]	⑤	[c^hügida]	[c^hugi-]			

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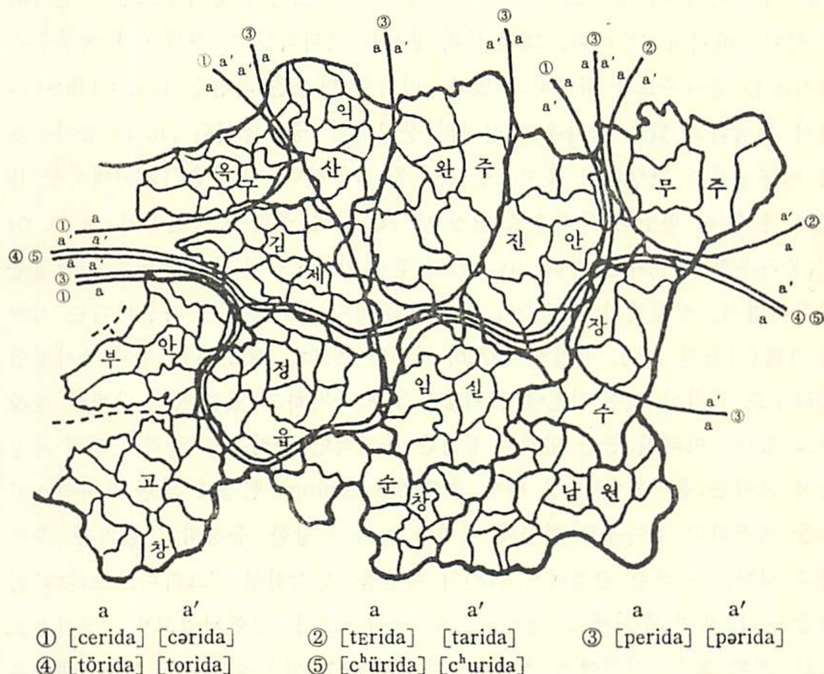
(b, c)의 경우는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이다. (c)는 체언과 같이 움라우트를 외면하지만 (b)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b)는 V_1이 /a, ə, o, u/이고 개재자음이 [−grave]의 /r/인 경우이다. 이들은 체언의 경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다리미, 그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109]

'다리미, 그림'의 움라우트는 용언의 '다리다, 그리다'가 먼저 움라우트되고, 이 움라우트형을 기저형으로 하여 명사파생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b, b')의 예들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다. 즉 V_1과 V_2 사이에 [−grave]인 /r/이 개재되면 체언에서는

109) 물론 몇몇 다른 예들이 실현되고 있지만 이들은 용언과 관련지어 생각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부분 움라우트를 외면한다. 그러나 용언에서는 (b)와 같이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이들의 분포 지역을 보기 위하여 각각의 어사들에 대한 비움라우트형들의 실현 지역을 제시하면, '저리다'의 경우는 완주, 진안, 무주, 김제와 수의적으로 익산, 정읍에서, '다리다'의 경우는 완주, 무주에서, '버리다'의 경우는 옥구, 완주, 무주, 김제, 정읍과 수의적으로 장수에서, '도리다, 추리다'의 경우는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등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다.

지도 51) '저리다, 다리다, 버리다, 도리다, 추리다'



	a	a′		a	a′		a	a′
①	[cerida]	[cərida]	②	[tᴇrida]	[tarida]	③	[perida]	[pərida]
④	[törida]	[torida]	⑤	[c^hürida]	[c^hurida]			

따라서 이 방언권의 중남부 넓은 지역에서는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예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78) a. [tirira~tirera] '드리라'
[kirira] '그리라' a′. [kɨri−]

[t'udirira] '두드리라'	[t'udiri-~t'uduri-]
[ňirira] '느리라'	[niri-]
*[hirira] '흐리라'	[hiri-]

(78)의 예들은 V_1이 /ɨ/이고 개재자음이 [−grave]의 /r/인 경우이다. '드리다'의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움라우트형으로 실현되고, '그리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익산, 진안, 무주와 수의적으로 순창에서 실현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흐리다'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느리다'의 경우에도 장수에서만 수의성을 보이며 움라우트형이 실현되고, '두드리다'의 경우도 옥구에서만 수의성을 보이며 움라우트형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드리다, 그리다'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 환경에서 대부분의 어사들은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전승(1986 : 149~69)에서 지적하고 있는 움라우트 현상의 불일치와 중부방언의 /u, ɨ/ 움라우트의 비생산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최전승(1986)에서는 19세기 후기 이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중 /u, ɨ/의 움라우트 현상이 /a, ə, o/의 움라우트 현상과는 달리 /uy, ɨy/와 같은 이중모음의 유지형으로 실현됨을 지적하면서, 전설계의 단모음이 정착된 뒤에야 움라우트가 가능하다는 기왕의 견해(김완진 1971, 이기문 1972b, 이병근 1970a, 1982)와는 달리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실현 과정에서 이중모음을 유지하고 있는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 단계의 설정은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실현 과정에서 보이는 통시적인 중간 단계 생략(telescoping) 현상에 의한 부자연스러움을 제거하고 움라우트 현상에 대하여 보다 타당한 음성학적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78)의 예들을 생각하면 '그리다, 드리다'의 예들은 19세기 후기에도 생산적으로 움라우트가 실현되었고[110] 공시적으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음에 반해, 다른 예들은 대부분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통시적으로 /u, ɨ/의 움라우트 현상

110) 최전승(1986 : 151~3)에 제시된 예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와는 다른 환경을 보이지만 '디디다, 가리치다' 등의 경우도 이 시기에 활발한 움라우트의 실현을 보이고 있는데, 공시적으로 이 방언의 경우에도 움라우트를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이 19세기 후기에도 실현되고는 있었지만 /a, ə, o/의 움라우트에 비하면 후대에 출발했고, 생산성의 면에서도 전자 보다는 약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u/와 /i/의 움라우트에서는 후자가 더 비생산적이었다. 따라서 '그리다, 드리다'의 경우만 이러한 통시성에 비추어 넓은 지역에서 움라우트의 실현형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다.[111)]

개재자음이 -ll-인 [malʎida~molʎida] '말리다', [colʎida~colʎuda] '졸리다' 등의 경우는 움라우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ll-이 구개음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전광현 1977, 1979, 최태영 1978, 1981).

그런데 중앙어에서는 움라우트의 환경을 이루지만 이 방언에서는 움라우트의 환경을 이루지 못하는 예들이 있다. 즉 공시적으로 '가볍다', '어렵다'에서 전자는 [kɛbopt'a~kɛbapt'a~kɛbəpt'a] 등과 같은 교체를 보이고, 후자는 [erupt'a~erapt'a~örupt'a~ərəpt'a] 등과 같은 교체를 보이고 있어, 이들은 결코 움라우트의 환경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움라우트의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t'udirida~t'udurida] '두드리다'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움라우트가 실현되어 '-yV'의 이중모음을 형성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축약에 의하여 [t'udirida]와 같은 예들로 재구조화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yV>{a, ə, o, u}'와 같이 y-탈락을 겪어 [t'udurida]와 같은 예들로 재구조화 되었다. 따라서 이들도 지역적 차이는 보일지라도 움라우트의 예외는 아니다.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는 [köda] '고이다', [nüda] '누이다' 등과 같이 실현되고 있어 움라우트 현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체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축약 현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방언권 전체의 자료를 공시적으로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어사들이 움라우트에 대하여 교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 내부에서도 움라우트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과 남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움라우트의 실현형들

---

111) 동일 환경에 있는 이들이 공시적으로 이런 차이를 보임은, 모든 규칙이 해당 어사들에 완전히 적용되지 못한다는 증거인 바, 그 이유는 각 어사들의 기능부담량에 따라 언중들과의 친숙도도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은 공시적인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약은 공시적인 생산성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움라우트의 실현형만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통시적으로 강한 생산성을 가진 움라우트 규칙이 그들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어사들을 움라우트의 실현형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움라우트의 비실현형들이 실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이 덜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어사들을 움라우트형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정립되는 형태소 구조제약에 대하여 불투명(opaque)한 어사들이 실현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불투명한 어사들이 실현된다.[112]

이처럼 공시적으로 기술되는 제약은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적용 양상을 반영하게 된다. 그런데 형태소 구조제약은 예외를 허용하고는 설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가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형태소 구조제약이 정립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이 공시적으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가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움라우트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사들—즉 형태소 구조제약에 예외적인 어사들—에서는 움라우트의 실현형과 비실현형의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체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의 움라우트 규칙은 설정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을 받은 예들과 적용을 받지 못한 예들의 실현 양상은 통시적인 움라우트 규칙의 적용 양상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그 출력부가 어휘화되어 공시적으로 실현된 것이다.[113] 따라서 형태소 구조제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 방언권의 하

112) 이는 대부분 움라우트를 실현시키는 지역의 언중들(본고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이 먼저 움라우트의 실현형들을 배우고, 나중에 학교교육이나 기타 중앙어와 접할 수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움라우트의 비실현형들을 습득하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 현실 속에서 움라우트의 실현형들은 자신들의 사투리이고, 비실현형들은 표준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113) 김성규(1987)에서는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어휘화에 의하여 공시적

위 지역어들에 대한 분포상의 차이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

제약 8) (a) 단일형태소 내의 $-V_1 \cdot V_2$-에서 V_2가 /i, y/이고 개재자음이 [+grave] 이면 V_1은 [−grave]이다.
(b) 용언의 경우에는 개재자음이 [−grave]의 /r/이고 V_1이 /a, ə, o, u]일 때 /r/은 제약 조건이 되지 못한다.

제약 8-a)는 이 방언권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켜지고 있으나 체언의 경우는 지도 3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안, 고창, 정읍의 남서부와 완주, 진안 등의 북부에서, 용언의 경우는 지도 5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중남부에서 주로 이 제약이 위배되고, 용언에 [−grave]의 /r/이 기재될 때의 제약 8-b)는 지도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부와 중남부로 구분되어 북부에서 주로 이 제약이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체언의 경우는 부안, 고창, 정읍 등에서, 용언의 경우는 정읍, 임실, 순창 등에서 이 제약이 설정되지 못한다. 용언에서는 개재자음이 /r/인 경우 남부 지역에서만 움라우트를 실현시키고 있는데, 이는 통시적인 움라우트의 확산 과정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6.3.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6.3.1. 체언에 연결된 주격과 계사 '-이'

(79) a. [pɛbi] '밥이' a'. [pabi]
[pɛŋi] '방이' [paŋi]
[cɛŋi] '장이' [caŋi]
b. [wᴇŋi] '왕이' b'. [waŋi]
[kwᴇŋi] '광이' [kwaŋ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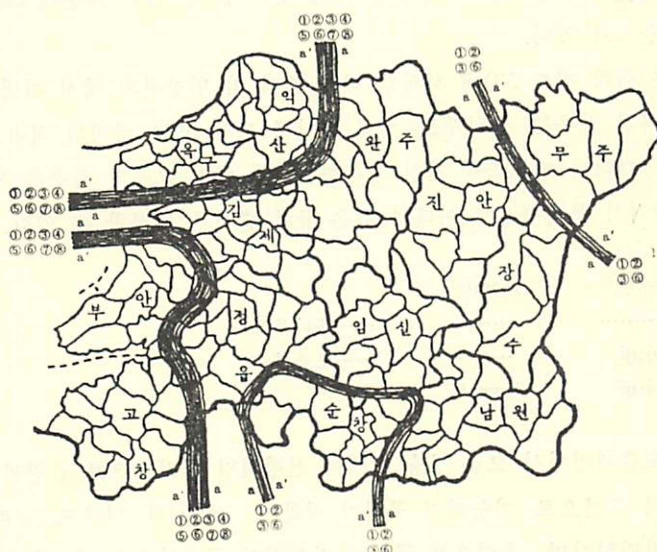
으로 형태소의 결합 방식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어휘화라는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이들은 어휘소로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o:gwᴇŋi] '오광이'		[o:gwaŋi]
	c. [s'ɛgi] '삯이'		c'. [s'agi]
	[kɛbi] '값이'		[kabi~kapš'i]
(80)	a. [t^{h}ᴇgi] '턱이'		a'. [t^{h}əgi]
	[t'egi] '떡이'		[t'əgi]
	b. [se:mi] '섬(島)이'		b'. [si:mi~sə:mi]
	[se:ŋi] '성(姓)이'		[si:ŋi~sə:ŋi]
	[semi] '섬(石)이'		[səmi]
(81)	a. [sögi] '속이'		a'. [sogi]
	[mömi] '몸이'		[momi]
	b. [pögi] '복이'		b'. [pogi]
	[ibögi~ibögi] '의복이'		[ibogi~ibogi]
	[yöŋi] '용이'		[yoŋi]
(82)	a. [cüŋi] '중이'		a'. [cuŋi]
	[kügi] '국이'		[kugi]
	b. [toŋp^{h}üŋi] '동풍이'		b' [toŋp^{h}uŋi]
(83)	a. [t^{h}imi~t^{h}ümi] '틈이'		a'. [t^{h}imi]
	[himi~hemi] '흠이'		[himi]
	b. [mɛ:mi] '마음이'		b'. [maimi~maymi~mami]
	[tɛ:mi] '다음이'		[taimi~ta:mi]
	c. [irimi~iremi] '이름이'		c'. [irimi]
	[higi~hik^{h}i] '흙이'		[higi]

(79)의 예들은 피동화음이 /a/이고 동화주와 피동화음 사이에 [+grave]의 자음이 개재된 경우이다. 비움라우트형들은 부안, 고창, 옥구, 익산 등과 수의적으로 무주, 순창 등에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b')의 비움라우트형들은 무주, 순창, 정읍 등에서도 수의성을 보이지 않고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이는 고유어의 비움라우트형인 (a')의 실현 지역보다도 한자어의 비움라우트형인 (b')의 실현 지역이 광범위함을 보여 주고 있어, 고유어의 움라우트가 한자어의 움라우트보다 생산적으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오광이'의 경우는 그 실현 지역이 (a')의 지역과 일치하고 있어 언중들에게 다른 한자어들보다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c')의 예들을 보면 기저에서 실현되고 있는 체언말 자음군 중에 [-grave]의 자음이 존재하더라도 표

면음성형에 이 자음이 실현되지 않으면 움라우트의 실현은 (a)와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grave]의 [š′]가 표면음성형에 실현된 [kapš′i]의 경우는 부안, 고창, 정읍, 순창, 임실 등에서 실현되고, 특히 고창, 부안, 정읍에서는 [kabi]형과 교체를 보이며 실현되고 있어, 이들 지역이 움라우트의 실현에서 비생산성을 보이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지도 52) '밥이, 방이, 장이, 왕이, 광이, 오광이, 턱이, 떡이'



	a	a′		a	a′
①	[pɛbi]	[pabi]	②	[pɛŋi]	[paŋi]
③	[cɛŋi]	[caŋi]	④	[wᴇŋi]	[waŋi]
⑤	[kwᴇŋi]	[kwaŋi]	⑥	[o:gwᴇŋi]	[o:gwaŋi]
⑦	[tʰᴇgi]	[tʰəgi]	⑧	[t′egi]	[t′əgi]

(80)의 예들은 피동화음이 /ə/인 경우이다. (a′)의 분포는 (79)의 분포와 동일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b, b′)의 경우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섬(島)이'의 비움라우트형들은 (a′)의 분포 지역과 동일하지만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등에서는 [si:mi]로 실현되고, '성(姓)이'의 경우는 옥구, 완주, 무주, 부안, 고창 등에서 [si:ŋi]로, 익산, 진안에서는 [sə:ŋi]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서는 움라우트 대신에 주로 모음 상승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a, a')와는 양상을 달리한다.

그런데 동일한 분절적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섬(石)이'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음장 외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장음이 움라우트의 제약 조건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음장이 움라우트의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전술한 [ka:ŋgi]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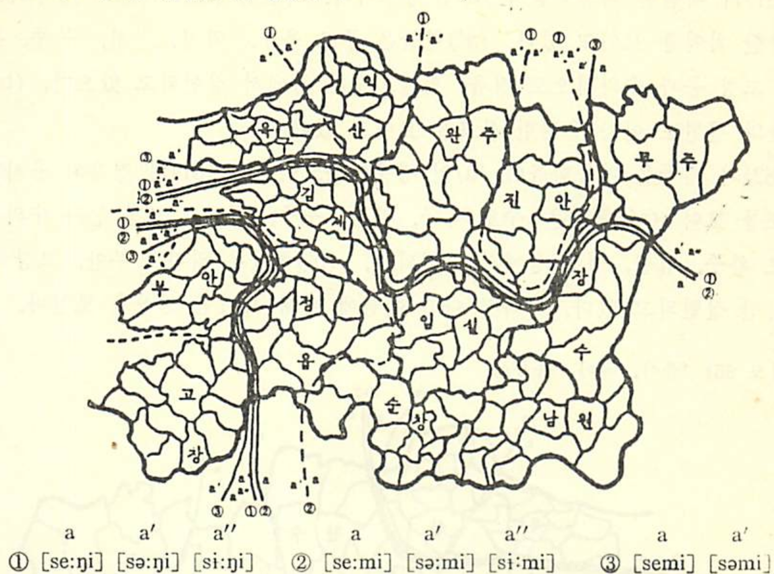
이들은 아래 지도 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북서 지역에서 장모음을 가진 경우는 움라우트 규칙 대신에 모음 상승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114] 그러나 단모음을 가진 경우는 이 두 규칙 모두의 적용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통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규칙 순서를 예상할 수 있다.

(84)	/sə:ŋi/	/səmi/	
	....	....	......움라우트
	sɨ:ŋi	....	......모음상승
	[si:ŋi]	[səmi]	

위의 도출과정에서 모음 상승 규칙이 선행하면 공시적으로 음장이 움라우트의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si:ŋi]의 경우도 움라우트의 예외로 처리되지만, 움라우트 규칙이 선행하면 통시적으로 이 방언의 선행 시기에 음장이 움라우트의 제약 조건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하고 있어 타 방언과 평행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səmi]의 경우는 어떠한 규칙 순서를 유지하더라도 이 방언권의 북서 지역에서는 움라우트의 예외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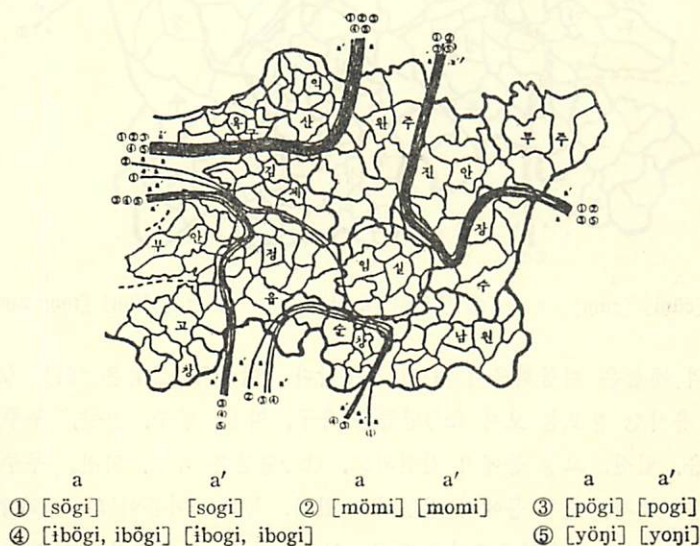
114) 최태영(1981 : 124~7)에서는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 속한 전주지역어에서 고모음화가 실현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경우에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생산성을 가진 음운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는 장음을 가진 어사들에서 'ə→ɨ'의 고모음화 현상이 북서 지역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음만 지적하고 별도의 논의는 생략한다.

지도 53) '성이, 섬(島)이, 섬(石)이'



a a′ a″ a a′ a″ a a′
① [se:ŋi] [sə:ŋi] [si:ŋi] ② [se:mi] [sə:mi] [si:mi] ③ [semi] [səmi]

지도 54) '속이, 몸이, 복이, 의복이,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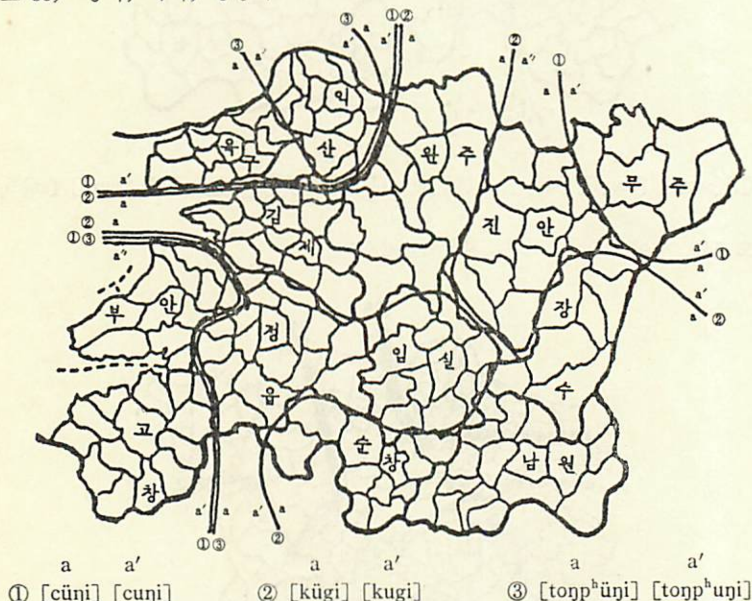


a a′ a a′ a a′
① [sögi] [sogi] ② [mömi] [momi] ③ [pögi] [pogi]
④ [ibögi, ibõgi] [ibogi, ibogi] ⑤ [yöŋi] [yoŋi]

(81)의 예들은 피동화음이 /o/인 경우이다. 이들은 (79), (80)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형들은 주로 옥구, 익산, 진안, 무주, 부안, 고창 등과 수의적으로 정읍, 임실, 순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b′)형들의 실현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82)의 예들은 피동화음이 /u/인 경우이다. 이들은 (81)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 (a′)형들은 주로 옥구, 익산, 무주, 부안, 고창 등과 수의적으로 완주, 임실, 정읍 등에서 실현되고, (b′)형들은 익산, 부안, 고창 등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예들에 비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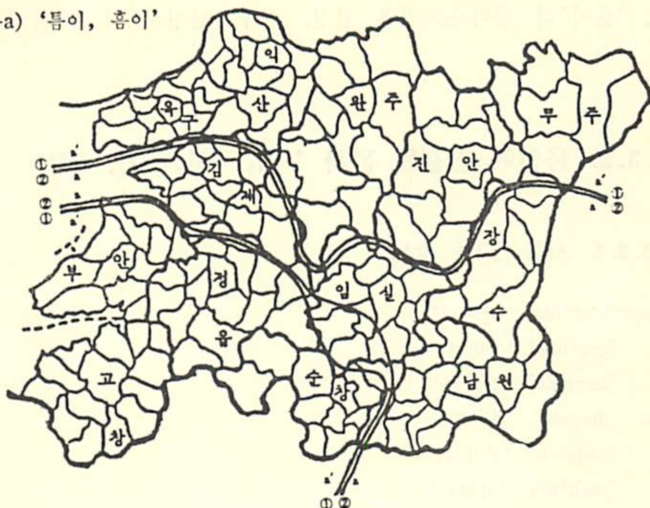
지도 55) '중이, 국이, 동풍이'



a a′ a a′ a a′
① [cüŋi] [cuŋi] ② [kügi] [kugi] ③ [toŋp^{h}üŋi] [toŋp^{h}uŋ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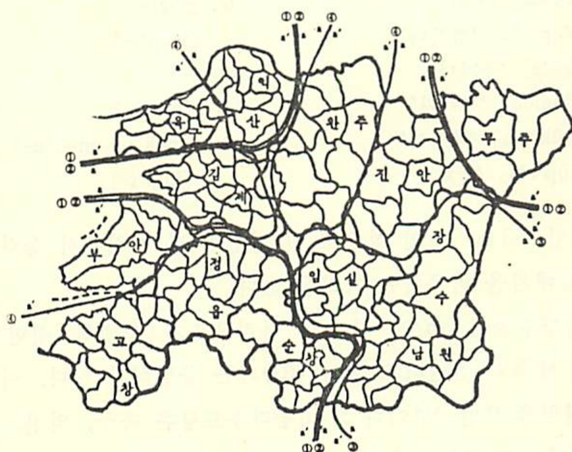
(83)의 예들은 피동화음이 /ɨ/인 경우이다. 이들의 실현은 (81), (82)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 (a′)형들은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부안, 정읍, 임실, 고창 등에서 실현되고, (b′)형들은 옥구, 익산, 무주, 부안, 정음, 고창, 순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특히 '이름이'의 움라우트형은 전 지역에서,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완주, 김제, 부안에서 수의적으로 실

지도 56-a) '틈이, 흠이'



① [tʰimi, tʰümi] [tʰimi]　② [himi, hemi] [himi]
(a, a′)

지도 56-b) '마음이, 다음이, 흙이, 이름이'115)



① [mɛ:mi] (a)　[maimi, mami, maymi] (a′)　② [tɛ:mi] (a)　[taimi, ta:mi] (a′)
③ [higi, hikʰi] [higi]　④ [irimi, iremi] [irimi]

115) '마음이, 다음이'의 경우는 '마음, 다음'과 같이 단독형으로만 실현될 경우에는 옥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ta:m], [ma:m]으로 실현되고 있다.

현되고, '흙이'의 움라우트형은 임실, 장수, 남원의 지역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6.3.2. 용언에 연결된 접사 '-이, -히, -기, -리'

6.3.2.1. 사동·피동 접사

(85) a. [k'ɛk'ida] '깍기다'
[cɛp^{h}ida] '잡히다'
[kɛŋgida] '감기다'

(86) a. [megida] '먹이다'
[seŋgida] '섬기다'
[mek^{h}ida] '먹히다'
b. [k'ek'ida] '꺾이다' b'. [k'ək'i-]
[ep^{h}ida] '업히다' [əp^{h}i-]
[cep^{h}ida] '접히다' [cəp^{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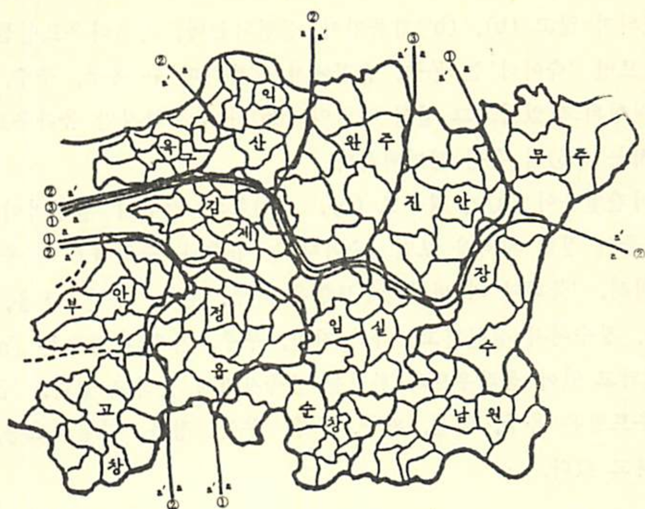
(87) b. [sögida] '속이다' b'. [sogi-]
[p'öp^{h}ida] '뽑히다' [p'op^{h}i-]

(88) a. [ügida] '우기다'
b. [c^{h}ügida] '축이다' b'. [c^{h}ugi-]
[mük^{h}ida] '묵히다' [muk^{h}i-∼muk^{h}u-]
[küp^{h}ida] '굽히다' [kup^{h}i-]

(85)는 어간말음이 /a/인 경우로 이 방언의 전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되고 예외을 허용하는 지역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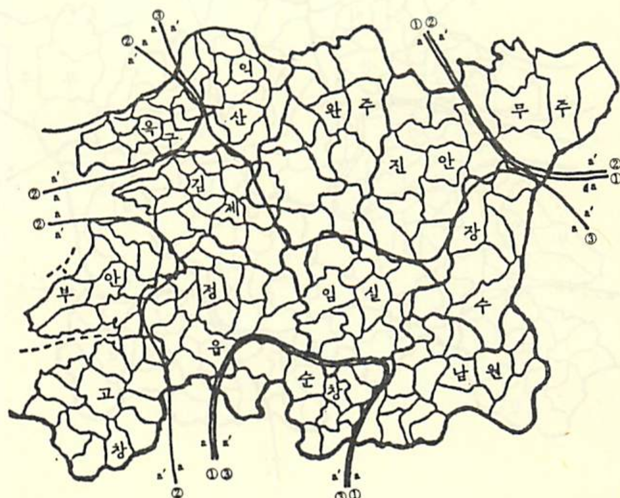
(86)은 어간말음이 /ə/인 경우로 움라우트가 활발히 실현되고 있으나 (b), (b')의 예들이 실현되고 있어 (85)와는 동일하지 않다. 이들의 (b')형들의 실현 지역을 보면 '꺾이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익산, 부안, 정읍, 고창과 수의적으로 완주, 진안에서 실현되고, '접히다'는 옥구, 완주, 진안, 무주, 부안, 고창과 수의적으로 순창에서 실현되고, '업히다'는 옥구와 수의적으로 익산, 완주에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그 실현 지역은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과 남서 지역에 치우쳐 있다.

지도 57) '꺾이다, 접히다, 엎히다'



a a a a′ a a′
① [k′ek′ida] [k′ək′ida] ② [cep^{h}ida] [cəp^{h}ida] ③ [ep^{h}ida] [əp^{h}ida]

지도 58) '속이다, 뽑히다, 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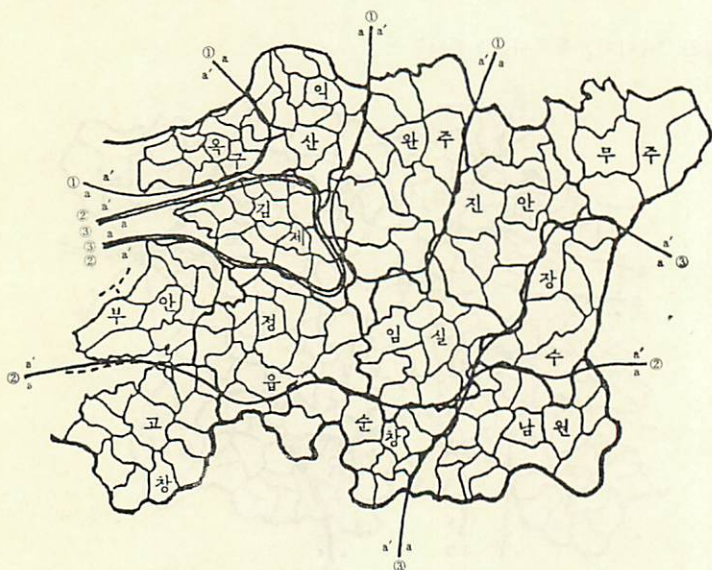


a a′ a a′ a a′
① [sögida] [sogida] ② [p′öp^{h}ida] [p′op^{h}ida] ③ [nörida] [norida]

(87)은 어간말음이 /o/인 경우로 (a)형(예외없이 움라우트를 실현시키는 형)은 실현되지 않고 (b), (b')형들만이 실현되는데, 비움라우트형들의 실현 지역을 보면 '속이다'는 무주, 순창에서, '뽑히다'는 옥구, 무주, 부안, 고창에서 실현되고 있어, 그 실현 지역이 (86)과 유사하지만 움라우트의 실현 범위에서는 (86)이 훨씬 광범위하다.

(88)은 어간말음이 /u/인 경우로 (b), (b')형의 실현이 일반적이다. 비움라우트형들의 실현 지역을 보면 '축이다'는 완주와 수의적으로 옥구에서 실현됨에 비해, '묵히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완주, 부안, 정읍, 임실, 진안, 무주, 장수에서 실현되고, 특히 진안, 무주, 장수의 경우는 [mukʰuda]가 실현되고 있어 움라우트의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굽히다'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익산, 완주, 무주, 부안, 정읍, 임실, 고창, 순창에서 실현되고 있다.

지도 59) '축이다, 묵히다, 굽히다'



① [cʰügida] (a) [cʰugida] (a') ② [mükʰida] (a) [mukʰida, mukʰuda] (a') ③ [küpʰida] (a) [kupʰida] (a')

이상과 같이 이 방언권에서 용언의 어간과 사동·피동 접사 '-이, -히, -기'가 연결될 때 개재자음이 하나 이상이고 그들이 [+grave]이면 움라우트는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89) a. [küŋgida] '굶기다'
[öŋgida] '옮기다'
b. [köŋgida] '곪기다'
*[pɛlpʰida] '밟히다'
*[ɛŋcʰida] '앉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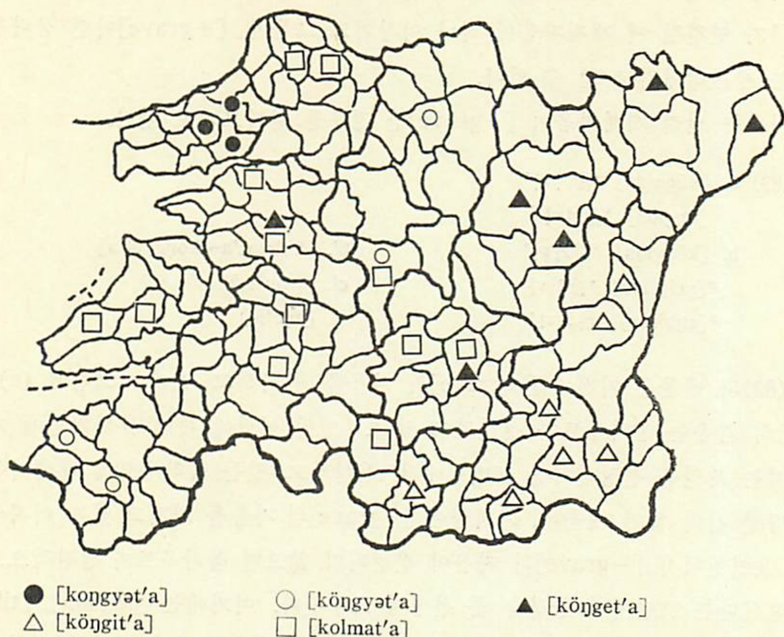
b′. [kolmat′a~koŋgyət′a]
c′. [palpʰi-]
[aŋcʰi-]

(89)의 예들은 기저에 [-grave]의 자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a), (b)의 경우는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해서 기저형에 가해지는 제약을 설정한다면 표면형에서 실현되고 있는 움라우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기저형에 [-grave]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 어사들도 표면형에서 [-grave]의 자음이 실현되지 않으면 움라우트가 생산적으로 실현된다는 표면형에 중점을 둔 설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pek′ida], [tik′ida]등의 예들이 추가될 수 있는 바, 이 현상이 기저 층위에 관여하는 형태소 구조제약이 아니라 표면 음성 층위에 관여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116] (b′)형의 실현 지역을 보면 움라우트의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움라우트를 외면하는 [koŋgyət′a]의 경우는 옥구에서만 드물게 실현되고, 움라우트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kolmat′a]의 경우는 익산, 부안, 정읍, 임실, 순창 등의 지역에서 움라우트형인 [köŋgyət′a]보다 우세하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어사의 실현은 움라우트가 비생산적으로 실현되는 지역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용언의 단일형태소 내부에 관한 언급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사동·피동의 '-리'가 연결될 경우는 대부분 -ll-과 같이 실현되고 있어 움라우트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기타의 [-grave] 자음이 개재되는 경우에는 단일형

116) 이 표면 층위에서의 현상은 단일형태소 내의 움라우트에서는 표면음성제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도 60) '곪기었다'



태소 내부의 경우와 같이 움라우트를 실현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tüǰi] '뒤지', [k'üǰi] '뀌지' 등은 옥구, 익산, 무주 등를 제외하고는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어 '-지'는 움라우트의 제약을 벗어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하지만, 동일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c^{h}uǰi] '추지'의 경우에는 움라우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단일형이 [t'üda], [k'üda], [c^{h}uda]와 같이 실현되고 있어, 이들이 보이고 있는 차이는 움라우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저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6. 3. 2. 2. 명사파생 접사

(90) a. [megi] '먹이' a'. [məgi]

[sonǰɛbi] '손잡이' [sonǰabi]

[nöp^{h}i] '높이' [nop^{h}i]

b. [turumEgi~turimEgi

~hurumɛgi] '두루마기'

[nudegi~tudegi] '누더기' b'. [nudəkc'i~tudəkc'i]

[k'at'egi~t'okt'egi] '깍두기' [t'okt'akc'i]

[t'ɨmbügi~t'ɨmbigi] '뜸부기'

c. [p'ombögi~p'ombegi] '본보기' c'. [p'ombogi]

[culneŋk'i] '줄넘기' [culnəmk'i]

[irəsegi~irəšigi] '일어서기' [irəsəgi]

d. [kɛgi] '가기' d'. [kagi]

[ögi] '오기' [ogi]

[pek'i] '벗기' [pək'i]

e. [midaǰi] '미닫이'

[yədaǰi] '여닫이'

[səlgəǰi] '설겆이'

[tonp'əri] '돈벌이'

(90)은 접사 '-이, -기, -지'[117]가 연결되어 명사파생이 일어난 예들이다. '-이, -기'의 경우는 동화주 /i/와 [+grave]의 개재자음을 가지고 있어 움라우트의 환경을 제공하지만, '-지'의 경우는 (e)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재자음이 [-grave]여서 움라우트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a, a')와 (b, b') 예들의 일부는 공시적으로 어휘화되어 단일 형태소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a, a')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언어간에 '-이'가 연결된 동일한 구성으로 처리되던 것이다. 그러나 그 구성을 세분하면 '먹이'의 경우는 '동작동사+이', '손잡이'의 경우는 '명사+동작동사+이', '높이'의 경우는 '상태동사+이'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는 달리 (b, b')의 경우는 의성·의태어에 '-이'가 연결된 구성이다. 따라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명사를 파생한다는 동일한 기능에서 출발했을지라도, 공시적인 어휘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김성규(1987 : 33~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먹이, 높이'의 경우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되어 공시적

117) '—지'의 경우는 [midaǰi], [yədaǰi], [səlgəǰi] 등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개음화 규칙을 통하여 표면음성형에서는 항상 [-ǰi]만을 유지하기 때문에 [-grave]의 자음을 선행시키는 접사로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으로 파생에서의 생산성을 소실한 반면, 'N+V+이'의 경우와 의성·의태어의 경우는 활발한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a, a')의 경우는 단일형태소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형태소 연결로 처리하여 움라우트 규칙을 설정하려 한다.[118]

이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각 어사들의 실현 지역을 제시하면 '먹이'의 움라우트 실현 지역은 사동·피동의 '먹이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먹이다'의 경우는 이 방언의 모든 하위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지만(81, a), '먹이'의 경우에는 움라우트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비움라우트형의 실현 지역은 옥구, 부안, 고창 등이다. '높이, 손잡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비움라우트형들은 옥구, 익산, 부안, 고창, 순창 등지에서 실현되고 있다. '포기'의 경우는 [p^högi~p^hogi~p^hok]과 같은 교체를 보이고 있다. [p^hogi]형은 옥구, 익산, 완주, 진안, 순창 등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옥구, 익산 등에서는 [p^hogu]형과 교체를 보이고, 완주, 진안, 순창 등에서는 [p^högi]형과 교체를 보이고 있다. [p^hok]형은 부안과 고창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움라우트의 비생산적인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들이 움라우트의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움라우트의 예외는 아닐지라도, 이 지역이 움라우트의 비생산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형이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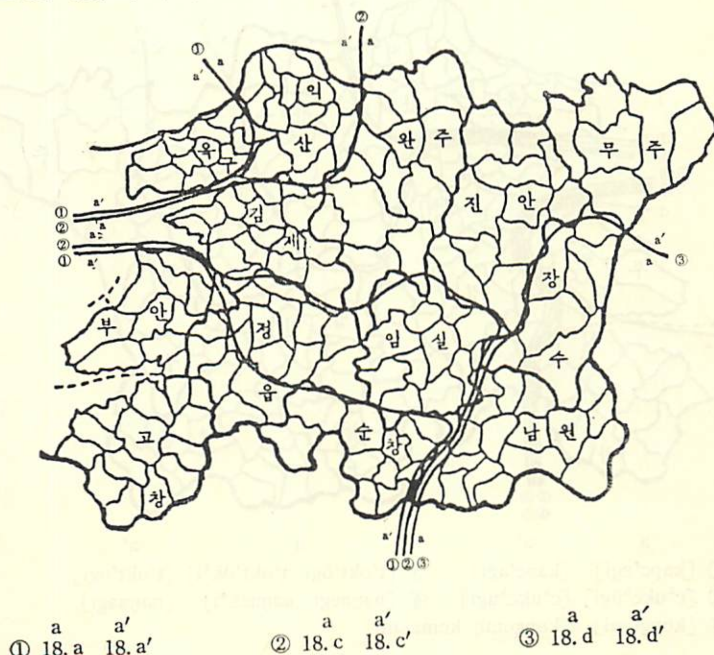
(b, b')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움라우트가 활발히 일어나지만 [nudəkc'i], [c'ogakc'i]와 같이 [c]가 실현되는 경우는 이 현상에서 제외된다.

(c, c')는 (a, b)와는 달리 접사가 '-기'인 경우로 그 기원이 동명사형 접사이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활발한 파생이 일어나고 있다(김성규 1987 : 39). 그런데 '줄넘기'의 경우는 의미론적으로 어휘화했지만 상술한 이유로 여기서 취급한다. 이들의 분포는 옥구, 부안, 고창, 정읍, 순창 등에서 움라우트의 비실현형들이 주로 실현되고 있어, (a, a')의 경우와 동궤의 분포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환경을 이루는 (d, d')의 경우에는 많은

118)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움라우트 규칙의 기술에 많은 간결성을 부여한다.

차이가 있다. 이들은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인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을 논의한 이병근(1971)에서 '베기싫다, 디끼싫다'와 같이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경우에만 움라우트가 실현된다는 지적이 있은 이래 최태영(1978, 1981), 전광현(1979, 1981), 기세관(1983) 등 일련의 연구에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형태론적으로 재어휘화하지 않고 움라우트를 실현시키고 있는 (d)형의 실현 분포를 보면, '가기'의 경우는 무주, 장수, 임실, 남원, 김제 등에서, '오기, 벗기'의 경우는 장수, 임실, 남원 등에서 움라우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pögijot^{h}a]형이 진안, 무주, 임실, 장수, 남원, 김제 등에서 실현되고 있어, 형태론적 구성 내부라는 조건이 동남 지역에서부터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음운규칙의 출발이 형태소 내부에서 출발하여 점차 상위의 음운경계를 포함하는 형태소 연결위치로 확산되어 가는 단면을 보이는 것 같아 흥미롭다.

지도 61) (90, a, c, d)



① 18.a (a) 18.a′ (a′)　　② 18.c (a) 18.c′ (a′)　　③ 18.d (a) 18.d′ (a′)

6.3.2.3 부사파생 접사

(91) a. [kapc'ɛgi] '갑자기' a'. [kapc'agi]
b. [cʰukcʰügi] '축축히' b'. [cʰukcʰugi]
[t'okt'ögi∼t'okt'ökʰi] '똑똑히' [t'okt'ogi]
[nəŋnegi∼nəŋnekʰi] '넉넉히' [nəŋnəgi]
[koŋgömi] '곰곰이' [koŋgomi∼komgomi]

(91, a')형은 옥구, 부안에서 실현되고, (b')형들 중 '축축히'의 비움라우트형은 부안, 고창에서, '똑똑히'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익산, 진안, 부안, 고창과 수의적으로 완주에서, '넉넉히'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부안,

지도 62) '갑자기, 축축히, 똑똑히, 넉넉히, 곰곰이'

고창에서, '곰곰이'의 비움라우트형은 옥구, 익산, 완주, 부안, 고창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북부와 서남부에서 움라우트 현상이 비생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b)와 같이 첩어를 이루나 품사를 달리한 '방방이'의 경우도 부안, 고창에서 움라우트의 비실현형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방언권에서 기저형으로 등재된 각각의 어휘소들이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개재자음이 하나 이상의 [+grave]이고, 후행 어휘소의 선행 모음이 /i, y/이면 공시적인 움라우트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활발히 실현되고 있다.

규칙 35) 움라우트

$$\begin{bmatrix} +\text{voc} \\ -\text{cons} \end{bmatrix} \rightarrow [-\text{grave}] / - \left\{ \begin{matrix} \left(\begin{bmatrix} +\text{cons} \\ +\text{grave} \end{bmatrix} \right) + \begin{bmatrix} +\text{cons} \\ +\text{grave}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cons} \\ +\text{grave} \end{bmatrix} + \left(\begin{bmatrix} +\text{cons} \\ +\text{grave} \end{bmatrix} \right) \end{matrix} \right\} \begin{bmatrix} -\text{cons}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조건 : 용언의 경우는 기저의 [−grave] 자음이 표면형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규칙 35)는 주격과 계사의 '-이', 사동·피동 접사와 명파사생 접사 '-이, -히, -리, -기'의 경우에 부안, 고창, 옥구, 익산 등의 지역에서는 규칙 35)가 설정되지 못하고, 진안, 무주, 정읍, 순창 등의 지역에서는 많은 예외를 허용한다. 부사파생 접사의 경우는 옥구, 부안, 고창 등의 지역에서 규칙 35)가 설정되지 못하고, 익산, 완주, 진안 등의 지역에서 약간의 예외를 허용한다.

규칙 35)는 이처럼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바, 이를 제약 8)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남원, 장수, 임실 등에서는 거의 완전한 제약과 규칙을 유지하지만, 김제, 정읍, 순창, 완주, 진안, 무주 등에서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하고, 기타의 지역에서는 움라우트 규칙의 설정을 어렵게 한다.[119]

---

119) 이처럼 동일한 음운규칙이 설정되지만 지역에 따라 예외의 허용 정도에서 보이는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Hsien-I Hsieh는 한 방언의 하위 지역어들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diffusion overlapping의 정도를 phono-lexico-statistic method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계량적 방법이 방언의 차

6.4. 복합어의 경우

지금까지는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의 움라우트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보다 상위의 경계인 복합어 경계가 개재된 경우를 살펴보려 한다.[120]

형태소 내부에서 출발한 움라우트 현상은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경우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상위의 경계가 개재된 경우에로 그 적용의 영역을 확대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생산적인 현상은 되지 못한다.

(92) a. [cʰɛmbit] '참빗' a'. [cʰambit]
*[karɛŋbi] '가랑비' b'. [karaŋbi]
*[s'onɛkp'i] '소낙비' [s'onakp'i]
*[sömňibul] '솜이불' [somňibul]

(92)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방언의 복합어에서는 '참빗'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라우트를 외면한다. '참빗'의 경우는 진안, 무주, 임실, 남원 등에서 수의성을 보이고, 기타 전 지역에서는 움라우트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복합어에서의 움라우트는 이 방언에서 생산적이지 못하다.[121]

이를 보다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임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필자의 조사가 이 방언권의 전 지역에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된 지도와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또한 제약과 규칙과의 일치·불일치의 문제와 관련하여 음운규칙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김규남(1987)에서 시도된 바 있다.

120) 경계의 위계에 대해서는 졸고(198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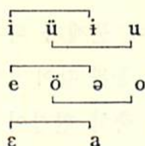
121) '참기름'의 경우는 [cʰanǰirim]과 같이 [−grave]의 자음을 개재시시키고 있어 이 현상의 환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6.5. 동화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움라우트 현상은 상술한 바와 같이 [grave] 자질에 의한 동화현상으로 [grave] 자질만의 변화 현상이다. 따라서 이 현상의 지배자질인 [grave] 자질의 연결 양상에 의하여 이 현상의 동기화와 제약 조건을 찾아야 한다.

움라우트 현상의 지배자질이 [grave]임은 이 방언의 음운체계에 [grave]에 의한 대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대응체계를 기술할 수 있다.

(93)



(93)의 체계에서 [grave]에 의한 대립짝이 5개로 설정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X→Y/Z—'의 음운규칙 모형에서 구조변화만을 생각한다면 X가 Y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설모음이 '-i/y'의 전설성에 동화되어 전설모음화되는 움라우트 현상을 통하여 후설모음이 전설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모음의 높이(vowel height)를 가진 모음들이 연결될 때, 전설모음이 변화되거나 탈락하는 활음 형성이나 모음 탈락의 동기화도 받아들일 수 없고, 후술할 구개모음화에서도 'ɨ→i' 현상의 동기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움라우트 현상은 동일한 모음의 높이를 가지고 [grave] 자질에 의하여 대립을 보이고 있는 대립짝들의 음운론적 강도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Z인 '-i/y'와 Y인 후설모음의 관계에서 (i) 개재자음이 없이 직

접 연결되는 경우와 (ii)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 그리고 (iii)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 등과 같은 세 가지의 연결 양상을 고려할 수 있다.[122]

(i)의 경우에서는 범어적인 현상인 모음충돌 회피 현상과 움라우트 현상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Z에 /i/가 오는 경우는 형태소 내부에서 [ai∼ɛ] '아이', [sai∼sɛ] '사이' 등과 같이 축약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y/가 오는 경우는 [öyaŋ] '오양간', [köyom] '고욤' 등과 같이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움라우트가 일어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를 움라우트 이후에 /i/가 탈락하는 것으로 처리해도 별 문제는 없으나, 이들을 위하여 i-탈락 현상을 따로 기술하는 것보다는 축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Z에 /i/가 오는 경우는 체언에 연결되는 계사 '-이'와 용언에 연결되는 접사 '-이'에 한 한다. 전자의 경우는 전술한 i-탈락 규칙이 움라우트 규칙에 선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는 [pögo] '보이고', [nünda] '누인다' 등과 같이 축약이 일어난다.[123] 따라서 개재자음이 없는 경우는 이 방언에서 축약 현상이 먼저 일어나 움라우트 규칙의 입력부 조건을 제거하는 출혈 순서(bleeding order)를 유지한다. (ii)는 일반적으로 이 현상의 제약 조건인 [−grave]의 자음이 개재되는 경우이다. 여기서 [−grave]의 자음이 움라우트의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세개의 동일한 [−grave] 자질의 연속체를 회피하려는 조음음성학상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24]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많은 지역에서 [−grave]인 /r/이 개재되는 경우에도 움라우트가 실현되고 있어 이 방언권에서는 절대적인 제약이 되지 못한다.[125] 그런데 이

122)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은 최전승(1986 : 1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인승(1937)에서부터 주목되어 왔다.

123) 이러한 차이는 체언이 용언의 어간보다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24) 이러한 견해는 이병근(1971 : 481)에서는 [+continuant] 자질의 연속을, 김진우(1973 : 274∼81), 이승재(1980 : 109)에서는 [−grave] 자질의 연속을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처리되어 있다.

125) 이러한 현상은 최전승(198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방언의 선행 시기에도 상당히 많은 어사들에서 실현되었고, 고대고지독일어(Old High German)나

방언권의 남동부 지역에서 주로 이 제약을 어기고 움라우트가 실현됨은 움라우트 현상의 확산 방향이 남동에서 북서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은 개재자음이 [+grave]인 경우로 이 방언에서도 움라우트의 실현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움라우트 현상의 지배자질인 [grave] 자질에 의한 대립짝은 6.3과 (88)의 체계에 제시된 바와 같이 5개의 짝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72), 73)에서 설정된 모음체계상에서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를 논의하면서 설정된 [grave]에 의한 위계는 정당화 된다.

알타이 제 어에서도 [−grave]의 개재자음이 제약 조건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언어 보편적인 제약조건은 아니고(Ramstedt 1957 : 161~4, 최전승 1986 : 132. fn. 21), 국어에 적용되는 개별언어학적 제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만주어에서는 'at+i→ät'i'와 같은 예들이 실현되고 있다.

7. 원순모음화

7.1. 범위와 일반론

원순모음화란 피동화음인 비원순모음이 [+labial] 자질의 음소들과 연결될 때 그들의 원순성에 동화되는 현상으로, 순수한 음성학적 동기에서 실현되는 동화 현상이다.[126] 그런데 국어에서의 원순모음화는 일반적으로 순자음 아래에서 /i/가 /u/로 변화되는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모음화는 17세기 말경부터 국어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에는 거의 완성되었고(이기문 1972a : 202, 허웅 1973 : 440), 공시적으로 이 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순음 아래에서의 /u/ 유지형들은 통시적으로 국어 전반에 걸쳐서 실현되었던 원순모음화의 출력부가 어휘화된 것으로, 다른 방언들과 커다란 차이는 없다.[127] 그러나 이 방언권에서는 'i>u'의 원순모음화와는 달리 'a>o', 'ə>u'와 같은 원순모음화를 수행한 어사들이 존재한다.[128] 이는 이 방언권에서 수행되고 있는 구개모음화의 경우가 타 방언과 차이가 없음에 비해, 원순모음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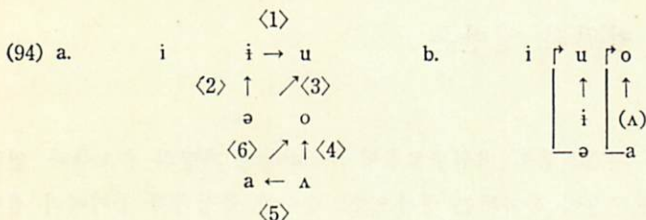
126) 음운현상이 음성학적으로 동기화된 것과 음운론적으로 동기화된 것이 있는데, 그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J. Foley(1973 : 51~8) 참조.

127) 통시적으로 이 현상이 국어의 전반에 걸쳐서 실현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이고, 현대 국어에서도 지역에 따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이기문 1977 : 193, 전광현 1977b : 89, 최명옥 1982 : 51~2, 최태영 1983 : 128, 최전승 1986 : 230).

128) 김완진(1975a)에서도 이 방언권의 방언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원순모음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경우는 타 방언과 달리 동화주가 /ɨ, ə, a/등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언의 원순모음화 규칙의 구조변화(SC)에서는 <ɨ→u>, <ə→u>, <a→o>와 같은 모음들의 변화상을 통하여 그들 상호간의 음운론적 강도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129]

그런데 'ɨ>u', 'ə>u' 'a>o'의 관계를 중세국어의 모음체계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아래와 같다.



(94, a)의 체계와 (b)의 체계를 비교하면 전자는 통시적으로 국어에서 실현된 모음추이가 완료된 체계이다. 그 중 ⟨1⟩의 변화에서는 [labial] 자질만의 변화에 의하여 ⟨ɨ, u⟩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3, 6⟩의 경우는 [high]도 동화의 지배자질로 기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2⟩의 경우는 이 지역어에 존재하는 모음 상승 규칙에 의하여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2⟩→⟨1⟩'의 순서로 두 규칙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6⟩의 경우와는 평행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모음조화에서 음성모음은 음성모음 /u/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o/로 변화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는 있다.

(b)의 체계는 모음추이가 일어나기 전의 체계이다(이기문 1968). 이는 후설모음의 '전·후'에서 원순모음과 비원순모음 간의 대립 관계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원순모음화를 지배하는 자질이 [labial]만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방언의 원순모음화 현상은 (94, b)와 같은 체계를 반영하고 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이 방언의 공시적인 연구가 주 목적이다. 그러나 공시태는 선행 시기에 일어난 통시적인 음운현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129) 〈 〉 표시는 음운규칙의 구조변화를 이루는 모음들을 지칭한다.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교체형들은 통시적인 규칙의 출력부가 각각 어휘화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들의 지역적 분포를 정밀화하고, 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되는 음운규칙과의 관련성도 고려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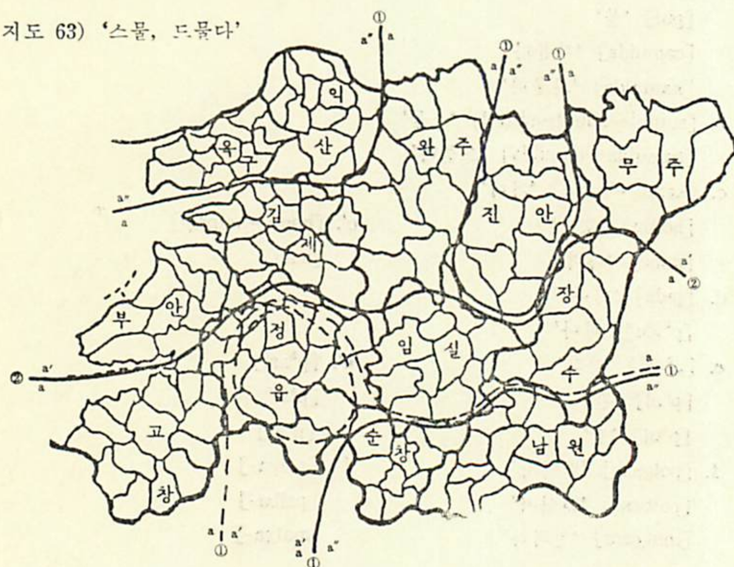
7.2.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

(95) a. [mul] '물'
[pʰul] '풀'
[pul] '불'
[cəmulda] '저물다'
[kamulda] '가물다'
b. [sumul~šimul~simul] '스물'
[tumulda~timulda] '드물다'
c. [kəmu~komu] '거미'
[homu] '호미' c'. [homi~homɛŋi]
[nabu] '나비' [nabi]
d. [pida] '비다'
[pʰida] '피다'
e. [pʰori] '파리' e'. [pʰari]
[pʰol] '팔' [pʰal]
[pʰot] '팥' [pʰat]
f. [polgasə] '밝아서' f'. [palga-]
[polbasə] '밟아서' [palba-]
[molʎara] '말려라' [malʎa-]

(95)의 예들은 통시적으로 적용된 원순모음화 규칙의 결과를 공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일형태소의 예들이다. (a)의 예들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통시적인 원순모음화(ɨ>u)가 적용된 것으로, 순음 아래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ɨ>u'의 변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순음 아래에서 /ɨ/가 실현되는 예들은 찾아 볼 수 없다.[130] 이러한 현상은 이 방언권의 모

음체계상에서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i/모음이 [labial]에 동화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음성학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b)의 예들을 통해서 이 방언의 선행 시기에 적용되었던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의 적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이 방언에서 'i>u'의 원순모음화는 1단계로 제2음절 이하의 순음 아래에서 실현되었고, 2단계로 제1음절에서 실현되었다. 그런데 1단계의 원순모음화는 이 방언에서 예외적으로 실현되는 어사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2단계의 원순모음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은 아래 지도 63)의 '드물다'와 '그믐'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북서 지역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지만 남동 지역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고 있다.

지도 63) '스물, 드물다'



① [sumul] [simul] [šimul] (a, a′, a″)　② [tumulda] [timulda] (a, a′)

130) /kimim/ '그믐'의 경우는 이승재(1987)의 '섣달 그믐'에서는 [kimim]형이 [kimum]형보다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그믐' 단독형에 대한 필자의 조사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서 [kimum]형이 실현되고 있었으며, '섣달 그믐'의 경우도 [i]와 [u]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ʉ]정도의 발음으로 인식했다.

따라서 남동 지역에서는 1단계 원순모음화의 출력부가 2단계 원순모음화의 동화주로 기능한다.[131] 그런데 '스물'의 경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simil]형은 임실에서만 아주 드물게 실현되기 때문에 1단계 원순모음화의 예외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2단계 원순모음화는 정읍, 임실, 장수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옥구, 남원, 순창 등의 지역에서는 [šimul]형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원순모음화 규칙과 구개모음화 규칙의 적용 순서상의 차이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즉 [sumul]이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2단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만, [šimul]이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구개모음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는 상호 출혈 관계에 있는 규칙들의 적용 순서에 따라 그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규칙 순서의 차이는 통시적으로 본다면 규칙의 도입 시기에 관한 문제이지만, 공시적으로 본다면 [šimul]형의 실현 지역에서는 구개모음화를 지배하는 [grave] 자질이 원순모음화를 지배하는 [labial] 자질보다 동화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132]

(c)의 경우는 중세국어에서 이중모음을 유지하던 어사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남부방언에서 어말 /u/형의 어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변화 과정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보이고 있는 이중모음의 교체형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전광현(1976)에서는 이들을 개재자음들이 공유하고 있는 [－coronal, ＋grave]의 자질과 [－coronal, ＋labial] 자질에 의한 동화현상으로 처리하여 중부방언의 /i/ 유지형들을 위해서는 'ʌi~ii>ii>i'와 같은 도출과정을 설정하고,[133] 남부방언의 /u/ 유지형들을 위해서는 'ʌy>iy>i>u', 'iy>iy>i>u'와 같은 도출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 도출과정에서 중부방언의 'ii>i'를 위하여서는 'ii'의 기저형은 /iyi/가 되고, 남부방언의 'iy

131) 정승철(1988 : 56)에서는 제주도방언에서 2단계 원순모음화가 모든 어사들에 적용됨을 보이고 있다.

132) 구개모음화를 논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다.

133)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y/는 전광현(1976)과 최명옥(1982)에서는 /j/로 표시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glide를 /y/로 표기하고 있어 /j/를 /y/로 표기한다.

>ɨ'를 위해서는 'ɨy'의 기저형은 /ɨiy/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명옥(1982)에서는 /ɨ/는 순음 아래에서는 아무런 제약없이 원순모음화를 겪지만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어두에서 원순모음화를 외면하고 있으며, 비어두 음절에서는 중세국어에서의 원순모음화와 근대국어에서의 원순모음화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견해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자료에서 실현되고 있는 교체형들을 통한 최전승(1986)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최명옥(1982)의 어두 음절에 대한 설명은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d)의 예들만을 생각한다면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최전승(1986 : 235)에 제시된 'uy∼u∼i'의 교체형을 통해서 본다면, 이들도 부분적으로 원순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비어두 음절에서의 원순모음화에 대한 최명옥(1982)의 설명은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나ᄫᆡ, 모ᄀᆡ, 동ᄒᆡ, 죠ᄒᆡ' 등의 교체형들을 통하여 선행하는 순자음과 /o/에 의하여 'ʌy>oy'로의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고, 그 이후의 변화는 '사마구, 까마구' 등의 경우와 같이 'ʌy>oy>uy>u'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거믜', '나븨'의 경우는 근대국어 단계에서 일어난 'ɨy>uy'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전승(1986)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중세국어에서는 /ß/가 원순모음화의 동화주로 기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남광우(1975 : 38), Ramstedt(1939 : 3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의', '-위'와 같은 접미사들의 유형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후기 중세국어에서 유지하고 있는 /oy, uy/ 유지형들과 /ʌy/ 유지형들의 교체는 원순모음화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비어두 음절에서의 원순성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국어 단계에서 유지되는 /ʌy/형은 'oy∼uy>ʌy'의 과정을 통하여 유도되고, 이 단계의 /ʌy/형에 적용되는 원순모음화 현상은 의무적으로 비어두 음절에서는 'ʌy>ɨy>uy>u'의 과정을 겪지만, 어두 음절에서는 부분적인 수의성을 보이고 있어, 비어두 음절이 어두 음절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다는 위치 강도를 설정하고 있다.[134)]

134) 이러한 현상은 통시적인 구개음화의 발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홍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전승(1986)의 견해는 전광현(1976)의 견해와 같은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하지 않고도 이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최명옥(1982)의 견해와 같이 중세국어 단계에서 타당성을 결한 순자음에 의한 동화현상과 근대국어 단계에서의 원순모음화를 구분하여 기술해야 하는 복잡성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이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방언의 바로 선행 시기 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치에 따라 음운론적 강도가 달라진다는 최전승(1986)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의 적용 결과에 따른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이들의 교체형들이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들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거미'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kəmu]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원순모음화 규칙의 1단계 적용에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익산에서 [komu]형이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어 원순모음화 규칙의 2단계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미'의 경우는 [homɛŋi]형과 [homi~homu]형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전 지역에서 후자와 교체를 보이며 실현되고 있으나, [homi]형과 [homu]형은 상호 배타적인 분포상을 보이고 있다. [homu]형은 무주, 김제, 부안, 정읍, 임실, 장수, 고창, 순창, 남원 등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부안, 정읍, 남원 등에서는 [homi]형과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고 있다. [homi]형은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나비'의 경우는 [homu~homi]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움라우트 지도 44-a), b)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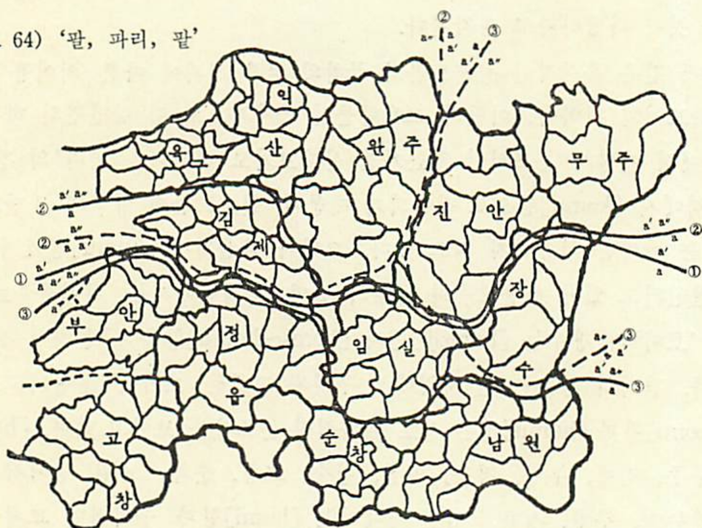
따라서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서는 중부방언과 유사하게 어간말 /i/ 유지형이 실현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남부방언의 특징인 어간말 /u/ 유지형이 실현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동화음이 /ɨ/인 예들이었으나, (e, f)의 예들은 피동화음이 /a/인 예들이다. 이들은 중세국어에서 순음 아래에 /ʌ/를 유지하던 어사들

유표(1985)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로, 남부방언에서는 제 1 음절에서 주로 '-ʌ>-o'의 변화를 수행하고 있어 원순모음화 규칙이 중부방언의 경우보다 활발하게 실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분포 지역을 보면 [p^{h}ori], [p^{h}ot], [p^{h}ol]형은 부안, 정읍, 임실, 고창, 순창, 남원 등에서 실현되고, [p^{h}ari], [p^{h}at], [p^{h}al]형은 진안, 무주, 김제 등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p^{h}əri]형이 옥구, 익산, 완주, 장수 등과 수의적으로 김제에서 실현되고, [p^{h}ət]형은 장수와 수의적으로 진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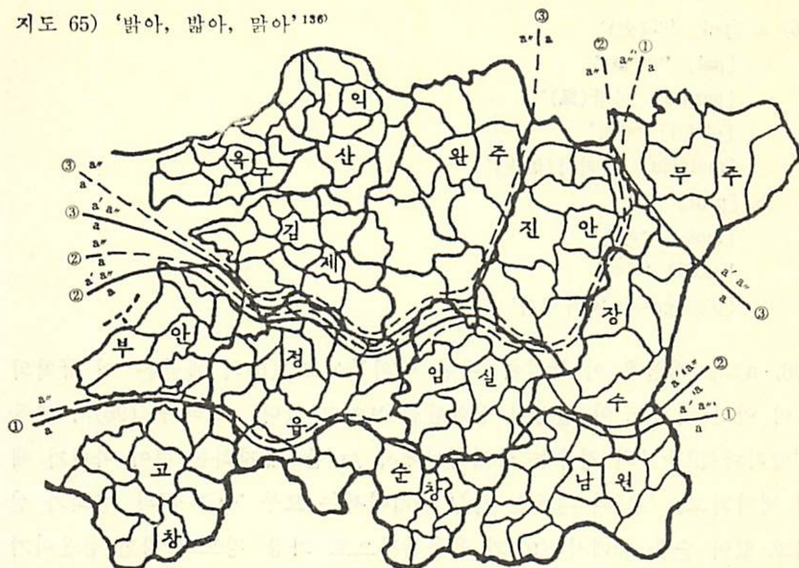
지도 64) '팔, 파리, 팥'



a a' ① [p^{h}ol] [p^{h}al] a a' a'' ② [p^{h}ori] [p^{h}ari] [p^{h}əri] a a' a'' ③ [p^{h}ot] [p^{h}at] [p^{h}ət]

따라서 /ə/ 유지형들을 '-ʌ>-ə'와 같이 직접적으로 /ʌ/에서 유도할 수도 있으나 */p^{h}əl/(手)등의 형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이병근(1970b)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앙어에서 활발히 실현되었던 비원순모음화 현상이 원순모음화 규칙에 후행하여 적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순음 아래에서 '-ʌ>-o'의 원순모음화는 일반적으로 이 방언권의 북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실현되었고,[135] '-o>-ə'의 비원순모음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실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f)의 예들에서도 그 분포 양상은 (e)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도 65) '밝아, 밟아, 맑아'[136)]



	a	a′	a″		a	a′	a″
①	[polga]	[palga]	[palgə]	②	[polba]	[palba]	[palbə]
③	[mora]	[mara]	[marə]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비원순모음화가 적용된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은 중부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순음 아래에서 '-ʌ>-o'의 원순모음화는 그 환경이 대부분 '[+cons, +labial]—r'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남방언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더욱 강하다. 즉 전남방언에서는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어사들 이외에 [mol] '말(馬)', [p^holda] '팔다' 등과 같이 순음과 /r/ 사이에서 '-ʌ>-o'의 변화가 더욱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통시적으로 'ʌ→ϕ/[+cons, +labial]—r'과 같은 규칙을 정립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 규칙에 대한 예외들이 실현되고 있다.

---

135) '파리'의 경우에 옥구, 익산, 완주, 김제 등에서 [p^həri]형이 실현되고 있어, 이들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원순모음화를 겪고 다음 단계로 'o>ə'의 비원순모음화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6) '마른'의 경우는 '밝아'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96) a. [pal] '발(丈)'
[pəl] '벌(襲)'
[param] '바람(風)'
[p'alʎi] '빨리'
[malgida] '말리다(沮止)'
b. [pʰot] '팥'
[mošil] '마을'
[modi] '마디'
[p'osugasə] '바수어서'

(96, a)의 예들은 이 규칙에 대한 예외들이고 (b)의 예들은 이 규칙의 환경이 아닌 데서도 이 현상이 실현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96)의 예들 중 '말리다(沮止)'의 경우는 중세국어에서 /ʌ/를 유지하는 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고, '팥'의 경우는 /pʰ/ 아래에서는 모두 '-ʌ>-o'의 변화가 실현되고 있어 순음 중에서 /pʰ/가 음운론적으로 가장 강도가 강한 음운이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태영 1981 : 129~30). 따라서 순음 중에서 비음인 /m/과 유기음인 /pʰ/가 음운론적으로 /p, p'/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칙의 환경에 기술된 /r/이 음성학적으로 이 현상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음성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우연한 것이든지 음성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든지에 무관하게, 이 환경에서 '-ʌ>-o'의 변화가 활발히 실현됨은 이 방언권의 선행 시기 자료에서는 특징적인 현상인 듯하다.

(97) [pʰuda] '푸다'
[apʰuda] '아프다'
[sɨlpʰuda] '슬프다'
[kopʰuda] '고프다'

(97)의 예들은 남광우(197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공시적으로는 항상 [-u-]로 실현되지만, 현행 표기법에서는 '一'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용언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기저

형을 현행 표기법상의 기준에 따라 /ɨ/ 유지형으로 설정한다면, 이들은 공시적인 계합 관계에서 일어나는 원순모음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논의되는 음운현상으로 처리되어 다음 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u/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면,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이 단일형태소 내부에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그들의 출력부가 어휘화되어 공시적으로 이 방언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연구에서는 추상성을 가능한 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이 방언의 화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u/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후자의 입장에 따라 이들을 이 장에서 다룬다.

기저형 설정의 문제는 공시태와 통시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먼저 공시적인 계합 관계에서 보이는 이들의 음운 변동 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98) a. /apɨ+ɨŋgE/	a.′ /ap^{h}u+ɨŋgE/	
ap^{h}ɨ ŋgE	ap^{h}u ŋgE	……ɨ-두음탈락
ap^{h}uŋgE	…………	……원순모음화
[ap^{h}uŋgE]	[ap^{h}uŋgE]	……표 면 형
b. /ap^{h}i+ə/a/	b′. /ap^{h}u+ə/a/	
ap^h ə/a	…………	……i-탈 락
……………	ap^{h}ə/a	……u-탈 락
[ap^{h}ə/a]	[ap^{h}ə/a]	……표 면 형

(98)의 도출과정에서 (a)의 ɨ-두음 탈락 규칙은 동일한 모음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어미의 두음이 탈락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b)의 i-탈락은 어간 말음 /i/가 접사 두음 '-ə/a'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도출과정 (98)의 타당성은 (i)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의 적용 양상과 (ii) 공시적인 규칙 적용의 경제성, (iii)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예언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먼저 (i)의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ɨ/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면, (92)의 예들은 통시적으로 순음 아래에서 예외없이 적용되었던 제 1 단계 원순모음화 규칙의 예외로 처리되기 때

문에 통시적인 제 1 단계 원순모음화 규칙에 어떠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u/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면, 통시적인 제 1 단계 원순모음화 규칙은 그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어사들에 적용되어 공시적으로 후술할 제약 9-a)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통시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u/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는 달리 (ii)의 측면을 위해 규칙 적용의 수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a, b)의 도출과정에서는 규칙이 세번 적용 됨에 비해, (a′, b′)의 도출과정에서는 두번의 규칙 적용으로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어 후자의 도출과정이 보다 경제적임을 알 수 있고, (a)의 도출과정에 적용된 형태소 내부에서 'i→u'의 원순모음화 규칙은 이 예들을 제외한 다른 어사들에서는 이러한 교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예들만을 위한 비경제적인 규칙이 된다. 따라서 이 방언의 음운론 기술에 부담을 주는 규칙이 된다. 그러나 (b′)에 적용된 u-탈락 규칙은 전술한 바와 같이 순음 아래에서 [u]의 실현을 회피하려는 현상에 공모하는 규칙으로, 단음절 어간의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절 어간의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보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통시적인 일반성과 공시적인 경제성을 보이고 있는 후자의 방법이 이 현상을 기술하는 데 보다 많은 타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면서 연결되는 두 모음 중 음운론적 강도가 약한 모음이 탈락된다는 (iii)의 음운론적 강도에 따른 측면을 고려한다면, (a)의 i-두음 탈락 규칙은 동일한 모음이 연결될 때는 어미의 모음이 탈락된다는 위치 강도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a′)의 경우는 후설고모음의 연결체에서는 [labial]의 /i/가 탈락됨을 보이고 있어 동일한 후설고모음 중에서는 원순모음의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하거나, (a)에서와 같이 어기와 어미 사이의 위치 강도에 의하여 후행 어미의 두음이 탈락된다고 해야한다. 전자의 설명은 활음 형성 및 탈락과 모음 탈락에 의하여 설명된 (72), (73)에서의 음운론적 강도와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의 위치 강도에 의한 해석과 평행한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 이러한 해석은 [labial] 자질이 음운론적 강도의 결정에 강하게 관여하지 못함을 의미하게 되어, 다른 자질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위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전술한 (11)의 위계 관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b)의 경우에는 고모음이 중·저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함을 시사하고, (b')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음운론적 강도와 자질들의 상대적인 위계 관계에서도 후자의 방법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후자의 도출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저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재한다는 본고의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ɨ/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면 표면형에서 실현되지 않는 음성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한 것이 된다. 따라서 /u/ 유지형을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a', b')와 같은 도출과정을 택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137]

이러한 견해는 통시적으로 이기문(197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남부방언에서 주로 실현되고 있는 'ʌ>o'의 변화가 중부방언과 제주도방언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에 비하여, 'ɨ>u'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실현되었음과도 무관하지 않고, 특히 최명옥(1982 : 55~7)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시적인 월성지역어의 음운현상과 통시적인 자료를 통해 설정된 이 어사들의 기저형인 /ɜ/가 [ɨ]로 실현되는 지역어에서는 /ɨ/로 대응되고 있음과 김완진(1971 : 141)에서 이들의 기저형을 /ɨ/로 설정함에 비추어 볼 때, /u/로의 기저형 설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상술한 순음 아래에서의 'ʌ>o' 현상은 남부방언의 일반적 특징임에 비하여, (97)의 기저형을 /u/ 유지형으로 설정함은 공시적으로 서로 다른 기저형에 의하여 동남방언과 서남방언의 차이를 예견할 수 있게 한다(Hausmann 1975).

이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의 결과에 의한 공시적인 제약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제약 9) (a) 단일형태소 내부의 순음 아래서는 /ɨ/가 실현되지 못한다.[138]

---

137) C-W. Kim(1968 : 519~20)에서는 이들의 기저형을 /wi/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추상적인 모음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최현배(1975 : 341~3)에서 언급하고 있는 u-불규칙 용언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wi/는 결국 /u/를 의미하고 있어 본고와 동궤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그 탈락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Kim 교수는 한국어에서

(b) 순음 아래의 /ʌ/는 /o/로 실현됨이 일반적이나 /p, p'/에서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한다.

(c) 두개의 [+labial] 자질에 선행하는 /i/는 지도 63)에서와 같이 지역에 따라 통시적으로 다르게 원순모음화를 경험했다.

제약 9)의 (b, c)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형태소 구조제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제약으로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형태소 구조제약임을 전제로 이를 제약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공시적으로 중앙어와 비교하여 이 방언에서 원순모음을 실현시킨 예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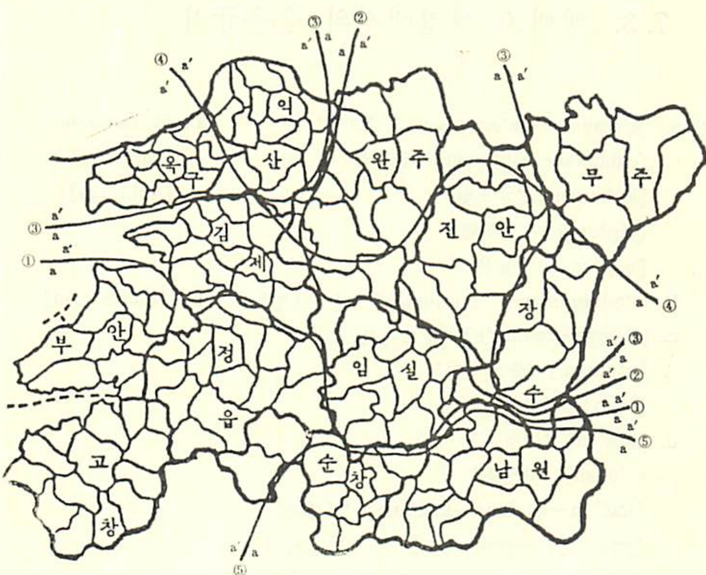
(99)	a. [posən] '버선'	a'. [pəsən]	
	[pori] '보리'	[pəri]	
	[pʰodɛgi] '포대기'	[pʰədɛgi]	
	[p'onbonda] '본 본다'	[p'ənbonda]	
	[munǰi~momǰi] '먼지'		
	[moňa] '먼저'	[mənǰə]	
	b. [mukt'a] '먹다'	b'. [mək-]	

(99, a)의 예들은 중세국어에서 /o/를 유지하고 있던 어사들이다. 그런데 이 방언에서는 (a')와 같이 비원순모음으로도 실현되고 있다. (a')의 예들은 이병근(1970b)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중앙어에서는 생산적으로 실현되었던 비원순모음화를 겪은 예들이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비원순모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장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지역적 분포만을 제시하려 한다.

동기화되지 못한 u-탈락 규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저형으로 /wi/를 설정하고, /ə/ 앞에서의 i-탈락 규칙을 먼저 적용시키고 난 다음에 순음 아래에서 [w]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제약에 의하여 [w]를 탈락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추상적인 /wi/대신 /u/를 설정하고, Kim 교수의 i-탈락 규칙 대신에 [labial]의 연속을 회피하려는데 공모하고 있는 활음 형성과 탈락 규칙에 의하여 이들을 탈락시키고 있다.(활음 형성과 탈락의 동기화에 대해서는 전술한 활음 형성과 탈락 참조)

138) 최명옥(1982 : 59)에서 설정된 원순모음화 규칙의 '순음과 자음(/l/ 포함)'의 환경에서 '자음(/l/ 포함)'은 이 방언의 경우에는 삭제되었다.

지도 66) '버선, 보리, 포대기, 본보기, 먼저'



	a	a'		a	a'		a	a'
①	[poson]	[pəsən]	②	[pori]	[pəri]	③	[pʰodɛgi]	[pʰədɛgi]
④	[p'onbonda]	[p'ənbonda]	⑧	[moňa]	[mənǰə]			

지도 66)에 제시된 비원순모음화의 실현 지역은 주로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으로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병근(1970b)에서 지적된 비원순모음화의 영향권이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까지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99, b)의 예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어사는 중세국어에서는 /ə/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남원과 순창의 일부 지역에서는 [mukt'a]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들은 최전승(1986 : 24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ə>i>u'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된다.[139]

139) 이돈주(1978)에서는 전남방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mukt'a]형이 실현됨을 보고하고 있다.

7.3.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100) a. [k'amumən~k'amʉmən] '감으면' a'. [k'amɨmən]
[cabumən~cabʉmən] '잡으면' [cabɨmən]
[kubumən] '굽으면' [kubɨmən]
[cip^{h}unde] '깊은데'
[nop^{h}unde] '높은데'
b. [t'adumumən~t'adɨmumən] '다듬으면' b'. [tadɨmɨmən]
c. [touŋgᴇ~touňik'ᴇ] '돕으니까'
[c^{h}uuŋgᴇ] '춥으니까'
[təun] '덥은'
d. [tuk'ən] '두껍은'
[ꜱ'anan] '사납은'
[kac^{h}an~kac^{h}aun~kak'aun] '가깝은'
[pudɨrəŋgᴇ~podɨraŋgᴇ] '부드럽으니까'
[musəuŋgᴇ~musəŋgᴇ] '무섭으니까'
[tərəuŋgᴇ~tərəŋgᴇ] '더럽으니까'
e. [c'allun~c'albun] '짧은'
[nəllun~nəlbun] '넓은'
[cəlmun] '젊은'
[t'əlbun~t'ərən~t'irun~t'irən] '떫은'
f. [pabɨl~pabəl] '밥을'
[cibɨl~cibəl] '집을, 짚을'
[ap^{h}ɨl~ap^{h}əl] '앞을'
g. [saburo] '삽으로' g'. [sabiro]
[šimuro~himuro] '힘으로' [himiro]
[ap^{h}uro] '앞으로'
[yəp^{h}uro] '옆으로'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에서의 원순모음화 현상은 형태소 경계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100, a~d)의 예들은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된 경우인데, 먼저 (a)의 예들은 단음절 어간으로 어간 말음이 /m, p/이면 원순모음화 현상은

지도 67) '감으면, 잡으면, 굽으면'

a a a a a a'

① [k'amumən] [k'amimən] ② [cabumən] [cabimən] ③ [kubumən] [kubimən]

지도 68) '다듬으면'

○ [t'adimimən] △ [t'adimumən] ▲ [t'adumumən]

○ [t'adimimən] △ [t'adimumən] ▲ [t'adumumən]

지도 67)에서와 같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위의 지도에서 부안과 고창, 그리고 김제, 정읍의 일부 지역에서는 원순모음화를 외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어간 말음이 /pʰ/일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원순모음화가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순음이라도 [+asp]의 자질이 [−asp]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140]

(b)의 경우는 2음절 이상의 어사들인데, 단음절 어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원순모음화의 실현 지역이 훨씬 좁게 분포되어 있다.

위의 지도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의 원순모음화는 진안, 무주, 임실, 장수, 순창, 남원 등의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임실, 장수, 무주 등의 지역과는 달리 순창, 남원, 그리고 진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행하는 /ɨ/도 원순모음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상술한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모음화 규칙의 진행 과정과 일치된다. 그런데 진안과 순창에서는 [t'aduma]의 형이 실현되고, 남원에서는 [t'aduma∼t'adʉma]의 형들이 실현되고 있어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의 원순모음 규칙이 존재하

140) 최태영(1981 : 130)에서는 체언에서 실현되고 있는 원순모음화의 예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김차균(1983 : 60)의 국어 음성도표에 의하면 동일한 위치강도 IV°를 유지하고, 울림도에서는 비음이 5°에 해당되고 순수자음이 1°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음이 순수자음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가 /pʰ/ 아래에서 보다 활발히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pʰ/ 아래에서의 원순모음화가 더욱 활발히 실현되고 있어 울림도에 의해서는 설명이 곤란하고, Schane(1973 : 186)에서와 같이 동화현상을 일차적으로 지배하는 자질(primary feature)이 상위의 위계를 점유한다는 자질 위계에 따른 설명을 원용할 수 밖에 없다. 비음화 현상에서 선행하는 /pʰ/가 후행하는 비음에 동화됨은 주지하는 바이고, 이 현상을 통하여 비음의 울림도가 격음인 /pʰ/보다 높게 설정됨도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현상에 관여하는 primary feature만을 생각한다면, 격음이 비음화에 선행하여 일차적으로 [+asp]를 상실하는 중화현상을 겪고 다음에 비음화가 수행된다. 따라서 [nasal]과 [asp] 상호간의 동화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00, a)에서 실현되고 있는 원순모음화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먼저 이 현상을 실현시키는 자음들은 [labial]이라는 자질에 의하여 하나의 자연부류를 형성하고, 이 자연부류를 형성하는 [labial] 자질이 이 현상을 지배하는 primary feature가 된다. 따라서 이 동화현상은 울림도와는 무관한 위치강도에 의한 동화현상으로 처리되어, 동일한 위치강도를 유지한 자연분류 내의 음운들에서는 [+asp] 자질이 가장 강한 음운론적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지 않는다는 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예들이 된다. 이처럼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고 있는 /u/ 유지형들은 통시적인 원순모음화 규칙의 출력부가 어휘화된 것이다.

규칙 36) 원순모음화(1′)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labial}] /\ \#(\text{CoVCo})\text{o CoV}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 \langle +\text{asp} \rangle \end{bmatrix} + \ —$$

지역적 분포 조건 : 1) (CoVCo)가 0일 때는 지도 67)에서와 같은 실현 양상을 보인다.

2) (CoVCo)가 1이상일 때에는 지도 68)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 〉가 선택되면 전 지역에서 실현된다.

(c)와 (d)의 예들은 어간 말음으로 /p/를 유지하고 있으나, (a, b)의 경우와는 달리 ㅂ-불규칙 용언들이다. (c)의 예들은 단음절 어간에 /-i/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된 경우이고, (d)의 예들은 2음절 이상의 어간에 /-i/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의 표면음성형들을 자세히 검토하면, 전자는 주로 [-u-]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도출 과정을 통하여 유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1) a. /top+iŋgɛ/	b. /tuk′əp+in/
topuŋgɛ……원순모음화	tuk′əwin……p → w
towuŋgɛ……p → w	tuk′əin ……w-탈락
touŋgɛ ……w- 탈 락	tuk′ən ……i- 탈락
[touŋgE]	[tuk′ə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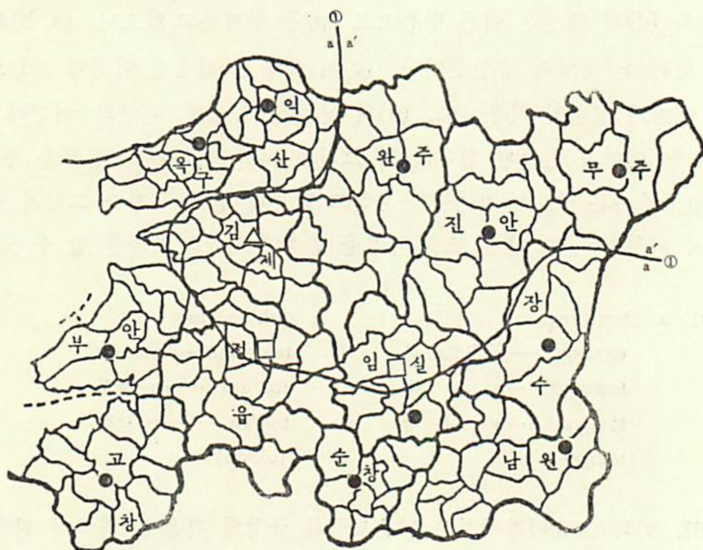
(101, a)의 도출과정에서는 원순모음화 규칙의 적용에 의하여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유도할 수 있지만, (101, b)의 도출과정에서는 원순모음화 규칙이 공전되어야만 원하는 표면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도 전자와 같이 원순모음화 규칙이 적용된다면, 아래와 같이 이 방언에서 동기화되지 못한 규칙(u-탈락)을 설정해야 한다.

(102) /tuk′əp+in/

tuk'əpun ……원순모음화
tuk'əwun……p → w
tuk'əun ……w → ϕ
tuk'ən ……*u- 탈 락
[tuk'ən]

따라서 단음절 어간 말음이 순음인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만, 다음절 어간 말음이 순음일 경우에는 원순모음화를 외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 68)에서와 같이 '다듬으면'의 경우에는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등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고, (d)의 예들에서도 [-u-]를 유지하는 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률적인 해석은 곤란하다.

지도 69) '무서운, 가깝은'



a a'
① [musən] [musəun] ② ● [kak'an] △ [kacʰaun] □ [kak'aun]

(100, d)와 지도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u-]형을 실현시키는 예는 '무섭-, 가깝-'의 경우이다. [kak'aun]의 경우는 정읍에서, [kacʰaun]의 경우는 김제에서 각각 [kacʰan]과 교체를 보이며 실현

되고 있어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반면에 [musəun]의 경우는 완주, 진안, 무주, 김제 등에서 주로 실현되고, 옥구, 임실, 고창 등에서는 심한 수의성을 보인다. 따라서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이 2음절 이상일 경우에는 '무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규칙 36)은 아래와 같이 수정된다.

규칙 37) 원순모음화(1″)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labial}] / \# (\text{CoVCo})\text{o CoV}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 \langle +\text{asp} \rangle \end{bmatrix}_{[+\ \text{변}]} + \qua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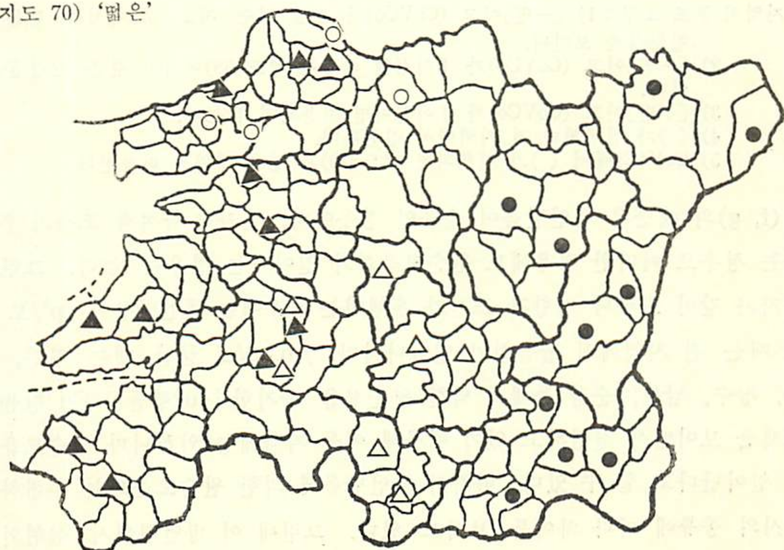
지역적 분포 조건 : 1) [−변]이고 (CoVCo)가 0일 때는 지도 67)에서와 같은 실현 양상을 보인다.

2) [−변]이고 (CoVCo)가 1이상일 때에는 지도 68)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변]이고 (CoVCo)가 1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4) 〈 〉가 선택되면 전 지역에서 실현된다.

지도 70) '떫은'



● [t'əlbun, t'ilbun]　○ [t'ərun, t'irun]

▲ [t'ərən, t'irən]　△ [t'irin]

(e)의 예들은 용언의 어간 말음에 오는 -$C_1 \cdot C_2$-의 자음군 중에서 C_1이 /r/이고 C_2가 순음으로 끝난 경우이다. 이들은 표면음성형에서 C_2의 순음이 실현되든지, 아니면 C_1의 /r/이 [l]로 실현되든지에 무관하게 항상 원순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t'ərən~t'irən]의 경우는 C_2가 완전히 탈락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지도 7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익산,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순창 등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 C_2가 탈락되면 원순모음화를 외면한다고 할 수 있을 듯하지만, 옥구, 완주 등에서는 이와 동일한 경우에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된다.[141]

이 예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규칙 37)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규칙 38) 원순모음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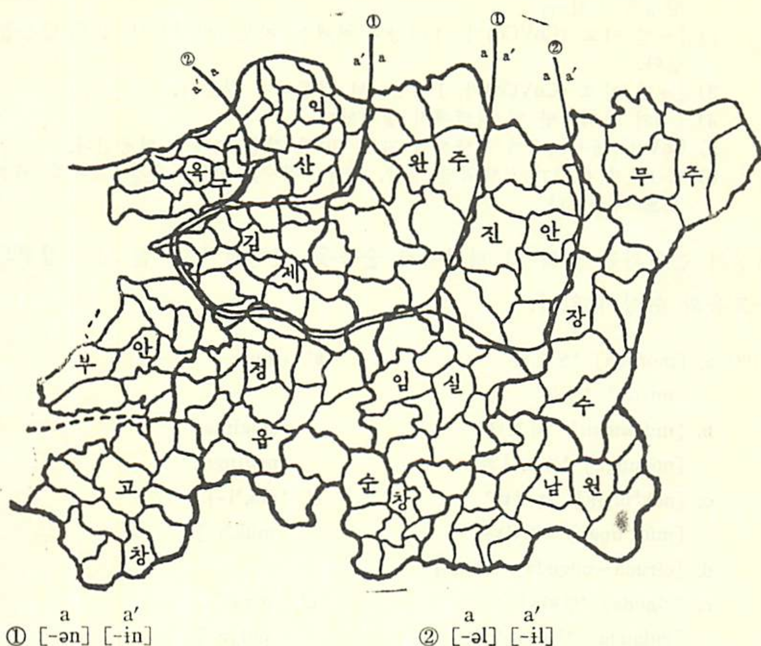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labial}] / \#(\text{CoVCo})\text{o CoV(C)}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 \langle +\text{asp} \rangle \end{bmatrix}_{[+변]} \quad + \quad -$$

지역적 분포 조건 : 1) [−변]이고 (CoVCo)가 0일 때는 지도 67)에서와 같은 실현양상을 보인다.
2) [−변]이고 (CoVCo)가 1이상일 때에는 지도 68)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변]이고 (CoVCo)가 1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4) 〈 〉가 선택되면 전 지역에서 실현된다.
5) CoV(C)에서 ( )가 선택되면 지도 70)과 같은 예외를 허용한다.

(f, g)의 예들은 체언말음이 순음인 경우이다. 전자는 목적격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후자와 같이 도구나 방향격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체언말음이 /p^h/로 끝날 때는 전 지역에서 활음화가 일어나지만, /m, p/로 끝날 때는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등에서 약한 원순성을 유지한 [-u]형들이 [-i]형들과 교체를 보이면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는 약하나마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언말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후행하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방언권에서 실현되고 있는 목적격과 주제격 조사는 두음으로 [-ə]를 유지함이 일반적이다.

141)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지도 71) '-은/는', '-을/를'



a a′ a a′
① [-ən] [-in] ② [-əl] [-ɨl]

지도 7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익산, 완주, 진안, 김제 등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ə]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어 원순모음화의 환경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ɨ]를 유지하는 지역에서는 체언의 경우에 원순모음화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두음으로 /ɨ/를 유지하고 있는 격조사들 중에서 '-은, -을'의 경우는 원순모음화와는 무관하게 처리되고, '-으로'만이 원순모음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f)와 (g)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논의된 바를 규칙화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39) 원순모음화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labial}] / \#(\text{CoVCo})\text{o}\ \text{CoV(C)} \begin{bmatrix} +\text{cons} \\ +\text{labial} \\ \langle +\text{asp} \rangle \end{bmatrix} (\text{N}) \quad + \quad -$$
$$[+\text{변}]$$

지역적 분포 조건 : 1) [−변]이고 (CoVCo)가 0일 때는 지도 67)에서와 같은 실현 양상을 보인다.

2) [−변]이고 (CoVCo)가 1이상일 때에는 지도 68)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3) [+변]이고 (CoVCo)가 1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4) 〈 〉가 선택되면 전 지역에서 실현된다.

5) CoV(C)에서 ( )가 선택되면 지도 70)와 같은 예외를 허용한다.

6) (N)에서 ( )가 선택되면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등에서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이상의 논의와는 달리 이 방언에서 순음을 선행시키지 않고도 실현되는 원순모음화 현상이 있다.

(103) a. [moruda] '모르다' a′. [mori-]

[nurun] '눌은'

b. [mugumən] '먹으면' [məgimən]

[noguŋgE] '녹으니까' [nogiŋgE]

c. [nokʰuŋgE] '녹히다' c′. [nokʰi-]

[mukʰuŋgE] '묵히다' [mukʰi-]

d. [ciruda~ciɫguda] '기르다'

e. [əlguda] '얼리다' e′. [əlʎə-]

[pulguda] '불리다' [pulʎ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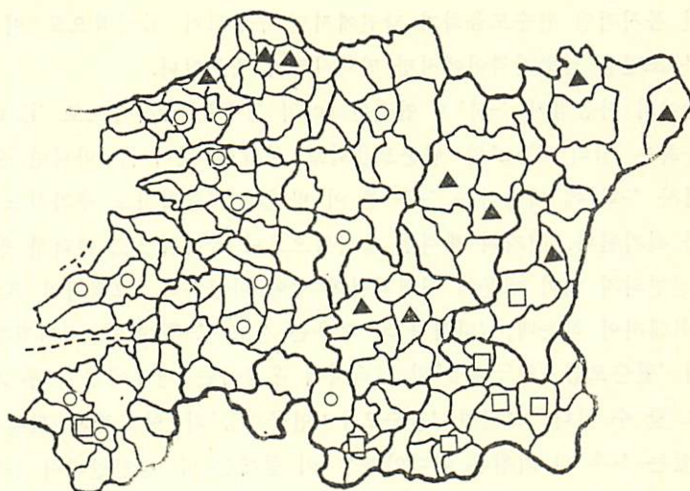
f. [caŋgwə/asə] '잠그어서'

[taŋgwə/asə] '담그어서'

(103), (a)와 (b)는 선행하는 원순모음과 후행하는 /i/ 사이에 유음과 연구개음이 개재된 예들이다. 따라서 최명옥(1982 : 12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음은 자신의 [+voc] 자질에 의하여 선행하는 원순모음의 [labial] 자질의 확산을 방해하지 않고, 연구개음은 자신의 [+grave] 자질을 선행하는 원순모음에 첨가함으로 인하여 원순모음화를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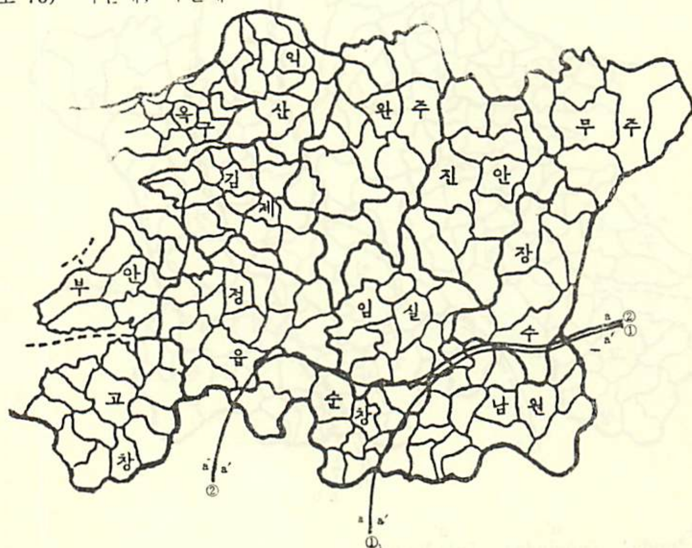
지도 72)에서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이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이는 최명옥(198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남방언에서는 't→l'에 의하여 유도된 형들에도 이 현상이 적용되지만, 이 방언에서는 [murimən]과 같이 't→l'에 의하여 유도된 어사들에서는 이 현상을 외면하고 있어 동남방언에 진원지를 두고 점차 서쪽으로 진행되어 가던 현상으로 생각된다.

지도 72) '모르다'



○ [morida]　▲ [moruda]　□ [morida]

지도 73) '먹은개, 녹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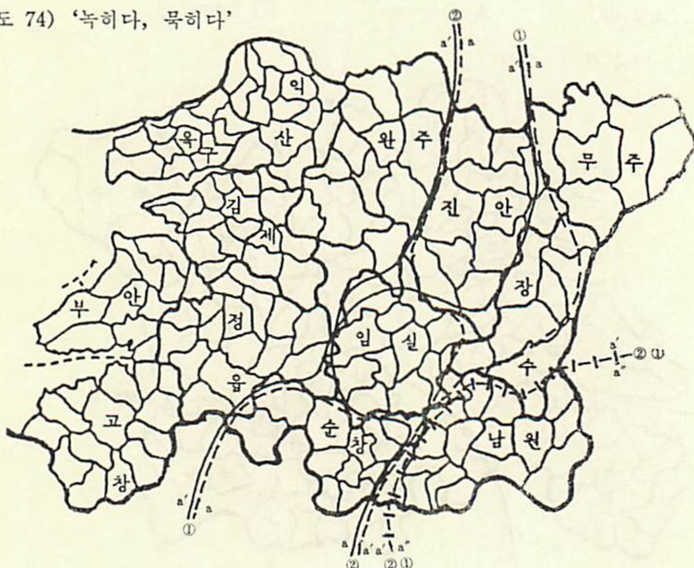


① [muguŋgE] (a) [mugiŋgE] (a′)　② [noguŋgE] (a) [nogiŋgE] (a′)

지도 73)에서는 남원에서만 이 현상이 실현되고 있는데, 이는 '먹다'에서 실현된 통시적인 원순모음화가 남원에서만 수행되어 공시적으로 이 규칙의 입력부 조건을 남원지역어에서만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중앙어의 사동접사 '-히'가 연결된 (c)의 경우는 공시적으로 'i>u'의 원순모음화는 달리 'i>u'의 원순모음화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어의 사동접사 '-히'에 대응하는 '-후'를 이 방언의 사동접사로 추가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의 해석은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 이러한 원순모음화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후자의 해석이 취해져야 하는데, '막히다'의 경우는 결코 '-후'형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원순모음+연구개음'의 연속체에 후행하는 경우에만 '-후'가 취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순모음+연구개음'의 연속체의 뒤에서 실현되고 있는 '-후'의 기원은 어디인가? 이 문제는 이 방언권에서 간행된 선행 시기의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중앙어와는 다른 과

지도 74) '녹히다, 묵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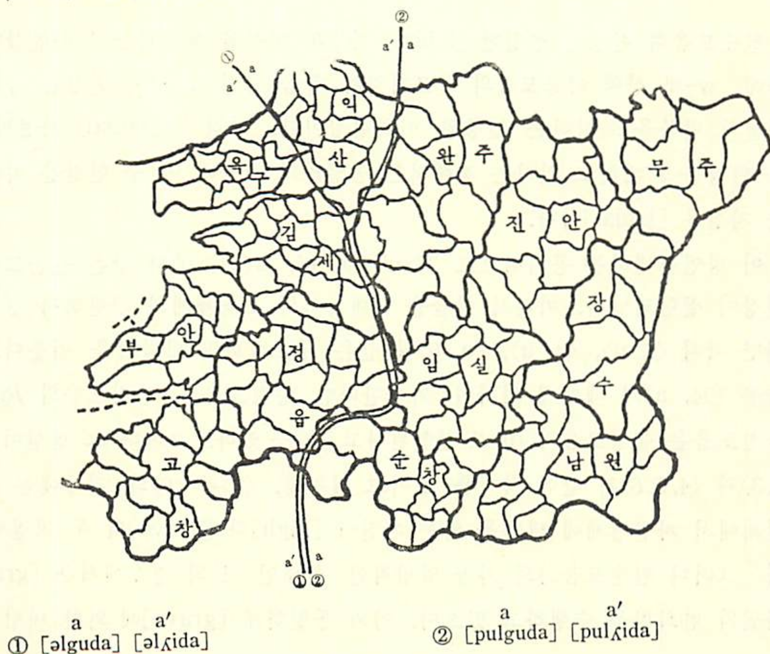
	a	a′	a″
①	[nokʰunda]	[nöginda]	[nökʰinda]
②	[mukʰunda]	[mukʰinda]	[mükʰinda~mikʰinda]

정을 통하여 사동접사가 발달된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그러나 이 환경이 최명옥(198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순모음화의 동화주로 기능할 수 있음도 배제되지는 않는다.

지도 7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후'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지도 7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 한정된다. 따라서 최명옥(1982)에서 제시된 동기화는 이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서만 선행 시기에 수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d~f)의 예들은 선행 모음이 비원순모음이기 때문에 이들을 원순모음화로 처리하려면 유음이나 연구개음 자체가 동화주로 기능한다고 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어떤 요인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u/를 유지하는 형태로 어휘화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은 아래의 지도 75)에서 더욱 정당화 된다. 즉 /u/ 유지형들의 실현 지역이

지도 75) '얼리다, 불리다'



a a′
① [əlguda] [əlʎida]

a a′
② [pulguda] [pulʎida]

지도 72), 74)의 지역과 일치되고 있어, 이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서는 /u/ 유지형이 일반적인 것으로 처리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상술한 원순모음화 규칙 39)에 아래와 같이 이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서만 실현되는 minor rule이 추가되어야 한다.

규칙 40)

$$\begin{bmatrix} +\text{voc} \\ +\text{grave} \\ +\text{high}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labial}] \ / \ \begin{bmatrix} +\text{voc} \\ +\text{labial} \end{bmatrix} \left\{ \begin{array}{l} \begin{bmatrix} +\text{cons} \\ +\text{grave} \end{bmatrix} \\ \begin{bmatrix} +\text{cons} \\ +\text{voc} \end{bmatrix} \end{array} \right\} \begin{array}{c} + \quad - \\ \text{V.A.st.} \end{array}$$

7.4. 동화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원순모음화 현상은 동일한 [labial] 자질의 반복을 요구하는 동화현상임에 반해, w-계 상향 이중모음의 분포제약과 활음 형성 및 탈락 현상은 동일한 자질의 반복을 회피하는 일종의 이화현상이다. 그러나 [labial] 자질이 이 두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두 현상을 지배하는 자질은 [labial]이다.

이 방언권에서는 통시적으로 'i>u', 'ə>u', 'a(ʌ)>o'와 같은 원순모음화 현상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현대국어의 모음체계와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각각 〈i, u〉, 〈ə, u〉, 〈a, o〉와 같은 구조변화의 대립짝을 이룬다. 이들을 (94, a)의 체계에 의하여 기술한다면 양성모음은 양성모음의 /o/로, 음성모음은 음성모음의 /u/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1, 2, 3〉과 〈4, 5, 6〉과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3〉과 〈6〉의 경우에는 구조변화에서 자질명세에 변화를 입는 자질이 [high]와 [grave]의 두 자질이 된다. 그러나 원순모음화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1〉의 경우에서는 [grave] 자질의 변화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grave]에 의한 대립짝을

이루고 있는 〈ə, o〉에서는 'ə>o'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3〉과 〈6〉의 변화는 특이한 것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94, b)의 체계에 의하여 기술한다면 음성모음의 비고설모음이 고설모음인 /u/로, 양성모음의 비고설모음이 고설모음인 /o/로 변화되는 현상으로 기술할 수 있어, 그 변화 방향을 '저>고'로 일반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high] 자질만이 변화된다.

이 현상이 17세기 초에 중앙어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의 모음체계를 (94, a)와 같이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 방언권의 모음체계가 중앙어권의 모음체계와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즉 순음 아래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방언권의 'ʌ>o'의 변화와 중앙어에서 실현되고 있는 'ʌ>a'의 변화를 원순모음화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한다면, 이 방언에서는 (94, b)와 같은 체계를 반영하고 이 현상이 출발하였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일차적이지만, [labial] 자질의 변화에 부가되어 [high] 자질의 변화도 수반되는 현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공시적으로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고 실현되는 'i→u'의 변화는 (94, a)의 체계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이 경우의 변화는 [labial]의 변화 이외의 것에 대한 명세는 잉여적인 것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구조변화의 〈i, u〉에 관여하는 [labial] 자질은 '스물'의 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 ɨ〉에 관여하는 [grave] 자질보다 높은 위계의 자질임을 암시하는 지역([sumul]이 실현되는 지역)과 역방향의 지역([šimul]이 실현되는 지역)이 이 방언권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 63) 참조) 따라서 동일한 체계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음운현상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과 위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 구개모음화[142)]

8.1. 대상과 일반론

구개모음화는 전설모음화의 일종이지만 움라우트와는 달리 동화주가 선행하는 치찰음이고 동화의 방향도 순행동화이다. 이 현상은 중세국어에서 치조음인 'ㅅ, ㅈ, ㅊ' 등이 경구개음으로 변화되어 [palatal] 자질을 획득한 이후에 국어의 음운사에 도입된 것으로,[143)] 형태소 내부에서 치찰음과 연결된 /ɨ/가 /i/로 변화되는 통시적인 규칙이다.[144)] 그러나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모음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형태소 경계를 개재시키는 경우에서만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다.[145)]

142) 이 용어는 기왕의 치찰음화라 칭해지던 용어에 대신하여 최전승(1986 : 310~23)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즉 'ɨ→i'의 변화가 [grave]의 자질에만 관련된 현상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환경을 이루는 'ə→e', 'a→ɛ'의 변화도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개모음화는 고모음에서 [grave] 자질의 변화 현상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 현상은 [grave] 자질과 [high] 자질이 관련된 것이고, [+high, −low, −grave]의 특징을 지닌 것이 [palatal] 자질임을 감안하여 구개모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143) 이기문(1972a : 203)에서는 치찰음화라 칭해지는 이 현상이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어의 음운사에 도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4) 이 현상을 치찰음화라 칭한다면 [high] 자질과는 무관하게 처리되어 문제가 된다(후술할 8.4 참조).

145) 도수희(1977 : 107~8)에서는 충남방언의 형태소 내부에서 이러한 현상이 치음 아래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원순모음의 전설모음화 현상에 통합하여 이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뜨껴, 뜨끼, 듣기싫다, 특별히, 흐미하다, 다드미' 등등의 예들은 움라우트의 동화주 /i, y/를 가지고 있으며, 개재자음도 움라우트의 일반적인 제약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이들을 구개모음화와 구분하여 움라우트에서 처리했다.

대부분의 동화현상은 조음의 편의를 위하여 인접한 음운들과 동일한 조음상의 특징을 가지려는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동화에 관여하는 자질은 비동화자질보다 음운론적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동화자질에 의하여 음운체계상에서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변화의 'X→Y'에서 X와 Y의 음운론적 강도는 Y가 X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선행 치찰음이 가지고 있는 [-grave] 자질에 동화되어 후설모음 /ɨ/가 [-grave]인 /i/로 변화되는 구개모음화의 경우에는 /i/가 /ɨ/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화주와 피동화음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동화주가 피동화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음들의 동화에 의하여 설정된 음운론적 강도에서 순수자음이 유음이나 비음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함은 주지하는 바이고,[146] [noňa] '놓으냐'와 [pac^{h}iro] '밭으로'에서 실현되고 있는 ɨ-탈락 양상을 통하여 유음 뒤에서는 /ɨ/가 탈락하지만 치찰음 뒤에서는 /ɨ/가 탈락하지 않기 때문에 치찰음이 /ɨ/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하다는 해석은 곤란하다. 따라서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는 단순히 조음의 편의를 위한 현상이고, 그들 사이의 음운론적 강도는 비교될 수 없다.[147]

그러면 동화의 지배자질과 다른 자질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는

146) 이러한 음운론적 강도에 대한 논의는 Zwick(1973), 이병근(1977), 이승재(1980)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병근(1977 : 18)에서 설정된 자음의 위계도에 의하여

Phonological strength

l m n ŋ p s t c k
m ŋ p t k
ŋ p k
k

'유음→비음(변자음(후부→전부) →중자음))→순수자음(변자음(후부→중부)→중자음)과 같은 위계 관계가 수립된다.

여기에 게재된 이병근(1977)의 페이지는 이병근(1979)에 게재된 페이지를 따른 것이다.

147) 원순모음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동화자질이 비동화자질보다 상위의 위계를 점하고, 역동적인 음운현상에 보다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grave] 자질이 다른 자질에 비해 상위의 위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통시적인 구개모음화 규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형태소 구조제약과 공시적으로 형태소 연결 위치에서 생산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구개모음화 규칙을 지역적 분포와 관련하여 고찰하려 한다.

8.2. 형태소 내부에서의 제약

(104) a. [šimul] '스물' a'. [simul~sumul][148]
[š'iregi~š'irigi] '쓰레기' [s'iregi]
[š'innəmul~š'imbaguri] '씀바귀'
[š'iunda~š'i:nda] '씌운다'
b. [pešil~pyəšil] '벼슬'
[pošip] '보습'
[soširaŋ] '쇠스랑'
[išilbi] '이슬비' b'. [isilbi]
[kəširəmt'on~kəširim-] '거스름돈'
[k'išilʌəsə] '그을려서'
*[pišidesə] '비슷해서' [piside-~pijəde-]

(104)의 예들은 형태소 내부에서 치찰음과 결합되고 있는 [i]와 [ɨ]의 교체형들이다. (a)는 단음절의 경우로 대부분 [i]가 연결되지만 [simul], [s'iregi]와 같이 [ɨ]가 연결되는 예들이 존재한다. [simul]은 정읍에서 [sumul]과 교체를 보이며 실현되고 있는데, [ɨ] 유지형은 많은 수의성을 보이고 있으며, (원순모음화 지도 63) 참조) [s'iregi]는 김제와 부안에서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b)는 2음절 이상의 예들로 [isilbi]는 임실에서만 수의성을 보이며 실현되고 있다.

148) [sumul]은 원순모음화와 관련된 예들로 원순모음화의 동화주에 후행하는 원순모음도 포함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태소 내부의 치찰음 아래에서 실현되고 있는 [ɨ] 유지형들은 심한 수의성을 보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제약 10) 치찰음 아래에서 [ɨ]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런데 '비슷해서'의 경우에는 [pisidesə̀~pij̆ədesə]와 같은 교체를 보이고 있으나, [pij̆ədesə̀]의 경우 옥구, 익산 등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예들을 제외한다면, 항상 [piside-]로 실현되기 때문에 제약 10)의 예외로 처리된다. 이와는 달리 움라우트 현상을 논의하면서 제시된 지도 4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ə:m~si:m] '섬(島)', [sə:ŋ~si:ŋ] '성(姓)', [sə:ŋňaŋ ~si:ŋňaŋ] '성냥', [sə:t'al~si:t'al] '설달' 등의 예들은 옥구, 익산, 완주, 진안, 무주 등과 부안의 일부 지역에서 치찰음 아래에 /ɨ/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적으로는 제약 10)을 어기지만, 통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개음화 규칙이 상실된 후에 'ə→ɨ'의 고모음화 규칙이 삽입된 것으로 처리된다. 왜냐하면 구개모음화 규칙이 공시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경우에도 [i] 유지형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시적으로 이들 지역에서 /ɨ/ 유지형들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구개모음화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통시적인 구개모음화 규칙의 입력부가 그대로 재어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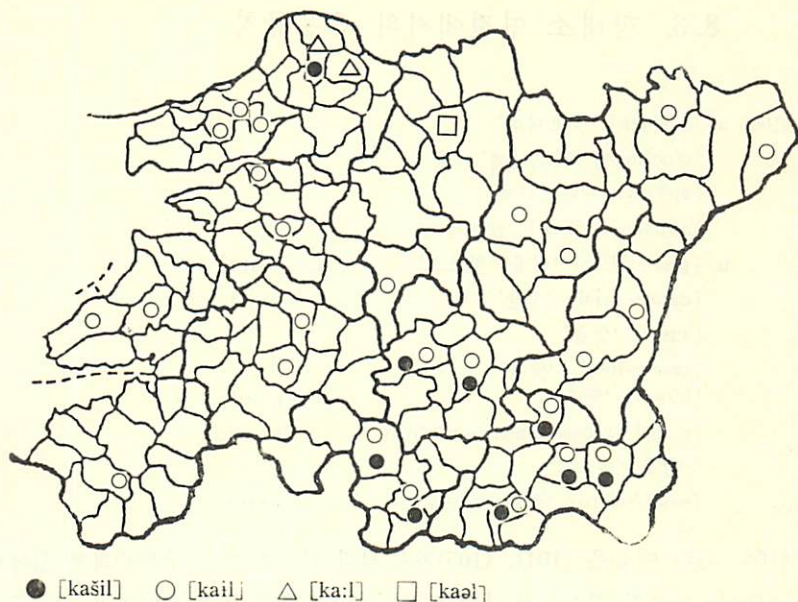
또한 중앙어에서는 /s/를 유지하지 않고 실현되는 '가을', '가을하다', '마을간다'와 같은 어사들이 이 방언에서는 (105)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105) a. [kašil] '가을' a'. [kail]
[kašilɦənda] '가을한다'
[mašilganda~mošil-] '마을간다'

(105)에서 [kašil]의 경우는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익산 등의 지역에서만 [kail]과 교체를 보이며 실현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kail]형으로만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kail]과 [kašilɦə-], [mail]과 [mašilga-]의 경우는 서로 다른 변화 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을, 마을'

지도 76)가을



● [kašil] ○ [kail] △ [ka:l] □ [kaəl]

의 예들은 기원적으로 /z/ 또는 /s/를 유지하고 있어서 '가실 한다, 마실 간다'와 같이 /s/ 유지형의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언중들이 '가실 한다', '마실 간다'와 같은 통사론적 구성을 하나의 형태론적 구성으로 인식하면서 /s/ 유지형으로 화석화된 것이다. 그러나 '마을', '가을' 등의 예들은 'z>ϕ' 또는 's>ϕ' 규칙의 적용을 받아 /ϕ/ 유지형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부지방에서 /s/ 유지형이 일반적이고, 중부지방에서는 /ϕ/ 유지형이 일반적이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149]

149) 이 예들은 Bloomfield(1933 : 444)에서 논의된 문화적 차용(cultural borrowing)에 의한 것으로, 이 방언에서는 기원적으로 ϕ유지형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아우, 마을, (집을)짓, 금(線), 두어(2~3), 마음, 처음, 사이, 요즈음, 가을, 겨울, 부엌' 등의 예들을 이 방언의 선행 시기 자료인 계발심자경과 권념요록, 그리고 오꾸라(1944) 등과 공시적인 이 방언의 자료들에서 ϕ유지형의 경우는 '요'의 경우에만 실현 빈도가 높고, 기타의 예들에서는 s유지형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실현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ϕ유지형들은 중부방언에서 차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8.3. 형태소 연결에서의 음운규칙

(106) a. [kɨšiŋgE] '긋으니까'
[c'oc^{h}iŋgE] '쫓으니까'
[əpš'iŋgE] '없으니까'
[anǰišio~anǰiseo] '앉으세요'

b. [pisəl/piširo] '빗을/빗으로' b'. [pisɨro]
[cəsəl~caǰəl] '젖을' [cəsɨl]
[susəl] '숯을'
[təsəl~tosəl] '덫을'
[k'osəl] '꽃을' [k'osɨl]
[p^{h}asəl~p^{h}osəl/p^{h}aširo~p^{h}oširo] '팥을/팥으로' [p^{h}asɨro]
[sosəl/soširo] '솥을/솥으로' [sosɨro]

(106, a)의 예들은 (104), (105)와는 달리 공시적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b)는 이러한 현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V.A. stem이라는 구별자질에 의하여 (b)의 예들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b)의 예들에서 선행하는 체언이 동일할 경우에도 후행하는 격조사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음운현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에서 목적격의 '-을'이 후행할 경우에는 철저히 이 현상을 외면하고 있으나, 도구격 '-으로'가 후행할 경우에는 선행 체언에 따라 수의적으로 구개모음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원순모음화(지도 71)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목적격 조사는 그 기저형이 /-ər/이고, 도구격 조사는 /-ɨro/이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즉 구개모음화는 치찰음 아래에서 'ɨ→i'의 변화이기 때문에 목격적 조사의 경우는 그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도구격 조사는 그 입력부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V.A. stem이라는 통사론적 범주화에 의하여 체언의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기술이 되지 못하고, 체언의 경우에는 수의적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야 한다.

또한 '밭, 솥'과 같은 예들은 체언말음을 /s/로 설정할 수 있을 듯하지만,

처격 조사가 연결될 경우에는 [pat^{h}e~pat^{h}i], [sot^{h}e~sot^{h}i]와 같이 [t^{h}]가 실현되기 대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된다. 그런데 '솥으로, 팥으로'의 경우에는 구개모음화가 수의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체언말에서 수행되고 있는 마찰음화 현상과 구개모음화 현상의 규칙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구개모음화가 일어난 예들은 체언말 마찰음화에 의하여 유도된 [s]가 구개모음화의 동화주로 기능하지만, 구개모음화를 외면하는 예들은 구개모음화 규칙이 마찰음화 규칙에 선행되어야 한다.[150]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구개모읍화 규칙을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규칙 41) 구개모음화

$$\begin{bmatrix} +\text{voc} \\ +\text{high} \\ +\text{grave} \\ -\text{labial} \end{bmatrix} \rightarrow [-\text{grave}] / \begin{bmatrix} +\text{cons} \\ +\text{str} \end{bmatrix}_{\langle N \rangle} + \;__$$

지역적 분포 조건 : 1) 〈 〉이 선택되면 어사에 따라 수의성을 보인다. (지도 76)
2) 고모음화에 의하여 유도된 형태들은 공시적으로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서 예외로 존재한다.

8.4. 동화자질과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규칙의 동기화

상술한 바와 같이 구개모음화는 [grave] 자질에 의한 대립짝 중 〈ɨ, i〉의 대립짝에서만 실현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 이 현상에 관여하는 자질이 단순히 [grave] 자질 뿐이라면, 〈ə, e〉, 〈a, ɛ〉 등의 대립짝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대립짝에서 이러한 현상을 외면하는 것은 이 현상이 단순히 [grave] 자질만이 관여하는 현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150) 체언말 마찰음화 현상은 곽충구(1984), 최전승(1986), 이기갑(1986) 참조.

앞에서 [palatal] 자질이 [+high, −low, −grave]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구개모음화도 이와 동궤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치찰음이라 칭해지는 /s, s', c, c', c^h/의 자음들은 [−grave]의 자질만을 공유하고 [high]의 자질에서는 차이가 있어, /s, s'/는 [−high, −low]를, /c, c', c^h/는 [+high, −low]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grave] 자질이 이 현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은 쉽게 예견할 수 있지만, [high] 자질이 이 현상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찰음 아래에서 'ɨ→i'의 변화를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i/ 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s, s'/의 경우도 [+high, −low]의 자질을 가진 구개음이라고 해야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high]와 [grave] 양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high] 자질의 명세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grave]의 자질이 이 현상의 지배자질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grave] 자질이 [high], [low] 자질보다 상위의 위계를 점유하게 되어, 전술한 자질의 위계도 (11)과 (72), (73)에서의 자질 위계가 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 현상을 치찰음화라 칭한다면, [grave] 자질에 의하여 대립짝을 이루고 있는 ⟨ə, e⟩, ⟨a, ɛ⟩에서는 왜 이 현상을 외면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구조변화의 'X→Y'에서 음운론적 강도를 생각한다면, ⟨ɨ, i⟩의 대립짝에서 후설모음인 /ɨ/가 전설모음인 /i/보다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움라우트와 관련하여 국어에서 전설모음화는 존재하지만 후설모음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정당성이 수긍되어 진다.

9. 결 론

9.1. 방언연구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한 구어자료를 채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성에 비견할만큼 중요한 문제는 연구의 방향에 얼마나 적절한 제보자를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방언권의 노년층 화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언자료들에서 실현되고 있는 음운론적 현상에 의하여 하위 지역어들의 분화상을 기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간접적인 질문 방법으로 농촌 지역의 학력수준이 낮은 노년층 화자들과의 개별 면담(interview)에 의하여 자료를 채록하고 사용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보고된 한국정신문화원의 전라북도 자료집(1987), 그리고 국어문학(22~4)의 자료 등이 보조 자료로 사용되었다.

물론 나이, 학력, 성별 등과 같은 문제 외에 각 제보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제 측면이 고려되고, 농촌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사는 도시의 언어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함은 필자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공시적으로 특정한 연령층에서 실현되고 있는 언어의 지리적인 분화상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배제되었다(물론 이 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층위에 대한 조사는 필자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음도 그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현지 조사에서는 가능한 한 제보자들의 자연발화를 많이 채록하여 질문지에 의한 면담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격식적인(formal) 발화 자료를 배제하려는 노력도 경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화 유형(style)에 따른 차이를 음운

규칙의 기술에 도입하기란 용이한 문제는 아니었다.[151]

9.2. 이 방언권의 모음체계는 고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동일한 수의 모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각각의 모음들이 음운현상에서 보이는 기능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능상의 차이는 모음조화 현상에서 현저히 나타났는데, 이 방언권의 북서부 지역에서는 /a, ε/가 음성모음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동남 지역에서는 양성모음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변별적 자질들의 상대적인 위계 관계는 동화현상에서 주로 주목되었다. 특히 모음조화에서는 [B]에 의한 조화가 전·후의 대응체계에서 출발되었음이 지적되었고, [labial]에 의한 조화가 국어에서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통해 [grave]의 자질이 상위의 위계를 점유함을 지적했다.

움라우트 현상에서는 [grave] 자질에 의해 대립하고 있는 각각의 모음들을 통하여 [−grave]의 모음들이 [+grave]의 모음들보다 상대적인 음운론적 강도에서 강하게 기능함을 지적했고, 원순모음화와 구개모음화에서는 [labial]과 [grave] 자질이 일차적인 동화자질(primary feature)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이 음운규칙에 음성학적으로 타당한 동기화를 부여하고 있음도 지적했다. 특히 구개모음화에서는 [grave] 자질과 [high] 자질의 상대적인 위계 관계에서 [grave] 자질이 상위의 위계를 점유하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모음들의 음운론적 강도는 활음 형성 및 탈락과 모음 탈락에서 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는 구조기술을 이루는 두 모음들에서 음운론적인 강도가 약한 모음이 약화되거나 탈락되기 때문에 각 모음들의 상대적인 강도를 예견할 수 있는데, 저설모음이 고설모음보다 음운론적인 강도가 강하게 기능했으며, 동일한 모음의 높이(vowel height)를 유지할 경우에는 원순모음이 비원순모음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약하게 기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시적인 음운규칙은 통시적으로 적용되었던 형태소 내부에서의 음운규칙보다 그 환경이 제한되어 실현되었고, 이들의 지역적인 차이가

151) 이 문제는 Labov(1972)의 사회방언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후일을 기약한다.

유사하게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이 주목되었다.

9.3.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모음과 관련된 음운현상을 통하여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어를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지역적인 분포상을 요약·정리하려 한다.

모음조화 현상에서는 /a, ɛ/의 조화기능에 따라 크게 동·서로의 등어선이 설정되고 있다(지도 3). 이는 제 2 음절 이하에서 실현되고 있는 중성모음의 경우에서도 정당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지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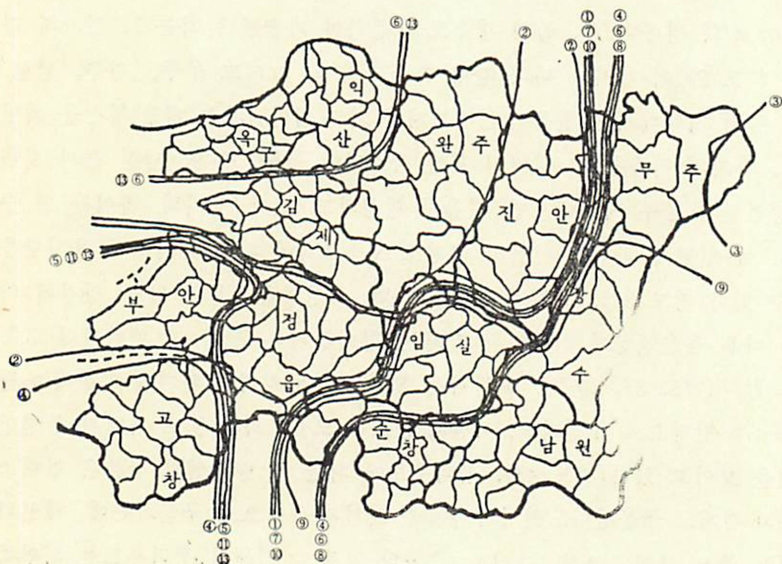
활음 형성 및 탈락과 이중모음의 연결제약에서 y-계 이중모음의 연결제약에 의하여 이 방언권이 남·북으로 구분되지만(지도 11), w-계 이중모음의 경우는 이러한 등어선의 설정을 어렵게 한다. y-형성과 탈락에서는 선행하는 자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동일한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치찰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y-탈락과 축약에 의하여 모음조화와 유사한 등어선이 설정된다(규칙 12, 13)의 지역적 분포 조건 참조). 그러나 비치찰음이 선행할 경우에는 북서 지역에서는 활음이 탈락되고, 이 방언권의 중앙 지역에서는 축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지도 18, 19). w-형성과 탈락에서 활음 w-형성은 /o, u/의 경우와 /ö, ü/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술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지도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옥구, 익산, 그리고 무주, 장수, 남원, 순창 등의 지역에서는 활음이 형성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활음 형성을 외면하고, 후자의 경우는 그 영역이 훨씬 축소되어 무주, 순창, 남원 등과 같이 이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서만 활음이 형성되고 있어 양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w-탈락에 의한 등어선의 설정도 모음조화에 의한 등어선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지도 32). i-탈락에서는 특히 체언말음 /i/의 탈락 양상에 의하여 다른 음운현상에 의하여 설정되는 등어선과는 달리 이 방언권이 3분되고 있다(지도 37, 39-b). ə-탈락은 모음조화 규칙과의 관계에 의하여 ə-탈락과 ə/a-탈락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분포는 모음조화의 분포 지역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도 43). 움라우트에 의한 이 방언권의 구분은 형태소 내부와 경계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체언과 용언으로 구분되는데, 체언의 경우는 주로 부안, 고창, 그리고 순창의 일부 지역에서 움라우트를 외면하

고(지도 44), 후자의 경우는 지도 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방언권의 남·북을 구분하는 등어선이 설정된다. 형태소 경계가 개재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옥구, 익산, 부안, 고창, 그리고 무주와 순창에서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지도 52). 그러나 용언에 열결된 사동·피동 접사의 경우는 임실, 남원, 장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움라우트를 외면하고 있다(지도 57). 따라서 움라우트에 의한 이 방언권의 구분은 서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구분되고, 사동·피동 접사에 의하여 남·북의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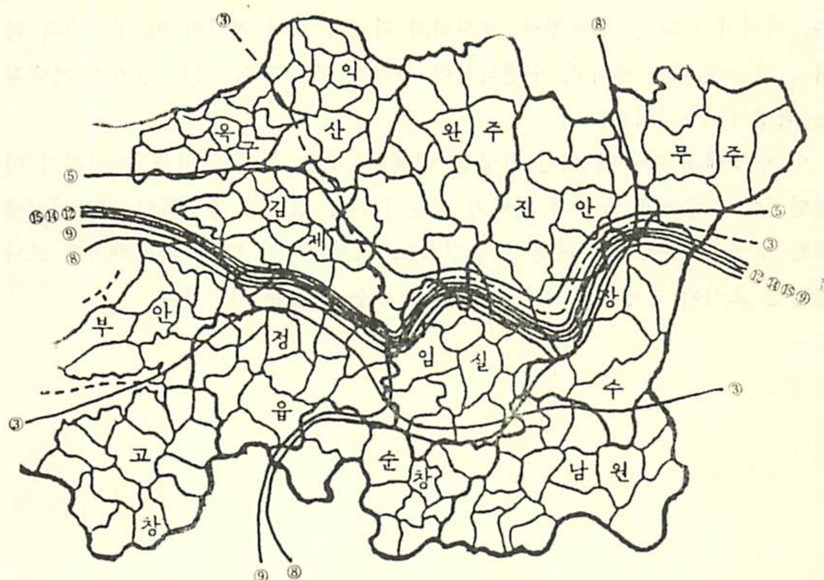
이 방언에서의 원순모음화는 'ʌ>o'의 원순모음화와 비원순모음화에 의하여 중앙어와 구분된다. 이 양자는 그 개신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전자에 의해서는 이 방언권의 중부에 동·서로의 등어선을 그을 수 있다(지도 64).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그 영향이 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에 머물고 있다.

구개모음화의 경우는 통시적으로 고모음화가 적용된 지역(이 방언권의 북부 지역)과 비적용 지역(대부분의 중·남부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지도 77) 남·북 구분



지도 78) 동·서 구분



이상의 논의에 의하여 이 방언권은 지도 77), 78)과 같은 분포상으로 보이고 있다.

지도 77), 78)에 의하여 이 방언권은 이승재(1987)의 논의와는 달리 井자와 같은 모양의 분포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9.4. 이 연구에서 필자가 작성한 방언지도는 각각의 어휘들에 대한 진열지도(display map)를 작성하고, 이들을 묶어 음운현상에 의한 하나의 해석지도(interpretation map)를 작성했다. 그러나 각각의 진열지도를 하나의 해석지도로 통합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지 못했다. 이는 각 음운현상에 대한 예외의 표시와 등어지대의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연색 지도를 작성한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 방언권의 각 면들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수행되지 못했음은 현재 필자의 조사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논문에서 필자가 의도하는 바와 같이 각 군의 음운체계와 음운규칙을 정립하고 그들의 차이에 의하여 이 방

언권의 하위 지역을 크게 구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보다 정밀한 등어지대를 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정밀한 이 방언권의 하위 지역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이는 필자의 계속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자음에 대한 연구를 배제한 것은 이들에 의한 방언차가 이 방언권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총체적인 전북방언에 대한 연구는 자음에 관련된 음운현상도 포함되어야 함은 자명하기에 보다 정밀한 조사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참 고 문 헌

강윤호(1961), "국어 방언의 공시 음운구조 기술과 그 분포", 동방학지 5.
곽충구(1982a), "아산지역어의 이중모음 변화와 이중모음화", 방언 6.
_____(1983b), "'왕겨'의 방언형들의 지리적 분포와 그 비교연구", 개신어문연구 2, 충북대.
_____(1984),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국어문학 22집(1982),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문학 23집(1983),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문학 24집(1984),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권병로(1987), 무풍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기세관(1981), "전남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_____(1983), "전남 북서부 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국문학 90.
김규남(1987),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김방한(1964), "국어 모음체계의 변동에 관한 고찰", 동아문화(서울대) 2.
_____(1968), "구조방언학", 어학연구 4.1.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김수곤(1976), Palatalization in Korean, 광문사.
_____(1978), "현대국어의 움라우트 현상", 국어학 6.
김영기(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김영송(1977), "경남방언의 음운", 한글 169.
김완진(1970),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 10.
_____(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_____(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이른바 장모음의 경우—", 동아문화(서울대) 11.

______(1973),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총서 11.
______(1975a), "전라도 방언 음운론의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어학 2, 전북대 어학연구소.
______(1975b),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3.
______(1978), "모음체계와 모음조화에 대한 반성", 어학연구 14-2.
김이현(1981),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정우(1984), "국어 음운론의 경계문제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59.
김진우(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어학연구 9-2.
김차균(1976),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______(1983), 음운론의 원리, 창학사.
김충회(1983), "충청북도의 방언구획 시론", 방언 7.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남광우(1974), "원순모음화 현상에 관한 연구", 국어학 2.
______(1975), 국어학 논문집, 일조각.
도수희(1964), "모음조화 연구", 어문연구 4, 충남대.
______(1977),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______(1981), "충남방언의 움라우트 현상", 방언 5.
______(1983), "한국어음운사에 있어서 부음 y에 대하여", 한글 179.
박광호(1983), "서산지역어의 형태론적 연구", 동악어문론집 17, 동국대.
박종희(1985), "모음조화의 붕괴 요인에 대하여", 자오당 김형기선생 8순 기념 국어학 논총.
박창원(1983), "고성지역어의 모음사에 대하여", 국어연구 54.
서상준(1984), "전라남도의 방언분화", 어학교육 15, 전남대 어학연구소.
서정목(1981), "경남 진해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에 관하여", 방언 5.
소강춘(1983), "남원지역어의 운음론적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______(1984), "음운경계의 위계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23.
______(1988a), "전북방언의 모음조화 현상에 의한 공시적 언어분화에 대하

여", 국어국문학 99.
_____(1988b), "움라우트 현상에 의한 전북방언의 공시적 분화상에 대하여", 어학 15, 전북대 어학연구소.
유구상(1970), "병천지역어의 형태론적 연구", 어문론집 12, 고려대.
유재원(1985), "현대국어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 189.
이광호(1977), "i 모음화의 음운론적 해석", 어문학 36.
_____(1978), "경남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국어학 6.
이근규(1986), 중세국어 모음조화의 연구, 창학사.
이기갑(1986),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탑출판사.
이기동(1983), "임실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23.
이기문(1968), "모음조화와 모음체계", 이숭녕 박사 송수기념논총.
_____(1971), "모음조화의 이론", 어학연구 7-1.
_____(1972a),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_____(1972b), 국어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총서 13.
_____(1977), "제주도방언의 'ㆍ'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국문학론총(이숭녕 선생 고희기념).
_____(1979), "중세국어 모음론의 현상과 과제", 동양학 9.
이돈주(1969), "전남방언에 대한 고찰—특히 도서지방의 방언연구를 위하여", 어문학논집 5, 전남대.
_____(1978), 전남방언, 형설출판사.
_____(1979), "서남방언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이병건(1976),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이병근(1969), "황간지역어의 음운", 논문집(서울대 교양과정부) 1.
_____(1970a),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Studies in a Kyonggi Subdialect," 국어연구 20.
_____(1970b), "경기지역어의 모음체계와 비원순모음화", 동아문화(서울대) 9.
_____(1970c), "19세기 후기 국어의 모음체계",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

9.

_____(1971), "운봉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김형규박사 송수기념논총, 일조각.

_____(1973), "동해안방언의 이중모음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_____(1975),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국어학 3.

_____(1976a), "파생어 형성과 i역행동화 규칙들", 진단학보 42.

_____(1976b),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국어학 연구선서 8, 탑출판사.

_____(1976c), "19세기 국어의 모음체계와 모음조화", 국어국문학 72.

_____(1977), "자음동화의 제약과 방향", 이숭녕선생 고희기념 국어국문학논총, 탑출판사.

_____(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_____(1979),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국어학연구선서 8.

_____(1982), "연구의 방법과 이론—음운론—", 제25회 전국국어국문학연구발표대회초록.

이상규, 서보월, 백두현 역(1986), 방언학개설, 경북인쇄소.

이승재(1977), "남부방언의 원순모음화와 모음체계", 관악어문연구 2, 서울대 국문과.

_____(1980), "구례지역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_____(1982),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하여—구례 지역어의 경우", 백영 정병욱선생 회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1983), "재구와 방언분화—어중 '-ㅅ'류 단어를 중심으로", 국어학 12.

_____(1987), "전북방언의 연구와 특징에 대하여", 국어생활 8, 국어연구소.

이익섭(1970), "전라북도 동북부지역의 언어분화", 어학연구 6-1.

_____(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진단학보 33.

_____(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_____(1980), "방언에서의 의미분화", 방언 3.

_____(1981), 영동·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 언어지리학, 서울대출판부.

_____(1984), 방언학, 민음사.

전광현(1976), "남원지역어의 어말-U형 어휘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고찰-이중모음의 사적변화와 관련하여", 국어학 4.

_____(1977a), "남원지역어의 기초어휘 조사연구", 야천 김교선선생 정년논문집.

_____(1977b), "전북 익산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어학 4, 전북대 어학연구소.

_____(1979), "경남 함양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단국대) 9.

_____(1981), "전라북도 옥구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논집 10, 단국대.

_____(1983), "영동·무주 접촉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13.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정인승(1937), "'ǐ'의 역행동화문제, 그 원리와 처리방법", 한글 5-1.

주상대(1985), "활음삭제 현상에 대하여", 소당 천시권박사 회갑기념 국어학논총.

최명옥(1976), "서남 경남방언의 부사화접사 '-아'의 음운현상", 국어학 4.

_____(1980), 경북 동해안방언 연구-영덕군 영해면을 중심으로, 영남대 출판부.

_____(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최전승(1979), "국어의 i-umlaut현상의 통시적 고찰", 국어문학 19, 전북대 국문과.

_____(1982), "비어두음절모음의 방언적분화 -u~i와 접미사 i의 기능-", 백영 정병욱선생 회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_____(1983), "표면음성제약과 음성변화-어간말 이중모음 'ʌy'의 통시적 발달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44·45.

_____(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_____(1988), "통시적 음성변화의 공시적 변이와 예외의 성격", 선청어문 16 · 17.

최태영(1978), "전주방언의 Umlaut현상", 어학 5, 전북대 어학연구소.

_____(1979), "전주방언의 이중모음", 국어문학 19, 전북대 국문과.

_____(1981), 전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_____(1984), "풍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숭실어문 1, 숭전대.

_____(1985), "진도지역의 움라우트 현상", 숭실어문 2, 숭전대.

_____(1986), "괴산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숭실어문 3, 숭전대.

최학근(1962), 전라남도방언 연구, 한국연구원.

_____(1978), 한국방언사전, 현문사.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한국방언자료집(1987), 충청북도편 Ⅲ, (곽충구조사).

한국방언자료집(1987), 전라북도편 Ⅴ, (이승재조사).

한영균(1980), "완주지역어의 움라우트 현상", 관악어문연구 6, 서울대 국문과.

_____역(1982), "방언 하위 분류의 새 방법." 방언 6.

허 웅(1973), 국어음운학, 정음사.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 연구(제 1 집 자료편), 정연사.

_____(1985), 제주도 방언연구 자료편, 태학사.

홍윤표(1985), "구개음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 진단학보 60.

小倉進平(1924), 남부조선의 방언, 조선사학회.

_____(1929), 향가와 이두의 연구, 경성제국대학.

_____(1940), "The Outline of Korean Dialects", Memoris of Research Department of the Toyo Bunko, Tokyo.

_____(1944), 조선어방언의 연구(상 · 하), 암파서점.

河野六郎(1945), 조선방언학시고, 하야육랑저작집(1979), 평민사.

Anderson, H. (1972), "Dipthongization," *Language* 48.

_____(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Seminar press.

Anttila, R.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

guistic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S.

Back, E. (1968), "Two Proposals Concerning the Simplicity Metric in Phonology," *Glossa* 2-2.

Bailey, C. (1972), "The Integration of Linguistic Theory: Internal Reconstruction and the Comparative Method", In: R.P. Stockwell and R.S. MaCauley(eds.), *Linguistic Change and Generative Theory*. Bllomington: Univ. of Indiana Press.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Bynon, T. (1977), *Historical Linguistics*, Lodon: Cambridge Univ. Press.

Campbell, L. (1974), "Phonological Features: Problem and Proposals," *Language* 50 : 52~65.

Chambers, J.K. and P. Trudgill(1980), *Dialectology*, London: Cambridge Univ. Press.

Chen, M.Y. and S-Y.W. Wang(1975), "Sound Change: Actution and Implementation," *Language* 51.

Cheun, S-B. (1978), "#-Deletion as a Phonological Rule,"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Kim Chin-W.

Chomsky, N. and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per and Row.

Clements, G.N. (1977), "The Autosegmental Treatment of Vowel Harmony." In W.U. Dressler and O.E. Pfeiffer(eds.), *Phonologica* 1976. Innsbruck: Institute für Sprach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Innsbruck, 111~9.

_____(1980), "Vowel Harmony in Nonlinear Generative Phonology: An Autosegmental Model". I.U.L.C.

_____(1981), "Akan Vowel Harmony: a Non-linear Analysis." In: G.N. Clements(ed.), *Harvard Studies in Phonology*, Vol. Ⅱ, 108~177.

Crystal, D. (1982), *Linguistic Controversies.* Lodon: Edward Arnold.

Davis, L.M. (1983), *English Dialectology: An Introduction*,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Foley, J. (1973), "Phonological Distinctive Features." *Folia Linguistica* 4 : 87~92.

Francis, W.N. (1983), *Dialectology: An Intoduction*, London: Longman.

Goldsmith, J.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I.U.L.C.

Hankamer, J. and A. Aissen (1974), "The Sonority Hierarchy," In T. Bruck et al. (eds.)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LS.

Harold, B.A. and M.D. Linn(eds.)(1986), *Dialect and Language Vari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Hausmann, R.B. (1975), "Underlying Representations," *Lingua* 35 : 61~71.

Hock, H.H. (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Hockett, C.F. (1958), *A Course in Mordern Linguistic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Hooper, J.B. (1976), *An Intror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Hyman, L.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______(1978), "Word Dermarcation."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 2, ed. by Joseph M. Greeberg,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Jakobson, R. and G. Fant and M. Halle (1952) *Preliminaries to Speech Analysis*, Cambridge: the M.I.T. Press.

Jakobson, R. and M. Halle (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The Ha-

gue: Mouton.

John, M.K., Stewart, S. and J.D.A. Widdowson (1985), *Studies in Linguistic Geography*, Lodon: Croom Helm Ltd.

Kim, C-W. (1968), "The Vowel System of Korean." *Language* 44.

_____(1970),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Papers in Linguistics* 2.

_____(1973), "Gravity in Korean Phonology," *Language Research* 9-2.

_____(1978), ""Diagonal" Vowel Harmony, some Implications for Historical Phonology", 국어학 7.

Kim-Renaud, Y-K. (1974),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Seoul: Tower Press.

_____(1975), "On h-Deletion in Korean." *Kugeohak* 3.

_____(1982), "i-Deletion in Korean," i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ed. by the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King, R.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Kiparsky, P. (1968), "How Abstract is Phonology?" I.U.L.C.

_____(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P. Kiparsky(1982).

_____(1981), "Remarks on the Metrical Structure of the Syllable." In: W. Dressler(ed.), *Phonologica* 1980.

_____(1983), "The Lexical Phonology of Vedic Accent." In: *Phonology and Morphology*, Vol. Ⅰ, (1984), ed. by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Seoul: Hanshin.

Labov, W. (1972), *Language in the Inner City*.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Langacker, R.W. (1969), "Mirror Image Rules II: Lexicon and Phonology," *Language* 45, 844~62.

Lee, C-M. (1972),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visited." *Papers in Linguistics*, 5.

Lee, S-O. (1986), "An Overview of Issues in the Vowel System and Vowel Harmony of Korean", *Language Research* 20-4.

Liles, B.L. (1975),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New Jersey: Englewood Cliffs.

McCarthy, J. (1984), "Theoretical Consequences of Montañes Vowel Harmony." L.I. 16-3.

Moulton, W.G. (1960), "The Short Vowel System of Northern Switzerland," *Word* 16 : 155~82.

_____(1968), "Sturctural Dialectology," *Language* 44-3

O'Neil, W. (1968), "Transfomational Dialectology: Phonology and Syntax." In: L.E. Schmitt(ed.), Verhandlungen des Zweiten Internazionalen Dialectologen-Kongresses, Marburg/Lahn, 5—10, September 1965. Vol. 2. Weisbaden: Steiner, 629~38.

Petyt, K.H. (1980), *The Study of Dialectology-An Introduction to Dialectology*, London: Andre Deutch.

Ramsey, S.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국어학총서 9, 국어학회, 탑출판사.

Ramstedt, G.J. (1939), *A Korean Grammar*, Helsinki.

Saporta, S. (1965), "Ordered Rules, Dialect Differences, and Historical Process," *Language* 41.

Saussure, F. (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Trans. by W. Baski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Schane, S.A. (1973a), *Generative Phonology*, N.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_____(1973b), "[Back] and [Round],"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eds. by Anderson, S. and P. Kiparsk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Shibatani, M. (1973), "The Role of Surface Phonetic Constraints in Generative Phonology," *Language* 49 : 87~106.

Sohn, H. (1978), "Tensification in Compound Boundaries in Korea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Kim, Chin-W. Columbia: Hornbean Press Inc.

Stanley, R. (1967), "Redundancy Rule in Phonology." *Language* 43 : 393~436.

_____(1973), "Boundaries in Phonology,"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eds. by Anderson, S. and P. Kiparsky, New York: Holt, Rinrhart and Winston, Inc.

Trubetzkoy, N.S. (1969), *Principles of Phonology*, Trans. by C. Baltaxe, Berkoly and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Press.

Trudgill, P. (1986), *Dialects in Contact*. New York: Basil Blackwell.

Ultan, R. (1973), "Some Reflections on Vowel Harmony." Stanford University Working Papers on Language Universals 12.

Vago, R. (1976), "Teoretical Implication of Hungarian Vowel Harmony," L.I. 7.

_____(1978), "On the Hierarchy of Boundaries", B.L.S. 4.

Weinreich, U. (1954), "Is Structural Dialectology Possible," *Word* 10.

_____(1974), *Language in Contact*, Hague: Mouton.

Zwick, M.A. (1973), "Note on a Phonological Hierarchy in English." In R.P. Stockwell and R.S. MaCauley(eds.), *Linguistic Change and Generative Theory*. Bllomington: Univ. of Indiana Press.

ABSTRACT

A Phonological Study on the Dialect Differentiation

by So Kang-Chun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synchronic differentiation of Jŏnbuk areal dialects.

Since ths synchronic differnetiation of language reflects diachronic change of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 fold: establishing morpheme structure constraint on the basis of defining the underlying form of each morpheme; establishing phonological rule through phonological phenomena occurred in the process of morpheme connection.

I will rely on the concrete theory in establishing the underlying form, and figure out the areal difference of morpheme structure constraints. In the phonological rule such as 'X→Y/Z—', 1) the aspect of determinant and focus in structural description, 2) the hierarchy of phonological strength of structural change ⟨X, Y⟩, and 3) the relative hierarchy of distinctive features are discuss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dialects. The correlation of motivation between morpheme structure constraints and phonological rules is discussed.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mentiond above, six phonolo-

gical processes are selected and discussed: 1) vowel harmony, 2) the distributional constraints of the dipthongs applicated to the position of the intra-morpheme, and the glide formation rule and glide deletion rule applicated to the position of the morpheme connection, 3) vowel deletion (ɨ, ə, i, u), 4) umlaut, 5) vowel rounding (ɨ>u, ʌ>o, ə>u), and 6) vowel palatalization (ɨ>i).

In chapter II, phoneme inventory and toneme invevtory will be selected under the concideration of minimal pairs, and distinctive features which can describe phonlogical rules simply and adequately will be established.

In chapter III, the areal difference of sub-dialects will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 function of each vowel in vowel harmony. Especially the relative hierarchy about [grave] and [labial] will be concidered.

In chapter IV, dipthongs is defined as a continuation of glide and single vowel. The distribution constraint of dipthongs will be discussed by the phonetically predictable systematic gaps and phonetically unpredictable gaps appeared in the process of connection of glide and single vowel. Then, the areal difference of glide formation rule and glide deletion rule that function in the position of mopheme connection will be discussed. Especially the phonological strength of each vowel is established through the correlation of dipthongs distribution constraints, morpheme structure constraints, and glide formation and deletion rule.

In chapter V, phonological strength of each vowel and relative hierarchy of distinctive features are defined by ɨ-, ə-, i-, u-deletion phenomena which cooperate to avoid hiatus synchronically. And the areal difference of phonlogical strength of each vowel and rel-

ative hierarchy of distinctve features is described.

In chapter VI, morpheme structure constraint is established in intra-morpheme, and umlaut rule is established in the position of morpheme connection. As the former demonstrates the diachronic diffusion process of umlaut, and the letter shows the synchronic aspect of umlaut, we can see the areal difference of dialects, we can also find the opposition of vowels by [grave] feature.

In chapter VII, I will discuss 'ɨ>u', 'ʌ>o', 'ə>u' vowel rounding in intra-morpheme diachronically, and 'ɨ→u' vowel rounding in the position of morpheme connection synchronically, In this process, the validity of [labial] feature establishing is proved. We can find that vowel system of dialects in Jŏnbuk area was different that in central area in the previous era through the survey of 'ɨ>u', 'ʌ>o', 'ə>u' vowel rounding.

In chapter VIII, I assert that a phenomenon called sibilation should be called vowel palatalization, [palatal] feature which controls this phenomenon is highly related with [high] and [grave] features. Especially the validity of [grave] feature establishing is emphasized.

In chapter IX, I come to the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 above and suggest the topics of further study.

찾 아 보 기

인 명

강윤호 6
곽충구 7, 18, 227
권병로 7, 27, 42, 119, 141
기세관 17, 183
김규남 7, 144
김방한 47
김성규 168, 181, 182
김수곤 22
김영기 22, 29, 73, 116, 127, 134
김영송 16
김완진 32, 83, 117, 153, 166, 191, 203
김정우 29
김진우 25, 29, 32, 188, 203
김차균 111, 113, 116, 122, 140, 208
김형규 5
남광우 196
도수희 18, 57, 67, 138, 154, 221
박광호 137
박종희 32
박창원 5
서정목 157
소강춘 5, 7, 17, 18, 23, 29, 48, 52, 58, 82, 116, 137, 140, 157, 160, 161, 186
손 한 29
유구상 137
유재원 115, 116
이근규 35, 50
이기갑 7, 227
이기동 17
이기문 5, 17, 18, 32, 33, 47, 48, 73, 153, 166, 191, 192, 203, 221
이돈주 5, 17, 205
이병건 23, 116
이병근 5, 6, 25, 39, 61, 66, 73, 83, 116, 133, 166, 182, 188, 198, 222
이상규 5
이상억 32
이승재 5, 7, 16, 18, 21, 23, 25, 26, 29, 58, 67, 82, 113, 127, 133, 139, 140, 188, 222
이익섭 5, 7, 116
이정민 29
전광현 7, 17, 18, 66, 160, 161, 167, 183, 191, 195, 197
전상범 29
정승철 73, 195
정인승 188
주상대 73, 78, 83, 84
최명옥 5, 7, 16, 49, 142, 157, 158, 191, 195, 196, 197, 203, 204
최전승 16, 65, 118, 137, 153, 154, 166, 188, 189, 191, 196, 197, 205, 221

최태영 5, 7, 16, 17, 18, 22, 65, 66, 67, 92, 116, 134, 137, 158, 160, 167, 182, 191, 200, 205
최학근 5
최현배 203
허 웅 115, 191
현평효 5
홍윤표 197

소창진평 5, 17, 18
하야육랑 5

Anttila 153
Back 136
Bailey 6
Bloomfield 225
Chambers and Trudgill 9
Chomsky and Halle 23
Clements 47
Foley 140, 191
Francis 6
Goldsmith 27
Hankamer and Aissen 25, 140
Hausmann 2, 6, 203
Hock, H.H. 153
Hyman 20, 23, 25, 29
Jakobson Et Al. 25
Jakobson and Halle 25
Kiparsky 2, 47
Labov 3, 9, 130
Langacker 136
Liles 55
McCarthy 47
Moulton 5, 55
O'Neil 6
Ramstedt 189, 196
Saussure 20
Shane 23, 26
Shibatani 2, 3, 67
Stanley 2, 25, 29, 56
Trubezkoy 29
Ultan 31
Vago 20
Weinreich 5
Zwick 140, 222

어휘 및 지도

ㄱ

가고 21
가기 181
가깝은 (지도 69 : 210), 206
가꾸어 102
가두어 (지도 5 : 41, 지도 32 : 103), 99, 103
가두었다 37
가랑비 186
가렵다 (지도 10 : 63), 60, 62, 63
가르키어 79
가르치었다 (지도 21 : 87), 166

가마니 21
가물다 193
가물어서 42
가볍다 167
가서 139
가시 159
가을 (지도 76 : 225), 224, 225
가을한다 224
가지 159
간(去)다 21
갇히어 49, 79
갇히었다 (지도 21 : 87), 45
갈(耕)다 19, 21
갈(耕)으니까 19
감기 156
감기다 176
감으면 (지도 67 : 207), 206
갑자기 (지도 62 : 184), 183
값이 170
강경 161
개서 139
개이냐 145
갸롬하다 60
거기에／거기에서／거기가 128
거두어서 42
거들어 37
거미 160, 193, 197
거스름돈 223
걷어 21
걷으냐 125
걸(懸)으니까 19
걸(懸)으면／걸으냐 119／걸으나마나／
걸으니까 120
걸어 21
걸읍시다／걸으시오 121
겨 19, 60
겨드랑 60
겨울 225
겹옷 60
고구마 대 20
고기 (지도 46 : 158), 155
(엿을) 고아 (지도 27 : 95), 92
고았다 34
고약 56
고양이 (지도 44 : 156), 155
고욤 159, 188
고이다 167
고쳤다 163
고파서 146
고프다 200
고프어서 99
곤다 19
골다 19
곪기다 (지도 60 : 180), 179
곪았다 34
곰곰이 (지도 62 : 184), 184
곱다 18
과부 (지도 13 : 69), 20, 68
광이 (지도 52 : 171), 170
광주리 (지도 13 : 69), 68
괭이 (지도 13 : 69), 68
괴아서 92
괸다 19
교통이 161
구경 65
구덩이 21
구렁이 21
구멍 60
구어 37
국이 (지도 55 : 174), 170

굶기다 179
굽다 18
굽으면 (지도 67 : 207), 206
굽히다 (지도 59 : 178), 176
권련 60
권투 (지도 13 : 69), 68
궤 (지도 14 : 70), 68
귀 18, 19
그 19
그 아이 128
그리라 165
그림 159
그믐 194
그을려서 223
그이면 145
글 21
긁어라 37
긁어서 37
긁히어서 (지도 23 : 90), 45, 80
금(線) 225
긋으니까 226
기(旗) 18, 21
기고 21
기르다 214
기쁘어서 134
기어 (지도 17 : 76), 72, 78, 85
기어서 141
기으면 117
김치이면 145
깊은데 206
까고 21
까마귀여 20
깍두기 181
깎이다 176
깜부기 (지도 47 : 159), 20, 155, 158
깠다 18
깨 (지도 13 : 69), 68
깨우어서 42
깬다 21
깼다 18
꺼멓다 17
꺾이다 (지도 57 : 177), 176
꼬아 92, 97
꼬아서 34
꼬이어 50
꼴 21
꼽아라 34
꽂아라 34
꽂을 226
꾀아서 34
꾸어 92, 97, 98
(꿈을) 꾸으니까 117
꿀 18
꿈이었는가 81, 82
꿩 (지도 13 : 69), 68
뀌다 180
뀌어 37
뀌지 180
끄어 134
끊어서 37
끝 18, 21
(반지를) 끼어라/끼었다 (지도 16 : 74), 44, 72, 75, 84
(안개가) 끼었다 (지도 16 : 74), 72, 75, 84
(진딧물이) 끼어서/끼었다 (지도 16 : 74), 44, 72, 75
끼우어 100

ㄴ

나누어 (지도 32 : 103), 37, 99
나비 (지도 49-a : 162), 20, 160, 193
나흗날 (지도 38-b : 127), 126
나흘 (지도 38-a : 126), 126
남원 66
낫아서 33
냄새 21
너가 128
너지 (지도 39-b : 129), 130
너의 것 130
너희들 (지도 40-b : 131)
너희 아버지 128
넉넉히 (지도 62 : 184), 184
널(板) 16
널고 21
넓은 206
네리어라 (지도 24 : 91), 80
네! 57
노리다 (지도 58 : 177)
노랗다 28
녹으니까 (지도 73 : 215), 214
녹후어서 42
녹히다 (지도 74 : 216), 214
놀으냐 222
높은데 206
높이 180
높히어라 (지도 22 : 89), 80
놓아서 141
누더기 181
누비다 (지도 50 : 164), 163
누어 (지도 28 : 96), 37, 92
누이다 167
누인다 188
눈(雪) 28
눈(眼) 28
눌은 214
느리라 166
늙어서 37

ㄷ

다드미 221
다듬으면 (지도 68 : 207), 206, 208
다르다 21
다르어 (지도 42 : 135), 99, 134
다리다 (지도 51 : 165), 163
다리미 (지도 48 : 161), 20, 159
다음 126, 175
다음이 (지도 56-b : 175), 170
다쳐서 163
다치었다 (지도 20 : 86), 79
닦아라 33
닮아 33
담 21
담그어서 (지도 6 : 44), 214
담양 161
담요 56
당기다 (지도 50 : 164), 163
당기라 (지도 23 : 90), 80
대 19, 21
더럽다 28
더럽으니까 206
더럽혀 (지도 22 : 89)
더워 43
덜고 21
덜다 21
덥온 206

덮을 226
도끼 158
도련님 (지도 10 : 63), 60, 62, 63, 160
도리다 (지도 51 : 165), 163
도와서 34
돈벌이 181
돕으니까 206
동풍이 (지도 55 : 174), 170
돼지 (지도 15 : 70), 68
되 18, 19
되고 18
되는/되를/되로 118, 137
되아라 34
(말을) 되아서 92
되어 (지도 30 : 97), 97
두꺼비 (지도 45 : 157), 155
두껍은 206
두드리다 166, 167
두루마기 181
두부 20
두어 92
두어(2~3) 225
뒤 18
뒤고 18
뒤다 180
뒤어 97
뒤지 180
뒤지어서 (지도 20 : 86), 79
뒤집어 45
드리라 165
드묻다 (지도 63 : 194), 193
드시어서 (지도 20 : 86)
듣기다 179
듣기싫다 182, 221
듣으냐 125
들(擧)으면/들으냐 119/들으나마나/
들으니까 (지도 37-a : 123), 120
들어라 37
들으냐 121
들으니까 121
들으면 121
들읍시다/들으시오 121
디디다 166
따르다 21
따르어(逢) (지도 6 : 44), 37, 134
따르어라(注) (지도 41 : 135), 134
때(時) 18, 21
때우다 21
떡이 (지도 52 : 171), 170
떫은 (지도 70 : 211), 206
떼(群) 18, 21
(흙을) 떼어서 139
떼었다 (지도 4-a : 40), 37
똑똑히 (지도 62 : 184), 184
뛰어 37
뜨껴 221
뜨끼 221
뜨어 134
뜸부기 181
띄우어 (지도 35 : 106), 100, 106

ㅁ

마디 (지도 48 : 161), 160, 200
마르었다 (지도 6 : 44), 37, 134
마른 199
마셔라 163
마시어라 (지도 20 : 86), 79
마을 200, 225
마을간다 224

마음 126, 175, 225
마음이 (지도 56-b : 175), 170
막히다 216
막히었다 38
만들어라 37
만들어서 42
많다 28
말(馬)은／말을／말으로 119
말(馬, 斗) 28, 199
말(言) 28
말로 121
말려라 193
말리다 167
말리다(沮止) 200
말리어라 45
맑아 (지도 65 : 199), 33
맞추어 (지도 32 : 103), 99
맡아서 33
매달아 33
맺아라 34
먹다 204, 205
먹으면 (지도 73 : 215), 214
먹이 180
먹이다 15, 176
먹이어라 (지도 23 : 90), 80
먹이어서 141
먹히다 176
먼저 (지도 66 : 205), 204
먼지 204
메고 20
메었다(負) (지도 4-a : 40), 37
메었다(塞) (지도 4-b : 40), 37
메우어 (지도 35 : 106), 100
며느리 60
멸치 (지도 10 : 63), 60, 62
모기 (지도 49-a : 162), 160
모르다 (지도 72 : 215), 214
모르어서 134
모셔라 163
모이 160
모퉁이 21
몸 21
몸이 (지도 54 : 173), 170
묘 60, 62
무거워 43
무서워서 37
무섭으니까 (지도 69 : 210), 206
무슨일이여 66
묵히다 (지도 59 : 178, 지도 74 : 216), 176, 178, 214
묶어라 37
묶이었다 (지도 23 : 90), 80
물 193
물어 37
물어서 21
물으면 214
미닫이 181
미루어서 42
미우어 106
미투리 159

ㅂ

바구니 159
바꾸어 (지도 32 : 103), 37, 99, 100, 107
바람 200
바쁘어서 134
바수어서 200
발(丈) 200
밝아 33

밝아서 (지도 65 : 199), 193
밞아서 (지도 65 : 199), 193
밞히다 179
밤(栗) 28
밤(夜) 28
밥을 206
밥이 (지도 52 : 171), 169
방이 (지도 52 : 171), 169
밭에 227
밭으로 222
배다(濕) 19
배었다(殆) 18
배우어 (지도 5 : 41, 지도 36 : 107), 100, 106
배우어서 37
뱉았다 34
버렸다 (지도 24 : 91), 80
버리다 (지도 51 : 165), 163
버물려서 42
버선 (지도 66 : 205), 204
벌(蜂) 28
벌(罪) 28
벌(襲) 200
벗기 181
벗기다 179
벗기어라 (지도 23 : 90), 80
벗어라 36
베 21
베니까(斬) 18
베었다(斬) 18
벼룩 60
벼린다 60
벼슬 (지도 10 : 63), 60, 223
벽 (지도 10 : 63), 60
별 (지도 10 : 63), 62
보기 좋다 183
보기싫다 182
보리 (지도 66 : 205), 204
보습 223
보아도 94
보아라 (지도 31 : 101), 90, 102
보았다 35
보이고 188
복이 (지도 54 : 173), 170
본 본다 204
본 받아라 33
본보기 (지도 66 : 205), 181
볼 18
봄 21
뵈다(滿) 19
부끄러워서 37
부드럽으니까 206
부리다 21
부수어 99, 103
부수어서 37
부엌 225
부풀어서 42
불 18, 193
불리다 (지도 75 : 217), 214
불리어 45, 49
불리어서 21
붓어 37
비 21
비고 21
비니까(空) 18
비다 193
비슷해서 223
빗을/빗으로 226
빨(洗)으면/빨으냐 119/빨으나마나/빨으니까 (지도 37-c : 124), 120

빨갛다 17, 28
빨다 21
빨리 200
빨읍시다/빨으시오 121
뼈 21, 60, 62
뼘 62
뽑히다 (지도 58 : 177), 176
뿌리 21
뿌리다 21
뿌리어서 141
뿔 21
삐어서 (지도 18-c : 77), 72, 78

ㅅ

사고 21
사납은 206
사이 118, 225
사흗날 (지도 38-b : 127), 124
사흘 (지도 28-a : 126), 126
삯이 170
산토끼 (지도 46 : 158), 158
살(肉) 19, 21
살(生)으면/살으냐 119/살으나마나/
살으니까 (지도 37-b : 124), 120
살고 121
살세 121
살읍시다/살으시오 121
삽으로 206
서다 19
서말 16
서서 19, 139
섣달 224
섣달 그믐 194
섣겆이 181
섬(島) 224
섬(島)이 (지도 53 : 173), 170
섬(石)이 (지도 53 : 173), 170
섬기다 163, 176
성(姓) 224
성(姓)이 (지도 53 : 173), 170
성냥 224
세서 19
셋이 19
소 19
소낙비 (지도 44 : 156), 155, 186
소이면 145
소이어 82
속이 (지도 54 : 173), 179
속이다 (지도 58 : 177), 176
손 21
손잡이 180
솔(松) 19, 21
솜이불 186
솥에 227
솥을/솥으로 226, 119
쇠(鐵) 19
(나물이) 쇠아서 92
쇠(鐵)이니 19
쇠스랑 223
숨기어 45
숯을 226
쉬(蠅)이면 145
쉬다 19
쉬어 37
스물 (지도 63 : 174), 193, 195, 223
슬퍼서 146
슬프다 200
슬프어서 99, 134
시어서 72, 141

신기어 (지도 23 : 90), 80
실리었다 (지도 25 : 91), 80
십원 66
싸고 21
싸매라 34
싸면(積) 28
싸면(包) 28
싸우어 (지도 34 : 105), 100, 105
쌀 21
쏘아 (지도 26 : 95), 92
쏘아서 141
쏘았다 34, 35
쐐기 68, 71
쐬았다 34
쐬여 (지도 30 : 97)
쑤어 (지도 26 : 95), 90
쑤어서 141
(죽을) 쑨다 18
쓰레기 223
쓴다 18
씀바귀 223
씌우어 (지도 33 : 104), 100, 105
씌운다 223
씻기어 (지도 23 : 90), 80
씻어라 44

ㅇ

아니다 21
아름다워서 33
아비 155
아우 225
아이 159, 188
아파서 146
아프다 200
아프어서 99
안기다 (지도 50 : 164), 163
앉으세요 226
앉히다 179
앉히어라 (지도 21 : 87), 79
알(知)으면 119／알으냐／알으나마나／알으니까 120
알리었다 (지도 25 : 91), 80
알아라 33
앞으로 206
양념 56
어듭어서 42
어렵다 167
어미 155
-언／넌 118
언니 159
-얼／럴 118
얼리다 (지도 75 : 217), 214
얼었다 36
업히다 (지도 58 : 177), 176
없다 16
없으니까 226
여기는 138
여기에／여기에서／여기가 128, 138
여닫이 181
여든 56
여물 56
여자 56
여치 (지도 9-a : 58), 56, 57
영감 (지도 9-a : 58), 56, 57
옆으로 206
예쁘다 28
예순 57
예의 57
오광이 (지도 52 : 117), 170

오기 181
오빠 20
오아 92, 94
오양간 188
오이 159, 188
올챙이 155
옮기다 179
옮기어라 (지도 23 : 90), 80
옮았다 34
왕 65
왕이 (지도 52 : 171), 169
왜간장 65
왜그런가 65
외양간 159
요 225
요즈음 225
용 56
용이 (지도 9-b : 59, 지도 54 : 173), 170
우기다 (지도 50 : 164), 163, 176
원망 65
월요일 65
웬일 65
위 (지도 12 : 66), 66
유리 57
윷놀이 56
-으냐 116
-으니 116
-으니까 (지도 37 : 123), 116
-으로/로 117
으름 19
-으면 116
-은/는 (지도 71 : 213), 117
-을/를 (지도 71 : 213), 117
-읍니다 116
읊어라 37
의복이 (지도 54 : 173), 170
이름 19
이름이 (지도 56-b : 175), 170
이리로 133
이슬비 223
이야기 (지도 44 : 156), 57, 155
이어라 (지도 19 : 81), 80
일어서기 181
잇어서 44

ㅈ

자(尺) 18
자르어 37, 134
작으니까 117
잠그어라 37
잠그어서 214
자기들 (지도 40-a : 131)
잡년 60
잡으면 (지도 67 : 207), 206
잡히다 176
잡히었다 (지도 22 : 89), 80
장끼 (지도 44 : 156), 155
장사 21
장이 (지도 52 : 171), 169
재(嶺) 18
재우어 (지도 34 : 105), 37, 100, 105
재우었다 45
쟁기 155
저 19
저가 128
저기는 138
저기에/저기에서/저기가 128, 138
저녁에 20

저리다 (지도 51 : 165), 163
저리로 133
저물다 193
저의 (지도 39-a : 129)
저의 것 128
저희 아버지 128
적(煎) 21
절다 21
젊어서 37
젊은 206
접히다 (지도 57 : 177), 176
젓어라 36
정(연장) 21
정강이 155
젖을 226
제 19
제비 15
족 21
졸리다 167
종이 158
종이이면 145
죄 19
주어 (지도 26 : 95), 90
주어서 21, 141
줄(연장) 28
줄(絃) 28
줄넘기 181
중이 (지도 55 : 174), 170
지면(負) 28
지면(作) 28
(집을) 지어서 72
지키어서 141
집을 206
(집을) 짓 225
짊을 206
짜(織)고 21
짧은 206
쩔다 21
쪽 21
쫓았다 34
쫓으니까 226
쪄었다(肥) 72

ㅊ

차(滿)고 21
참기름 186
참빗 186
창사 21
책은／책을／책으로 118, 137
처음 225
쳐다보아라 99, 102
(공을) 쳤다 72
촉 21
추기다 163
추다 180
추리다 (지도 51 : 165), 163
추면(舞) 28
추면(寒) 28
추어 (지도 26 : 95), 37, 43, 90
추어서 21
추지 180
(춤을) 추으냐 117
축이다 (지도 50 : 164, 지도 59 : 178), 176
축축히 (지도 62 : 184), 184
춥으니까 206
치우어 (지도 33 : 104), 100, 104

ㅋ

칼 21
캔다 21
크어 134
키 21
키고 21

ㅌ

탈 19
탑 21
태운다 21
턱이 (지도 52 : 171), 170
털 18, 19
털다 18, 21
테 18
테 21
토끼 (지도 46 : 158), 155
특별히 221
틀 18
틀다 18
틈이 (지도 56-a : 175), 170
티 18

ㅍ

파리 (지도 64 : 198), 193, 198
팔 (지도 64 : 198), 193, 198
팔다 21, 199
팥 (지도 64 : 198), 193, 198, 200
팥을/팥으로 119, 226
펴라 72
(이불을) 펴라 (지도 18-b : 77), 78
포기 182
포대기 (지도 66 : 205), 204
표 60, 62
표고버섯 62
표준어 62
푸다 200
푸어라 90, 146
풀(草) 21, 193
풀리었다 (지도 25 : 91), 80
피 21
피고 21
피다 193
(꽃이) 피어서 (지도 18-a : 76), 72, 78, 141
피었다 44, 49

ㅎ

학교 161
할퀴어 100, 107
핥아 33
허리 159
혀 60
형 60, 62, 63
호미 (지도 49-b : 162), 160, 193, 197
호아라 (지도 26 : 96), 34, 92
호았다 35
화로 68, 69
확 68, 69
환갑 69
횃대 68
효자 60, 62
훌륭하다 24, 60
훑어라 24
훔쳐서 163

훙 60
흐르어서 134
흐리라 166
흐미하다 221
흙이 (지도56-b : 175), 170
흠이 (지도 56-a : 175), 170
흩틀어 37
희한하다 24
흰자 24
힙으로 206

용 어

ㄱ

k-계 구개음화 규칙 143
k-구개음화 61
간결성 10, 182
간접적인 질문 방법 229
강모음 139
강세 27
강위치 148
강자음 149
강조의 기능 27
개방성 115
개별 면담 229
개별언어학적 제약 189
개별언어학적 현상 139
개신 232
개재자음 159, 160, 164, 166, 167, 169, 179, 185, 187, 195
격식적인 발화 99, 128, 130, 133
격식적인 발화 자료 229
격음 208
격음화 24
격조사 226
경계 28
경계설정 17, 18
경구개음 20, 58, 73, 74, 144, 221
경구개음화 74
경남방언 16
경북방언 73
경상규약 136
경제성 6, 201, 202
경제적인 현상 132
계기적 요소 55
계기적인 조음 61, 62
계량적 방법 185
계발심자경 225
계사 145, 185, 188
계합 관계 139, 201
계합적인 현상 138
고대고지독일어 188
고대국어 1
고모음 92, 113, 150
고모음화 78, 172
고모음화 규칙 224
고설 움라우트 153
고설모음 25, 26, 140, 21[illegible], 230
고창지역어 17
공간적 분화상 1
공모 100, 202

공시태 201
공전 121, 209
과거시제 보조어간 84
교체 167, 171, 182
교체 양상 66, 100
교체형 17, 67, 75, 88, 100, 104, 192, 195, 196
구 경계 29
구강 20
구개모음화 187, 191, 195, 221, 222, 223, 226, 227, 230, 232
구개음 17, 18, 63, 72, 85, 167
구개음화 규칙 58, 59, 61, 62, 73, 75, 84, 85, 143
구개자음 61, 62
구례지역어 17
구별자질 226
구어자료 229
구조기술 4, 79, 85, 109, 122, 136
구조변화 8, 13, 144, 145, 187, 192, 218, 228
구조주의 언어학 5
구체적 7, 16
국어사 191
권념요록 225
규칙 순서 4, 79, 99, 121, 143, 149, 172, 227
규칙 적용 순서 3, 79, 120, 195
규칙의 도입 195
규칙의 삽입 224
근대국어 1, 17, 195, 196
급여 순서 83
기저 어휘 단위 6
기저 층위 179
기저음운 22, 23
기저음운목록 15
기저형 2, 3, 16, 65, 108, 117, 118, 120, 137, 179, 185, 196, 203
긴장성 22

ㄴ

/n, l/의 구개음 62
남부방언 195, 197, 203
남원지역어 78, 214
내부 단어 경계 29
내재적인 특징 71
내적 재구형 7
내파음 20
노년층 118, 119
노년층 화자 137, 229
느린 발화 94

ㄷ

't→r' 규칙 125
ㄷ-불규칙 용언 125
다음절 어간 202
단독형 97, 128, 129
단모음 18, 23, 55, 60, 86, 94, 172
단모음화 17
단모음화 규칙 65, 84
단어 128
단음절 99, 102, 141
단음절 어간 73, 73, 83, 85, 206
단일형태소 194
단일형태소 내부 82, 179
대립 관계 222
대립짝 187, 218, 227
대응체계 187, 230

w-계 상향 이중모음 65, 67, 68, 71
w-형성 90, 93
도구격 117, 119, 212, 226
도시방언학 3
도출과정 6, 38, 61, 83, 86, 103, 106, 120, 139, 146, 149, 172, 195, 201, 209
독립 변인 8
동기화 4, 25, 92, 133, 144, 147, 150, 187, 191, 209
동남방언 16, 53, 71, 119, 127, 141, 142, 157, 203, 213
동명사형 접사 182
동사 어간 경계 29
동일성의 가설 6
동화 191
동화자질 187, 222, 230
동화주 3, 4, 154, 170, 181, 192, 196, 221, 222
동화현상 3, 109, 187, 195, 197, 208, 218, 222, 230
등어선 53, 63, 69, 71, 231, 232
등어선 속 5
등어지대 233, 234

ㄹ

'ㄹ'의 기저형 설정문제 22

ㅁ

minor rule 82, 218
마찰음화 110, 231
만주어 189
매개모음 116
명사 어간 경계 29
명사파생 164, 181
명사파생 접사 185
모음 222
모음 상승 16, 105
모음 상승 규칙 16, 24, 192
모음 상승 현상 172
모음 탈락 24, 115, 160
모음 하강 규칙 118
모음목록 15
모음사각도 18
모음의 높이 26, 92, 140, 142, 149, 187, 230
모음의 질적인 변화 55
모음조화 31, 103, 134, 192
모음조화 규칙 13, 139, 140, 142
모음조화 현상 2, 13, 230, 231
모음조화에서 /i/의 기능 43
모음조화에서 /i/의 기능 46
모음조화에서 /u/의 기능 41
모음체계 115, 192, 195, 218, 219, 230
모음추이 115, 192
모음충돌 13, 111, 117
모음충돌 현상 115
모음충돌 회피 현상 125, 146, 188
목적격 117, 118, 119, 137, 212, 226
무 경계 29
무성음 20
무제한성 31
무표항 22
무풍지역어 27, 53, 62, 63, 119, 141, 142
문법 형태소 139
문법적인 기능 139
문화적 차용 225

ㅂ

ㅂ-불규칙 용언 209, 210
반모음 23
발화 유형 3, 126, 130, 133, 229
방언구획 5, 7
방언연구 132, 229
방언자료 229
방언지도 233
방언지리학 4
방언학 130
방향격 212
배타적인 분포상 197
범어적인 현상 153, 187
범주화 81, 121
변별적 자질 3, 24, 28, 109, 150, 230
변이음 16, 17, 20, 24
변이형태 117
변인규칙 3
변자음 222
병천지역어 137
보상성 장모음화 39, 73, 78, 83, 84, 86, 98
보편적인 제약 조건 189
복선음운론 27
복수접미사 130
복수체계 5, 53
복합어 186
복합어 경계 29, 186
부동사형 어미 10, 33
breath group 84
부분 중성모음 51
부사파생 접사 183, 185
부사화 접사 137
분절음 구조제약 10, 25
분절적 환경 172
분포 양상 66
분포제약 144
불투명 8, 168
불투명 분절음 31, 32
불투명한 예외 53
비고설모음 219
비동화자질 222
비생산성 171
비성절적 활음 55
비수의성 31
비원순모음 204, 216, 230
비원순모음화 198, 199, 204, 205
비음 200, 208, 222
비음소적 경계표시 29
비음운화 과정 48
비음절화 115
비음절화 과정 3, 83
비음화 208
빠른 발화 127

ㅅ

사동 182
사동·피동 접사 176, 185, 232
사동접사 214, 215
사선적 조화 32
사선적 체계 32
사회계층 8
삭제 현상 132
삽입 현상 115
상대적 위계 26, 230
상대적인 위계 관계 10, 203
상대적인 음운론적 강도 230

상보적 분포 20, 21
상승적 이중모음 55
상향 이중모음 60
생략 현상 132
생산성 82, 167, 168, 172
생성방언학 6
생성음운론 3, 6, 28
서남방언 16, 18, 203
서법상의 차이 27
서산지역어 137
선택 규칙 116
설측음 21
설탄음 21
성절모음 115
성절적 핵모음 55
성조 27, 157
성조론 117
수식어 경계 29
수의적 적용 3
수의적인 규칙 6
수직적 조화 32
수직적 체계 32
순수자음 208, 222
순음 60, 61, 100, 102, 146, 147, 194, 195, 197, 200, 212
순자음 147, 191, 196
순행동화 154, 221

ㅇ

'-아>-어'의 변화 과정 32
알타이 공통조어 47
알타이 제어 189
약모음 117, 149, 150
약자음 149
양방향성 31
양성모음 33, 111, 139, 149, 192, 218
양성모음조화 48
양순 마찰음 20
양순음 20
어간 117, 125, 137, 195, 206
어간 모음 34
어간 통제 31
어간말 197
어간말음 127, 136, 141, 148, 178
어기 116, 117, 119, 141
어기말음 148
어두 20, 196
어말 195
어미 117, 137, 141, 206
어미두음 127, 132
'-어>-아'의 음성모음화 과정 51
'ə>i'의 모음 상승 규칙 138
ə-탈락 137
ə-탈락 규칙 119, 138, 142
ə-탈락 현상 139
ə/a-탈락 규칙 141, 142
어휘 233
어휘 형태소 138
어휘부 169
어휘소 169
어휘적 대응 5
어휘화 63, 130, 168, 181, 191, 193, 201, 209, 216
어휘확산 9
억양 27
언어습득 과정 73
언어지도 4
언중 225
'e>i'의 모음 상승 규칙 39

연구개 마찰음 20
연구개음 20, 69, 73, 74, 94, 110, 144, 216
예언성 201
'o>u'의 변화 과정 48
완전 단어 경계 29
y-계 이중모음 68, 71
y-탈락 61
y-형성 85
용비어천가 48
용언 121, 127, 137, 160, 231
우연한 빈칸 13, 58
u-탈락 92, 93, 146
u-탈락 현상 147
운소 27
운소목록 10, 27
운율음운론 27
울림도 111, 113, 122, 148, 208
움라우트 현상 13, 14, 108, 133, 153, 154, 160, 166, 168, 171, 178, 180, 185, 186, 221, 230, 231, 232
원분절음 47
원순모음 26, 67, 204, 230
원순모음화 현상 67, 92, 93, 134, 191 197, 200, 201, 202, 206, 208, 210, 212, 213, 214, 218, 219, 223, 224, 226, 230
원순성 17, 191, 212
월성지역어 157, 203
위계 109, 208
위계 관계 150
위치 강도 148, 149, 202, 208
유기성 22
유기음 22, 200
유성음 20
유음 119, 120, 125, 148, 216, 222
유음 탈락 규칙 24, 120, 122
유표항(유기성에 의한) 22, (긴장성에 의한) 22
으-변칙 용언 134
i-두음 탈락 규칙 117, 118, 119, 121, 122, 125, 136, 201
i-두음 탈락 현상 116
'i→ə'의 모음 하강 규칙 138
i-탈락 현상 116, 119, 120, 130, 134, 136
'음 : 양' 32
음성규칙 6
음성도표 122, 208
음성모음 36, 32～54, 113, 192, 218, 219
음성모음화 50, 51
음성적 동기 31
음성학 108, 117, 147, 200
음성학적 동기 32, 192
음성학적 차이 61, 62
음성형 108
음소 191
음소목록 10, 15
음소배합론 6
음소적 경계표시 29
음운 16, 20, 109
음운 변동 201
음운경계 154
음운과정 (phonological process) 3
음운규칙 2, 3, 4, 82, 194, 230, 233
음운론적 강도 3, 8, 13, 92, 109, 113, 116, 121, 122, 132, 138, 139, 140, 147, 148, 187, 202, 230
음운론적 기능 222
음운론적 어휘화 168
음운론적 현상 229

음운론적인 강도의 위계 139
음운부 28
음운사 221
음운체계 5, 109, 125, 149, 187, 233
음운현상 2, 3, 56, 193, 201, 219, 230
음장 27, 28, 86, 157, 172
음절 24
음절 경계 29
음절말 20
음절의 핵모음 111
음절핵 55
음향음성학 25
의무적인 규칙 81
의미기능 133
의미론적 어휘화 168, 182
의미변별 10
의미의 분화 18
의미자질 132, 138
의성어 181
의태어 181
2단계 원순모음화 195, 197
2분법 25
'i' 모음 역행동화 153, 154
이중모음 23, 55~60, 65, 66, 94, 110, 111, 130, 144, 154, 166, 195, 231
이중모음의 분포제약 13, 56, 71, 109, 150
이중모음의 실현제약 110, 146
이중모음의 연결제약 3, 231
이중모음화 55
i-탈락 74, 85, 143
i-탈락 규칙 74, 75, 84, 86, 93, 160
이화작용 92, 110
이화현상 109, 218
1단계 원순모음화 195, 202
일방향성 조화 32
일상적인 발화 106, 128, 130, 133
임의 통사 경계 29
입력부 조건 2, 74, 125, 144, 160, 168, 182, 214, 226
잉여성 23, 61, 83, 132

ㅈ

자립분절 음운론 27, 31
자연발화 229
자연부류 208
자연부류의 형성 25
자음 21
자음군 212
자질 변경 규칙 24
자질 중복 회피 현상 111
자질명세 10, 25
자질의 위계 관계 13
자질의 중복체 147
장모음 83
장음 83
재구조화 108
재약 조건 187
재어휘화 69, 152, 154, 157, 183, 224
재조정 94
저모음화 규칙 118
저설 움라우트 153
저설모음 25, 26, 140, 149, 230
전남방언 199, 205
전남방언권 17
전라방언 196
전북방언 1, 17, 234
전설 움라우트 153
전설계의 단모음 166

전설고모음 145
전설모음 113, 140, 145, 187, 228
전설모음화 187, 221, 228
전설성 187
전설화 93
전주지역어 92, 172
'전 : 후'의 대립 32
젊은층 118
접미사 196
접사 38, 83, 182
접사 경계 29
접촉지역어 7
제보자 9, 229
제약 2, 154, 203
제약 조건 104, 155, 172
제주도방언 203
조사 116, 117, 127, 132, 137, 141
조사의 두음 139, 148
조음 위치 17
조음상의 부자연스러움 115
조음음성학 188
조음의 편이 222
조음적인 강도 122, 148
조화과정 31, 47
조화기능 34, 149, 231
조화기능의 상실 49
조화의 방해자 47, 48, 49
조화의 비수행자 47, 48, 49
조화의 확산자 47, 48, 49
조화자질 31, 32, 48
조화자질의 결합 단위 31, 32, 47
조화자질의 확산 방법 49
존재성 132
존칭어 63
주격 195
주제격 117, 118, 119, 137, 212
중가 규칙 117, 137, 138
중가 현상 117
중간형 117
중간음 15
중년층 118
중모음 92
중부방언 18, 65, 66, 195, 198, 199, 203, 225
중설모음 25, 149
중성모음 32~54, 231
중세국어 1, 31, 117, 160, 192, 195, 196, 204, 221
중앙어 97, 116, 130, 160, 214, 219
중화 20
중화력 48
중화현상 208
지리적인 분화상 229
지배자질 3, 13, 14, 148, 187, 189, 208
지역적 분포상 94
지역적 분화상 1
진열지도 5, 233
진원지 213
진해지역어 157

ㅊ

채록 229
처격 130, 227
처격조사 138
처소성 132
첩어 184
청각상의 부자연스러움 115
체계내적인 요인 57
체계적인 빈칸 13, 57, 65

체언 82, 117, 132, 137, 145, 160, 167, 180, 231
체언말 마찰음화 227
체언말 자음군 171
체언말음 120, 121, 128, 132, 137, 138, 145, 212, 226
최소대립짝 18, 21, 22, 28
추상성 2, 73, 138, 144, 201, 203
추상적인 기저형 197
축약 71, 78, 160, 188
축약 현상 88, 167, 231
출력부 16, 151, 168, 191, 193, 195, 201, 209
출현 관계 85
출현 순서 188
충남방언 18, 57, 138, 154, 221
층렬 27
층위 29
치음 17, 18
치조음 20, 221
치찰음 20, 59, 62, 73, 83, 84, 86, 104, 110, 119, 143, 221, 222, 226, 228
치찰음화 14, 221, 228

ㅋ

cover feature 25

ㅌ

타당성 6, 10, 202
토이기어 139
통사구성 133
통사론적 구성 27, 128, 130, 132, 133, 225
통사론적 범주화 226
통사부 28, 29
통사적 구성 132
통시성 1, 203
통시적인 면 74
통시적인 변화 35
통시적인 음운규칙의 출력부 157
통시적인 중간 단계 생략 154, 166
통시태 201
통제 범위 32
통합적인 음운현상 5
투명 8
투명한 분절음 47

ㅍ

파생 182
표기규약 109
표면음성층위 67, 179
표면음성제약 2, 3, 58, 67, 179
표면음성형 3, 6, 14, 15, 16, 38, 73, 78, 80, 83, 94, 118, 120, 121, 125, 134, 138, 171, 209
표면형 179
표준어 168
피동 182
피동화음 3, 4, 52, 82, 104, 106, 144, 148, 170, 171, 174, 191, 197, 222
필수적 적용 3
필수적인 규칙 6

ㅎ

h-구개음화 61
h-탈락 규칙 24

하강적 이중모음 55
하향 이중모음 67
한자어 62, 170
한자어 경계 29
합병 89, 100, 136, 145
해석지도 233
핵모음 56, 61, 67
핵음절 모음 93
현대국어 1, 17, 31, 218
현재형어미 117
현행 표기법 200, 201
형태론적 구성 128, 130, 133, 182
형태론적 이휘화 168
형태소 2
형태소 경계 29, 92, 118, 119, 130, 154, 186, 208, 219
형태소 구조규칙 2
형태소 구조제약 2, 3, 4, 13, 23, 56, 57, 65, 67, 157, 168, 179, 204, 233
형태소 구조조건 6
형태소 내부 2, 16, 86, 125, 228
형태소 연결 위치 2, 13, 119, 148, 149, 181, 185
형태소 연결제약 56
형태음소론 5
화석화 225
확산과정 14
활음 23, 55, 56, 61, 62, 73, 83, 94
활음 탈락 24, 55, 56, 71, 72, 84, 107, 202, 230, 231
활음 탈락 규칙 86, 104, 134
활음 탈락 양상 108
활음 탈락 현상 102
활음 형성 55, 56, 72, 74, 84, 99, 100, 141, 187, 202, 230, 231
활음 형성 규칙 79, 82, 83, 85, 93, 99, 134, 147
활음의 분포제약 100
활음화 35, 73, 78, 81, 84, 93, 94, 97, 98, 100, 138, 141, 142, 143, 146, 212
후두과도음 23
후설 움라우트 153
후설고모음 202
후설모음 140, 149, 187, 228
후음 94
후행 어휘 삭제 규칙 47

□ 저자 약력

- 1957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
- 1979년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료
  문학석사(1983), 문학박사(1989)
- 전북대, 군산대 강사

방언분화의 음운론적 연구

1989年 7月 25日 初版印刷
1989年 7月 30日 初版發行



著者 蘇 江 春
發行人 朴 泰 根
組版印刷 成東文化社
製冊 堺成製册社

發行處 翰信文化社
서울特別市 城東區 君子洞 329—4
登錄：1973年 6月 25日 No. 4—18
電話：244-1520, 8905 · 247-3038

〈著作權法에 依해 複寫를 禁함〉 定價 4,500원